연구보고 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신동훈 · 이정민 · 홍명기 · 이용해 · 임선아 · 김지혜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저 자 **신동훈, 이정민, 홍명기, 이용해, 임선아, 김지혜**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홍명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이용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_임선아(전북대학교 교수)
_김지혜(서강대학교 조교수)
연구보조원_박소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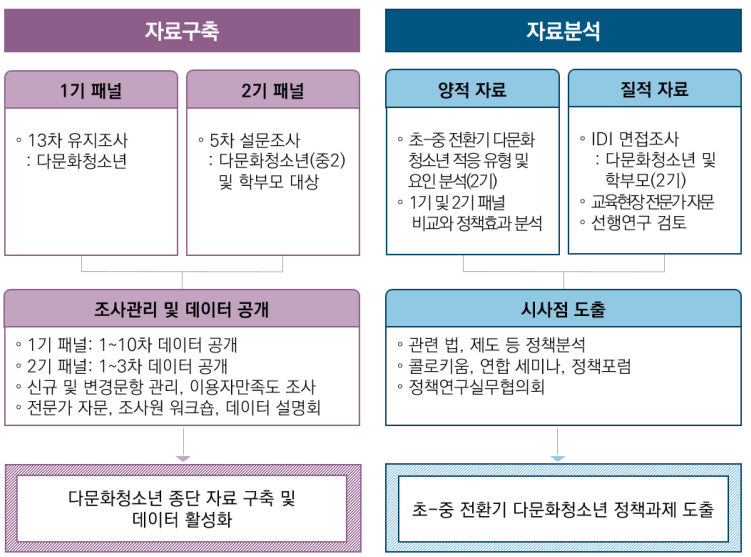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2023년도 중점목표는 종단자료 구축(1기 패널 유지조사, 2기 패널 5차년도 추적조사)과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근거기반 정책 수립 및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
- 구축된 자료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함.

■ 연구내용

- 다문화청소년 종단자료 구축 및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발달 양상 분석 및 정책방안 모색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경험 및 발달 양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방향 검토 및 분석

●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은 ① 설문문항의 검토와 수정·보완, ②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 이해, ③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한계, ④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총 15회 실시함.

● 종단조사

- 1기 패널(2011년 구축, 13차) 유지조사 및 2기 패널(2019년 구축, 5차) 추적조사

● 심층면접조사

- 2기 패널 청소년 및 어머니 대상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 내 관계와 활동, 사회적 연결망, 정책적 요구 등을 주제로 면접을 실시함.

● 심화분석

- 2기 패널의 1~4차 자료를 통해 발달 양상을 분석함.
- 2기 패널과 1기 패널자료(2014년 조사)를 비교·분석을 실시함.
-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 유형화 및 예측요인 탐색,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양상 및 영향요인 도출을 위한 분석을 실시함.

● 기타

- 콜로키움은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특성과 성장 및 진로발달의 이해 제고를 위해 2회 실시함.
- 조사원 대상 간담회 및 워크숍은 패널유지 및 데이터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2회(간담회 1회, 워크숍 1회) 실시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 실태 파악 및 연구 방향성 논의를 위해 서울시 및 교육부와 2회 실시함.
-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진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연합 세미나, 자료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설명회,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선행연구 분석
- 초-중 전환기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환경적 변화는 청소년의 심리·정서 불안,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에 영향을 미침.
- 다문화청소년은 짧은 한국어 학습기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전환기 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정책 분석
- 국내법과 공공정책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 및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적용범위가 상이하여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일부 법령은 어려움을 지원의 근거로 설정하고 있어 사후적 지원에 집중될 위험성이 존재함. 선제적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고려되어야 함.

● 패널자료 분석
- 학교공부의 어려움은 초-중 전환기에 가속화되며, 학교성적의 급락을 야기함.
- 학교안·밖에 도와줄 어른이 있는 경우가 8년 사이 각각 1.8배, 1.4배 증가함.
- 초4~중1까지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중간유지',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의 3개 집단으로 구분됨.
-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은 학교적응이 다른 집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음에도 타집단에 비해 낮은 삶의 만족과 높은 우울수준을 보임.
-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인 정체성과 진로발달 간 연관이 있으며, 한국사회 포용성 인식과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연관성이 드러남.

● 심층면접자료 분석
- 다문화청소년은 초-중 전환기에 가족과 친구 관계, 학업, 진로 탐색 및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교 참여도 이전보다 낮아짐.
- 전환기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시점과 대상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설계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원활한 초-중 전환기 이행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4가지 원칙(① 선제적 지원, ② 다차원적 지원, ③ 차별없는 지원, ④ 지속가능한 지원)을 설정하고 총 5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음.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원칙

● 징검다리 과정 개선

- 지역단위에서 학교배정과 관계없이 지역 내 중학교 진학 예정인 다문화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 운영시기를 4회로 확대, 운영기관을 학교뿐만 아니라 가족센터, 지역다문화교육센터, 레인보우스쿨 등을 포함하여 기존 징검다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핵심 정책제언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개선

- 지원대상 연령의 확대를 통해 기존 총 3회 제공되는 것에서 청소년기(만 12세 초과~만 14세 이하) 1회를 추가하여 총 4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 지원내용 확대를 통해 중학교 연령대를 추가하여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로서 적절한 학습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부모교육으로 다룰 것을 제안함.

●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제도 개선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신설조항 일부 수정, 재한외국인 자녀 지원을 위한 조항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함.

●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 단순한 교과내용의 번역 수준을 넘어 해외의 교과 학습, 수업 결손의 보충과 같은 활용법을 제안하며,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 관련 교과를 개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제고를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진로연계학기 활용

- 지역내 한국어 집중교육 기관,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해당 시기의 의미와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안과 밖에서 공동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차 례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3-일반08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추진체계 ····· 6
3. 연구내용 ····· 7
4. 연구방법 ····· 11
5.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 20
6.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 22
7. 보고서 구성 ····· 28

자료구축

Ⅱ.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개요 ····· 31
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관리 ····· 39

Ⅲ. 패널조사 및 관리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57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67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 80
4. 원패널 관리 ····· 84

자료분석

Ⅳ.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과 정책

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 97
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도 현황 ···· 105
3.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 110
4. 요약 및 시사점 ····· 135

Ⅴ. 패널자료 분석: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유형과 진로발달

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2기 패널 ··· 143
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경향성 8년 주기 비교: 1, 2기 패널 ····· 185
3.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탐색: 2기 패널 ····· 231
4.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 2기 패널 ····· 254

Ⅵ. 심층면접(IDI):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

1. 조사개요 ····· 295
2. 분석결과 ····· 304
3. 소결 ····· 370

Ⅶ.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

1. 정책제언 도출 방법 ····· 377
2.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379
3.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안) ····· 392

참고문헌 ····· 403

부 록 ····· 425

표 목차

표 Ⅰ-1. 2기 패널 청소년용 설문지 주요 조사영역 및 내용 (2019년~2023년) ····· 8
표 Ⅰ-2. 2기 패널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2019년~2023년) ····· 8
표 Ⅰ-3. 1기 패널 대상 유지조사 주요 내용 ····· 10
표 Ⅰ-4.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및 추진 내용 ····· 12
표 Ⅰ-5. 2기 패널 조사 개요 ····· 14
표 Ⅰ-6. 심층면담(면접) 개요 ····· 15
표 Ⅰ-7. 콜로키움 개요 ····· 16
표 Ⅰ-8. 조사원 간담회 및 워크숍 개요 ····· 16
표 Ⅰ-9.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및 추진 내용 ····· 17
표 Ⅰ-10. 세미나 개요 및 내용 ····· 18
표 Ⅰ-11. 데이터 설명회 개요 및 내용 ····· 18
표 Ⅰ-12. 청소년정책 포럼 개요 및 내용 ····· 19
표 Ⅰ-13. 외국인주민 자녀 거주 상위 20개 시·군·구(2011, 2021년) ···· 27
표 Ⅰ-14.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 28
표 Ⅱ-1. 데이터 활용실적 ····· 34
표 Ⅱ-2. 주요어 빈도 ····· 36
표 Ⅱ-3. 청소년용 신규문항 ····· 40
표 Ⅱ-4. 희망하는 교육수준(신규) ····· 41
표 Ⅱ-5. 진로준비역량(신규) ····· 42
표 Ⅱ-6.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신규) ····· 43
표 Ⅱ-7. 사회적 고립(외로움)(신규) ····· 44
표 Ⅱ-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신규) ····· 45
표 Ⅱ-9. 비행(수정) ····· 46
표 Ⅱ-10. 학부모용 신규문항 ····· 47
표 Ⅱ-11. 학부모 진로준비활동(신규) ····· 48
표 Ⅱ-12.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신규) ····· 49
표 Ⅱ-13. 학부모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신규) ····· 49

표 Ⅱ-14. 평소 자주 어울리는 지인(수정) ····· 50
표 Ⅱ-15. 건강상태 ····· 51
표 Ⅱ-16. 전반적 만족도 ····· 52
표 Ⅱ-17. 행복감 ····· 52
표 Ⅱ-18. 평소 여유 시간 ····· 52
표 Ⅱ-19. 평소 외출 정도 ····· 53
표 Ⅱ-20. 사회적 고립 ····· 54
표 Ⅱ-21. 휴학 사유 ····· 54
표 Ⅲ-1. 1기 패널 지역별 모집단 현황 ····· 58
표 Ⅲ-2. 1기 패널 지역별 표본 할당 현황 ····· 59
표 Ⅲ-3. 1기 패널 원패널 대상자 성별 분포(2011년~2022년) ····· 60
표 Ⅲ-4. 1기 패널 참여 지역별 분포(2011년, 2022년) ····· 61
표 Ⅲ-5.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 (2021~2023년) ····· 62
표 Ⅲ-6. 2기 패널 표본설계 ····· 67
표 Ⅲ-7. 2기 패널 모집단 분포 현황 ····· 68
표 Ⅲ-8. 2기 패널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 ····· 69
표 Ⅲ-9. 2기 패널 시·도 및 다문화가족 유형별 구축 현황 ····· 70
표 Ⅲ-10. 2기 패널 다문화가족 유형별 조사 참여가구 현황 (2019년~2022년) ····· 71
표 Ⅲ-11. 2기 패널 성별 청소년 참여 현황(2019년~2022년) ····· 71
표 Ⅲ-12.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3년) ·· 73
표 Ⅲ-13.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3년) ·· 77
표 Ⅲ-14. 2019~2022년 패널별 설문조사(TAPI) 소요시간 ····· 81
표 Ⅲ-15. 연도별 조사대상 및 실사기간, 최종결과 공표일 ····· 82
표 Ⅲ-16. 조사원 교육 일정 ····· 83
표 Ⅲ-17. 원패널 관리 방법 및 내용 ····· 84
표 Ⅲ-18. 최근 3년 간 연구진 생명윤리교육 이수 현황 ····· 86
표 Ⅲ-19. 1기 패널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 88
표 Ⅲ-20. 1기 패널 청소년 진로별 패널 이탈 현황(2022년) ····· 88
표 Ⅲ-21. 1기 패널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전체) ····· 89
표 Ⅲ-22. 1기 패널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2022년) ····· 90
표 Ⅲ-23. 2기 패널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 91
표 Ⅲ-24. 2기 패널 유형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 91
표 Ⅲ-25. 2기 패널 패널 이탈 사유(전체) ····· 92
표 Ⅲ-26.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94

표 Ⅳ-1.「다문화가족지원법」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 106
표 Ⅳ-2.「청소년복지지원법」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 107
표 Ⅳ-3.「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 107
표 Ⅳ-4.「진로교육법」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 108
표 Ⅳ-5.「초·중등교육법」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 108
표 Ⅳ-6. 다문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초·중등교육법」제28조의2 신설내용 ····· 109
표 Ⅳ-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다문화청소년 관련 과제 (국정과제 48번) ····· 110
표 Ⅳ-8.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다문화청소년 관련 과제 (국정과제 84번) ····· 111
표 Ⅳ-9.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2 세부과제 내용 ····· 118
표 Ⅳ-10.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 122
표 Ⅳ-11. 징검다리 과정 운영결과 및 계획 ····· 124
표 Ⅳ-12.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실적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 126
표 Ⅳ-13. 레인보우스쿨 유형/분야별 운영 목적 및 내용 ····· 127
표 Ⅳ-14. 일반형 및 찾아가는RS 레인보우스쿨 참여자 특성별 현황 ···· 128
표 Ⅳ-15.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주요 결과 ····· 138
표 Ⅴ-1. 다문화청소년 4년간 발달추이 분석 영역 ····· 144
표 Ⅴ-2. 월 평균 소득수준 ····· 146
표 Ⅴ-3.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 147
표 Ⅴ-4.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 148
표 Ⅴ-5. 학교생활 ····· 150
표 Ⅴ-6. 학교성적 수준 ····· 155
표 Ⅴ-7. 성적에 대한 만족도 ····· 156
표 Ⅴ-8. 자아존중감 ····· 158
표 Ⅴ-9. 삶의 만족도 ····· 159
표 Ⅴ-10. 친한 친구 수 ····· 160
표 Ⅴ-11. 친구의지지 ····· 162
표 Ⅴ-12. 부모의지지 ····· 163
표 Ⅴ-13. 교사의지지 ····· 164
표 Ⅴ-14. 한국인정체성 ····· 170
표 Ⅴ-15. 문화적응스트레스 ····· 171
표 Ⅴ-16. 이중문화수용태도(전체) ····· 172
표 Ⅴ-17. 이중문화수용태도(한국문화) ····· 173

표 Ⅴ-18.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 174
표 Ⅴ-19.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 176
표 Ⅴ-20. 키 ····· 177
표 Ⅴ-21. 몸무게 ····· 178
표 Ⅴ-22. 건강평가 ····· 179
표 Ⅴ-23. 다문화청소년 4년간 발달추이 결과 요약 ····· 183
표 Ⅴ-24. 다문화청소년 1기와 2기 패널 간 비교 분석 영역 ····· 186
표 Ⅴ-25. 배경변인별 다문화청소년 빈도 ····· 188
표 Ⅴ-26. 삶의 만족도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 190
표 Ⅴ-27. 사회적 위축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 192
표 Ⅴ-28. 우울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 193
표 Ⅴ-29. 희망교육수준 패널 간 비교 ····· 195
표 Ⅴ-30. 진로태도 결정성 패널 간 비교 ····· 196
표 Ⅴ-31.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 198
표 Ⅴ-32.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 199
표 Ⅴ-33. 부모의지지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 201
표 Ⅴ-34. 학교생활 패널 간 비교 ····· 203
표 Ⅴ-35. 친구의지지 패널 간 비교(5점 척도) ····· 204
표 Ⅴ-36. 교사의지지 패널 간 비교(5점 척도) ····· 206
표 Ⅴ-37. 학교 안/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패널 간 비교 ···· 208
표 Ⅴ-38.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간 비교 ····· 209
표 Ⅴ-39. 학업중단 위험요인: 생활 및 태도(4점 척도) ····· 211
표 Ⅴ-40.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 패널 간 비교 ····· 213
표 Ⅴ-41. 국적에 대한 인식 패널 간 비교 ····· 215
표 Ⅴ-42. 문화적응 스트레스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 217
표 Ⅴ-43. 국가정체성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 218
표 Ⅴ-44. 이중문화수용태도 패널(전체) 간 비교(4점 척도) ····· 220
표 Ⅴ-45. 이중문화수용태도 패널(한국문화) 간 비교(4점 척도) ····· 221
표 Ⅴ-46. 이중문화수용태도 패널(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간 비교
(4점 척도) ····· 222
표 Ⅴ-47. 영역별 패널 간 차이 비교 ····· 225
표 Ⅴ-48. 배경변인에 따른 패널 간 차이 비교 ····· 228
표 Ⅴ-49. 다문화청소년 적응 경향성 8년 주기 경향성 결과 요약 ··· 229
표 Ⅴ-50. 학교생활 구인 측정도구 ····· 233
표 Ⅴ-51. 사용 변수 측정 문항 내용과 신뢰도 ····· 235
표 Ⅴ-52. 1차년도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 238

표 Ⅴ-53. 2차년도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 239
표 Ⅴ-54. 3차년도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 240
표 Ⅴ-55. 4차년도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 241
표 Ⅴ-56. 학교생활과 결과변수간의 상관관계 ····· 242
표 Ⅴ-57.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 지수 ····· 243
표 Ⅴ-58.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 ····· 245
표 Ⅴ-59. 변량분석 결과 ····· 249
표 Ⅴ-60.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 유형 분류 및 예측요인, 결과변인 결과 요약 ····· 253
표 Ⅴ-61. 한국 중학생 희망직업(2015-2022) ····· 260
표 Ⅴ-62. 청소년(9~24세) 추계 인구 및 다문화학생 수 ····· 261
표 Ⅴ-63. 가구 유형별 부모의 출신 국가별 다문화학생(2022) ····· 264
표 Ⅴ-64. 기술통계량(continuous variables) ····· 277
표 Ⅴ-65. 기술통계량(categorical variables) ····· 278
표 Ⅴ-66. 다문화 가구유형별 기술통계량: 가정배경, 사회적관계 및 역량 ····· 280
표 Ⅴ-67. 다문화 가구유형별 어머니의 출신 국적 분포 ····· 281
표 Ⅴ-68. 다문화청소년 정체성에 따른 기술통계량: 성별 및 가구배경 ··· 282
표 Ⅴ-69. 다문화 가구유형별 청소년 정체성 분포 ····· 283
표 Ⅴ-70. 교육포부, 진로결정성, 희망직업에 대한(선형 및 로짓) 회귀분석 ····· 284
표 Ⅴ-71. 한국 및 타국 거주희망과 학업희망 수준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 286
표 Ⅴ-72.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 패턴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 ···· 288
표 Ⅴ-7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92
표 Ⅵ-1. 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 297
표 Ⅵ-2. 심층면접 참여 다문화청소년 ····· 298
표 Ⅵ-3. 2기 패널 면접조사 대상 다문화 어머니 ····· 299
표 Ⅵ-4. 2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조사내용 ····· 300
표 Ⅵ-5. 2기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대상 조사내용 ····· 302
표 Ⅵ-6. 면접조사 일정 및 조사 대상자 수 ····· 303
표 Ⅵ-7. 가정생활 면접내용 분석결과 요약 ····· 320
표 Ⅵ-8. 학교생활 면접내용 분석결과 요약 ····· 344
표 Ⅵ-9. 지역사회 생활 면접내용 분석결과 요약 ····· 355

표 Ⅵ-10.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상황) 면접내용 분석결과 요약 ····· 364
표 Ⅵ-11. 정책적 요구 면접내용 분석결과 요약 ····· 369
표 Ⅵ-1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374
표 Ⅶ-1 세부 정책 과제 ····· 394
표 Ⅶ-2.「청소년복지지원법」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 398
표 Ⅶ-3. 다문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초·중등교육법」제28조의2 신설내용 ····· 399
표 Ⅶ-4.「다문화가족지원법」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 399
표 Ⅶ-5.「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내 진로연계교육 관련 내용 ····· 402

그림 목차

그림 Ⅰ-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연구추진체계 ····· 6
그림 Ⅰ-2. 1차 콜로키움 개최 ····· 16
그림 Ⅰ-3. 2차 콜로키움 개최 ····· 16
그림 Ⅰ-4.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 20
그림 Ⅰ-5. 다문화청소년 관련 개념 간 관계 ····· 21
그림 Ⅰ-6.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6~2021년) ····· 22
그림 Ⅰ-7.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율(2015~2022년) ····· 23
그림 Ⅰ-8.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22년) ····· 24
그림 Ⅰ-9.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22년) ····· 25
그림 Ⅰ-10. 학교급 및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20~2022년) ····· 26
그림 Ⅰ-11.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1, 2021년) ····· 26
그림 Ⅱ-1. 연도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및 연구주제 ····· 32
그림 Ⅱ-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조사연혁(2011년~) ····· 33
그림 Ⅱ-3.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2017년~2023년) ····· 36
그림 Ⅱ-4. 주요어 출현 빈도 연도별 추이(2017년~2023년) ····· 38
그림 Ⅲ-1. 1기 패널 패널 유지율 ····· 60
그림 Ⅳ-1.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의 추진구조 ····· 115
그림 Ⅳ-2.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내용 ····· 117
그림 Ⅳ-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내용 ····· 119
그림 Ⅳ-4.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내용 ····· 121
그림 Ⅳ-5. 학부모 교육자료(경상북도, 충청북도) ····· 130
그림 Ⅴ-1. 월 평균 소득수준 변화 추이 ····· 146
그림 Ⅴ-2.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변화 추이 ····· 147
그림 Ⅴ-3.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변화 추이 ····· 149
그림 Ⅴ-4. 학교생활 변화 추이 ····· 150
그림 Ⅴ-5.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단위: %) ····· 151
그림 Ⅴ-6.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 유무(단위: %) ····· 152
그림 Ⅴ-7.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단위: %) ····· 153
그림 Ⅴ-8. 학교공부에 어려운 점(1순위+2순위+3순위)(단위: %) ···· 154

그림 Ⅴ-9. 학교성적 수준 변화 추이 ····· 155
그림 Ⅴ-10.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 ····· 157
그림 Ⅴ-11.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 ····· 158
그림 Ⅴ-12.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 ····· 159
그림 Ⅴ-13. 친한 친구 수 변화 추이 ····· 161
그림 Ⅴ-14. 친구의지지 변화 추이 ····· 162
그림 Ⅴ-15. 부모의지지 변화 추이 ····· 163
그림 Ⅴ-16. 교사의지지 변화 추이 ····· 164
그림 Ⅴ-17.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 여부(단위: %) ····· 165
그림 Ⅴ-18.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복수응답)(단위: %) ····· 166
그림 Ⅴ-19.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 여부(단위: %) ····· 167
그림 Ⅴ-20.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복수응답)(단위: %) ····· 168
그림 Ⅴ-21. 국적에 대한 인식(단위: %) ····· 169
그림 Ⅴ-22. 한국인정체성 변화 추이 ····· 170
그림 Ⅴ-23.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 추이 ····· 172
그림 Ⅴ-24. 이중문화수용태도(전체) 변화 추이 ····· 173
그림 Ⅴ-25. 이중문화수용태도(한국문화) 변화 추이 ····· 174
그림 Ⅴ-26.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변화 추이 ···· 175
그림 Ⅴ-27.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변화 추이 ····· 176
그림 Ⅴ-28. 키 변화 추이 ····· 177
그림 Ⅴ-29. 몸무게 변화 추이 ····· 178
그림 Ⅴ-30. 건강평가 변화 추이 ····· 179
그림 Ⅴ-31. 연구모형 ····· 237
그림 Ⅴ-3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발달적 변화양상 ····· 244
그림 Ⅴ-33. 2018년 국가별 진로 희망 집중도(%) ····· 256
그림 Ⅴ-34. 사회경제적 지위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전문가·관리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비율(%) ···· 258
그림 Ⅴ-35. 연도별 다문화학생 수 및 청소년 인구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명, %) ····· 262
그림 Ⅴ-36.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율(%) ····· 263
그림 Ⅴ-37. 가구 유형별 다문화학생 비율(2022)(%) ····· 265
그림 Ⅴ-38. 부모의 출신 국가별 다문화학생 비율(2022)(%) ····· 265
그림 Ⅴ-39. 다문화 가정 학생의 성별 국적 정체성 인식(2011~2016) ··· 267
그림 Ⅴ-40. 연구 모형 ····· 271
그림 Ⅵ-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과 영향 요인 ····· 371
그림 Ⅷ-1. 제언 도출 과정 ····· 378

그림 Ⅷ-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분석결과 도식화 ····· 391
그림 Ⅷ-3.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원칙 ····· 392
그림 Ⅷ-4.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체계 ····· 395
그림 Ⅷ-5. 다문화청소년 관련 개념 간 관계 ····· 398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6.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7. 보고서 구성

1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의 다문화현상은 점차 사회전반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021년 11월 기준 약 213만 명으로 국내 주민등록인구의 4.1%에 해당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약 53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절대적인 수치로 비견하면 충남(218만 1,835명)의 인구 규모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 수는 2019년(약 222만 명)과 비교해 9만 명 줄어들어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이러한 감소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유형에서 주로 나타났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인원이나 외국인주민 자녀는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31.). 구체적으로 국내출생 외국인주민의 자녀수는 2021년 11월 기준 273,722명으로 2019년 251,966명과 비교해 21,756명 증가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과거 국내출생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주를 이루었던 것과 비교해 근래 들어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지형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중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이 77.2%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 대비 그 비율(78.7%)이 다소 감소했던 것과 비교해,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2018년 12.8%에서 2019년 14.9%, 그리고 2020년 16.6%로 증가하는 등 절대적인 수는 소수일 수 있으나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 인구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1년 국내에

1) 1장은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을 중심으로 1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시작하고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확장하여 2019년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뿐만 아니라 중도입국가정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에 해당하는 청소년 등을 포함한 2기 패널을 새롭게 구성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2023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도 1, 2기 참여자를 추적해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1기 패널에 대한 추적조사는 예산 상 한계로 본조사로 진행하기 어려워 유지조사로 전환하였고, 2기 패널은 본조사로 진행하되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적합한 문항을 구성해 설문하였다.

다문화사회 진행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각 연령대별로 인원 증가 추이가 안정적이며, 특히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주민 자녀(국내출생,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등)의 연령분포는 초등학교 이하 미취학 연령(만 6세 이하)이 114,555명으로 외국인주민 자녀 중 39.6%를 차지하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초등학생 연령(만 7세~12세)이 108,953명(37.6%), 중고등학생 연령(만 13세~18세)이 66,021명(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초등학생 이상 연령이 43.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2021년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이 60.4%로 학령기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교육부 자료 기준 2022년 4월, 초등학생이 111,640명, 중학생이 39,714명, 고등학생이 16,744명, 각종학교 547명 등 총 168,645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3.2%를 차지하였는데 이 가운데 중학생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5,764명 증가해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08.31.). 이는 중학교에 진학한 다문화학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드러내며, 학교급 전환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 다문화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구나 과거 저학년 학생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점차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다문화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성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국내에서 초-중등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분석한 경험적인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러한 어려움이 비다문화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인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중 전환기 특히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심리·사회, 학교생활, 진로영역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22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수집한 2기 패널자료를 포함해 기존에 수집한 1기 및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진로발달 양상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양적연구로 포착하기 어려운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그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이 시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특정한 시기의 특수성에 집중하기보다 대상 그 자체의 취약성에 집중해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정책적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이나 내용 면에서 범위가 협소해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 "초·중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2023년 기준 11개 학교만이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학생 연령대의 다문화청소년의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기 패널 4차년도 조사를 중심으로 한 양적·질적 심층분석 결과와 정책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해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의 목적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1기 패널 유지조사, 2기 패널 5차년도 추적조사)함으로써 근거기반 정책수립 및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
- 구축된 자료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함.

2023년 중점목표

- 다문화청소년 종단자료 구축(1기 패널의 유지조사 및 2기 패널의 5차년도 추적조사)과 자료 활용 활성화
- 다문화청소년 전환기 발달 양상 분석
-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안 도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어려움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 출처: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2018), p. 6 수정

* 주: 이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국내외 출생자 구분 없이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2.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로 수행되었다.



그림 Ⅰ-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크게 자료구축과 자료분석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2023년 연구에서는 자료구축 측면에서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자료분석 측면에서는 초-중 전환기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1) 2기 패널 추적조사

이번 2023년 2기 패널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해당하므로 5차 추적조사는 이 시기에 주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나 교육제도 상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중심으로 문항을 추가 구성하였다. 또한, 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도 기존 문항을 유지하여 조사하였다. 추적조사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되 전문가 자문과 의견조사 등을 통해 문항의 수정이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설문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4차 조사까지 패널 유지율은 83.5%로 양호한 편이지만, 외국인가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전략을 조사업체 측과 논의하여 개선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 대상 조사의 주요 내용은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개인요인, 환경요인, 기타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본 구성은 아래의 〈표 Ⅰ-1〉과 〈표 Ⅰ-2〉와 같다. 다만, 2019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축한 2기 패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자녀를 조사에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아닌 경우 한국에서의 경험이나 국적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다. 학부모 조사의 경우 배경변인, 개인요인, 문화특성, 자녀양육, 다문화지원정책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문화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조사의 취지에 따라 상당수는 자녀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23년 기준 2기 패널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한 단계이다. 따라서 2023년 조사에서는 영역별 조사항목을 조사하되, 중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2장 2절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관리」에서 제시하였다.

표 Ⅰ-1. 2기 패널 청소년용 설문지 주요 조사영역 및 내용(2019년~2023년)

구분		조사항목
대영역	소영역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언어 능력	부모의 외국인 여부,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 교육,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자신의 한국어 실력, 입국 후 학교 입학 전 한국어 배운 경험 및 장소
	이중문화 경험	국적에 대한 인식,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및 횟수,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개인요인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건강평가, 스트레스, 자존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현재 걱정거리, 차별경험 피해여부 및 가해자, 차별경험 대처, 차별에 대한 생각, 친한 친구 수, 친한 친구 국적, **인권(*), 사회적 고립(외로움)(*)**
	인지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진로	희망교육수준, 희망직업, 학교 마친 후 일하고 싶은 나라,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상담)하는 사람, **진로준비역량(*),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환경요인	부모	부모의지지(교육적 지원 및 기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하루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방과 후 보호자 부재, 가정형편
	친구	친구의 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교사의지지, 학교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지역사회 지지망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중도입국	학교 관련	한국 오기 전 학교 경험, 한국 입학(편입) 학년,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미래 생활	국적취득 희망, 한국 거주 희망
기타	방과후 생활	방과후 활동,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등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2020: 111-113) 표 IV-24 수정

* 주: (*) 2023년 신규문항

표 Ⅰ-2. 2기 패널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2019년~2023년)

구분		조사항목
대영역	소영역	
배경변인	가족특성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 및 관계 만족도, 가정의 월평균 소득, 가정의 주요 소득원, 가정의 경제적 수준(가정형편)
개인요인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장소, 차별 대처,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대상별 피해 경험, 차별 대처 및 차별 사유, 자아존중감, 전반적 건강 상태,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문화특성	언어능력	모국어, 한국어 학습경험, 한국어 수준
	문화적응	주로 어울리는 사람,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유형

구분		조사항목
대영역	소영역	
자녀 양육	자녀교육 및 양육	자녀와 대화시 사용 언어,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한국 오기 전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함께 한 사람,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기간 및 소요 이유, 초등학교 입학 시기 및 입학이 늦어진 사유,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자녀 학교문제, 숙제지도 하는 사람,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선호하는 자녀 교육 방식, 방과후 교육(사교육 경험), **자녀 진로준비활동(*), 자녀의 자유학년(기)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양육관련 특성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부모효능감
	자녀 진학/진로 및 향후 희망 거주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다문화 지원정책	지원정책 태도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도, 자녀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선호하는 지원 방식

* 출처 : 양계민 외(2020: 113-114) 표 IV-25 수정

* 주: (*) 2023년 신규문항

2) 1기 패널 유지조사

성인으로의 이행 단계에 있는 1기 패널에 대한 본조사는 2020년과 2022년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2023년에는 예산상 본조사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유지조사로 진행하였다. 다만, 유지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성인 이행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몇몇 핵심적인 문항을 포함하고자 했다. 또한, 패널 이탈을 방지하는 목적이 큰 만큼, 기존 전화를 이용해 조사하던 방식에서 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다. 이번 1기 패널 유지조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학업이나 경제활동, 그리고 기타 심리사회적 상태로 지난 2021년 유지조사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기존 유지조사의 경우 객관적 상태를 주로 다루고 있어, 심리사회적 상태도 일부 포함해 조사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인 1기 유지조사의 조사 항목은 〈표 Ⅰ-3〉에 제시하였다.

표 Ⅰ-3. 1기 패널 대상 유지조사 주요 내용

영역	조사 항목
학업	최종 학교 및 졸업 여부, 진학 한 대학 및 전공, 현재 학적상태, 휴학 사유, **2023** 학년도 대학 진학준비 여부
경제활동	일 경험 여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월평균 수입, **부채(*)**
기타	현재 거주 형태, 현재 상황, **건강상태(*), 전반적 만족도(*), 행복감(*), 평소 여유 시간(*), 평소 외출 정도(*), 사회적 고립(*)**

* 주: (*) 2023년 신규문항

3) 조사관리 및 데이터 공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변경에 따른 통계변경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엄밀한 수준의 데이터 클리닝 작업이 요청된다. 이번 2023년의 경우 1기 패널 조사 수준이 본조사에서 유지조사로 변경되는 까닭에 통계변경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데이터 클리닝 작업에서도 2022년 1기 패널이 본조사로 진행되어 시간 소요가 커졌다. 이와 별도로 자료공개 방식을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행 이용자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의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일정의 동의과정을 거친 후 곧바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여 데이터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종단조사의 특성상 정기적인 조사참여자 관리가 필요하다. 명절 선물과 감사의 편지를 발송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외 이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패널 유지 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4) 자료 분석

(1) 양적자료(기초분석 및 심화분석: 2기 패널 4차 추적조사)

양적 자료 분석은 2022년에 2기 패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 추적 자료를 활용했다. 조사기점 기준으로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으로 초-중 전환기 실태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초-중 전환

기 다문화청소년 적응 유형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과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초-중 전환기의 정체성의 변화와 진로발달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했다. 아울러, 2014년에 조사된 1기 패널(당시 중학교 1학년) 자료와 2기 패널 자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코호트 간 발달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 질적자료(2기 패널 IDI 및 전문가 자문)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기 조사 참여자(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IDI)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이주배경 유형(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자녀)과 거주지역 특성(외국인주민 유형별 밀집 수준)을 고려해 모집하였다. 이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학교교사, 장학사, 지역사회 기관 등을 포함하는 교육현장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정책방안 도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법,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중등교육과정 이행과 관련한 정책분석을 포함하며,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학교생활 적응 관련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콜로키움, 세미나, 정책포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진행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전환기 경험, 발달, 그리고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최근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 제도 등 정책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조사문항 검토 및 정책방안 도출과 관련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기관 및 대학 등 다문화 관련 학술전문가와 교원, 다문화청소년 지원 기관의 현장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을 포함하는 정책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 주제는 크게 4가지 구분된다. 첫째, 2023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1기(유지조사)와 2기(추적조사) 대상 설문문항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자문이 중심이며, 연구원 내·외부를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둘째,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발달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셋째,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앙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현황 및 한계를 살펴보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넷째,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표 Ⅰ-4.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및 추진 내용

회차	자문영역		전문가	일시
1차	설문지 수정 및 검토	2기 패널 청소년 및 학부모 신규문항 검토 및 타당성 논의	• 조혜영 교수(공주교육대학교)	2023.03.24
2차		2기 패널 청소년 및 학부모 신규문항 검토(서면)	• 문찬주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변수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혜원 교수(충남대학교) • 우현정 교사(선일중학교) • 윤현식 교사(동명중학교)	요청일 ~ 2023.04.28
3차		2기 패널 청소년 및 학부모 신규문항 수정내용 검토(서면)	• 이아라 부교수(국립경상대학교) • 유기옥 소장(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이승미 센터장(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김은정 장학사(경기도교육청) • 김지혜 교사(가야중학교)	요청일 ~ 2023.05.08
4차		1기 패널 유지조사 신규문항 타당성 논의 및 기존문항 검토(내부)	• 유민상·서고운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05.08
5차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질적연구 방향 설계	• 송효준 부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국가교육위원회) • 구하라 부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	2023.06.22
6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질적연구 조사내용	• 양경은 교수(성공회대학교)	2023.06.28

회차	자문영역		전문가	일시
7차	질적연구 설계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질적연구 방향 설계 및 내용구성	• 장혜림 교수(서울장신대학교)	2023.07.05
8차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 지원방안	• 유기옥 소장·이지은 팀장·임정문 팀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3.07.05
9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양상 이해 및 현장을 고려한 질적연구 방향 설계	• 임미은 교사(선일중학교) • 한경은 교감·박정은 교사·구서웅 교사 (군서미래국제학교)	2023.07.07
10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 지원방향 및 질적조사 내용	• 최효경 교감(대선초등학교)	2023.07.18
11차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관련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 지원방안	• 박정임 팀장·최경빈·김지원·류현교 팀원 (아산시가족센터 글로벌아동청소년팀)	2023.07.18
12차		질적분석을 위한 심층면접(IDI) 진행 및 분석방법 이해	• 이화조 박사(이화여자대학교)	2023.08.01
13차	현장의 정책 요구 파악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 권혜인 교사(청주중학교)	2023.09.06
14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특성 파악 및 정책 요구 파악	• 박지혜 교사·박성진 교사(경주한국어교육센터)	2023.09.22
15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 이승희 팀원(경주시가족센터)	2023.09.23

3) 종단조사

○ 2기 패널 5차 조사(중학교 2학년)

지난 2019년 1차 조사가 시작된 2기 패널은 최초 2,223가구로부터 2,245명을 모집해 시작되었으며 2차 조사(2020년)에서 중도입국가정 26가구를 추가해 표본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4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태블릿을 이용한 가구 방문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종단조사의 특성상 패널 이탈이 발생하는데 4차 조사에 1,877가구가 참여해 전체 표본 대비 83.5%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속참여 가구뿐만 아니라 2차~4차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 중 전화관리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가구를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Ⅰ-5. 2기 패널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고
모집단	2019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표집틀	2019 교육부 교육통계의 전국 초4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표본수	2019년 및 2020년에 구축된 2,249가구 (국제결혼자녀,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표집방법	기 구축된 패널 가구 중 2022년 조사에 참여한 1,877가구 및 재참여가 가능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5차년도 조사 실시	
조사방법	가구 방문면접조사	
자료수집방법	태블릿을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TAPI)	
조사시기	2023년 6월 ~ 10월	

* 출처 : 양계민 외(2020: 15) 표 I-4 수정

○ 1기 패널 13차 조사(23세)

지난 2022년 본조사로 실시된 1기 패널 조사는 예산의 부족으로 2023년에는 유지조사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성인 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몇몇 핵심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추후 예산이 확보될 경우 다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유지하는 목적을 포함한다.

4) 심층면접조사(IDI)

○ 조사내용 개요(조사항목 등)

이 연구에서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생활 영역(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활동과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2기 조사 참여자(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주배경 유형(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자녀)과 거주지역 특성(외국인주민 유형별 밀집 수준) 등에 따라 고르게 면담 참여자를 구성해 1: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IDI)을 실시하였다.

표 Ⅰ-6. 심층면담(면접)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2기 패널 중 면담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 및 학부모 중 대상 특성에 따라 고르게 섭외하고 패널 내 섭외가 어려운 경우 별도 섭외
면담참여자 수	■ 총 28명(다문화청소년 14명 / 학부모 14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이주배경 유형(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가정 자녀 및 학부모)과 거주 지역 이주민 밀집도 등에 따라 구분됨
면담방식	■ 1:1 심층면접(IDI)
면담 시간 및 횟수	■ 총 28명 각 90분 내외 1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분석을 위한 면담 녹취 및 자료 전사
면담자	■ NYPI 연구진, 외부 인력

5) 심화분석(2022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 분석)

심화분석에서는 2022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포함해 2기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2022년 조사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2기 패널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 발달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과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두 번째로 2기 패널의 진로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료를 동시에 활용해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정체성 간 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했다.

6) 기타

○ 콜로키움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의 성장 및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두 차례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학계와 교육전문가를 고르게 발표자로 섭외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조망하고자 했다.

표 Ⅰ-7. 콜로키움 개요

횟수	주요 내용	발표자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특성과 진로교육	김명숙 (서울오산중학교, 교사)	연구진, 원내 참석 희망 직원	3월 10일
2차	다문화학생의 성장과 지원실태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수)	연구진, 원내 참석 희망 직원	4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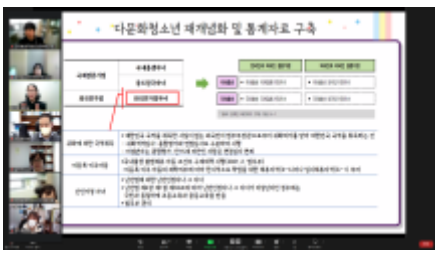


그림 Ⅰ-2. 1차 콜로키움 개최



그림 Ⅰ-3. 2차 콜로키움 개최

○ 조사원 대상 간담회 및 워크숍

종단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원은 패널유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과 조사업체에서는 조사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참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원을 대상으로는 실사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사 이전(6월) 조사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표 Ⅰ-8. 조사원 간담회 및 워크숍 개요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진행상 어려움 청취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원 간담회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5월
2회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실사 추진을 위한 조사원 워크숍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6월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정책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방향성을 논의함으로써 연구 산출물이 추후 정책 추진의 실질적 근거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청(7월 5일)과 교육부(7월 13일)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표 Ⅰ-9.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및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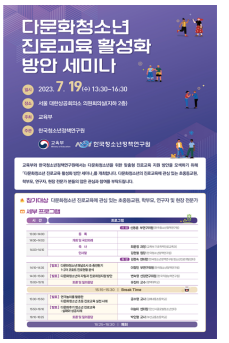
회차	주요 내용	참석자	일시
1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연구방향 및 서울시 지원 사업 및 방안 논의	• 조은경 팀장, 팜튀퀸화·리에브게니아 주무관(서울시청 가족다문화지원팀) • 김용만 팀장, 최해연 주무관(서울시청 외국인주민사업팀)	2023.07.05
2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교육부 지원 사업 및 지원방안 논의, 실태분석 요구내용 협의	• 전상희 사무관, 김수정 주무관(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07.13

○ 세미나 개최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사업」과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연합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교육현장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우수사례 발굴 및 진로교육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촉진하고, 진로교육 담당자 이해도 제고를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7월 19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4명의 발표자와 2명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표 Ⅰ-10. 세미나 개요 및 내용

횟수	주요 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일	비고
1회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제고	연구진, 진로 및 다문화 교육전문가(교사, 장학사 등)	7.19	연합 세미나

구분	참석자 및 내용	포스터
발표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진로' 관련 초중전환기 1-2차코호트 유형간 비교 및 진로 현황 분석 (이정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다문화청소년의 자립과 진로취업지원 방안 (변숙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다문화청소년 초등 진로교육 우수사례 (공수영, 김해내동초등학교 교사)	
	▣ 다문화후기청소년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표: 검정고시 교육과 직업체험-인턴십 실패와 성공 사례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토론	○ 유진이 (평택대학교, 교수)	
	○ 박인형 (부산교동초등학교, 교사)	

○ 데이터 설명회 및 포럼 개최

본 연구에서 생산한 자료의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료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설명과 실제 자료를 활용한 분석방법론 강의 등을 포함하여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표 Ⅰ-11. 데이터 설명회 개요 및 내용

성격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일	비고
데이터 설명회	데이터 설명회(자료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설명과 실제 자료를 활용한 분석방법론 강의)	연구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이용자, 진로 및 다문화 교육전문가(교사, 장학사 등)	8.24	청소년정책 포럼과 같은 날 진행

구분	참석자 및 내용	포스터
발표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2기)의 구조와 활용방안 (신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패널자료 연구방법론의 이론 (김현식, 경희대학교 교수)	
	▣ R과 STATA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분석 (김현식, 경희대학교 교수)	

더불어 이 연구에서 추진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학교생활적응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대상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했다. 데이터 설명회와 청소년정책 포럼은 같은 날 진행하여 가급적 많은 인원이 다양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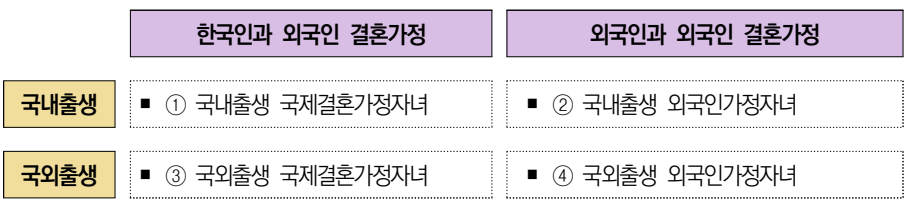
표 Ⅰ-12. 청소년정책 포럼 개요 및 내용

성격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일	비고
학술 및 정책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학술 및 정책 포럼(연구발표 및 정책 방안 논의)	연구진, 교육부, 여성가족부, 학계, 진로 및 다문화 교육전문가(교사, 장학사 등) 등	8.24	데이터 설명회와 같은 날 진행

구분	참석자 및 내용	포스터
발표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Ⅰ: 학교적응 (임선아, 전북대학교 교수)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Ⅱ: 진로진학 (김지혜, 서강대학교 교수)	
	▣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안진심, 연수중학교 교사)	
	▣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정종운, 구로구가족센터 센터장)	
토론	○ 박용한 (충남대학교, 교수)	
	○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한경은 (군서미래국제학교, 교감)	
	○ 김수영 ((사)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5.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다문화청소년이란 체류자격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청소년 자신이나 부모가 외국에서 국내로 이주를 경험한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의미하며, 북한이탈 배경의 청소년은 제외하였다(양계민, 강경균, 2017: 21). 이때 다문화청소년은 개념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이주배경을 토대로 본인의 출생지(국내, 국외 출생)와 부모의 배경(한국인과 외국인 결혼,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에 따라 유형화(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②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③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Ⅰ-4]와 같다.



* 출처: 양계민 외(2020: 278) 그림 Ⅸ-1

그림 Ⅰ-4.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다만, 본 연구에서 패널자료의 모집단 설정이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의 다문화학생 현황을 기초로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양계민, 강경균, 2017). 교육기본통계에서는 ①과 ③을 각각 순서대로 "국내출생(국제결혼)", "중도입국"으로 구분하지만, ②와 ④는 통합해 "외국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구분을 따랐다. 이후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의 유형을 구분해 설명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내출생(국내출생자녀 또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중도입국자녀)", "외국인(외국인가정자녀)"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과 유사한 용어로는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학생, 이주배경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주민자녀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가운데 "이주배경"은 "다문화"를 대체하는 용어로 보통 사용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통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주민현황조사의 외국인주민자녀 통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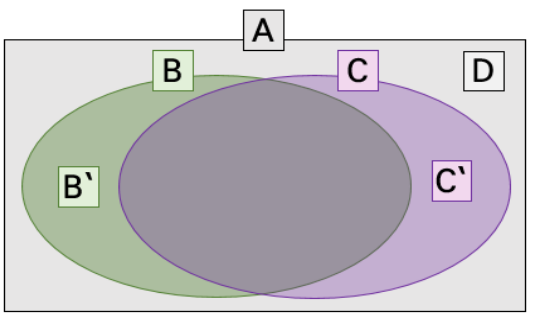
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주민자녀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외국인주민자녀)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각 개념 사이의 관계는 [그림 Ⅰ-5]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먼저, 다문화청소년(A)은 다문화학생(B)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다문화학생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청소년이라도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경우 다문화학생에서 제외된다.

다문화청소년(A)은 다문화가족 자녀(C)도 개념적으로 포괄한다. 다문화청소년에서 외국인가정자녀가 제외된 개념이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A)은 다문화가족 자녀(C)가 포함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B`)와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외국인가정 자녀(D)를 포함한다.

다문화가족 자녀(C)는 다문화학생(B)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가정 자녀를 제외한 학교밖 다문화청소년"(C`)을 포함한다. 반면, 다문화학생(B)은 다문화가족 자녀(C)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B`)를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개념이 가장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의 개념과 관계는 학교재학여부와 국적 등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다문화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을 주된 용어로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 이외의 용어로 지칭되는 경우는 해당 용어가 포괄하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A : 다문화청소년
B : 다문화학생
B` : 재학 외국인가정 자녀
C : 다문화가족 자녀
C` : 외국인가정 자녀를 제외한 학교밖 다문화청소년
D : 미재학 외국인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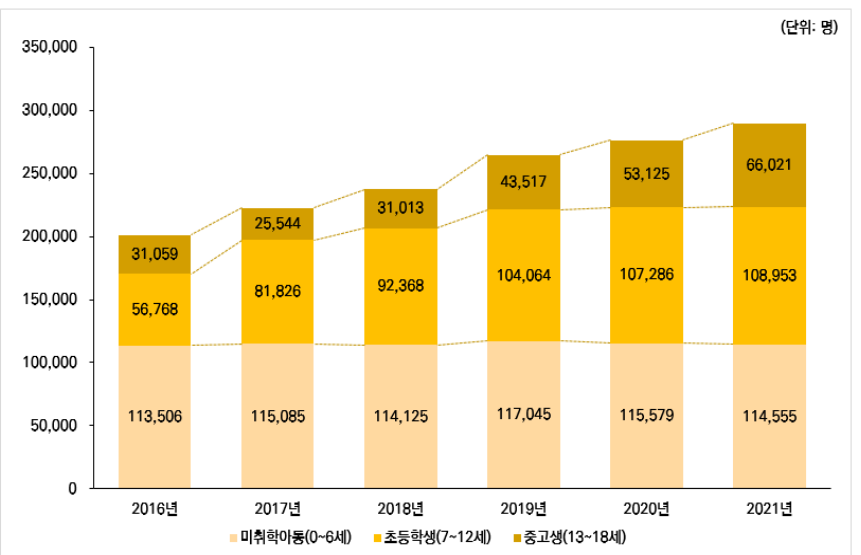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Ⅰ-5. 다문화청소년 관련 개념 간 관계

6.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1) 다문화청소년의 규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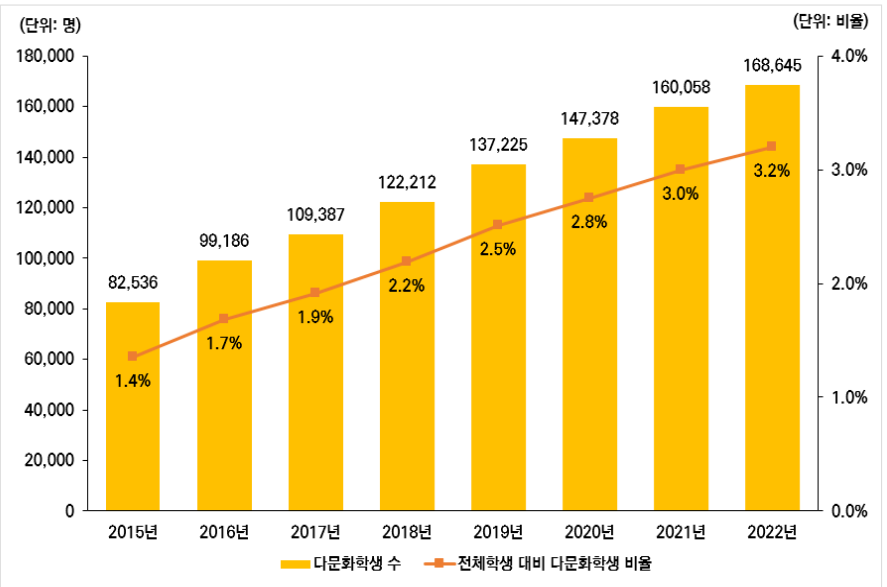
국내 다문화청소년 현황은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행정안전부)과 다문화학생 통계(교육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289,529명이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 중 미취학아동이 114,5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연령(108,953명), 중고생 연령(66,0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미취학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의 증가 폭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의 경우 외국인주민 자녀를 만 1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연령대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19-24세) 대상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지만 향후 그 규모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출처: 행정안전부(2017-2022)

그림 Ⅰ-6.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6~2021년)

다음으로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를 살펴보면 다문화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지난 2022년에는 다문화학생이 168,645명(전체 학생 대비 3.2%)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5년(82,536명 1.35%) 대비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높아지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경향성을 고려할 때 향후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통계 역시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하로 연령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조사 대상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등 다문화청소년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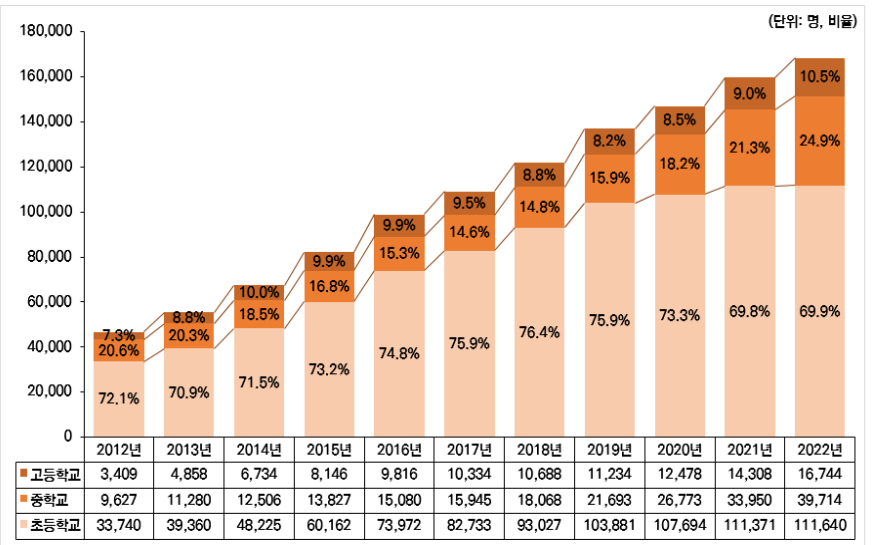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0.08.27., 2022.08.31.)

그림 Ⅰ-7.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율(2015~2022년)

2) 학교급 및 유형별 다문화청소년 현황

학교급별 다문화청소년 분포를 보면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난다. 다만 중·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구나

최근 연도별 11만 5천여 명을 유지하고 있는 미취학아동이 향후 초등학교에 진학해 교육부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하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수와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체 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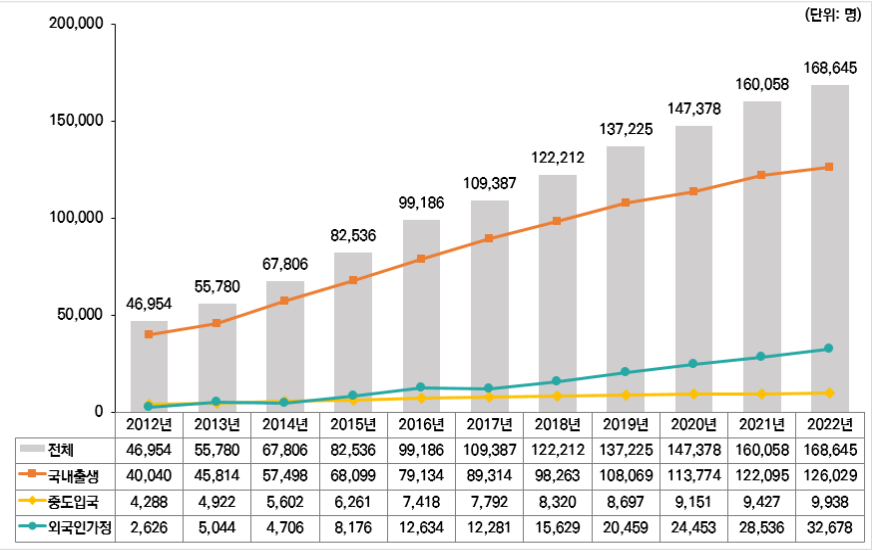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등학교	3,409	4,858	6,734	8,146	9,816	10,334	10,688	11,234	12,478	14,308	16,744
중학교	9,627	11,280	12,506	13,827	15,080	15,945	18,068	21,693	26,773	33,950	39,714
초등학교	33,740	39,360	48,225	60,162	73,972	82,733	93,027	103,881	107,694	111,371	111,640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0.08.27., 2022.08.31.)

그림 Ⅰ-8.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22년)

교육부의 유형별 다문화학생 규모를 살펴보면, 국내출생자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외국인가정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순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 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외국인가정자녀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최근(2022년)에는 외국인가정자녀수가 32,678명까지 크게 늘어나 다문화청소년의 지형이 초기보다 많이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즉, 초기에는 국내출생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가 매우 적은 수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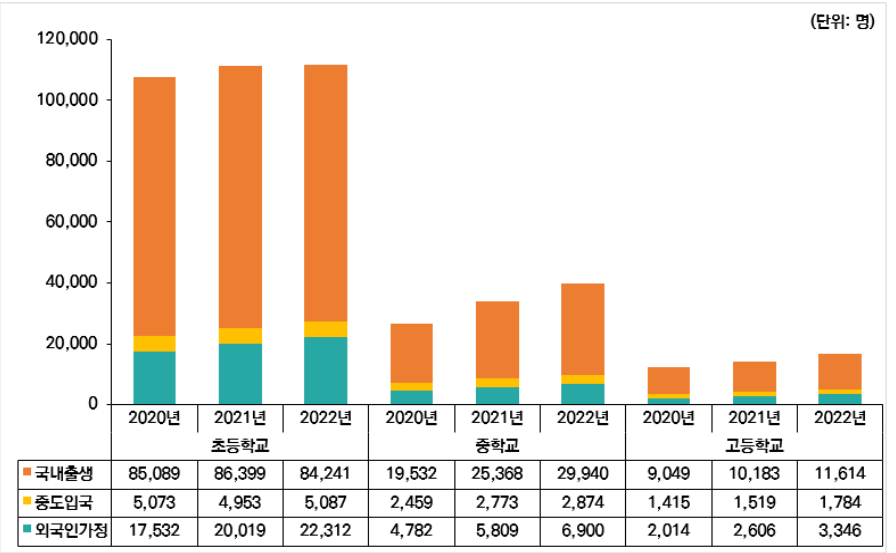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147,378	160,058	168,645
국내출생	40,040	45,814	57,498	68,099	79,134	89,314	98,263	108,069	113,774	122,095	126,029
중도입국	4,288	4,922	5,602	6,261	7,418	7,792	8,320	8,697	9,151	9,427	9,938
외국인가정	2,626	5,044	4,706	8,176	12,634	12,281	15,629	20,459	24,453	28,536	32,678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0.08.27., 2022.08.31.)

그림 Ⅰ-9.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22년)

지난 3년 동안 각 학교급의 다문화학생 유형별 규모가 변화한 추세를 살펴보아도 앞서 언급한 외국인가정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가정자녀의 증가폭이 큰 편인데, 이것이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초등연령 시기부터 입국한 경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증가하는 경우라면 중등학교 이후부터 후기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진로발달은 큰 사회적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그 비율은 20% 미만이지만,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비율은 향후에도 점차 증가할 것이기에 대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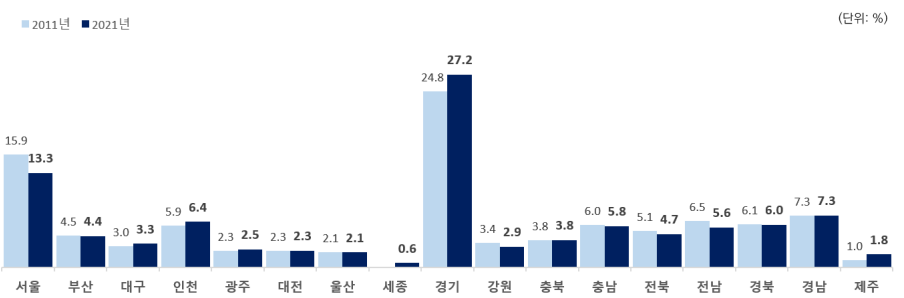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출생	85,089	86,399	84,241	19,532	25,368	29,940	9,049	10,183	11,614
중도입국	5,073	4,953	5,087	2,459	2,773	2,874	1,415	1,519	1,784
외국인가정	17,532	20,019	22,312	4,782	5,809	6,900	2,014	2,606	3,346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2.08.31.)

그림 Ⅰ-10. 학교급 및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20~2022년)

3) 지역별 다문화청소년 현황

행정안전부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자료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1기 패널이 구축되었던 2011년과 10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을 비교하였다.



* 출처: 행정안전부(2011, 2022)

그림 Ⅰ-11.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1, 2021년)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자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두 시점(각각 24.8%, 27.2%) 모두 경기도였다. 뒤이어 서울, 경상남도 순이었는데, 서울의 경우 2011년에 비해 그 비율이 소폭 줄었다. 각 광역시가 차지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했다. 대조적으로, 강원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도지역이 차지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비율은 10년 사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인천, 경기 등과 같은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집중되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표 Ⅰ-13. 외국인주민 자녀 거주 상위 20개 시·군·구(2011, 2021년)

순위	2011년		2021년	
	시·군·구	명	시·군·구	명
1	경기 안산시	4,358	경기 안산시	6,812
2	경기 부천시	2,958	경기 수원시	5,857
3	경기 수원시	2,824	경기 화성시	5,795
4	경기 성남시	2,524	경기 부천시	5,614
5	경남 창원시	2,459	경기 시흥시	5,554
6	경기 고양시	2,010	경남 창원시	4,992
7	서울 영등포구	1,987	경기 평택시	4,753
8	경기 시흥시	1,962	경기 고양시	4,142
9	인천 부평구	1,870	충북 청주시	4,095
10	충남 천안시	1,822	경기 용인시	4,071
11	서울 구로구	1,649	충남 천안시	3,935
12	경기 남양주시	1,649	인천 부평구	3,661
13	경기 용인시	1,585	경기 성남시	3,640
14	경기 화성시	1,561	인천 서구	3,631
15	부산 김해시	1,553	제주 제주시	3,600
16	경기 평택시	1,524	경기 남양주시	3,446
17	서울 관악구	1,485	경남 김해시	3,384
18	인천 남동구	1,474	인천 남동구	3,213
19	서울 강서구	1,434	경기 김포시	3,156
20	전북 전주시	1,429	광주 광산구	3,020
	계	40,117	계	86,371

※ 2011년과 2021년 모두 상위 20개에 포함된 시·군·구는 음영 처리함.
* 출처: 행정안전부(2011, 2022).

시·군·구 단위에서 외국인주민 자녀가 많이 거주하는 상위 20개 지역의 분포를 두 시점 간 비교해보면, 외국인주민 자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2011년과 2021

년 모두 경기도 안산시였다. 이 외에도 수원시, 화성시 등 경기도 소재 10곳이 외국인주민 자녀가 많은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었다. 지난 2011년과 2021년 사이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거주지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상위 20개 지역 중 15곳이 2021년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20개 지역으로 2021년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충북 청주시, 인천 서구, 제주 제주시, 경기 김포시, 광주 광산구였다. 한편, 외국인주민 자녀 중 상위 20개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는 2011년 40,117명으로 전체의 26.5%(전체 151,154명)였는데, 2021년에는 86,371명으로 전체의 29.8%(전체 289,529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비중이 더 높아져 밀집 현상이 다소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

7.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총 3권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첫째, 총괄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서론이며, 제 2부는 자료구축으로 패널조사의 개요와 추진경과, 조사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 3부는 자료분석으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을 포함해 패널자료의 기초 및 심화분석, 그리고 다문화청소년·학부모 대상 심층면접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 별도로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기초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총괄보고서
2) 기초분석보고서: 1기 패널
3) 기초분석보고서: 2기 패널

표 Ⅰ-14.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부	부별 제목	장별 제목
제 1부	서론	Ⅰ. 서론
제 2부	자료구축	Ⅱ.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Ⅲ. 패널조사 및 관리
제 3부	자료분석	Ⅳ.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과 정책 Ⅴ. 패널자료 분석: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유형과 진로발달 Ⅵ. 심층면접(IDI):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 Ⅶ.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

제2장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개요
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관리

2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2)]

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개요

1) 종단조사 진행 경과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2010~2012년(1단계) 예비조사를 포함해 진행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를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로 2013~2017년까지 실시된 조사가 두 번째 단계이며, 2018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가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2) 2장은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이정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단계	과제명	연도	연차	조사 학년	분석주제	비고
1 단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2010년	1기 예비	초4	예비조사	
		2011년	1차	초4	취약계층 청소년과 차이	
		2012년	2차	초5	비다문화 청소년과 차이	
2 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013년	3차	초6	학업 및 학교생활	
		2014년	4차	중1	심리·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	
		2015년	5차	중2	자아정체성, 이중문화정체성	
		2016년	6차	중3	진로의식, 진로태도	
		2017년	7차	고1	총체적 발달	
3 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년	1기 8차	고2	진로발달현황 및 요구	
			2기 예비	초4	예비조사	
		2019년	1기 9차	고3	심리·사회적응	
			2기 1차	초4	-	
		2020년	1기 10차	대1	전반적 발달	
			2기 2차	초5	1기 패널, 배경변인, 유형별 비교	
		2021년	1기 11차	대2	유지조사	
			2기 3차	초6	지역별 차이, 진로 및 학업관련 영향 요인 분석	
		2022년	1기 12차	대3	후기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기 4차	중1	초-중 전환기 발달양상 분석	자료분석
		2023년	1기 13차	대4	유지조사	자료수집
			2기 5차	중2	진로준비역량, 상급학교진학준비	

* 출처: 양계민 외(2022: 31) 그림 Ⅱ-2 수정 및 보완

그림 Ⅱ-1. 연도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및 연구주제

참여대상의 특성에 따라서는 예비조사 이후 크게 2개의 패널로 구분된다. 지난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조사에 참여한 1기 패널과 2019년에 역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조사에 참여한 2기 패널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구성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학생 1,635명(1,625가구)으로 시작한 1기 패널은 고3에 해당하는 9차 조사(2019년) 이후 10차 조사(2020년)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후기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학부모 조사를 축소하였고, 2021년 유지조사부터는 학부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제12차(2022년)

조사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패널 유지율은 61.5%로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로만 구성되었던 1기 패널과 달리 2기 패널은 조사에 참여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외국인가정자녀로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조사참여 인원도 2,223가구로부터 2,245명을 모집해 2019년부터 조사를 추진했으며, 2차 조사(2020년)에서는 향후 발생할 이탈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도입국 26가구를 추가 구축했다. 제4차 조사(2022년)까지 패널 유지율은 83.5%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외국인가정 패널 유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74.4%)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전략을 조사업체 측과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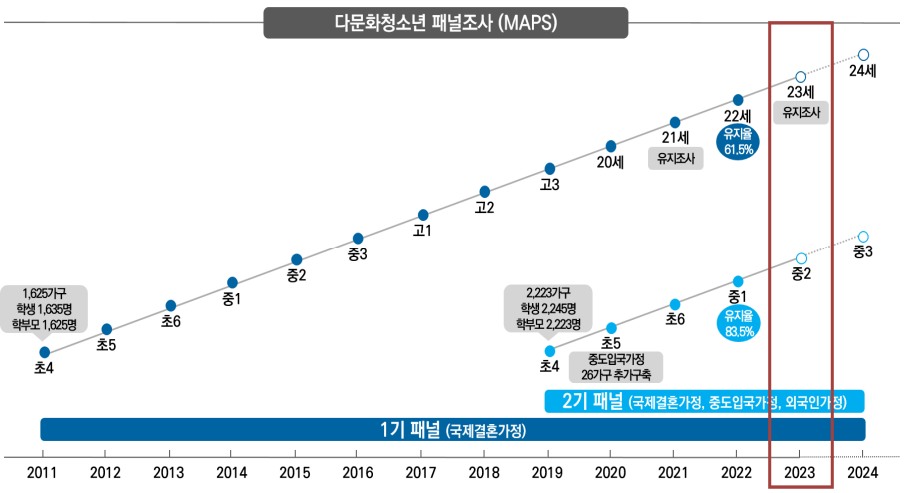


그림 II-2.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조사연혁(2011년~)

2) 학술적 성과

(1) 데이터 활용실적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달 추이를 분석하면서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한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술대회를

통해 데이터가 최초 공개된 시점(2017년) 이후 데이터 활용실적을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작성된 기관 연구보고서, 학위·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2017~2023년 8월 말 기준 총 596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18년 말 1~6차 조사자료가 공개되면서 2019년부터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국내 전문 학술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문이 출판되고 있다.

이번 2023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구축하는 연구 본래의 목적에 더해 자료의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과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료공개 방식을 보다 이용자 편의에 맞도록 개편함으로써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에 대한 학술적 논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했다.

표 II-1. 데이터 활용실적

(단위: 편)

구분		활용실적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	전체
학술지	전문 학술지	9	13	49	86	115	99	57	428
학위	석사학위	-	-	7	16	17	20	15	75
	박사학위	-	-	5	11	6	10	9	41
학술대회 발표	MAPS	32	-	-	-	-	-	-	32
	기타	1	1	5	2	4	3	-	16
기타(타 기관 연구보고서 외)		-	-	1	1	1	1	-	4
계		42	14	67	116	143	133	81	596

* 출처: 양계민 외(2022: 32) 표 II-1 수정

(2) 데이터 활용논문 연구동향

지난 2017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가 공개된 이후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이 자료를 활용해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그의 어머니와 관련된 개인 및 다문화 환경 특성의 연구를 통해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제언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주제로 현재까지 보고서, 국내외 학술지, 학위논문 등 약 596여 편 정도를 발표하였다.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을 통해 다루어진 연구들이 어떠한 주제로 이어져 왔는지 국내외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① 분석방법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논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578편을 선정하였으며, 학위논문 중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해당 논문의 국문초록을 활용하였으며, 국문초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영문초록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논문의 초록은 불용어 및 중복단어 제거, 정규화, 토큰화 등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 파일을 완성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패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MCAPS', 'MAPS'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파이썬 3.12.0이며, 명사 추출은 한글형태소 분석기 한나눔(Hannanum)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추출된 명사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으며, 명사의 출현 빈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주요어(key words)의 크기를 달리하여 가시성을 확보하였다(권혜진, 다그와더르지 아마르자르갈, 김학선, 2022).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7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발행된 국내외 학술지 및 학위논문으로부터 추출된 명사를 1위부터 150위까지 지정하여 시각화하였다.

② 분석결과

연구동향 분석결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논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주요어는 '다문화청소년'으로 2,342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라는 자료 특성 상 다문화청소년이 주 대상이기에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 '부모', '집단' 등이 주요어로 등장하였다. 특히, 상위권 주요어 중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회적위축'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청소년기의 발달적 상황과 심리적 어려움을 연구자들이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라는 귀속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청소년들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 출신 국가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심리적 상황을 반영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과 그와 관계된 사람을 지원하는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로 등장한 '집단'의 경우 497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 집단 간 비교,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잠재계층, 성장혼합모형, 군집분석 등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20위권 내에서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주요어로는 '매개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한국어수준이 이들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가정,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 '어머니', '부모', '자녀', '한국어'의 단어가 다수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II-3.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2017년~2023년)

표 II-2. 주요어 빈도

순위	주요어	빈도
1	다문화청소년	2,342
2	자아존중감	819
3	문화적응스트레스	729
4	어머니	549
5	부모	523
6	집단	497
7	우울	486
8	학교생활적응	480
9	성취동기	436
10	사회적위축	419
11	자녀	408
12	다문화가정	351
13	청소년	350
14	삶의 만족도	336
15	매개효과	326
16	이중문화수용태도	323
17	진로장벽	274
18	한국어	217
19	중학교	215
20	다문화	199

* 주: 빈도는 20위까지만 제시함

다음으로 연도별 주요어 출연 빈도이다. 2017년부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연구된 주제어를 통해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서는 2017년과 2018년의 연구논문이 50편 내외로 다소 적기에 두 개 년도를 합산하여 2018년 이전으로 분석

하였으며, 앞서 주요어 빈도에서 1위를 차지한 '다문화청소년'은 제외하였다. 연도별 주요어 출연 빈도 분석 결과는 [그림 Ⅱ-4]와 같다.

2018년 이전 결과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던 주요어는 '청소년'이었다. 뒤를 이어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부모', '자녀' 등이 주요어로 등장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가 처음 공개된 2017년 이후 2년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문화, 적응에 주목하였으며, 다문화배경을 지닌 그들의 부모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면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문화적응 등 상담의 필요성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지원의 제고를 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2019년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낸 주요어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어머니', '집단', '자아탄력성'이었다. 이전 연도와 비교해 '집단'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이는 다문화청소년 내 이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잠재계층, 성장혼합모형 등 횡단 및 종단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다문화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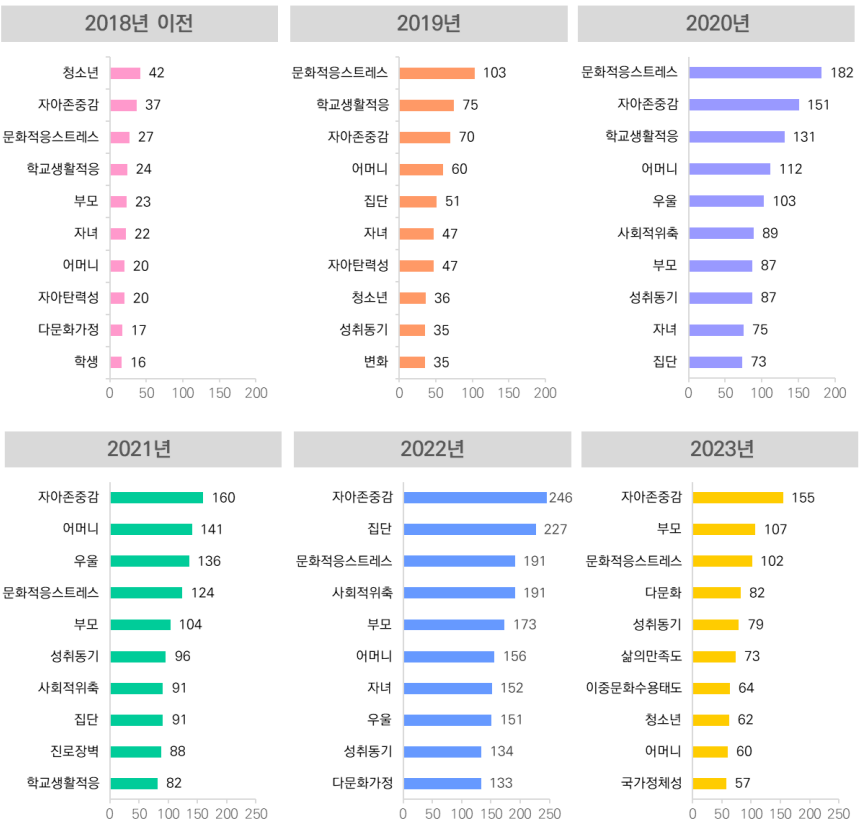
2020년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이며,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어머니', '우울', '사회적 위축'의 불안정한 정서와 관련된 연구가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즉, 다문화배경을 지닌 이들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더불어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주목한 점은 2020년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이 빈출된 단어였으며, '어머니', '우울',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모',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2021년에 수행된 연구주제 중 새롭게 등장한 단어는 '진로장벽'이었다. 연구자들은 다문화청소년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탐색하는 과정 중에 진로발달을 지연시키는 요인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에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이며, '집단',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부모', '어머니', '자녀', '우울'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집단, 부모 등 다양한 요인에 주목한 것으로 여겨진다.

2023년에도 동일하게 '자아존중감'의 출현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부모', '문화적응스트레스', '다문화', '성취동기', '삶의 만족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에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국가정체성'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이중문화의 배경 속에서 이들의 삶과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기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가 처음 공개된 시점부터 2023년 현재까지 연구자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황, 이중문화로 인한 어려움 등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양한 문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고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등 학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 주: 빈도는 10위까지만 제시함

* 출처: 양계민 외(2022: 36) 그림 Ⅱ-4 수정

그림 Ⅱ-4. 주요어 출현 빈도 연도별 추이(2017년~2023년)

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관리

1) 2기 패널 설문 문항 변경 관리

2019년에 구축된 2기 패널은 2023년 기준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는 시기로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준비, 학습관련 심리정서, 방과후 생활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문항의 관심과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설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다는 점은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설문 시 적정한 문항 수를 초과할 경우 응답자의 피로도를 가중시켜 패널 유지율이나 응답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존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생긴다. 따라서 연구진은 신규 영역들을 조사에 포함하되, 하위 문항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상시 또는 격년 등 조사주기별로 문항을 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1) 청소년용 설문지 신규 문항 영역

2기 패널 청소년 설문지에 신규로 추가되는 문항은 진로준비역량, 상급학교진학준비도, 학습관련 심리정서(그릿), 방과후 생활, 인권, 사회적 고립(외로움), 학교생활(온라인 도박)이다. 이 가운데, 인권, 사회적 고립, 온라인 도박 문항은 하위문항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문항 추가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고, 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 대상 타 조사와의 비교가능성도 고려하여 상시 조사하기로 하였다. 상급학교 진학준비도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매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진로준비역량이나 그릿은 그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심리정서와 관련된 변수이며, 하위 문항 수도 많아 조사 주기를 부득이 격년으로 설계하였다. 전체 조사 주기를 고려할 때 두 변수 중에서도 진로준비역량은 중학교 2학년 시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 시작해 홀수해, 그릿은 그 다음해인 짝수해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 생활의 양상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2기 패널 4차(2022년) 시기는 조사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이므로 소속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유학기(년)제를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유학기(년)제 경험 시기와 기간에 대한 자료를 행정데이터를 통해 구축하고자 했다.

표 II-3. 청소년용 신규문항

구분		문항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조사 주기	유사영역 존재여부
대영역	세부영역		(중2)	(중3)	(고1)	(고2)	(고3)		
개인요인	진로준비역량	12문항	●		●		●	2년 (홀수해)	○ (진로, 진로결정성)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7문항	●	●	●	●	●	상시	X
학습관련 심리정서	그릿	8문항		●		●		2년 (짝수해)	X
환경요인	방과후 생활	4문항		●		●		2년 (짝수해)	△
환경요인	인권	4문항	●	●	●	●	●	상시	X
개인요인	사회적 고립 (외로움)	4문항	●	●	●	●	●	상시	○ (심리사회적응, 삶의 만족도)
개인요인	학교생활	1문항	●	●	●	●	●	상시	비행관련 문항에 온라인 도박 추가

(2) 청소년용 설문지 신규 및 수정 문항 내용

○ (청소년 설문지) 희망하는 교육수준

기존 청소년 설문에서는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으로 단순하게 조사했다. 이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연령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2기 패널이 2023년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면서 희망하는 교육수준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희망 교육수준 문항을 학부모와 동일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즉, 기존 문항에 이어 대학교나 대학원 이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 한국과 외국 중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곳을 묻고, 한국이라고 응답하는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희망 교육수준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표 II-4. 희망하는 교육수준(신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기존문항</td><td>22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나요?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td></tr>
<tr><td>수정문항</td><td>22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나요?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 23 항으로 이동
22-1 학생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나요?
① 한국 ② 외국 → 23 항으로 이동
22-2 학생이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나요?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td></tr>
</table>

*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부모 기존문항

○ (청소년 설문지) 진로준비역량

진로준비역량은 조사 시점 상 진로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뿐 아니라 기존 문항인 진로태도결정성 문항이 개념적으로 중학생 시기와 정합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진로준비역량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진로와 관련한 역량 가운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진로적응력'과 같이 기존 문항(진로태도결정성)과 유사성이 높은 문항은 제외하고, 기존 문항과 유사성이 낮지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개념 중 '진로준비역량'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세부문항은 낙관성, 지속성, 호기심, 유연성, 도전성, 의사소통으로 구성되며 각 2개 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표 II-5. 진로준비역량(신규)

구분	문항
신규문항 (진로 준비 역량)	2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가 몰랐던 직업을 발견하면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진로 계획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계획을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희망하는 진로에 도전해본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직업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희망하는 진로를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 출처: 김민경 외(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2).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청소년 설문지)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5차년도의 학부모용 설문지 15번을 참고해 신규문항을 만들었다. 원문항의 경우 학부모 대상으로 질문한 내용을 청소년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그 외 일부 문항은 연구진이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원문항 (5)~(9) 문항은 중학교 시기에서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이라 신규문항 (6)번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향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 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5)번 문항을 추가하여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를 파악고자 했다.

표 II-6.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신규)

구분: 원문항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문항

15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정도에 동그라미표(○)하여 주십시오.

나(또는 배우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교외 참여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를 주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교외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를 주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교내 비교과 활동(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등)참여에 대해 자녀와 논의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기소개서, 독서활동이력 등 포트폴리오 작성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신규문항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문항

27 다음은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학생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교내외 활동(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독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전학을 갈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출처: 김양분, 남궁지영, 박경호, 김미숙, 김위정(2015).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Ⅲ): 조사개요 보고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 설문지) 사회적 고립(외로움)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유민상 외(2022)에서 활용한 4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이는 UCLA loneliness 척도를 번안하여 18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문항이다. 또한 이 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및 청년 대상 타조사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었기에 추후 대상별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7. 사회적 고립(외로움)(신규)

구분	문항
신규문항 (사회적 고립 (외로움))	3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고립 :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33-1 ((4)번 문항에서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출처) Russell, D.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0-40.

○ (청소년 설문지)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이 문항은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이 얼마만큼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고자 추가하였다. 문항의 출처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Ⅳ: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이며,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인권 존중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원문항의 경우 "1) 가정, 2) 학교,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4) 우리나라 전체,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으로 묻고 있는데, (3)~(5)의 경우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의견들을 반영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앞서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의 문항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및 청년 대상 타조사에서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표 Ⅱ-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신규)

구분: 원문항 (인권실태조사)

문항

문 41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구분: 신규문항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문항

39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응답해 주세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문항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	①	②	③	④
(4) 한국사회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 출처: 김경준, 김희진(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설문지) 비행

청소년 비행 관련 문항은 2기 패널이 중학교에 진학한 4차(2022년) 시기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이다. 응답결과에 대한 경향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문항을 그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몇몇 문항의 경우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문항 번호 기준 (11)번은 삭제하고, (12)번의 경우 문항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하였다.

표 II-9. 비행(수정)

기존문항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45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 번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가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학교를 무단으로 빠먹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삥 뜯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폭력 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이성과 키스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수정문항

49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 번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가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학교를 무단으로 빠먹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삥 뜯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폭력 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수정)	①	②	③	④	⑤	⑥
(12) 온라인상에서 돈내기 게임이나 도박을 한 적이 있다 (추가)	①	②	③	④	⑤	⑥

* 출처: (비행) 이경상 외(2003)를 수정 보완한 이경상 외(2011) 및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 (12번 문항) 연구진 작성

(3) 학부모용 설문지 신규 문항 영역

이 연구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조사의 경우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을 묻는 문항도 있지만,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진로, 자유학기(년)제, 진학 관련 문항 등 청소년 설문에 추가된 문항 위주로 학부모용 설문에 추가하였다.

다만, 자유학기(년)제에 관한 문항은 청소년 문항과 달리 학부모에게 인지여부를 직접 묻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학부모가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 문항의 경우 지속하여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만 일회성으로 진행하였다. 이외 자녀 진로준비를 위한 학부모 활동과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부모 준비는 청소년 설문과 마찬가지로 매년 조사하기로 하였다.

표 II-10. 학부모용 신규문항

구분		문항수	2023년 (중2)	2024년 (중3)	2025년 (고1)	2026년 (고2)	2027년 (고3)	조사 주기	유사영역 존재여부
대영역	세부영역								
자녀 양육	자녀 진로준비를 위한 학부모 활동	5문항	●	●	●	●	●	상시	X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	1문항	●					일회성	X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8문항	●	●	●	●	●	상시	X

(4) 학부모용 설문지 신규 및 수정 문항 내용

○ (학부모 설문지) 자녀 진로준비를 위한 학부모 활동

자녀 진로준비를 위한 학부모 활동은 청소년용 진로 관련 문항과 동일한 목적의식에서 포함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2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원문항에서 응답률이 낮은 일부 문항은 제외하고, 다문화 배경을 둔 학부모로서 조사가 필요한 내용들은 전문가 자문의견을 통해 연구진들이 문항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규문항 번호 기준 (1)~(5)까지는 기존 문항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5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6), (7)은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이다.

표 II-11. 학부모 진로준비활동(신규)

구분: 원문항 (KCYPS)

문항

문 9-2-S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 경험이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참여 여부		(참여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학업 설계 워크숍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직업박람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진로 관련 책/잡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구분: 신규문항 (진로준비 활동)

문항

1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활동이 조사에 참여하는 자녀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참여 또는 경험여부		(참여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관련 책/잡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모국 또는 외국 출신 학부모로 구성된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한국 학부모 주도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출처: 황진구, 전현정, 이용해(2022). 202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번, 8번문항) 연구진 작성

○ (학부모 설문지) 자녀의 자유학년(기)제

4차(2022년) 조사 당시 2기 패널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 시기로 대부분 자유학기(년)제를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에 5차(2023년) 시기에서는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 여부를 묻고,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면 자녀의 자유학기(년)제 경험 여부와 시기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표 Ⅱ-12.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신규)

구분	문항
신규문항 (자녀의 자유학 (기)제)	14 귀하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 15 항으로 이동 ② 들어는 보았지만 잘 모른다 ③ 들어보았고, 어떤 제도인지 안다 14-1 귀하의 자녀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였습니까? ① 예 → __학년 ___학기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 출처: 연구진 작성

○ (학부모 설문지)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해 학부모의 준비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은 청소년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5차년도의 학부모용 15번 문항을 참고해 신규문항을 구성하였다. 원문항 번호 기준 (1)~(5), (10)은 신규문항 번호 기준 (1)~(4), (6), (8)에 해당하며, 신규문항 번호 기준 (5)는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이다. 또한 (7)의 경우 원문항 (6)~(9)를 중학교 단계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표 Ⅱ-13. 학부모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한국교육 종단연구 2013)	15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정도에 동그라미표(○)하여 주십시오.

나(또는 배우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교외 참여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를 주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교외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를 주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교내 비교과 활동(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등)참여에 대해 자녀와 논의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기소개서, 독서활동이력 등 포트폴리오 작성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문항
신규문항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19 다음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의 교내외 활동(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독서활동 등) 참여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출처: 김양분 외(2015).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Ⅲ): 조사개요 보고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외국인 학부모 설문지) 평소 자주 어울리는 지인

학부모 설문 중 자주 어울리는 지인에 대한 문항의 경우 설문을 응답하는 데 피로도가 높고, 문항의 구체성이 다소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문항을 삭제하고 연구진이 새롭게 개발하였다.

표 Ⅱ-14. 평소 자주 어울리는 지인(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24 귀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① 모국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② 대부분 모국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가끔 어울린다 ③ 한국 사람이나 모국에서 온 사람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모두 다 비슷하게 잘 어울린다 ④ 대부분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모국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가끔 어울린다 ⑤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수정문항	27 귀하께서 평소 자주 어울리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가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모국 출신 사람들	모국을 제외한 외국 출신 사람들	한국 사람들
(명)	(명)	(명)

*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 0으로 써주세요.

* 출처: 연구진 작성

2) 1기 패널 유지조사 설문 문항 변경 관리

1기 패널 조사는 2022년 본조사로 시행되었으나, 2023년의 경우 예산상의 제약으로 유지조사로 진행하였다. 유지조사는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본조사를 위해 패널의 이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문항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태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1기 패널은 2021년 유지조사로 진행된 바 있어, 2023년 조사에서는 2021년 기존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몇 가지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 전반적 만족도, 행복감, 평소 여유 시간 활용, 평소 외출 정도, 고립감 등을 세부문항 1~2문항 내외로 간략히 확인하였다.

○ 건강상태(신규)

건강상태에 대한 문항은 간략하면서도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로 중요할 뿐 아니라 청소년 설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던 문항으로 그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조사에 추가하였다.

표 II-15. 건강상태

구분	문항
신규문항 (건강상태)	C3 귀하는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1) 신체적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2) 정신적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 출처: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전반적 만족도 및 행복감(신규)

전반적 만족도와 행복감은 단순화된 측정이지만, 심리정서적 상태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유지조사가 심리정서 문항을 담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이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표 II-16. 전반적 만족도

구분	문항
신규문항 (전반적 만족도)	C4 귀하는 요즘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출처: 정세정 외(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17. 행복감

구분	문항
신규문항 (행복감)	C5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매우 행복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출처: 정세정 외(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평소 여유 시간(신규)

청년 시기에 다문화청소년들이 평소 여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해당 문항을 포함하였다.

표 II-18. 평소 여유 시간

구분	문항
신규문항 (평소 여유 시간)	C6 귀하는 평소 여유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① 인터넷 사용(SNS,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 채팅, 기사검색 등) ② TV 또는 OTT(넷플릭스, 티빙 등) 시청 ③ 게임 ④ 운동 ⑤ 잠자기 ⑥ 독서 ⑦ 종교활동 ⑧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출처: 연구진 작성.

○ 평소 외출 정도(신규)

성인 이행기에 접어든 다문화청소년의 고립이나 은둔 상태를 측정하고자 이 문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소 얼마나 외출하는지 묻고 외출 수준이 낮은 경우 해당 상태가 지속된 기간과 그 사유에 대해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이 문항을 토대로 은둔 여부를 파악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 이행기에 접어든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표 II-19. 평소 외출 정도

구분	문항
신규문항 (전반적 만족도)	C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직장,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원, 독서실 등을 매일 다닌다면 ①에 해당됩니다. ※ 평소에는 직장 출퇴근, 학교 통학으로 외출을 하나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소 기준에 맞게 외출(① 또는 ②)에 해당됩니다.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C8 항으로 이동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C7-1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C7-2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출처: 유민상 외(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사회적 고립(신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복합적 양상이 있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평소 외출 정도를 통해 일정 부분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추가 문항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기 패널의 유지조사에도 2기 패널 청소년용 설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만, 유지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립 상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고, 최소한 드물게라도 그러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 경과된 기간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표 II-20. 사회적 고립

구분	문항
신규문항 (사회적 고립)	C8 귀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낍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드물게 그렇다 ③ 가끔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C8-1 귀하께서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낀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고립 :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 출처: 유민상 외(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휴학 사유(수정)

휴학 사유의 경우 3차(2021년) 조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학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보기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휴학 사례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보기를 삭제하고, 오히려 대학교 4학년 시기인 연령대 상황에 맞는 '취업 준비'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는 새로운 보기를 추가하였다.

표 II-21. 휴학 사유

구분	문항
기존문항	A3 ☞ [로직] ▫ 현재 '휴학'인 경우만 [로직] ▫ 보기 ⑤ 군 입대는 성별이 남자인 경우만 출현 귀하가 대학을 휴학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경제적인 이유로 ③ 학업 수행의 어려움 ④ 학교 적응의 어려움 ⑤ 군 입대 ⑥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다니려고 ⑦ 기타(적을 것 : _____)
수정문항	A3 ☞ [로직] ▫ 현재 '휴학'인 경우만 [로직] ▫ 보기 ⑤ 군 입대는 성별이 남자인 경우만 출현 귀하가 대학을 휴학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경제적인 이유로 ③ 학업 수행의 어려움 ④ 학교 적응의 어려움 ⑤ 군 입대 ⑥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⑦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기존문항 수정

제3장 패널조사 및 관리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4. 원패널 관리

3 패널조사 및 관리[3)]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4)]

1) 표본설계

(1) 모집단

1기 패널 조사 모집단은 2011년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할 뿐 아니라 개인의 종합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기 패널의 표본설계 및 패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게 모집단 현황을 요청하였으나 4개 시·도 교육청은 수집 당시 2011년 현황 자료가 부재하여 2010년 자료로 대체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모집단은 〈표 Ⅲ-1〉과 같다(양계민 외, 2011: 118).

3) 3장은 이용해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양계민 외, 2011: 111-121)의 패널 표본 부분을 요약, 발췌 및 수정함.

표 Ⅲ-1. 1기 패널 지역별 모집단 현황

(단위: 개교, 명(%))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264 (10.4)	510 (11.5)	광주	75 (3.0)	110 (2.5)
인천	119 (4.7)	228 (5.1)	전북	175 (6.9)	318 (7.1)
경기	514 (20.3)	1,006 (22.6)	전남	228 (9.0)	475 (10.7)
부산	114 (4.5)	185 (4.2)	대전	49 (1.9)	64 (1.4)
울산	39 (1.5)	59 (1.3)	충북	118 (4.7)	196 (4.4)
경남	226 (8.9)	351 (7.9)	충남	175 (6.9)	279 (6.3)
대구	80 (3.2)	107 (2.4)	강원	150 (5.9)	234 (5.3)
경북	173 (6.8)	281 (6.3)	제주	38 (1.5)	49 (1.1)
합계				2,537 (100.0)	4,452 (100.0)

* 출처: 양계민 외(2020: 72) 표 Ⅳ-1 발췌

(2) 표본추출

1기 패널의 목표 표본수는 약 1,600여 가구로 모집단 기준 약 35.9% 수준이다. 조사단위는 다문화청소년 가구(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이지만 모집단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각 지역의 학교 단위로 층화 표집하였다. 예컨대, 각 16개 시·도를 층화변수로 분류한 뒤 각 시·도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목표 표본수(1,600가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률비례통계추출법으로 각 학교들을 선정하였다.

〈표 Ⅲ-2〉는 각 지역별 표본 할당 현황이다. 조사 원칙 상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전수 조사해야 하지만 부득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구책임자 승인 후 대체하였다. 그러나 향후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탈 사례가 발생하여도 해당 표본을 대체하지 않았다(양계민, 강경균, 2017: 73).

표 Ⅲ-2. 1기 패널 지역별 표본 할당 현황

(단위: 개교, 명(%))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100 (10.0)	173 (10.8)	광주	29 (2.9)	39 (2.4)
인천	47 (4.7)	79 (4.9)	전북	67 (6.7)	108 (6.8)
경기	196 (19.6)	362 (22.6)	전남	87 (8.7)	163 (10.2)
부산	56 (5.6)	85 (5.3)	대전	19 (1.9)	24 (1.5)
울산	21 (2.1)	28 (1.8)	충북	45 (4.5)	67 (4.2)
경남	86 (8.6)	125 (7.8)	충남	79 (7.9)	113 (7.1)
대구	31 (3.1)	38 (2.4)	강원	57 (5.7)	83 (5.2)
경북	66 (6.6)	97 (6.1)	제주	14 (1.4)	16 (1.0)
합계				1,000 (100.0)	1,600 (100.0)

* 출처: 양계민 외(2020: 73) 표 Ⅳ-2 발췌

(3) 표본구축 결과 및 패널 유지율

1기 패널은 2011년 당시 1,625가구가 구축되었으며, 동일 가구 내 다문화청소년 2명이 원패널로 선정된 사례가 있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총수는 1,635명이다. 또한 패널조사의 특성상 다문화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인 2020년 당시에 학부모 조사 내용을 축소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유지조사부터는 원패널 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만 조사하였다. 2022년 조사에 참여한 1기 패널 청소년은 총 1,007명이다. 가구 수 기준으로 패널 유지율은 2022년에 조사에 참여한 가구 수가 999가구로 12년째 지속된 패널 유지율은 61.5%로 양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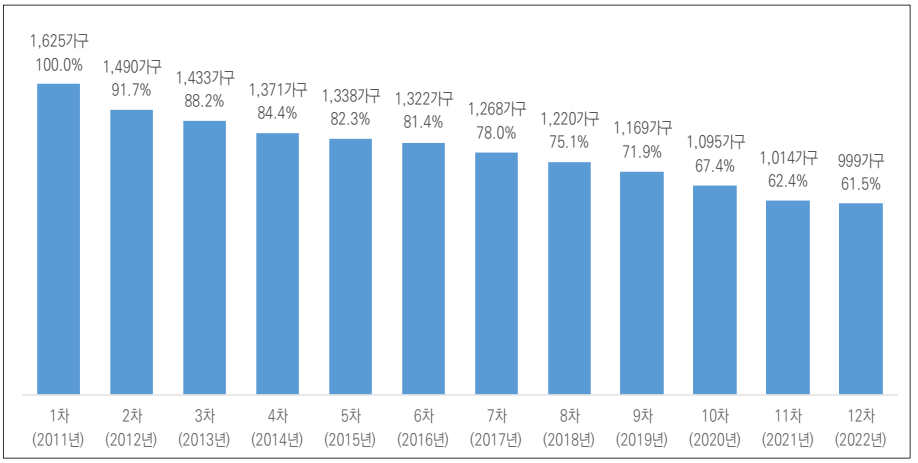


그림 Ⅲ-1. 1기 패널 패널 유지율

2011년부터 2022년(12차)까지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별 현황은 〈표 Ⅲ-3〉과 같다. 전반적으로 여자 청소년(50%~52%)이 남자 청소년(47%~49%)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 1기 패널 원패널 대상자 성별 분포(2011년~2022년)

(단위: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자	805(49.2)	740(49.3)	706(48.9)	675(48.9)	662(49.1)	655(49.2)
여자	830(50.8)	760(50.7)	737(51.1)	706(51.1)	686(50.9)	677(50.8)
합계	1,635(100.0)	1,500(100.0)	1,443(100.0)	1,381(100.0)	1,348(100.0)	1,332(100.0)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남자	624(48.8)	601(48.9)	575(48.8)	530(48.1)	489(47.8)	481(47.8)
여자	653(51.2)	628(51.1)	603(51.2)	573(51.9)	533(52.2)	526(52.2)
합계	1,277(100.0)	1,229(100.0)	1,178(100.0)	1,103(100.0)	1,022(100.0)	1,007(100.0)

* 출처: 양계민 외(2022: 50) 표 Ⅲ-3 수정 보완

패널 구축 시기인 2011년과 12차로 진행된 2022년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역별 분포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4. 1기 패널 참여 지역별 분포(2011년, 2022년)

(단위: 명(%))

시·도	2011년	2022년	시·도	2011년	2022년
서울	182 (11.1)	99 (9.8)	강원	90 (5.5)	67 (6.7)
부산	74 (4.5)	49 (4.9)	충북	75 (4.6)	44 (4.4)
대구	42 (2.6)	21 (2.1)	충남	117 (7.2)	72 (7.1)
인천	68 (4.2)	44 (4.4)	전북	108 (6.6)	81 (8.0)
광주	42 (2.6)	27 (2.7)	전남	160 (9.8)	130 (12.9)
대전	25 (1.5)	9 (0.9)	경북	102 (6.2)	67 (6.7)
울산	31 (1.9)	14 (1.4)	경남	120 (7.3)	80 (7.9)
경기	384 (23.5)	199 (19.8)	제주	15 (0.9)	4 (0.4)
합계				1,635 (100.0)	1,007 (100.0)

* 출처: 양계민 외(2022: 51) 표 Ⅲ-4 수정 보완

2) 조사내용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1기 패널은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을 원패널로 구축하여 2023년 현재 13년째 추적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차까지는 대상자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문항들로 조사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인 2020년(10차)에는 다양한 진로 상황을 고려한 문항들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러 여건상 2021년(11차)은 청소년 원패널의 진로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유지조사를 진행하였지만, 2022년(12차)에는 다시 본조사로 전환하여 2020년 조사 영역들을 기초로 학교 졸업 이후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현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2023년(13차)은 2021년처럼 다시 유지조사로 실시하되, 부채와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행복감, 사회적 고립 등 경제·심리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추가하였다. 〈표 Ⅲ-5〉는 최근 3년간 1기 패널 청소년의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을 보여준다.

표 Ⅲ-5.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21~2023년)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군복무 (남자인 경우만)	군복무 여부	연구진 작성	○	○	○
	군입대 시기(혹은 입대 예정 시기)	연구진 작성	○	○	○
	군 전역 후 계획	연구진 작성	-	○	-
	군복무 마친 시기	연구진 작성	-	○	-
	군복무 중 차별경험 및 차별 가해자	연구진 작성	-	○	-
	군복무 중 다문화 교육 경험 및 (교육 받은 경우) 교육 내용	연구진 작성	-	○	-
	군생활 만족도	연구진 작성	-	-	-
배경변인	다문화청소년 혼인상태	연구진 작성	-	○	-
	현재 거주형태(부모님과 동거 여부)	윤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가정 생활비 마련방법 및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	○	-
	개인 생활비 마련방법 및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	○	-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연구진 작성(2020년 조사: 학부모 대상)	-	○	-
	주관적 경제수준	연구진 작성(2020년 조사: 학부모 대상)	-	○	-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여부	연구진 작성	-	○	-
	(진학 한 경우) 대학교 학적 상태	연구진 작성	-	○	-
	(진학하지 않은 경우) 진학하지 않은 이유	연구진 작성	-	○	-
	(진학하지 않은 경우) 현재 주로 하는 일	연구진 작성	-	○	-
	최종학교급 및 졸업여부 확인	연구진 작성	○	-	○
	(최종학교급과 졸업여부가 다른 경우) 최종학교급 및 졸업여부 확인	연구진 작성	○	-	○
대학진학	(대학 재학 중인 경우) 학교명 확인	연구진 작성	○	-	○
	대학명	연구진 작성	○	○	○
	전공계열	연구진 작성(전공계열분류: 박근영 외(2019) 발췌)	-	○	-
	전공확인	연구진 작성	○	-	○
	학부 및 학과(전공)명	연구진 작성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등록금 마련방법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2018) 발췌 및 수정	–	○	–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	○	–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대학만족도, 학업적응, 사회적응)	Baker & Siryk(1984)를 이윤정(1999)이 수정 보완한 대학생활적응도검사를 사용한 이민희(2018) 일부 발췌 및 수정	–	○	–
	(대학 자퇴한 경우) 대학을 그만 둔 이유	연구진 작성	–	○	–
	대학교 입학 모집유형	연구진 작성	–	–	–
	대학교 입학 전형	연구진 작성	–	–	–
	(특별전형 입학 시) 특별전형 유형	연구진 작성	–	–	–
	대학 및 전공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	윤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영향을 준 사람	김양분 외(2011) 발췌 및 수정	–	–	–
	휴학 사유	연구진 작성	○	–	○
대학진학 준비	대학진학 준비 여부	연구진 작성	○	–	○
	대학진학 준비 이유	김양분 외(2011) 발췌 및 수정	–	–	–
	대학진학 준비하는 대학 유형	연구진 작성	–	–	–
	대학진학 준비 관련 사교육	연구진 작성	–	–	–
	대학진학 준비 사교육비 부담 정도	연구진 작성	–	–	–
일 경험	일 경험 여부	연구진 작성	○	○	○
	하고 있는 일 갯수	연구진 작성	–	○	–
	최근 한 달 내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경험	연구진 작성	○	○	○
	종사상 지위	연구진 작성(2020 종사상 지위 정의: 윤혜준 외(2019) 발췌, 2022 종사상 지위: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통계청, 2021) 활용)	○	○	○
	임금근로자 유형	연구진 작성(통계청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통계청, 2021) 참조)	–	○	–
	일을 하게 된 경로	연구진 작성	–	○	–
	일 종류	연구진 작성	○	○	○
	특성화고 전공과 일의 관련성	연구진 작성	–	○	–
	직장 소재지	연구진 작성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근무시간(총 근무일수/하루 평균 근무시간)	연구진 작성	–	○	–
	월평균 소득	연구진 작성	–	○	–
	업무만족도	김양분 외(2011) 발췌 및 수정	–	○	–
	월평균 수입 및 용돈	연구진 작성	–	–	○
	부채 여부 및 규모, 주된 원인	연구진 작성	–	–	○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취·창업 준비여부	연구진 작성	–	○	–
	취업 준비 활동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취업정보 수집 방법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취업 준비 직종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취업 준비 직종(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창업 준비 활동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창업정보 수집 방법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창업 준비 업종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창업 준비 업종(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교육훈련 경험	연구진 작성	–	○	–
	교육훈련 종류(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교육훈련 받은 기간(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교육훈련 제공기관	연구진 작성(교육훈련기관 유형: 윤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교육훈련 받은 목적	연구진 작성	–	○	–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 받지 않은 이유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헌,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 향후 교육훈련 받을 계획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헌,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구직활동	구직활동 경험	연구진 작성	–	○	–
	구직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유	연구진 작성	–	○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김양분 외(2011) 발췌 및 수정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노동 의지	연구진 작성	–	○	–
	현재 생활	연구진 작성	○	○	○
	(현재 쉬는 경우) 쉬는 이유	연구진 작성	○	○	○
심리.사회적응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발췌	–	○	–
	삶의 만족도	김신영 외(2006)을 인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김지경 외, 2010)	–	○	–
	우울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을 발췌·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	–	○	–
	주관적 건강상태	연구진 작성	–	○	–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있을 경우)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생활만족도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헌,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차별경험 유무	최윤정 외(2019) 수정 사용	–	○	–
	(차별경험이 있을 경우) 차별한 대상 및 차별 후 대응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한 경우) 도움 받은 공공기관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민간기관에 도움 요청 한 경우) 도움 받은 민간기관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도움요청하지 않은 경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학창시절 부당한 대우 경험	연구진 작성	–	○	–
	(부당한 경험 있을 경우) 부당한 경험의 시기 및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	연구진 작성	–	○	–
	다문화청소년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적 불이익 정도	연구진 작성	–	○	–
	구직과정에서 다문화배경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 받은 경험	연구진 작성	–	○	–
	건강상태	백혜정 외(2017)	–	–	○
	전반적 만족도	정세정 외(2022)	–	–	○
	행복감	정세정 외(2022)	–	–	○
	평소 여유시간 활동	연구진 작성	–	–	○
	평소 외출 정도	유민상 외(2022)	–	–	○
	사회적 고립	유민상 외(2022)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해외 출국 계획 여부 및 시기, 사유	연구진 작성	–	–	○
사회적 가치와 태도	사회적 가치	한국사회 인식: 김유빈 외(2019)에서 일부 발췌 한국교육 인식: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2019)에서 일부 발췌	–	○	–
	한국사회 인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헌,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태도	연구진 작성	–	○	–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도움 정도	연구진 작성	–	○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초점	연구진 작성	–	○	–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연구진 작성	–	○	–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인식	연구진 작성	–	○	–
진로	학업 포부수준	연구진 작성	–	○	–
	장래희망 유무	연구진 작성	–	○	–
	(장래희망 있는 경우) 장래희망 직업	연구진 작성	–	○	–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유한구 외(2016) 발췌 및 수정	–	○	–
	진로장벽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중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부족 발췌	–	○	–
정책 및 지원	청년지원정책 인지도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2019) 발췌 및 수정	–	○	–
	(인지 한 경우) 청년지원정책 이용 경험	김지경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청년지원정책 도움 정도	김지경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청년지원정책 이용하지 않은 이유	김지경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다문화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연구진 작성	–	○	–
	(필요 한 경우) 필요한 지원	연구진 작성	–	○	–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방식	연구진 작성	–	○	–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장소	연구진 작성	–	○	–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5)]

1) 표본설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기 패널은 2019년에 구축하였다. 조사 모집단은 2019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였으며, 표본추출틀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규모는 총 2,100여 명이며, 표본 설계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 유형과 17개 시·도로 층화를 만들고 부모 출신 국가도 함께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표본추출방식은 다문화학생 수 기준, 확률비례추출로 학교를 선정하였고, 해당 학교 내 다문화학생을 전수 조사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였다.

표 Ⅲ-6. 2기 패널 표본설계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 모집단 : 전국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조사 모집단 :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중도입국/외국인 가정의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표본추출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2018년 4월 1일 기준)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표본규모 : 전국 2,1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2.1%p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명시적 층화 : 다문화가정 유형(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17개 시·도 ■ 내재적 층화 : 부모의 출신국가 ■ 표본추출단위 - 1차(psu) : 학교 → 다문화학생 수 기준 확률비례추출 - 2차(ssu) : 학교 내 다문화학생 → 전수조사
표본배정방식	■ 다문화가족 유형별 : 50명 우선할당 후 나머지는 비례배분 ■ 17개 시·도별 : 비례배분
추정식	■ 표본 가중값을 적용하고, 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법 적용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성별, 다문화가족 유형별, 어머니 출신국가별, 어머니 학력별, 가구소득별, 지역 규모별 ■ 조사된 사례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25% 이상)에는 유사 인접층을 통합하여 공표하거나 내부 자료만으로 활용할 것이며, 모수추정 후 공표범위는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

* 출처: 양계민 외(2019: 124) 표 Ⅵ-7 발췌

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설계보고서(양계민, 2018: 35-5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19: 120-13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22: 58-71)를 요약, 발췌 및 수정함.

(1) 모집단

모집단은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으로 표본추출틀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2018년 4월 1일 기준)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 추출 시기인 2018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교를 모집단으로 삼았다(양계민, 2018: 38). 2기 패널의 전체 모집단 분포 현황은 〈표 Ⅲ-7〉과 같다.

표 Ⅲ-7. 2기 패널 모집단 분포 현황

(단위: 명, 개교)

구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구성비,%)
전국	14,163	4,612	902	645	2,069	729	17,134	4,805(100.0)
서울	1,458	447	169	115	543	162	2,170	485(10.1)
부산	684	237	42	33	34	24	760	246(5.1)
대구	477	175	30	28	47	24	554	182(3.8)
인천	710	202	80	52	144	55	934	214(4.5)
광주	372	124	12	11	44	12	428	128(2.7)
대전	325	108	14	13	16	13	355	115(2.4)
울산	390	98	15	13	32	19	437	99(2.1)
세종	82	30	4	4	4	4	90	31(0.6)
경기	2,903	930	306	191	830	241	4,039	999(20.8)
강원	474	214	12	11	10	9	496	217(4.5)
충북	622	203	27	23	61	24	710	210(4.4)
충남	1,046	341	47	36	101	41	1,194	347(7.2)
전북	888	303	22	19	23	17	933	306(6.4)
전남	1,046	331	27	23	21	13	1,094	339(7.1)
경북	1,158	380	23	20	58	26	1,239	389(8.1)
경남	1,301	404	49	35	73	30	1,423	408(8.5)
제주	227	85	23	18	28	15	278	90(1.9)

* 출처: 양계민 외(2022: 59) 표 Ⅲ-7 발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원출처)
※ 다문화 유형이 중복된 학교가 있어 전체 학교 수와 유형별 학교 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2) 표본추출

2기 패널 조사는 17개 시·도와 다문화가정 유형을 고려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변형비례배분을 적용하여 1차로 표본을 배분하고, 다문화가족 유형과 지역 표본 결과를 보완해서 하나의 셀에 최소 3명 이상이 되도록 추가 할당하였다. 표본추출 단위는 학교로 층화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표본추출 시 층 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가 추출될 확률을 높이고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을 활용하여 학교를 선정하였다(양계민, 2018: 47).

표 Ⅲ-8. 2기 패널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

구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전국	1,580	20	1,600	147	53	200	273	27	300	2,000	100	2,100
서울	163	0	163	28	3	31	72	1	73	263	4	267
부산	76	0	76	7	3	10	4	2	6	87	5	92
대구	53	0	53	5	3	8	6	2	8	64	5	69
인천	79	0	79	13	3	16	19	2	21	111	5	116
광주	41	0	41	2	3	5	6	2	8	49	5	54
대전	36	0	36	2	3	5	2	2	4	40	5	45
울산	44	0	44	2	3	5	4	2	6	50	5	55
세종	10	15	25	2	2	4	2	1	3	14	18	32
경기	324	0	324	48	6	54	107	0	107	479	6	485
강원	53	0	53	2	3	5	2	1	3	57	4	61
충북	69	0	69	4	3	7	8	2	10	81	5	86
충남	117	0	117	8	3	11	13	2	15	138	5	143
전북	99	0	99	4	3	7	3	2	5	106	5	111
전남	117	0	117	4	3	7	3	2	5	124	5	129
경북	129	0	129	4	3	7	8	1	9	141	4	145
경남	145	0	145	8	3	11	10	1	11	163	4	167
제주	25	5	30	4	3	7	4	2	6	33	10	43

* 출처: 양계민 외(2022: 59) 표 Ⅲ-8 발췌

(3) 표본구축 결과 및 패널 유지율[6)]

2기 패널 표본 대상자는 총 2,223가구의 청소년 2,245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총 가구 수와 청소년 수의 불일치는 한 가구 내 다문화청소년 2명이 원패널로 구축된 사례로 인한 결과이다. 시·도 및 다문화가족 유형별 원패널 구축 현황은 〈표 Ⅲ-9〉에 제시하였다. 모집단 분포와 비율에 따라 표집한 결과,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 가구 수가 1,719가구로 가장 많고, 외국인가정(355가구), 중도입국가정(149가구) 순이다.

표 Ⅲ-9. 2기 패널 시·도 및 다문화가족 유형별 구축 현황

(단위: 가구, 명)

시·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가구 수	청소년 수	가구 수	청소년 수	가구 수	청소년 수	가구 수	청소년 수
전국	1,719	1,734	149	150	355	361	2,223	2,245
서울	163	164	23	24	76	76	262	264
경기	303	305	44	44	151	156	498	505
인천	80	82	15	15	26	26	121	123
강원	60	60	2	2	2	2	64	64
충북	83	83	4	4	10	11	97	98
대전	41	42	6	6	7	7	54	55
충남	119	121	8	8	24	24	151	153
세종	25	25	1	1	1	1	27	27
대구	80	81	2	2	11	11	93	94
경북	128	128	7	7	6	6	141	141
경남	150	151	14	14	7	7	171	172
부산	79	81	13	13	6	6	98	100
울산	46	47	1	1	6	6	53	54
광주	50	50	3	3	12	12	65	65
전북	102	102	1	1	4	4	107	107
전남	180	182	3	3	2	2	185	187
제주	30	30	2	2	4	4	36	36

* 출처: 양계민 외(2022: 61) 표 Ⅲ-9 발췌

현재까지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유형별 현황은 〈표 Ⅲ-10〉과 같다. 지난 2019년 최초 구축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가구 중, 그 이듬해 중도입국 유형의 이탈률이 다소

6) 2기 패널을 구축한 이후 매년 본 조사를 시작하기 전 전화조사로 원패널 대상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고 있음. 다만, 2022년 전화조사 중 모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이 발견되어 원패널 대상에서 제외하였기에 기존에 발간된 보고서에 제시된 패널 구축 현황의 가구 수와 청소년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높아서 26가구를 추가 구축하였다. 지난 4차 조사에는 학교급 전환으로 인해 조사 참여율이 다소 떨어져 총 1,875가구(국제결혼가정 1,457가구, 외국인가정 271가구, 중도입국가정 147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Ⅲ-10. 2기 패널 다문화가족 유형별 조사 참여가구 현황(2019년~2022년)

(단위: 가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존패널	추가구축	계		
국제결혼가정	1,719	1,578	-	1,578	1,528	1,457
중도입국가정	149	137	26	163	155	147
외국인가정	355	312	-	312	296	271
합계	2,223	2,027	26	2,053	1,979	1,875

* 출처: 양계민 외(2022: 62) 표 Ⅲ-10 발췌 및 수정

2기 패널 조사의 성별 청소년 참여 현황은 〈표 Ⅲ-11〉과 같다.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의 청소년 성별 비율이 남자는 50~51%, 여자는 48~49%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중도입국가정의 경우 2019년 구축 당시 남자 청소년이 13.4%p 더 높았지만 2차(2020년)도에 26가구를 추가 구축하여 성별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었다.

표 Ⅲ-11. 2기 패널 성별 청소년 참여 현황(2019년~2022년)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제결혼가정	남자	878(50.6)	821(51.4)	797(51.5)	757(51.2)
	여자	856(49.4)	776(48.6)	750(48.5)	722(48.8)
	계	1,734(100.0)	1,597(100.0)	1,547(100.0)	1,479(100.0)
중도입국가정	남자	85(56.7)	87(53.0)	84(53.8)	82(55.4)
	여자	65(43.3)	77(47.0)	72(46.2)	66(44.6)
	계	150(100.0)	164(100.0)	156(100.0)	148(100.0)
외국인가정	남자	182(50.4)	159(51.0)	153(51.7)	135(50.4)
	여자	179(49.6)	153(49.0)	143(48.3)	133(49.6)
	계	361(100.0)	312(100.0)	296(100.0)	268(100.0)
합계	남자	1,145(51.0)	1,067(51.5)	1,034(51.7)	974(51.4)
	여자	1,100(49.0)	1,006(48.5)	965(48.3)	921(48.6)
	계	2,245(100.0)	2,073(100.0)	1,999(100.0)	1,895(100.0)

2) 조사내용

패널 구축 시기인 2019년도에 설문지를 청소년 2종과 학부모 4종으로 개발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2차 조사(2020년)에서는 입국과 입학 전 경험 관련 문항들을 삭제하면서 청소년 2종과 학부모 3종으로 변경되었다. 3차년도(2021년)에는 이전 연도와 유사하게 설문을 구성하였으나 응답자 관점에서 설문 문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4차년도(2022년)는 청소년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로 학교급 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문항들을 재검토하였다. 세부적으로 비행,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관련된 생활 및 태도, 친구와 선후배 관계, 정서 문제,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및 만족도, 다문화가정 특별지원에 대한 정책 당사자의 생각, 필요한 지원 정책 등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 문항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번 5차 조사(2023년)는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해당하므로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준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를 거쳐 자유학기(년)제 경험 시기와 기간, 진로준비역량,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인권, 사회적 고립(외로움) 등 신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설문지 조사 영역 및 구성내용은 〈표 Ⅲ-12〉에 정리해 제시하였다.

학부모 설문지 또한 패널 구축 당시 외국인 학부모 2종과 한국인 학부모 2종으로 총 4종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2차년도 조사부터는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문항들을 삭제하여 총 3종(외국인학부모 1종, 한국인학부모 2종)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4차년도까지 특별히 변경한 문항들은 없었으나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응답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들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번 5차년도는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인 점을 감안하여 자녀의 진로준비활동과 자유학년(기)제 여부,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문항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학부모 설문지의 조사 영역과 내용은 〈표 Ⅲ-13〉과 같다.

표 Ⅲ-12.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3년)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MAPS 1기	○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의 언어 교육	연구진 작성	○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
		· 자신의 한국어 실력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및 MAPS 1기 문항	–	○	–	○	–	○	–	○	–	○
		· 입국 후, 학교 입학 전 한국어 배운 경험 및 장소	연구진 작성	–	○	–	–	–	–	–	–	–	–
	이중 문화 경험	· 국적에 대한 인식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및 횟수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
		· 문화적응스트레스	Hovey & King(1996)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노충래(2000)를 수정한 홍진주(2004)를 수정하여 사용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국가정체성	성한기(2001) 발췌 및 수정	○	○	○	○	○	○	○	○	○	○
		· 이중문화수용태도	노충래, 홍진주(2006) 발췌 및 수정	○	○	○	○	○	○	○	○	○	○
	지원정책	· 특별지원 필요성 및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원하는 지원내용	MAPS 1기 수정	–	–	–	–	–	–	○	○	○	○
개인 요인	심리사회 적응, 행동 및	· 건강평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수정	○	○	○	○	○	○	○	○	○	○
		· 스트레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건강	· 정서문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일부 문항 발췌	–	–	–	–	–	–	○	○	○	○
		· 자존감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
		· 사회적 역량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
		· 삶의 만족도	김신영 외(2006)을 인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김지경 외, 2010)	○	○	○	○	○	○	○	○	○	○
		· 현재 걱정거리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 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가해자, 차별경험 대처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충래, 고주애, 윤수경, 2018) 수정	○	○	○	○	○	○	○	○	○	○
		·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연구진 작성	○	○	○	○	○	○	○	○	○	○
		· 친한 친구 수	MAPS 1기	○	○	○	○	○	○	○	○	○	○
		· 친한 친구 국적	MAPS 1기 및 연구진 작성	–	○	–	○	–	○	–	○	–	○
		· 비행	이경상 외(2003)를 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 및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하형석 외, 2018)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 사이버비행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사이버비행 가해경험을 수정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사이버비행 중 사이버비방 발췌	–	–	–	–	–	–	○	○	○	○
		· 인권	김경준 외(2014)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 사회적 고립(외로움)	유민상 외(2022)	–	–	–	–	–	–	–	–	○	○
	인지	· 학교성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	○	○	○	○	○	○	○	○	○
		· 성적에 대한 만족도	MAPS 1기	○	○	○	○	○	○	○	○	○	○
	진로	· 희망교육수준	MAPS 1기	○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 진학하기 희망하는 곳	MAPS 1기 수정(2022년 조사: 학부모 대상)	–	–	–	–	–	–	–	–	○	○
		· (대학교 이상 교육 희망 시) 원하는 교육 수준	MAPS 1기 수정(2022년 조사: 학부모 대상)	–	–	–	–	–	–	–	–	○	○
		· 희망직업	MAPS 1기	○	○	○	○	○	○	○	○	○	○
		· 학교 마친 후 일하고 싶은 나라	연구진 구성	○	○	○	○	○	○	○	○	○	○
		·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상담)하는 사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	○	○	○	○	○	○	○	○	○
		· 진로준비역량	김민경 외(2022)	–	–	–	–	–	–	–	–	○	○
		·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김양분 외(2015) 수정·보완 및 연구진 작성	–	–	–	–	–	–	–	–	○	○
		· 진로태도 결정성	이기학, 한종철(1997)의 진로태도 중 진로태도 결정성 문항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환경 요인	부모	· 부모의지지(교육적 지원 및 기대)	김순규(2001) 수정	○	○	○	○	○	○	○	○	○	○
		· 부모의 양육태도	허묘연(2000) 수정 발췌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김지경 외, 2010, 이경상 외, 2011)	○	○	○	○	○	○	○	○	○	○
		·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
		· 하루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
		· 방과 후 보호자 부재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	○	○	○	○	○	○	○	○	○
		· 가정형편	연구진 작성	○	○	–	–	–	–	–	–	–	–
	친구	· 친구의 지지	한미현(1996) 발췌	○	○	○	○	○	○	○	○	○	○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이해경, 김혜원(2001) 수정	○	○	○	○	○	○	○	○	○	○
	학교 생활	· 학교생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	○	○	○	○	○	○	○	○	○
		·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	연구진 작성	○	○	○	○	○	○	○	○	○	○
		·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MAPS 1기 수정	○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MAPS 1기 수정	○	○	○	○	○	○	○	○	○	○
		· 교사의 지지	한미현(1996) 발췌 및 수정	○	○	○	○	○	○	○	○	○	○
		· 학교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MAPS 1기 수정	○	○	○	○	○	○	○	○	○	○
	지역사회 지지망	·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MAPS 1기 수정	○	○	○	○	○	○	○	○	○	○
	학업중단 위험요인	· 학업중단 위험요인 생활 및 태도	이자영 외(2010) 문항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 학업중단 위험요인 친구 및 선후배 영향	김순규(2001)의 문항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중도입국	학교 관련	· 한국 오기 전 학교 경험	연구진 작성	–	○	–	–	–	–	–	–	–	–
		· 한국 입학(편입) 학년	연구진 작성	–	○	–	–	–	–	–	–	–	–
		·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연구진 작성	–	○	–	–	–	–	–	–	–	–
	미래 생활	· 국적취득 희망	연구진 작성	–	○	–	○	–	○	–	○	–	○
		· 한국 거주 희망	연구진 작성	–	○	–	○	–	○	–	○	–	○
기타	방과 후 생활	· 방과 후 활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	○	–	–	–	–	–	–	–	–
	청소년 활동	·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등	사회조사표(통계청, 2017) 발췌 및 수정	○	○	–	–	–	–	–	–	–	–
		·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 출처: 양계민 외(2022: 64-67) 표 Ⅲ-12 발췌 및 수정

표 Ⅲ-13.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3년)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배경 변인	가족 특성	·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 및 관계 만족도	MAPS 1기 및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충래 외, 2018) 수정	○	○	○	○	○	○	○	○	○	○	○	○	○	○	○	○
		· 가정의 월평균 소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가정의 주요 소득원	MAPS 1기	○	○	○	○	○	○	○	○	○	○	○	○	○	○	○	○
		· 가정의 경제적 수준(가정형편)	MAPS 1기	○	○	○	○	○	○	○	○	○	○	○	○	○	○	○	○
개인 요인	심리 사회 적응 및 건강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장소, 차별 대처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충래 외, 2018) 수정	○	○	–	–	–	–	–	–	–	–	–	–	–	–	–	–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대상별 피해 경험, 차별 대처 및 차별 사유	김지혜 외(2019) 및 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발췌	○	○	○	○	○	○	○	○	○	○	○	○	○	○	○	○
		· 전반적 건강 상태	MAPS 1기	○	○	○	○	○	○	○	○	○	○	○	○	○	○	○	○
		·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	○	○	○	○	○	○	○	○	○	○	○	○	○	○	○
문화 특성	언어 능력	· 모국어	MAPS 1기	○	○	–	–	○	–	–	○	–	–	○	–	–	○	–	–
		· 한국어 학습경험	MAPS 1기	○	○	–	–	○	–	–	○	–	–	○	–	–	○	–	–
		· 한국어 수준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	○	–	–	○	–	–	○	–	–	○	–	–	○	–	–
	문화 적응	· 주로 어울리는 사람	(1-4차)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5차)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	○	–	–	○	–	–	○	–	–	○	–	–	○	–	–
		·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승종(1995) 번안, 이소래(1997)가 수정한 것을 수정 후 사용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문화적응 유형	Barry(2001) 발췌 및 수정 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및 양육	· 자녀와 대화 시 사용 언어	MAPS 1기	○	○	–	○	○	–	○	○	–	○	○	–	○	○	–	○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MAPS 1기	○	○	–	○	○	–	○	○	–	○	○	–	○	○	–	○
		·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한국 오기 전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함께 한 사람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기간 및 소요 이유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입학 시기 및 입학이 늦어진 사유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MAPS 1기	○	○	○	○	○	○	○	○	○	○	○	○	○	○	○	○
		· 자녀 학교문제, 숙제지도 하는 사람	MAPS 1기	○	○	○	○	○	○	○	○	○	○	○	○	○	○	○	○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선호하는 자녀 교육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방과후 교육(사교육 경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김지경 외, 2010) 수정	○	○	○	○	○	○	○	○	○	○	○	○	○	○	○	○
		· 자녀 진로준비활동	황진구 외(2022) 발췌 및 수정,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자녀의 자유학년(기)제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김양분 외(2015) 수정 및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외국인	한국인학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양육 관련 특성	·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노충래 외, 2018)	○	○	○	○	○	○	○	○	○	○	○	○	○	○	○	○
		· 부모효능감	Gibaude-Wallstom & Wandersman (1978)의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한 신숙재 (1997)을 수정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자녀 진학/ 진로 및 향후 희망 거주	·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MAPS 1기	○	○	○	○	○	○	○	○	○	○	○	○	○	○	○	○
다문화 지원 정책	지원 정책 태도	·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도	MAPS 1기	○	○	○	○	○	○	○	○	○	○	○	○	○	○	○	○
		· 자녀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김영혜, 김다경(2016)	○	○	○	○	○	○	○	○	○	○	○	○	○	○	○	○
		· 선호하는 지원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출처: 양계민 외(2022: 69-71) 표 Ⅲ-13 수정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연구대상자로 하므로,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준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하여 본 조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 신청을 위해서는 연구계획 심의신청서와 함께 연구계획서, 조사 설명문 및 조사 동의서, 설문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체 연구진의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추가로 생명윤리준수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일은 5월 17일이며, 6월 8일에 최종 승인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는 202305-HR-고유-011이다.

2)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및 통계변경승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3호)이므로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통계청과 협의해야 한다. 예컨대, 조사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 시 통계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절차를 거쳐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과거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에 행정자료 활용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근거로 5월 26일 자체판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자료 활용은 불가하였다.

이처럼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결과를 근거로 6월 2일에 통계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6월 5일 사회통계심사조정과로부터 최종 변경승인을 통보받았다. 다만, 1기 패널의 경우 여러 여건상 2021년 유지조사에서 2022년 본 조사, 2023년 다시 유지조사로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 통계조사의 신뢰도와 정확성 재검토, 패널 관리계획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3) 조사절차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설문 문항들을 1차로 결정하고, 이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통계청 변경승인 과정을 거쳐 조사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리고 조사 진행을 위해 TAPI(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조사 대상자의 특성[7]에 따라 각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표 버전으로 만들었다. TAPI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조사원들은 조사 대상자와 사전에 일정과 장소를 조율한 뒤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기 패널의 경우는 1~8차 년도까지 CAPI(Computer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9차 년도부터 TAPI로 변경하였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지조사로 실시한 11차와 13차는 각각 CATI(CATI: Computer Assistant Telephone Interview), 온라인 웹(Web)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패널별 설문조사 소요시간[8]은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2019~2022년 패널별 설문조사(TAPI) 소요시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기 패널	2기 패널	1기 패널	2기 패널	2기 패널	1기 패널	2기 패널
청소년	27.3분	22.8분	16.4분	18.2분	19.0분	25.9분	20.5분
학부모	28.8분	22.0분	-	21.7분	22.3분	-	19.8분

* 출처: 양계민 외(2022: 73) 표 Ⅲ-14 발췌 및 수정

2기 패널을 구축한 시기인 2019년부터는 1기 패널과 2기 패널 모두 동일한 시기에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22년도만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예컨대, 1기 패널은 4월부터 7월까지, 2기 패널은 6월부터 10월까지 각각 진행하였으며, 각 연도별 조사대상 및 실사기간, 최종결과 공표일은 〈표 Ⅲ-15〉와 같다. 1기 패널을 유지조사로 진행한 2021년과 2023년도는 조사 대상자의 진로 현황만 간단히 조사하였기에 별도로 기초분석보고서를 공표하지 않는다.

7) 외국출생 청소년의 경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번역하고, 외국인 학부모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로 번역하여 설문을 진행함.

8) 1기 패널 1~8차년도 설문조사 소요시간은 2021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21: 59) 참조

표 Ⅲ-15. 연도별 조사대상 및 실사기간, 최종결과 공표일

연도	조사대상 기간	조사실사 기간	최초결과공표
2011	과거부터 현재	2011. 8 ~ 2011.11	2011. 12. 31
2012	2011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2. 6 ~ 2012. 8	2012. 12. 31
2013	2012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3. 5 ~ 2013. 7	2013. 12. 31
2014	2013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4. 6 ~ 2014. 8	2014. 12. 31
2015	2014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5. 5 ~ 2015. 8	2015. 12. 31
2016	2015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6. 5 ~ 2016. 7	2016. 12. 31
2017	2016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7. 7 ~ 2017.10	2018. 12. 31
2018	2017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8. 7 ~ 2018.10	2019. 12. 31
2019	2018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1기 패널) 과거부터 현재(2기 패널)	2019. 6 ~ 2019.10	2020. 12. 31
2020	2019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0. 7 ~ 2020.11	2021. 12. 31
2021	2020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1. 6 ~ 2021.10	2022. 12. 31 (2기 패널 결과만 공표)
2022	2021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1기: 2022. 4~2022. 7 2기: 2022. 6~2022. 10	2023. 12. 31(예정)
2023	2022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3. 6 ~ 2023.10	2024. 12. 31 (2기 패널 결과만 공표)

* 출처: 양계민 외(2022: 74) 표 Ⅲ-15 발췌 및 수정

4) 조사원 관리 및 교육

패널조사의 특성상 조사원 전문성은 패널 유지율 관리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조사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원 관리와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사원 선발 시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실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고, 가구 방문 조사 및 가구 패널조사를 경험한 인원으로 한정하였다. 추적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 배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한 가구인 경우 매 차수마다 진행해 왔던 조사원을 배정하여 서로 간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조사원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른 조사원에게 이관하였다. 그러나 이관할 수 있는 조사원이 없다면 청소년 및 가구 패널조사 유경험자로 다시 선발하고 조사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조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2023년 조사원 구성 중 2022년에 참여한 조사원은 총 64명(96.9%)이며, 2022년 기준 조사원 1인당 15.6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원 교육은 대면 집체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별 세부 교육 일시 및 장소는 〈표 Ⅲ-16〉과 같다. 주로 한국갤럽 본사와 지역 사무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정상 교육 참석이 어렵거나 조사원이 변경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사원 집체 교육은 다문화 패널조사 개요와 패널 관리, 조사표 설명, TAPI 안내 및 실습, Q&A 질의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개요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연혁과 조사 목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패널 관리는 패널 유지 방안과 추적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조사표는 당해연도 문항 구성과 주요 변동사항 안내, 세부 작성 지침들을 설명한 뒤 TAPI로 가구원부 작성과 함께 직접 실습하였다.

표 Ⅲ-16. 조사원 교육 일정

지역	일시	장소	교육 참석 조사원 수	추가 교육 조사원 수
수도권	2023.06.20.(화) 10:00	한국갤럽 본사	18	1
대전	2023.06.23.(금) 10:00	한국갤럽 대전지사	9	2
대구	2023.06.23.(금) 14:30	한국갤럽 대구지사	12	1
부산	2023.06.26.(월) 10:30	한국갤럽 부산지사	13	-
제주	2023.06.26.(월) 10:30	제주회의실	1	-
광주	2023.06.27.(화) 14:30	한국갤럽 광주지사	12	-
강원	2023.06.27.(화) 13:00	강원 리서치	5	-

5) 조사 실사

1기 패널은 유지조사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웹(Web)조사를 진행한 반면, 5차 추적조사인 2기 패널은 청소년과 그 학부모를 방역지침[9]을 준수하며 대면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9) 조사 과정에서 준수한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은 양계민 외(2021: p.62) 〈표 Ⅲ-14〉를 참조

4. 원패널 관리

1) 원패널 관리 원칙 및 절차

(1) 원패널 관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1기 및 2기 패널을 구축하여 관리한다. 올해 1기 패널(13차)은 여러 여건상 유지조사로 진행하고, 2기 패널은 5차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패널조사 특성상 매해 동일한 대상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패널 관리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패널 관리방안은 〈표 Ⅲ-17〉과 같다.

표 Ⅲ-17. 원패널 관리 방법 및 내용

관리 방법	내용
동일 조사원 투입	■ 패널과 조사원의 라포 형성을 위하여 가능한 매년 동일한 조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사원에게 여러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조사원 변경 시에 인수인계 프로그램 운영
전화관리	■ 이사 또는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연락 두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가구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화 조사로 기본 정보 업데이트 ■ 전화가 가능한 일시에 접촉,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수신율을 향상하고, 접촉 시간 구조화로 전화관리 조사 진행
연하장 및 명절선물 제공	■ 전년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감사인사를 담은 연하장 및 명절 선물 제공을 통해 당해 연도에도 조사 참여를 독려 ■ 각 가구에 담당 조사원의 이름,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조사 신뢰도와 조사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 목적, 주관기관 안내, 전년도 주요 조사결과 요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제작 ■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리플릿을 가구방문 조사시 제공
답례품 제공	■ 매년 조사 후, 조사 참여 유도와 성실한 응답을 위해 조사 참여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소정의 상품권 지급
홈페이지 운영	■ 조사 홍보와 주요 사항 안내 목적으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전용 홈페이지 운영 (http://maps.gallup.co.kr) ■ 홈페이지 리뉴얼(2020년) 진행 ■ 조사 배경과 목적, 조사 주관기관 및 실사기관, 조사결과 등 수록. 패널조사 당사자가 조사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접근이 쉽도록 구성
수신자 부담 전화 운영	■ 본조사 관련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080-336-2580) 운영

관리 방법	내용
연락처 및 접촉 경로 확대	■ 조사 참여 청소년 및 어머니 외 가구 구성원의 연락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접촉 경로 확보 ■ 휴대전화 메신저(예: 카카오톡)의 사용 빈도가 높아져 관련 정보 수집으로 원활한 접촉 경로 마련
이사가구 추적조사	■ 미리 파악된 이사시기를 고려하여 추가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이사에 따른 패널 이탈을 방지
가구정보 변동시 자발적 통보가구 인센티브 제공	■ 가구 구성원이 사전에 가구정보 변동사항을 알릴 경우, 인센티브 제공과 해당 사항을 포함한 리플릿을 각 가구에 안내함.
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1기 패널)	■ 2023년(13차)은 유지조사로 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
청소년 연락처 수집 및 거주지 파악 (1기 패널)	■ 1기 패널은 양육자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연락정보 및 거주지 파악

* 출처: 양계민 외(2022: 77-78) 발췌 및 수정

(2)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가 상당히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근거로 조사 진행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자료 공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조사원 교육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가구 방문 시 가구정보, 가구원부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또한 조사에서 활용하는 태블릿 PC도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사 이후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들은 모두 파기하며, 데이터로 만들어진 자료 또한 암호화시켜 지정된 관리 담당자와 일부 연구진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의 경우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홈페이지와 실사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승인된 USB 외에는 다른 저장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내부망으로 관리되는 클라우드 역시 승인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 자료를 공표할 때에는 개인의 일련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조사 당시 부여된 일련번호와 마이크로데이터용 일련번호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또한 전체나 집단의 평균값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공개 시 특정 정보의 조합으로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식별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일례로 지역코드 변수의 경우 시도에서 권역별로 리코딩하거나 일부 변수는 비공개처리하고 있다.

(3) 연구자 생명윤리교육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인간대상 연구로 연구진들은 조사 대상자 보호 등 생명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연구진들의 최근 3년간 생명윤리교육 이수 현황은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최근 3년 간 연구진 생명윤리교육 이수 현황

번호	과정명	수료날짜	운영기관	비고
1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종사자 교육	2021.04.02.	질병관리본부	공동연구원
2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2022.01.21.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책임자
3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2022.03.08. 2022.03.18.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4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2023.03.07. 2023.05.16.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 출처: 양계민 외(2022: 79) 발췌 및 수정

(4) 조사원 모니터링

패널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 간 신뢰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조사원의 자질은 조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일부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예컨대, 조사원이 방문 전에 사전 연락을 하였는지, 조사원이 약속된 장소에 직접 방문하였는지, 조사 이후 상품권 수령 여부와 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원의 행동에 불편함은 없었는지, 그 외에도 조사원과의 관계와 만족도, 건의사항을 확인하였다.

2022년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3주 간 조사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1기 패널은 315명(본 조사 참여대상 31.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원 방문 여부는 응답자의 36.8%만 방문 조사를 실시한 반면 63.2%는 온라인 조사로 참여하였다. 다만, 대상자 모두가 조사원과 사전 연락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였고, 97.1%는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가운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2.9%)는 청소년의 경우 조사원 확인 결과 상품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응답자가 조사원 자질에 불편함이 없었고, 응답자 대부분 조사원과 관계가 좋으며(89.5%), 조사원 만족도도 94.3%로 높은 편이었다. 기타 및 건의사항으로 문자로 사전 안내 요청과 모바일 조사 진행, 조사 기한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2기 패널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중에서 386명(본 조사 참여가구 20.6%)을 전화조사로 실시하였다. 대부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99.0%), 이는 대부분 조사원과의 사전 연락(99.2%)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대상자 모두가 상품권을 수령하였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원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없었다(99.2%)는 의견이 높았다. 조사원과의 관계와 조사원 만족도는 각각 90.7%와 92.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조사 외에도 다양한 정보 제공,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이나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2) 이탈패널 분석

(1) 1기 패널

1기 패널은 2022년 12차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1차부터 12차까지 지역별 전체 이탈률 및 유지율 현황은 〈표 Ⅲ-19〉와 같다. 2022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패널 유지율은 61.5%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의 이탈률이 80.0%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구축된 가구수가 총 15가구로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대구(52.4%), 울산(51.6%), 대전(50.0%) 등의 순으로 이탈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남과 전북 지역은 각각 17.5%와 24.1%로 비교적 낮았다.

표 Ⅲ-19. 1기 패널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시·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179	79	12.6	44.1	55.9
부산	74	23	3.7	31.1	68.9
대구	42	22	3.5	52.4	47.6
인천	67	29	4.6	43.3	56.7
광주	42	20	3.2	47.6	52.4
대전	24	12	1.9	50.0	50.0
울산	31	16	2.6	51.6	48.4
경기	383	188	30.0	49.1	50.9
강원	90	24	3.8	26.7	73.3
충북	74	29	4.6	39.2	60.8
충남	117	42	6.7	35.9	64.1
전북	108	26	4.2	24.1	75.9
전남	160	28	4.5	17.5	82.5
경북	101	34	5.4	33.7	66.3
경남	118	42	6.7	35.6	64.4
제주	15	12	1.9	80.0	20.0
합계	1,625	626	100.0	38.5	61.5

2022년에 이탈한 1기 패널 청소년의 진로별 이탈 현황은 다음 〈표 Ⅲ-20〉과 같다.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이탈률은 대학생이 64.3%로 가장 높고, 직업별 가구수 대비 이탈률은 직장인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20. 1기 패널 청소년 진로별 패널 이탈 현황(2022년)

청소년 진로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청소년 직업별 가구수 대비
대학생	722	36	64.3	5.0
직장인	148	12	21.4	8.1
무직	138	8	14.3	5.8
구분 불가	6	-	-	-
합계	1,014	56	100.0	5.5

지난 12년 간 패널이 가장 많이 이탈한 사유는 '연락 안 됨'이 3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학이나 이민 등'(16.6%), '강력 거절'(9.6%) 등의 순으로 이탈률이 높았다.

표 Ⅲ-21. 1기 패널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전체)

구분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불응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함	199	31.8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60	9.6
			바쁘다며 거절	34	5.4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25	4.0
			귀찮고 싫다며 거절	22	3.5
			아빠가 반대함	21	3.4
			약속 후 연락피함/거절	19	3.0
			관리조사 시 이미 거절 의사 밝혔다며 거절	9	1.4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연락 피함	8	1.3
			도움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음	7	1.1
			의무아니면 하기 싫음	4	0.6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거절	4	0.6
			개인적인 일 말하는 것 싫음	3	0.5
			약속 피하여 방문하여 설득했으나 강력거절	3	0.5
			다문화관련 조사 참여하기 싫음	2	0.3
			찾아오는 것 싫다며 거절	2	0.3
			어머니가 거절하여 아버님께 협조구했으나 바쁘고 집안 사정 있다며 거절	1	0.2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2020년 이전)지난 번에도 학교 요청으로 겨우 했다고 함	1	0.2
			(2020년 이전) 학생이 하기 싫어함	37	5.9
			군입대	26	4.2
			개인사정으로 거절	17	2.7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11	1.8
			학생의 사정으로 진행 불가(기숙사, 체육부, 소년원 시설 등)	7	1.1
			어머니 가출, 아버지 거절	4	0.6
			배 승선 중으로 참여 불가	3	0.5
			가족 간병으로 바쁨	2	0.3
			남편 사망 후 거절	2	0.3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자녀 이사. 조사 참여 거절	2	0.3
			재수해서 바쁨	2	0.3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학생 가출	1	0.2
			어머니 가출 후 타가구원 거절	1	0.2
			어머니 가출, 가구원 거절	1	0.2
			학생이 친엄마에게 감, 친엄마가 조사 거절	1	0.2

구분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불능	해외 체류	해외 체류	유학, 이민 등	79	12.6
			해외 취업으로 인해 진행 불가	1	0.2
	기타	기타	기타	5	0.8
합계				626	100.0

* 출처: 양계민 외(2022: 81) 표 Ⅲ-22 수정

2022년 조사에서 이탈한 대상자 56가구의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함'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으며, '군 입대'(19.6%), '강력 거절'(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1기 패널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2022년)

구분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불응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함	29	51.8
불응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6	10.7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3	5.4
			약속 후 연락 피함/거절	2	3.6
			바쁘다며 거절	1	1.8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군 입대	11	19.6
			배 승선중으로 참여 불가	3	5.4
불능	기타	기타	기타	1	1.8
합계				56	100.0

(2) 2기 패널

최근 4년간 2기 패널의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3〉과 같다. 2기 패널은 2019년 구축한 가구 외에도 2020년에 추가로 구축한 가구를 포함하여 이탈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체 이탈 가구수 기준으로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24.7%, 17.7%로 높았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구축된 가구수가 많기 때문이나, 여전히 서울은 지역에 구축된 가구수 대비 이탈률(24.2%)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도별 가구수 기준의 경우 제주(33.3%)가 가장 높고, 전남(8.6%)과 강원, 경남(각각 9.2%)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구축된 대상 가구수가 36가구로 타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1~2 가구만 탈락하여도 이탈률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Ⅲ-23. 2기 패널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시·도	전체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273	66	17.7	24.2	75.8
부산	98	12	3.2	12.2	87.8
대구	93	20	5.4	21.5	78.5
인천	121	18	4.8	14.9	85.1
광주	65	14	3.8	21.5	78.5
대전	54	7	1.9	13.0	87.0
울산	53	10	2.7	18.9	81.1
세종	27	3	0.8	11.1	88.9
경기	510	92	24.7	18.0	82.0
강원	65	6	1.6	9.2	90.8
충북	96	13	3.5	13.5	86.5
충남	151	23	6.2	15.2	84.8
전북	107	18	4.8	16.8	83.2
전남	185	16	4.3	8.6	91.4
경북	142	26	7.0	18.3	81.7
경남	173	16	4.3	9.2	90.8
제주	36	12	3.2	33.3	66.7
합계	2,249	372	100.0	16.5	83.5

* 주: 1) 원표본은 학생임(즉, 학생이 탈락한 가구는 탈락으로 간주하나, 어머니가 거절하고 학생만 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 가구는 유지로 간주)
2) 시·도는 1차년도 조사 기준임(이사로 인해 시·도가 변경된 경우가 있음)

2기 패널의 가구 유형별 패널 이탈 현황은 〈표 Ⅲ-24〉와 같다. 전체 패널 유지율은 83.5%이며, 가구 유형별로 국제결혼가정이 85.3%로 가장 높고, 중도입국가정(84.0%), 외국인가정(74.4%) 순이다.

표 Ⅲ-24. 2기 패널 유형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가구유형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유지율(%)
국제결혼가정	1,719	253	85.3
중도입국가정	175	28	84.0
외국인가정	355	91	74.4
전체	2,249	372	83.5

* 주: 1) 원표본은 학생임(즉, 학생이 탈락한 가구는 탈락으로 간주하나, 어머니가 거절하고 학생만 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 가구는 유지로 간주)
2) 시·도는 1차년도 조사 기준임(이사로 인해 시·도가 변경된 경우가 있음)

1~4차 년도까지 2기 패널 이탈 사유는 〈표 Ⅲ-25〉와 같다. '연락이 안 되는' 사유가 30.1%로 가장 많았고, '강력 거절'(19.4%), '유학, 이민 등'(6.7%)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Ⅲ-25. 2기 패널 패널 이탈 사유(전체)

이탈 사유			전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수**	**%**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112	30.1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72	19.4
		바쁘다며 거절	37	9.9
		코로나로 인해 조사 거절	26	7.0
		아버지가 거절	21	5.6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조사 거절	10	2.7
		약속 계속 미루다가 거절	8	2.2
		약속 후 연락 피함/거절/부재	5	1.3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음	4	1.1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바빠서 거절	2	0.5
		혜택이 없다면 거절	2	0.5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거절	2	0.5
		조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거절	2	0.5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거절	1	0.3
		기분 좋은 조사는 아니므로 거절	1	0.3
		부모님 이혼, 아버지 거절	1	0.3
		스트레스 받으므로 거절	1	0.3
		전화 비수신이며 방문 시 거절	1	0.3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이혼 후 조사 참여 거절	9	2.4
		학생이 하기 싫어함	9	2.4
		가정 사정으로 거절	3	0.8
		부모님 이혼, 아버지 거절	2	0.5
		아버지 사망, 외부 사람 만나기 싫음	2	0.5
		어머니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2	0.5
		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2	0.5
		부모님 별거, 아버지 거절	1	0.3
		부모님 병간호로 바쁨	1	0.3
		어머니 가출, 연락두절	1	0.3
		어머니 사망, 학생 거절	1	0.3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25	6.7
기타	기타	기타	6	1.6
합계			372	100.0

* 출처: 양계민 외(2022: 85) 표 Ⅲ-26 수정

3)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연구자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생기는 불편함이 무엇이며, 그 외 요구사항들을 파악하여 향후 조사 및 데이터 생산과정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실시하였다. 참고로 MAPS 데이터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익익년에 공개하며, 데이터 신청자에 한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자는 2022년에 데이터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 데이터를 제공받았던 240명이며, 조사 기간과 방법은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2주 간 구글폼을 활용한 웹(Web) 조사로 진행하였다.

만족도를 측정한 세부 문항은 전반적 만족도, 데이터 구조 및 이용 만족, 유저가이드 내용 및 이용 만족도, 코드북 내용 및 구조 이용 만족도, 데이터 신뢰성(데이터 정확도 수준), 데이터 유용성(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 제공), 데이터 다양성(내용의 풍부함이나 다양성), 데이터 활용성(데이터 분석 및 연구 활용성), 데이터 접근성(데이터 검색 및 확보 용이성)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을 5점 척도(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자의 관심 주제와 기타 개선사항, 마지막 배경변인으로 현재 상태와 전공을 확인하였다.

MAPS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총 64명[10]이 참여하였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전반적 만족도가 4.23점(5점 기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유저가이드 내용 및 이용 만족도와 데이터 신뢰성이 각각 4.28점으로 가장 높았고, 데이터 유용성(4.27점), 데이터 구조 및 이용 만족도(4.25점), 코드북 내용 및 구조 이용 만족도(4.20점), 데이터 접근성(4.11점), 데이터 활용성(4.02점), 데이터 다양성(3.80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데이터 다양성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패널조사의 고유한 특성상 매년 일관된 조사 항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데이터 다양성을 위해 문항수를 증가하는 방식은 오히려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부담을 가중시켜 패널 유지율과 비표본오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10)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64명이며, 교수 29명,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23명, 연구원 11명, 학부생 1명이 응답하였음.

표 Ⅲ-26.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문 항	만족도 (5점 평균)
전반적 만족도	4.23
데이터 구조 및 이용 만족	4.25
유저가이드 내용 및 이용 만족도	4.28
코드북 내용 및 구조 이용 만족도	4.20
데이터 신뢰성 (데이터 정확도 수준)	4.28
데이터 유용성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 제공)	4.27
데이터 다양성 (내용의 풍부함이나 다양성)	3.80
데이터 활용성 (데이터 분석 및 연구 활용성)	4.02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검색 및 확보 용이성)	4.11

마지막으로 개선 사항 및 기타 의견은 대부분 다양한 주제 선정과 새로운 문항들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예컨대, 청소년 활동과 역량, 진로, 교육환경의 구인 요인 등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고, 심리 사회적 건강 상태, 소비 패턴, 불안, 부모와 자녀의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학교생활 등 새로운 문항에 대해 요구가 있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 다운로드 방식의 데이터 공개, 데이터 신청 절차의 간소화, 데이터 신청 범위를 차수 단위가 아니라 각 패널별로 전체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중문화수용성 척도 개선과 외국 이민자 가족 연구에서 활용하는 측정도구 고려 등 측정도구의 질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도 있었다. 또한, 코드북이나 유저가이드에 역 문항 설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차후 조사 설계과정이나 신규 문항들을 검토할 때 연구진들이 고려할 계획이다.

제4장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과 정책

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도 현황
3.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4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과 정책[11)]

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본 절에서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초-중 전환기는 생애과정에서 청소년이 겪는 발달 단계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의 학교급 전환으로 교육적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이들 청소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교 환경의 변화와 신체적·정신적 성숙으로 인해 학교생활, 심리·정서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또한, 청소년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하지만, 이들은 학교급 전환이라는 낯선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초-중 전환기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전환에 따른 심리·사회, 학교생활, 진로 등에 관한 적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학교급 전환의 교육환경 변화로 다문화청소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적응에 관하여 심리·사회, 학교생활, 진로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적응

(1) 심리·사회

청소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육적 전환기(transition)를 경험하는데, 이는 이들의 삶에 큰 변화이며 주요 사건으로 간주된다(Shell, Gazelle & Faldowski, 2014). 이 시기의 청소년은 중학교 입학 후 초등학교보다 엄격한 학교 규율, 과목에 따라 바뀌는 선생님, 수업 진행 방식 차이 등 환경 변화에 직면한다(박용한, 이신동, 2017;

11) 4장은 1절은 이정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절부터는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엄선영, 이강이, 2012). 학교급 전환기의 변화는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가치관 형성이라는 정신적 성장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발달적 상황보다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강갑준, 임수진, 2018). 이에 전환기 청소년은 중학교 진학 후 전환기 효과(transition effect)로 인해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낮은 자존감 등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박용한, 이신동, 2017; Ryan, Shim, & Makara, 2013).

특히, 초-중 전환기 청소년은 진학에 따른 환경 변화, 선생님과 친구 등 새로운 사람과 접촉을 하지만, 청소년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발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유순화, 2007). 이로 인해 초-중 전환기 청소년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긴장하고 움츠리는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김윤경과 박주희(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초-중 전환기를 거치면서 이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위축은 부정적 자기이해, 불안, 낮은 자존감 등 불안정한 심리·정서로 이어지면서 대인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또래 거부, 집단따돌림 등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Gazelle & Rudolph, 2004). 즉, 이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Lester, Waters & Cross, 2013).

이와 더불어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심리정서 문제로 우울이 다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회적 위축과 함께 우울은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로 초-중 전환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다(Herres & Kobak, 2015; Way, Reddy & Rhodes, 2007).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초-중 학교급 전환의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이 증가하는 발달 양상을 보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시기 낮은 우울을 나타냈던 청소년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울의 수준도 빠르게 증가하였다(박미현, 박경자, 김현경, 2012). 특히, 청소년의 우울 증상은 슬픈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신체활동이 필요한 이 시기에 스스로 활동을 줄이거나 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보영, 장은비, 2015; 이희정, 2010). 또한, 우울은 학교 내 경험에서 초래될 수 있으며(Eccles & Roeser, 2011), 이 시기 청소년은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되지 못했을 때 소외감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우울의 감정으로 연결되기도

한다(장은애, 정현희, 2019). 특히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우울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청소년의 우울이 남자 청소년의 우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환기 청소년의 우울 유병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점에서 남녀 학생 간 상이한 원인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박정현, 이미숙, 2014). 이처럼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기인된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적응은 불안정한 심리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울, 사회적 위축 등 정서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기 심리·사회적응에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생애과정에서 발달하며 안정화된다고 보았다(Cole et al., 2001). 하지만, 청소년기라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 전환이라는 환경적 변화는 이들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사건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급격한 감소를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퇴행에 그치며 다시 회복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박찬호, 서공주, 2020; 인효연, 2018; 정익중, 2007).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시기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발달 궤적을 나타냈다(인효연, 2018). 이는 우리나라 전환기 청소년의 학습과 관련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량 증가, 학업스트레스, 시간 부족 등의 이유가 반영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유순화, 2007).

앞서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는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심리·사회 적응을 파악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설정되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요소에 포함되며,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판단이다(김미진, 김경은, 2021). 이 시기 청소년은 학교에서 주로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과 삶의 만족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은혜, 서지은, 노충래, 2019). 청소년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전환기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긍정적 지지를 바탕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이효경, 손은령, 2019).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기회기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김은혜 외(2019)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유지되고 학교생활적응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최미원과 이재신(2018)의 연구에 따르면,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학년이 증가하고 학교급이 변화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 시기 학업성취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질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 전환기의 적응은 생애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학교생활

인간은 생애과정에서 여러 전환을 경험하는데, 이 중 초-중 전환기는 청소년 자신의 신체적 변화, 학습환경 변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환을 경험하는 시기로 선행연구들은 초-중 전환기를 주목하였다. 중학교에 진학한 청소년은 담임 중심의 학습 환경에서 교과 중심의 학습 환경, 수업방식, 교육과정 등의 변화와 마주하게 된다(유순화, 2007). 이때 청소년은 학교급 전환에 따라 과목별로 상이한 교사의 수업방식, 목표 지향성으로 인해 학습 동기가 저하되며(Haselhuhn, Al-Mabuk, Gabriele, Groen, & Galloway, 2007),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습 수준 상향에 따른 부담의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김태은, 노원경, 안태연, 고정화, 2015). 이러한 초-중 전환기적 상황은 주로 학교와 관련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주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중요한 환경이며 이들의 발달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학교생활적응, 학습동기, 학업스트레스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교사와 교우 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을 토대로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집단 도출과 함께 초-중 전환기 이전 시점에서 전환된 이후 시점으로 학교생활적응 집단이 얼마만큼 전이되는지를 살펴본 정송과 우연경, 송주연, 노언경(2022) 연구에 따르면, 전환기 이전 시점에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는 '상' 집단이 전환기 이후 '상' 집단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감소하였고, 전환기 이후 '중'과 '하' 집단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학 과정의 학습 환경,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특히 학교생활 적응에 부모의 학업지원과 의사소통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박상현(2019)은 시간의 변화와 함께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종단적 관계에도 학교생활 적응이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환기 청소년은 중학교 진학 후 새로운 환경에서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때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결국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게 되는 것은 친구와의 원만한 의사소통, 정서적 유대감 등 그들만의 유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반면에 전환기 청소년은 초등학교보다 엄격한 학교 규칙과 규율, 학업 부담과 경쟁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이 나타난다(엄선영, 이강이, 2012). 이러한 학업의 어려움은 초-중 전환기에 주로 나타나며, 이 시기 초등학교에서 경험한 교사의 수업방식과 다른 중학교의 수행목표 지향적 수업방식으로 인해 이들의 학습동기가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Haselhuhn et al., 2007). 즉, 청소년의 교과 수업 부적응과 교과 태도의 불이행 현상으로 학습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시기는 초-중 전환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Paul, 2014). 이에 따라 초-중 전환기는 학교급의 변화와 함께 교수학습의 변화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초-중 전환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는지에 따라 이들 청소년의 학업태도, 학교생활 적응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3) 진로

청소년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진로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Super(1980)가 제시한 진로발달 단계에서도 초-중 전환기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이해를 토대로 진로를 선택하여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태도,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장벽, 진로결정 효능감 등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지만, 초-중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일부 연구들은 이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진로성숙도는 자신과 직업을 이해하고 진로계획과 직업선택 등을 포함한 진로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준비도이다(김종운, 김지현, 2008).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조주연과 이은정(2018)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진로성숙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중학교 진학 이후 진로성숙도의 감소폭이 초등학교 시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초-중 전환기에서의

진로성숙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로 학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정성을 꼽았으며, 이러한 부정적 심리·정서의 영향력이 청소년 자신의 진로성숙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임성애, 이은주, 201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중학교 시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직업설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임효진, 한지은, 김정수, 선혜연, 2016).

이와 더불어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 형성된 성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생활 및 학업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청소년 자신의 진로정체감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인효연, 2018).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중학교 신입생의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살펴본 이종화와 김현숙(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은 이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이해, 직업 세계 탐색, 진로생애 설계 등 회기별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정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진로는 이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진로 경험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특징과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은 이주배경이라는 귀속적 지위와 문화적 특수성으로 비(非)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전환기 효과보다 학교 적응, 심리·정서 등 성장·발달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환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취, 문화적응 등 학교 및 심리·정서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종단적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평가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일수록 높은 수준의 학교생활 적응을 보이는 원인이라고 하였다(김은혜, 최려나, 노충래, 2021).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외모만족도와 한국어 능력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은 중학교에 진학한 후 1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9). 특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초-중 전환기를 포함하여 3개년 간 학교생활 적응을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강하라, 2021).

이러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간 학교적응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비다문화청소년 보다 낮은 학교적응 수준을 나타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두 청소년 집단 간 학교적응 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박희훈, 오성배, 2014). 이와 다르게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간 학교적응의 수준이 유사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부모, 교사의 지지, 진로포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박용한, 이신동, 2017). 김미진과 김경은(2021)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또래,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적응이 원만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아 주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주배경을 지닌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중 전환기 시기의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일시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이주배경을 지닌 어머니의 영향력과 관련되기에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강하라, 2021). 이와 더불어 중학교 시기에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 등 내재화 문제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부적응을 초래한다(김지혜, 2019).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초-중학교 전환기 학업성취 변화양상을 살펴본 연구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낮아지는 상황에서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폭이 초등학교 시기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학업의 양 증가와 더불어 학업 난도의 상승에 의한 초-중 전환기의 학업 관련 어려움의 결과로 해석된다(연은모, 최효식, 2020). OECD는 27개 가입국 중 19개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본국 출생 이주 2세대 학생, 즉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핵심역량은 비다문화청소년보다 현저하게 낮아 두 청소년 간 학습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OECD, 2012: 39-41). 이러한 학습격차는 초-중 전환기의 다문화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의 학업 성취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취 수준이 큰 차이를 보였다(양계민, 정윤미, 장윤선, 2021). 또한,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입국 시기에 따라 핵심역량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외국에서 태어난 이주 1세대 학생, 즉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5세 이전에 이주한 초기 이주학생보다 12세 이후 이주한 후기 이주학생의 읽기능력 수준이 1년 정도 낮은 차이를 나타냈다(OECD, 2012:69). 이러한 학습격차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만족도, 사교육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등 학업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육 및 돌봄, 건강 등에서 비다문화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간 성장격차로 이어지게 된다고 양계민 외(2019)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낮은 학업성취도는 이들 가정의 취약성, 즉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인하며(Schwartz & Stiefel, 2006), 다문화가정의 낮은 교육지원과 기대가 이들의 학업부진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Bodovski & Farkas, 2007; Bodovski & Youn, 2012).

하지만, 이러한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관련 문제는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학업동기의 부족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교과별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해석하고 학습하는 데 초래되는 어려움으로 보았다(류은수, 박민신, 박진희, 김자영, 오현아, 2020). 외국인가정의 고려인 청소년은 아동, 청소년기를 본국에서 보낸 후 한국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입국하면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는데, 언어의 장벽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낮은 학업성취 수준과 그에 따른 실망, 학습의욕의 저하로 인해 학습부진이 나타났다(이남주, 김민, 2017).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어 학급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더라도 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학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안진숙, 2023).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낮은 학업성취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지연되면서 한국어 이해의 부족이 나타나 재미없는 수업, 공부, 학교생활로 이어져 학업중단을 선택하기도 한다(오정아, 변수정, 2020). 즉, 이들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학습의욕 저하는 초등학교 시기 입국한 경우 입국 초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중 전환기를 거쳐 청소년기에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중학교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인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이주배경의 문제가 어우러져 학습활동, 학업성취 등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

난다(양계민, 2016).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 동기는 능숙한 한국어에 기반이 되며, 심리 욕구의 충족에 따른 내적 동기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최희진, 2022). 한편으로 다문화청소년은 이주배경의 이중문화로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지만, 이중문화 수용의 태도가 높게 형성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차별에 관한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 김은빈, 2012).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는 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대처 기저로써 심리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이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한광현, 강상경, 2019). 이외에도 비다문화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위치한 다문화청소년은 초-중학교의 전환기 동안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류방란, 김경애, 이재분, 송혜정, 강일국, 2012; 윤예린, 오범호, 2020).

종합하면,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과제는 초-중 전환기의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제를 얼마만큼 원활하게 수행했는지에 따라 청소년기 성장·발달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원활한 적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도입국과 외국인의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가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문화적응 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심리적응, 진로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과 더불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전환기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도 현황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동법 제10조(아동·청소년·보육·교육)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차별금지 및 신속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 그리고 가족의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에 근거해 지난 2010년부터 총 4차에 걸쳐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다만, 다문화가족에 대해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까닭에 결혼이민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원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표 Ⅳ-1. 「다문화가족지원법」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 ·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아동 · 청소년 보육 ·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 청소년 보육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 · 청소년 보육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제목개정 2015. 12. 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23년 2월 17일 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동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지원) 제2호를 통해 지원의 대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하면서,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으로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본 법령의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책대상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내로 이주해 온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두어 정책 전달의 높은 효과성도 기대할 수 있다.

표 Ⅳ-2. 「청소년복지지원법」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10월 11일 인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사회의 빠른 적응을 위한 보육,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본 법령을 근거로 2008년 이래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일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Ⅳ-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2023년 10월 27일 인출

이외에 「진로교육법」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5조 제2항을 두어 다문화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23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계획에서는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로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 지원"을 제시하였다.

표 Ⅳ-4. 「진로교육법」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에서 2023년 2월 17일 인출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다수가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큼,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는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법령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동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를 근거로 지원의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한 근거 법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Ⅳ-5.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⑧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12. 3. 21.][제목개정 2022. 12. 27.]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에서 2023년 10월 11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 역시 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편입학 등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어 안정적인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의 부분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추진된 다문화 교육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표 Ⅳ-6. 다문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신설내용

① (국가·지자체 의무) 다문화 교육정책에 필요한 시책마련 의무
② (정책대상 범위) 다문화가족 구성원(내국인) + 입학예정·재학중 외국인
③ (교육부장관·교육감 권리)
1) 교육부장관의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 실시권
2) 교육감의 한국어학급 등 특별학급 설치·운영권
3)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특별학급에 대한 필요경비 및 인력지원권
4)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권/지정·위탁권
④ (학교장 의무) 1)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2) 다양성 존중 3)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할 의무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중 전환기에 집중하고 있는 법률은 찾기 어려우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법령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 또는 이주배경청소년 등과 같이 지원의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점이나, 사회적응 및 학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또는 청소년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사후적인 지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대상에 따라서는 초-중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더라도 사후적인 접근에 따라 벌어진 교육격차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신설 조항을 통해 다문화청소년 관련 각종 법률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3.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12)]

그동안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대체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기본계획에 더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정책의 고도화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와 새롭게 발표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토대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탐색하고,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살펴봄으로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의 방향성

(1)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국정과제 48번과 84번에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정과제 120개는 국민께 드리는 23가지 약속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국정과제 48번은 약속 09번,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의 일환으로, 국정과제 84번은 약속 15번,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의 과제로 추진된다.

표 Ⅳ-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다문화청소년 관련 과제(국정과제 48번)

번호	과제목표	주요내용 (일부)	부처
48	□ **과제명**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과제목표**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

12) 이 절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시도교육청별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시도교육청별 별도의 명칭이 있을 수 있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번호	과제목표	주요내용 (일부)	부처
	ㅇ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ㅇ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ㅇ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ㅇ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다문화 수용성 제고** ㅇ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ㅇ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ㅇ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ㅇ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먼저 국정과제 48번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은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소외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적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이들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표 Ⅳ-8.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다문화청소년 관련 과제(국정과제 84번)

번호	과제목표	주요내용 (일부)	부처
84	□ **과제명**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과제목표** ㅇ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ㅇ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	ㅇ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ㅇ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24~) **ㅇ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26)**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ㅇ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 감축	교육부

번호	과제목표	주요내용 (일부)	부처
		-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 (평생학습 기회 보장)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2년)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검토(~'27) -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다음으로 국정과제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는 원활하게 교육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조한다. 교육복지 대상이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많은 학생에게는 통합지원과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요청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해당 과제의 주된 목표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배경에 따라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누적되어 회복하기 힘든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지원체계의 구축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절적인 기존 정책추진체계에서 벗어나 대상의 특성에 맞춰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다면 생애주기나 정주기간, 가정환경 등에 따라 적절하면서도 연속적인 지원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학교가 중심이 되는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중 전환기 지원의 격차나 서비스의 단절로 인한 한계의 극복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대상자로서 다문화가족자녀와 다문화학생으로 표현된 것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다문화가족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의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문화학생은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아동·청소년은 배제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2)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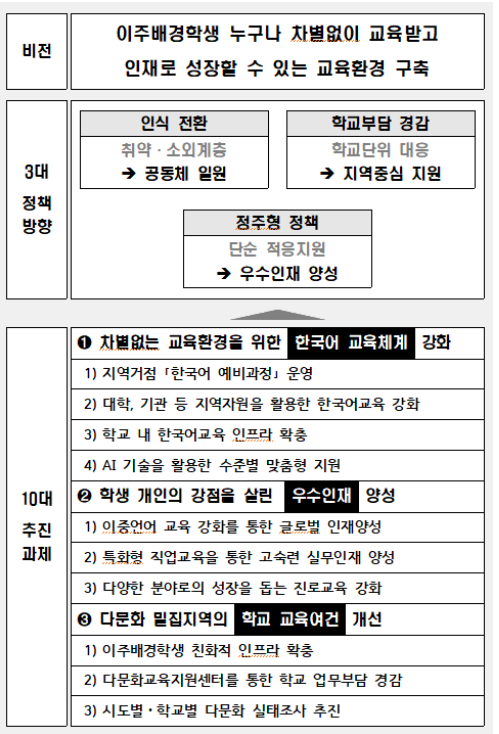
이주배경학생은 기존에 교육정책의 대상으로서 다문화학생이라 지칭하던 용어를 개선한 것으로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 2023년 9월 개최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문화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였다. 이는 국정과제의 달성을 위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의 증가, 그중에서도 외국인학생의 급격한 증가세와 더불어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학교현장의 제반여건,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업중단률 및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진학률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배경으로 추진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3).

정책의 방향은 크게 3가지(인식전환, 학교부담 경감, 정주형 정책)로 설정되었다. 첫째, 인식전환의 경우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으로만 이주배경학생을 바라보던 기존 관점을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둘째, 학교부담 경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대응의 중심을 학교단위에서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정주형 정책은 생존을 위한 적응의 차원을 넘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총 10개로 구성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 우수인재 양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 영역은 총 4개의 과제를 포함한다. 첫 번째,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은 학교내 한국어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한국어 교육의 기능을 분화하여 지역거점 기관에서 보다 기초적인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2023년 3월) 개소한 경주 한국어교육센터는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기관의 예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대학, 기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강화'는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국어 집중캠프와 지역 가족센터를 활용해 취학전이나 초등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학습(읽기·쓰기·셈하기)을 지원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학 내 한국어 집중캠프는 현재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50개교를 목표로 2027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학습지원 가족센터는 지난 2022년 90개소에서 2023년 138개소로 지원 기관

을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학교 내 한국어교육 인프라 확충'은 한국어학급 기능의 분화와 지원인력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과 유아 및 방과후·돌봄 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학교 내 한국어학급의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어 예비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기능을 재정립하는 내용 역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한국어학급에서는 학년별 교과중심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은, 향후 도입을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다국어번역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와 교과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 영역은 세 가지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첫 번째, '이중언어 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인재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특화형 직업교육을 통한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은 다문화 특화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된다. 다문화 특화 직업계고에서는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외국어수업과 각종 교재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주배경학생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한다. 지역대학 연계형 다문화 정책학교는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연계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고숙련 실무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 '다양한 분야로의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 강화'는 멘토링, 진로체험, 진로콘서트 등의 확대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도록 한다.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그림 Ⅳ-1.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의 추진구조

마지막으로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영역은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이주배경학생 친화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다문화 밀집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학급의 설치와 그로 인한 지원인력 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방과후과정으로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상호 간 교류가 용이한 예체능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지역 가족센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두 번째,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은 현행 각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운영 중인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다문화 밀집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거점 지역의 다문화 교육정책을 총괄함과 동시에 가족센터와 연계·협력을 통해 기초단위까지 다문화 관련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 번째,

‘시도 및 학교별 다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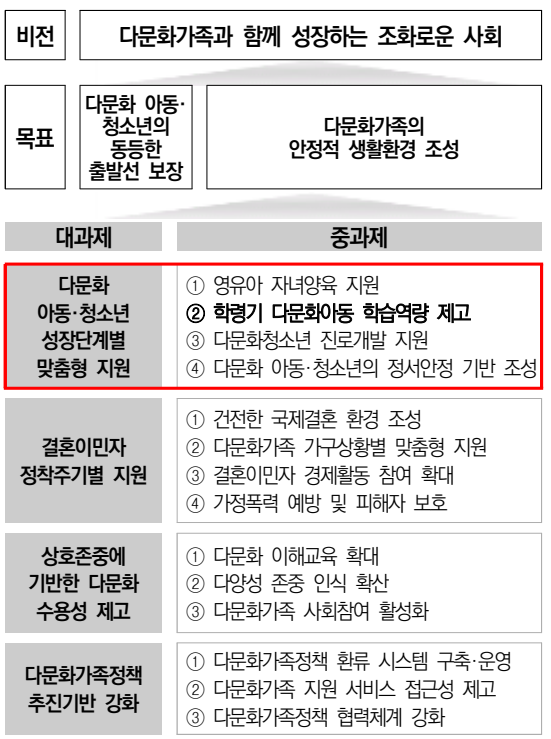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기존에 추진해 온 관련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그동안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시도교육청 등이 각자 정책을 추진하던 체계를 구조화함으로써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의 체계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주배경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이면서 연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주배경학생으로 지원의 대상을 한정짓고 있어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각 정책 추진체계마다 지원의 규모나 방식이 다른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확대된 지원대상을 고려한 정책적 설계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기본계획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의 일부로서 다문화청소년을 다루기도 하고(「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교육적 관점에서 온전히 이들의 성장에 초점(「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맞추기도 한다. 각각에 대해 가용한 가장 최신의 자료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이다. 각 계획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등과 같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협력에 기반하여 수립된다.

(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제1차(2010년~2012년) 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래 5년 주기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수립되고 있으며, 2023년 제4차 계획이 발표되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대과제 중 하나로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설정하고,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양육, 학습역량, 진로개발, 정서안정 등과 관련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영역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정책의 대상으로 다문화유아, 다문화아동,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다문화 후기 청소년, 다문화학생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 적응, 기초학력, 한국어, 진로·직업, 이중언어, 심리·정서 등 지원의 내용이 여러 차원에 걸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관계기관합동(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년)

그림 Ⅳ-2.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내용

초-중 전환기 관련해서는 "1-2. 학령기 다문화아동 학습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부과제들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세부과제 중 하나로 제안된 징검다리 과정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추후 소개할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중앙부처 세부과제서 더욱 자세하게 다룬다. 이외 학부모 역량 제고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레인보우스쿨 등은 지원의 내용이나 형태, 대상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초-중 전환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추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의 내용으로 더욱 상세하게 다룬다.

표 Ⅳ-9.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2 세부과제 내용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기관
1-2. 학령기 다문화아동 학습역량 제고	1-2-1. 학령기 다문화아동 학교 적응 지원	1-2-1-1. 학교 교육 준비 지원	교육부
		1-2-1-2. 학부모 역량 제고	여가부, 교육부
		1-2-1-3. 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교육부
	1-2-2. 학령기 다문화아동 기초학습 지원	1-2-2-1. 한국어 교육 강화	여가부, 교육부
		1-2-2-2.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여가부, 교육부
		1-2-2-3.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기초학력 제고	교육부
	1-2-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2-3-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분석	여가부, 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1-2-3-2.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 지원	여가부
		1-2-3-3. 학교밖 다문화청소년 지원	여가부

* 출처: 관계기관합동(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해 제1차(2008년~2012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제4차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공청회 등이 진행된 상황이나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가용한 가장 최신의 자료는 제3차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도 다문화학생, 다문화유아,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 이주배경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로 정책 대상을 지칭하고 있으며, 이중언어, 재능 개발, 진로·정서, 맞춤형 교육,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등을 주요 지원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비전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책 목표	중점 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추진 과제	소관부처
II-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1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① 이중언어 체계 고도화	교육부 여가부
② 성장지원 강화	교육부
2 성장주기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①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	교육부
② 다문화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부
③ 입국초기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출처: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년~2022년)

그림 Ⅳ-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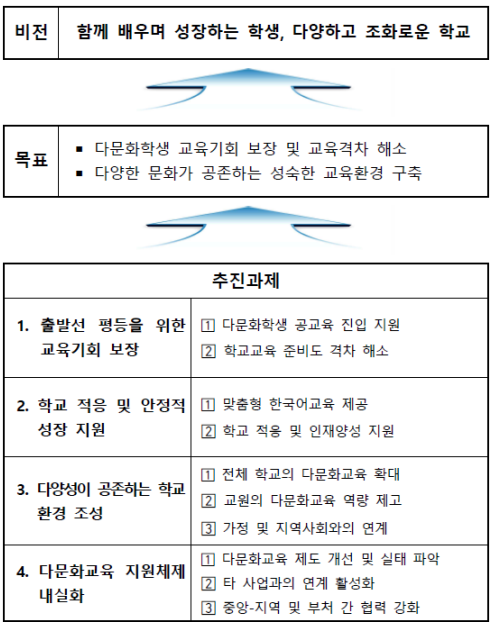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2-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에 포함된 세부과제와 같이 다문화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은 정책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2-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과 "성장주기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서 추진되며, 이 가운데 특히 "성장주기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와 관련해서 제시된 세부과제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시된 과제의 대부분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성장단계별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적응부터 개인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계획 내에서도 정책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업별로 제각각인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근거로 하는 법률 용어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용어 간 차이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쳐 특정 집단에 대한 정책소외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지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으로 발표된 이래 교육부를 주관으로 매년 발표되는 지원계획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맞춤형 사업 지원계획」,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계획」, 「다문화교육 선진화방안」,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등을 거쳐 2016년부터 현재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으로 발표되고 있다. 앞서 분석한 두 기본계획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전반과 관련한 정책을 다뤘던 것과 달리 다문화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다문화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소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다부처 간 협업을 기본으로 수립되므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내용 대부분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역시 중앙정부부처의 다양한 다문화청소년 관련 교육정책을 포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지원목표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매년 발표되고 있어 5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비해 시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 출처: 교육부(2023).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그림 Ⅳ-4.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내용

이번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2.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 "3.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4.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내실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즉, 개인과 환경 차원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보다 향상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초-중 전환기와 정책적 관련성이 높은 과제는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의 "[2]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초·중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내실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세부과제는 중학교 입학·편입학 예정인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하고, 중학교 진학 후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다.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도 다른 기본계획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처

럼 다양한 부처의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까닭에 정책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관되지 못하고, 실제로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대상에서 배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 등과 같이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자녀 등을 모두 정책적 대상으로 포괄하기도 하지만,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과 같이 학교에 소속된 학생만을 정책적 대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에 대한 접근성 및 지원내용의 차이를 야기해 누적적으로 교육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또는 지원계획에 포함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체계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여성가족부가 주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정책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다문화아동·청소년 정책으로 구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성장주기와 이주배경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표 Ⅳ-10.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전달체계 / 성장단계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양육 및 성장	각 급 학교 및 교육부 지원체계 교육 및 학교적응	청소년 등 기타 지원체계 각종 자원 연계
영유아 미취학	• 양육단계별 부모교육 및 지역 돌봄공동체 강화 • 언어발달 및 생활지도 강화 • 이중언어 친화적 가족환경조성	• 학교 준비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 단계 지원체계 강화	• 누리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초등 취학전후 기초학습기	• 정보제공, 학부모 교육품앗이 • 가족센터 내 기초학습 지원 강화 • 이중언어 기초교육 • 정체성 확립 및 부모-자녀 관계 증진(자녀성장지원)	• 학교교육 진입 안내 및 지원 • 한국어학급 등 한국어교육 강화 • 학교적응 지원(징검다리과정) • 학습결손 보완(두드림학교)	- • 청소년 수련시설 등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강화 •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확대 • 다문화청소년 중심 진로체험처 발굴·확대 •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중·고등학생 진로탐색기	• 이중언어 교육·인재DB 연계 • 청소년 진로컨설팅·상담 강화 • 대학생 멘토링 연계	• 진로체험 정보제공(꿈길) 및 진로교육(진로탄탄) • 청소년기 심리상담 강화(학교, 교육지원청 등) • 교원 등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및 다문화 교육 근거 마련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후기 청소년기	• 지원 수요 등 조사 • 맞춤형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 폴리텍 전문기술과정 참여 확대 • KOICA·KOTRA 등 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후기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연계

전달체계 / 성장단계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각 급 학교 및 교육부 지원체계	청소년 등 기타 지원체계
	양육 및 성장	교육 및 학교적응	각종 자원 연계
이주배경 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진			
중도입국 자녀	• 법무부 정보연계를 통한 공교육 진입 지원 • 가족센터-학교 간 한국어교육 연계 •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한국어·사회적응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통계 구축 추진	귀환 다문화가족 자녀	• 귀환가족·자녀 규모 파악 • 자녀 대상 돌봄,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 출처: 관계기관 합동(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 p.10 재인용

3) 중앙부처 세부과제

(1) 징검다리 과정

앞서 살펴본 여러 기본계획에서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중 학교급 전환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높은 정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이다. 초등 및 중학교 입학 또는 편입학 예정인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검다리 과정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에 따른 어려움을 완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4시간부터 40시간까지(2주 이내) 모듈 형태로 운영하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징검다리 과정은 학생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지원도 포함하며, 학부모 간담회나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과 같은 형태로 추진된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징검다리 과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운영시기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까닭에 입학 이전인 1~2월이나 2학기 시작 이전인 7~8월로 구분해 운영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징검다리 교육과정 담당자 외에 다문화 언어강사가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2023년에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27개 학교에서 2021년 42개 학교, 2022년 49개 학교에서

징검다리 과정을 운영했으며, 2023년에는 56개 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중학교는 2020년 10개 학교가 징검다리 과정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2개 학교, 2022년 14개 학교로 운영학교의 수가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고, 2023년에는 11개 학교가 참여 예정으로 2022년에 비해 오히려 참여 학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징검다리 과정 운영결과 및 계획

징검다리 과정	2020		2021		2022		2023(안)
	학교 수	참여학생 수	학교 수	참여학생 수	학교 수	참여학생 수	학교 수
초등학교	27	248	42	401	49	413	56
중학교	10	100	12	104	14	168	11
계	37	348	54	505	63	581	67

* 출처: 교육부(2023).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징검다리 과정은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쉬워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에게 그 의미가 크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2023년 계획 기준 11개 학교에서만 운영할 정도로 지원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은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도 2022년 14개 학교에서 줄어든 수치로 중학교 이상 연령대의 다문화청소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범위와 현실과의 괴리는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한 전환기 어려움에 대한 완충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담임교사나 다문화 언어강사와 같이 기존 교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무적으로는 어떤 배경의 다문화청소년이 얼마만큼 입학하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검다리 과정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 주된 운영시기(입학전: 1~2월)를 고려했을 때 대상 인원 확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재제작 등이 실제 교육과정 운영 시점의 이전 연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당 시점에 실재에 근사한 수준의 수요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특성을 감안하면 학기 중도

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수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누적되는 교육기회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개별학교 맞춤형 교재 제작을 위한 지원의 강화가 요청된다. 다국어 번역본이 포함된 공통 내용과 학교별 편집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뼈대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의 영역도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전환기에 필요한 지원이 간접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상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는 탓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최초 입국 후 5년 내)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회기당 2시간씩 주 2회(총 80회기) 제공되며, 가족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기타 한국어 교육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상자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교육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년 이하), 유아기(생후 1년 초과 ~ 만 4세 이하), 아동기(생후 4년 초과 ~ 만 12세 이하) 등 생애주기별 각 1회(회기당 2시간, 주 2회, 총 40회기 기준)씩 총 3회 제공되며, 방문교육지도사가 자녀양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정보제공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세 ~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중도입국 자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한 명의 자녀당 1회(회기당 2시간, 주 2회, 총 80회기 기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한 센터는 전국 218개소로 거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이 일회성 방문으로 종료되지 않고

40~80회 지속되는 사업인 까닭에 이용실적은 대상자를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실인원은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수를 의미하며, 연인원은 서비스가 이루어진 횟수를 의미한다. 영역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어교육서비스는 2022년 실인원 2,531명(연인원 96,235명)이었고, 부모교육서비스는 실인원 2,913명(연인원 87,046명)이었으며, 자녀생활서비스는 실인원 7,746명(연인원 339,602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지난 3년간 이용실적과 방문교육지도사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영역별로는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고, 방문교육지도사 인력도 2022년 들어서 감소하였다. 대조적으로, 자녀생활서비스는 2021년에 비해 다소 줄어진 수치지만, 2020년에 비하면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한 상태이다.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인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증가했던 방문교육의 수요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들어 다소 완화되면서 그 수요도 집합교육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자녀생활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세는 다문화청소년 수의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표 Ⅳ-12.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실적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방문교육사업 이용자						방문교육지도사 인력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한국어교육	생활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2020	4,054	141,053	4,046	105,980	6,367	250,661	944	1,027
2021	3,702	146,760	3,675	110,059	7,854	345,704	703	1,076
2022	2,531	96,235	2,913	87,046	7,746	339,602	408	928

*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20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등에 대한 서비스를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밀도 있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높은 효용을 가져다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에 대한 근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클 것이라 판단되는 외국인가정에 적절한 지원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모교육 서비스의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한 자녀의 생애주기가 크게 3단계이고(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아동기의 경우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로 연령 범위가 넓으며, 자녀 연령이 만12세(초등학교 졸업)를 넘어가는 경우 해당 서비스 지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므로 중학

교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본 사업이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돌봄 서비스에 가까운 업무내용에 비해 열악한 처우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투철한 봉사정신에 의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남정연, 김영순, 2022)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높은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3) 레인보우스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근거해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책대상인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정책적 대상으로 설정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콘텐츠 개발을 포함한 교육지원 사업,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토대로 한 심리정서 지원,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을 돕는다.

특히, 공교육 진입 전 예비학교 성격의 "레인보우스쿨"은 만 9~24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열어두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여러 사업의 대상이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 연령대 이하 자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 기능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Ⅳ-13. 레인보우스쿨 유형/분야별 운영 목적 및 내용

운영유형/분야		운영 목적	운영 시수	교육 내용
일반형	전일제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 적응 지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	800시간 (한국어교육 400, 특화교육 400)	• 한국어교육 – 생활·학습 한국어, TOPIK, 국어교육 등 • 특화교육 – 생활적응 프로그램, 교과목교육/검정고시, 사회문화체험 등
	시간제		400시간 (한국어교육 200, 특화교육 200)	
찾아가는RS			100~200시간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 – 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학습 목적 한국어교육, 국어교과

운영유형/분야	운영 목적	운영 시수	교육 내용
진로형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단계별 진로교육 제공을 통한 진로 역량 강화 및 사회 진출 기반 마련	300시간 (기초과정 150, 심화과정 150)	• 기초과정 – 진로탐색 · 오리엔테이션, 진로한국어교육, 진로탐색 및 진로소양교육, 현장체험활동 – 진로설계 · 진로한국어교육/TOPIK, 진로설계 및 진로소양교육, 단기작업체험, 수료식 • 심화과정 – 진로한국어교육(심화), TOPIK, 직업(자격증)교육, 직종별 직업실습, 진로소양교육 등

* 출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3). 2022년 사업활동보고서. p. 19

레인보우스쿨은 한국어 교육(생활, 학습 한국어, TOPIK, 국어교육 등)과 특화교육(생활적응, 교과교육, 검정고시, 사회문화체험 등)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운영기관에 따라 시간제(400시간, 영역별 200시간)와 전일제(800시간, 영역별 400시간)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에 집중해서 운영되는 찾아가는RS도 레인보우스쿨 유형 가운데 하나이며, 일부 운영기관은 300시간에 걸쳐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한국어교육 등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하는 진로형이 운영된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3).

표 Ⅳ-14. 일반형 및 찾아가는RS 레인보우스쿨 참여자 특성별 현황

구분		인원(명)	비율(%)	합계
성별	남	813	51.3	1,584명(100%)
	여	771	48.7	
유형별	국외출생국제결혼가정자녀	262	16.5	1,584명(100%)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자녀	101	6.4	
	국외출생외국인가정자녀	1,155	72.9	
	국내출생외국인가정자녀	54	3.4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포함)	10	0.6	
	기타	2	0.1	
연령별	9~12세	592	37.4	1,584명(100%)
	13~15세	439	27.7	
	16~18세	366	23.1	
	19~21세	147	9.3	
	22~24세	40	2.5	

* 출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3). 2022년 사업활동보고서. pp. 22-23.

지난 2022년 기준 레인보우스쿨은 전국 13개 시도 30개소에서 위탁운영 되었으며, 모든 유형(일반형, 찾아가는RS, 진로형)을 합산해 총 1,673명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했다. 일반형과 찾아가는RS 레인보우스쿨 참여자가 대다수(1,584명)를 차지했으며, 진로형은 위탁운영 기관의 수가 많지 않아(6개소로) 8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형과 찾아가는RS에 참여한 대상자 중 국외출생외국인가정자녀가 1,155명(7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외출생국제결혼가정자녀가 262명(16.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의 다수가 국외에서 출생해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청소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대인 9~12세가 592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도 439명(27.7%)이 참여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적으로 국내에서 중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학적을 생성해야 하는 다문화청소년을 사업의 대상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레인보우스쿨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의해 정책의 핵심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은 동일하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는 다소간 차이가 존재하며, 특화된 사업으로 차별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여기서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1) 학부모 교육자료 제작 및 설명회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에 직접적으로 주목하는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도 매우 드물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은 앞서 소개한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징검다리 과정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중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몇몇 지자체에서 자료제작과 설명회 등과 같은 형태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제로 교육 자료 「행복한 중학교 생활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학생의 학교생활, 학습지도, 생활지도, 자유학기제와 진로·진학 등을 비롯해 한국의 교육제도, 다문화청소년의 중학교 입학·취학 절차, 학적관리, 지원 기관 및 대안학교, 기타 자녀교육을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개발된 자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되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경북교육포털(내친구교육넷)을 통해 보급되며,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교육포털에도 업로드 된다.



* 출처: 경상북도교육청(2023). 행복한 중학교 생활 길라잡이
충청북도국제교육원(2023). 2023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취학진학진로 자료집 WITH

그림 Ⅳ-5. 학부모 교육자료(경상북도, 충청북도)

유사하게 세종시교육청도 기존 개발한 중학교 신입생 다문화 학부모 도움자료를 개정하여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집중학기를 포괄하는 세종시 중학교 교육과정인 “나다움 교육과정”, 지역 내 학교별 교육과정과 교육청 특색사업, 학교생활 관련한 정보 등을 담고 있는 학부모 교육 자료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경기도에서는 초·중 학령기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체계와

학부모의 역할을 다루는 진학 과정 설명회를 202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에는 11개 시·군에서 15회에 걸쳐 실시한 설명회에 약 200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2022년에는 이를 확대해 15개 시·군에서 40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진학·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교육 역량 함양을 돕고자 취학진학진로 및 자녀교육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센터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2021년 5회(70명), 2022년 6회(110명)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 5개 권역에서 권역당 15명의 학부모 참여를 목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취학·진학·진로 자료집 WITH」를 제작하고 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로 번역해 함께 제공하였다. 해당 자료집에는 각 학교급에 대한 설명과 입학절차, 입학준비, 알아두어야 할 점과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팁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다음 학교급으로 진학 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 자료의 제작과 진학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될 경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역량은 청소년 자녀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서는 중학교 진학과 학교생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집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정보전달이 중심이 되고 있는 까닭에 획득한 정보의 내면화 과정이 온전히 학부모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은 한계점이다. 또한, 학부모의 의지에 따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제작된 교육 자료 제작의 홍보와 보급 및 설명회를 포함한 정보 전달과 부모교육 방식에서의 고도화가 요청된다.

(2)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방문학습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과 같이 대부분 특정한 학교급과 그 시기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의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가운데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방문학습 지원 사업은 전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지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방문학습 지원 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관련 사업기관과 협약을 맺고 시도에서 방문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문화청소년은 방문학습 사업기관에서 제공하는 과목 중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 무료 또는 소액을 지불하고 이용하게 되며, 필요시 이용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과목을 추가하기도 한다. 방문학습 교사의 방문이 보통 일주일에 한 차례 과목당 15분 내외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나, 6개월에서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지원이 지속되는 까닭에 누적되는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에게 부족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비다문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지원과 정보전달의 기능도 더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와 비교해 이 사업은 전문적 교육지원을 바탕으로 학력격차의 완화를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방문학습 사업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상 기초학습지원 외에 부가적인 기능은 특별한 대가 없이 방문학습 교사의 호의에 온전히 기대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그 중에서도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생 졸업 이전까지로 설정하고 있어 초-중 전환기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는 만 3~15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자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폭넓게 적용하여 사각지대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최신의 정서·학습지원 경향을 반영하여 온라인 학습이나 AI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는 미취학아동(만4~6세), 예비초등학생(만 7세), 초등학교, 중학교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AI 학습 전용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해당 기기를 통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소액(월 10,000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다문화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와 같이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다문화청소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관리도 제공한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중 20가구를 선발하여 AI스피커와 이를 활용해 한국어, 수학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학업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을 이어가는 외국인 주민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중언어가 가능한 지원인력이 학교에 배치되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과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구성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에게 누적된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학생이 밀집한 초·중학교 28개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튜터를 배치한다. 이중언어 튜터는 정규수업과 방과후수업 등에 투입되어 수업내용에 대한 통역이나 학습자료의 번역, 과제관리 등을 통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학부모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도 수행한다.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력능력 강화를 위한 방문학습 지원 사업은 방문교육, 온라인 또는 AI기기를 통한 학습, 교내 보조인력 배치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측면의 개선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함께 추구한다. 이는 초-중 전환기를 겪으며 증폭될 수 있는 교육격차와 심리·정서적 불안정을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사업의 대상을 가족 내 한국국적이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생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협약 사업기관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업무내용에 비해 열악한 처우는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개선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3) 예비학교 및 공교육 진입 전후 집중학습 과정

국내에서 출생하여 계속 한국에서 지냈거나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만 12세 이전 한국에 입국해서 초등학교에 학적을 생성하고 그 이후 계속해 한국에서 지낸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과정에서 비다문화학생과 다문화학생 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시점에 한국에 입국했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등과 같이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최종학력에 따라 공교육 진입을 위한 과정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앞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이 있으나, 전국에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에서는 예비학교와 같은 형태로 이러한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빛마중교실"은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목표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공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초·중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학적을 생성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프로그램은 1년에 총 2차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6개월 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총 400시간의 한국어 교육과 공동체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거쳐 일정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 평가 기준을 충족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은 서울시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총 400시간의 프로그램 구성은 레인보우스쿨의 시간제 유형과 동일한 시간이다.

경기도에서는 다문화 예비학교를 2023년 기준 20개교 28학급 운영하면서,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가정 학생을 대상으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공교육 진입 이전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학교적응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시와 유사하게 학적증빙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을 위해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예비학교는 총 7개 기관으로 안산, 시흥, 포천, 수원, 안성, 평택, 고양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기본 6개월에서 최대 1년 미만, 주 15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교육과정 이수 후 학력심의심사를 거쳐 공교육에 진입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국제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학예정인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디딤돌과정을 운영한다. 디딤돌과정은 초등·중등과정으로 구분되며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교급 별 각각 4개반을 편성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한국어를 비롯해 한국문화 및 학교적응,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과학습연계, 진로·진학상담 등 공교육 진입 전후 필요성이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딤돌과정은 기수제로, 1주 14시간을 기본으로 기수별 7~10주간 운영한다. 학생수송차량도 운행되는 등 접근성을 위한 편의도 제공된다.

경상남도에도 충청남도와 유사한 “입급전 청소년 예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가 공교육에 진입한 전후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관련한

교육, 상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학교 및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교육 진입 전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연령대(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고등학교)를 사업의 대상으로 한다. 공교육 진입 전 학생은 4개월, 공교육 진입 후 학생은 12개월 내외의 과정을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경주에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기타 난민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가운데 한국어교육이 시급하거나 학교적응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파견교사와 공무원이 기관에 상주하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급과 수준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해 학급당 10명 내외로 총 8학급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과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 기수제로 운영되며, 2023년 10월 기준 3기 입소를 앞두고 있다. 한국어 집중교육(4시간)과 방과후 예체능프로그램(2시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능력 향상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이 1차적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공교육 진입 및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2차 목표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예비학교 및 공교육 진입 전후 집중학습 과정은 공교육 진입 전후 한국사회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중도입국으로 인해 한국어 및 학교적응을 위한 완충이 필요하거나, 복합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배경 또는 국가로부터 온 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 심리·정서적인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본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기대했던 바에 근접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운용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요약 및 시사점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및 법·제도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 전환기에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함께 겪으면서 심리·정서 불안,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진로성숙도 후퇴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다문화청소년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데

잦은 이주 또는 낮은 한국어 실력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교육격차가 학교급 전환으로 인해 내재화되거나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다문화청소년은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전환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양상은 연구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는 기존에 연구된 내용이 다문화청소년 중 일부 유형만 다루었거나 종단적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정책적 지원체계 등은 어느 정도 그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법령마다 지원대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일부 법령에서는 사회적응 및 학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또는 청소년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관련 정책 추진체계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후적인 지원에 집중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다문화교육정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신설 조항을 통해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정과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방향을 통합적인 지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자녀와 다문화학생으로 정책대상자를 표현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달리 말하면, 다문화가족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최근 급격한 증가세에 있는 외국인가정(러시아동포)의 자녀를 배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문화학생은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외국인가정의 자녀 또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정책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은 성장단계별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적응부터 개인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부처 간 정책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관되지 못하고, 실제로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대상에서 배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용어 간 차이는 정책에 대한 접근성 및 지원내용의 차이를 야기해 누적적으로 교육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와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징검다리 과정은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과 정책적 밀착성이 가장 높은 지원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징검다리 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는 2023년 계획 기준 전국 11개에 불과하다. 이는 중학교에 진학 예정인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추세와 괴리되는 것으로 폭넓은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더구나, 본 사업이 학교 내 담임교사나 다문화 언어강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특성상 학기 중에 편입학하는 사례가 잦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청된다. 또한, 어떤 배경의 다문화청소년이 얼마만큼 입학하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다른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지역단위로 추진하고 대상자라면 학교배정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기본으로 중도에 입국하는 대상자에게는 수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할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에 대한 근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가정에 적절한 지원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녀 연령이 만 12세(초등학교 졸업)를 넘어가는 경우 해당 서비스 지원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자녀의 중학교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본 사업이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돌봄 서비스에 가까운 업무내용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예비학교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의 다수가 국외에서 출생해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청소년이며, 중학생 연령대(13~15세)가 전체 참여자의 27.7%를 차지하는 등 이 사업을 통해 초-중 전환기 이행을 지원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중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학적을 생성해야 하는 다문화청소년을 사업의 대상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레인보우스쿨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여덟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학부모 교육자료 제작 및 설명회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될 경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실제로는 단순한 정보전달이 중심이 되고 있고, 획득한 정보의 내면화 과정은 온전히

학부모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지에 따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작된 교육 자료 제작의 홍보와 보급 및 설명회를 포함한 정보 전달과 부모교육 방식에서의 고도화가 요청된다.

아홉째,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 강화를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방문교육, 온라인 또는 AI기기를 통한 학습, 교내 보조인력 배치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지원은 학업측면의 개선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초-중 전환기 원활한 이행을 돕는 유의미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사업의 대상을 가족 내 한국국적이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생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협약 사업기관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에 대한 처우가 업무내용에 비해 열악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의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예비학교 및 공교육 진입 전후 집중학습 과정은 공교육 진입 전후 다문화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중학교 진학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적 특성으로 특정한 배경 또는 국가로부터 온 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본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기대했던 바에 근접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운용상 유의가 필요하다.

표 Ⅳ-15.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주요 결과

구 분	주요 결과	시사점
선행연구분석	•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와 관련해 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문화적응만을 다루고 있음.	•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심리적응, 진로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법·제도 분석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법령마다 지원의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 사회적응 및 학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또는 청소년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관련 정책 추진체계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사후적인 지원에 집중될 위험성이 있음. •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신설 조항을 통해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결과	시사점
국정과제 및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 국정과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지원을 지향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자녀와 다문화학생으로 정책대상자를 표현함.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던 체계를 구조화하였음. • 이주배경학생으로 지원의 대상을 한정짓고 있음.	• 초-중 전환기 지원의 격차나 서비스의 단절로 인한 한계의 극복을 기대할 수 있음. • 외국인가정의 자녀 또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아동·청소년은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큼. • 이주배경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이면서 연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 각 정책 추진체계마다 지원의 규모나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기본계획	•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은 성장단계별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적응부터 개인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처간 정책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관되지 못하고, 실제로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대상에서 배타성이 존재함.	• 정책용어 간 차이는 정책에 대한 접근성 및 지원내용의 차이를 야기해 누적적으로 교육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
중앙부처 세부과제 (징검다리 과정)	• 중학교의 경우 2023년 계획 기준 11개 학교에서만 운영. • 담임교사나 다문화 언어강사와 같이 기존 교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 • 어떤 배경의 다문화청소년이 얼마만큼 입학하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함. •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특성상 학기 중 잦은 학적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많음.	• 중학교 이상 연령대 다문화청소년의 급격한 증가에 부합하지 못한 지원규모는 전환기 어려움에 대한 완충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현장의 부담만 높일 수 있음. • 지역단위로 추진하고 대상자라면 학교배정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 고려. • 수시 지원을 통해 누적되는 교육기회의 격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음.
중앙부처 세부과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사업 대상에 대한 근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두고 있음. • 자녀 연령이 만 12세(초등학교 졸업)를 넘어가는 경우 해당 서비스 지원이 불가함. •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돌봄 서비스에 가까운 업무내용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	•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클 것이라 판단되는 외국인가정에 적절한 지원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중학교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본 사업이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높은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구 분	주요 결과	시사점
중앙부처 세부과제 (레인보우스쿨)	•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의 다수가 국외에서 출생해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청소년이며, 연령별로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439명(27.7%)이 참여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기록했음.	• 국내에서 중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학적을 생성해야 하는 다문화청소년을 사업의 대상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레인보우스쿨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 (학부모 교육자료 제작 및 설명회)	•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될 경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단순한 정보전달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획득한 정보의 내면화 과정은 온전히 학부모에게 맡겨지고 있음 • 학부모의 의지에 따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음.	• 제작된 교육 자료 제작의 홍보와 보급 및 설명회를 포함한 정보 전달과 부모 교육 방식에서의 고도화가 요청됨.
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 (기초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	•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방문학습 지원 사업은 방문교육, 온라인 또는 AI 기기를 통한 학습, 교내 보조인력 배치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측면의 개선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함께 추구함. •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사업의 대상을 가족 내 한국국적이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생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 많은 경우 협약 사업기관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에 대한 처우가 업무내용에 비해 열악함.	• 초-중 전환기를 겪으며 증폭될 수 있는 교육격차와 심리·정서적 불안정을 기초학습능력 강화 관련 사업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개선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 (예비학교 및 공교육 진입 전후 집중학습 과정)	• 공교육 진입 전후 한국사회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 • 특정한 배경 또는 국가로부터 온 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 있음.	• 본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기대했던 바에 근접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운용상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5장 패널자료 분석: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유형과 진로발달

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2기 패널
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경향성 8주기 비교: 1, 2기 패널
3.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탐색: 2기 패널
4.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 2기 패널

5 패널자료 분석: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유형과 진로발달[13)]

이번 장에서는 패널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했다. 분석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절에 해당한다.

첫째,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심리·사회 적응 등 여러 차원에 걸쳐 4년간의 변화 추이를 이주배경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했다. 둘째, 초-중 전환기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양상이 시대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와 2기 패널의 4차년도 자료를 통해 8년 주기 비교를 실시했다. 셋째, 초-중 전환기 필요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의 종단적 학교적응 변화양상의 유형을 구분하고, 구분된 유형에 대한 예측 요인을 탐색하였다. 넷째, 초-중 전환기 시점에서의 정체성 발달과 진로발달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어디에서의' 삶을 그려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절에 제시하였다.

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2기 패널

1) 분석개요

이 절에서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2019년)부터 중학교 1학년(2022년)까지 4년간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 다문화청소년의 4년간 발달 추이 분석은 가정, 학교, 심리·

13) 5장은 1절과 2절은 이정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절은 임선아 교수(전북대학교), 4절은 김지혜 조교수(서강대학교)가 작성하였음.

사회 적응,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의 각 영역에서 동일하게 반복 측정된 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기존에 측정한 문항 중 일부 문항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비교가 어려운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정, 학교, 심리·사회 적응,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의 하위 영역에 따른 발달 추이는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적용하여 시점, 유형(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Bonferroni 사후검정을 통해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측정된 변인의 시점 간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한다는 구형성(sphericity)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동질성 가정 위배에 대한 통계적 오류 교정을 위해 Greenhouse-Geisser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4년간 발달 추이 분석을 위해 영역별로 사용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표 Ⅴ-1. 다문화청소년 4년간 발달추이 분석 영역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가정	사회경제적 배경	• 월 평균 소득수준
	가족관계	•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	학교생활	• 학교생활
		•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
		• 학교공부에 어려운 점
	학업성취	• 학교성적
		• 성적에 대한 만족도
심리·사회 적응	심리적응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사회적응 및 지지	• 친한 친구 수
		• 친구의지지
		• 부모의지지(교육적 지원 및 기대)
		• 교사의지지
		•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정체성	국가정체성	• 국적에 대한 인식
		• 한국인정체성
	다문화정체성	• 문화적응스트레스
		• 이중문화수용태도
		•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신체발달 및 건강	신체발달	• 키
		• 몸무게
	건강	• 건강평가

* 출처: 양계민 외(2020: 186) 표 Ⅶ-1 수정 및 보완

2) 분석결과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4년간 발달 추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초4부터 중1까지 가정, 학교, 심리·사회 적응,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 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영역은 사회경제적 배경(월 평균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부모의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① 사회경제적 배경: 월 평균 소득수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22년이 가장 높은 월 평균 소득수준(339.84만원)을 보였으나, 가장 낮은 월 평균 소득은 조사시작 시점인 2019년이 아닌 2020년(308.34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가계수지 전체평균을 하회하고 있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가계수지 전체평균은 2019년 약 506만원에서 2022년 약 579만원(매년 4/4분기 기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KOSIS 국가통계포털, 2023a),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서도 소득 2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2019년에는 약 327만원이었던 것에서, 2022년에는 약 368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19년~2022년에 해당하는 시기 동안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득 2분위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 평균 소득수준은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2022년 기준으로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이 국제결혼가정보다 월 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월 평균 소득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 중도입국가정에서 월 평균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외국인가정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2022년 들어 중도입국가정의 월 평균 소득

수준과 유사해진 점이 눈에 띈다. 그 결과 외국인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이 국제결혼가정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양상은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증가 추세에 편차가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이 다른 두 유형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가계수지 전체평균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며, 이는 다문화청소년 가정이 경제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표 V-2. 월 평균 소득수준

(단위: 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05.18	132.55	301.75	129.57	311.15	135.21	328.61	139.13	–
중도입국^{B}	380.89	253.00	354.70	173.50	354.80	168.12	378.20	183.82	
외국인^{C}	326.53	137.65	319.53	129.71	342.37	138.63	380.90	159.20	
전체	314.02^{a}	147.37	308.34^{b}	134.19	318.93^{c}	139.21	339.84^{d}	147.42	
시점	a,b,c<d, b<a,c								32.076***
유형	A<B,C								17.168***
시점×유형	A,C<B		A,C<B		A<B,C		A<B,C		6.93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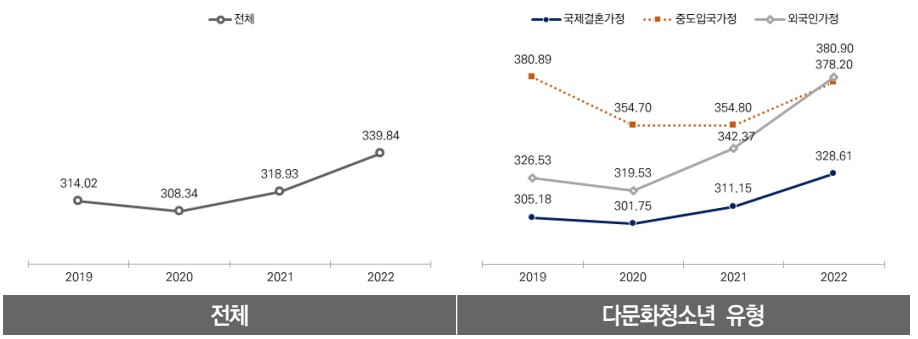


그림 V-1. 월 평균 소득수준 변화 추이

② 가족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감독'과 '방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은 3문항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 2021년, 2022년에서 시점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을 2019년에 가장 높게 인지한 반면, 2022년에 가장 낮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의 변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3.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30	0.61	3.22	0.62	3.21	0.61	3.15	0.60	–
중도입국[B]	3.29	0.58	3.21	0.61	3.23	0.58	3.10	0.59	
외국인[C]	3.37	0.56	3.21	0.55	3.18	0.61	3.10	0.56	
전체	3.31[a]	0.60	3.21[b]	0.61	3.21[c]	0.60	3.14[d]	0.60	
시점	b,c,d<a, d<b,c								22.296***

***p<.0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유형(F=.088, p=.915), 시점×유형(F=1.330, p=.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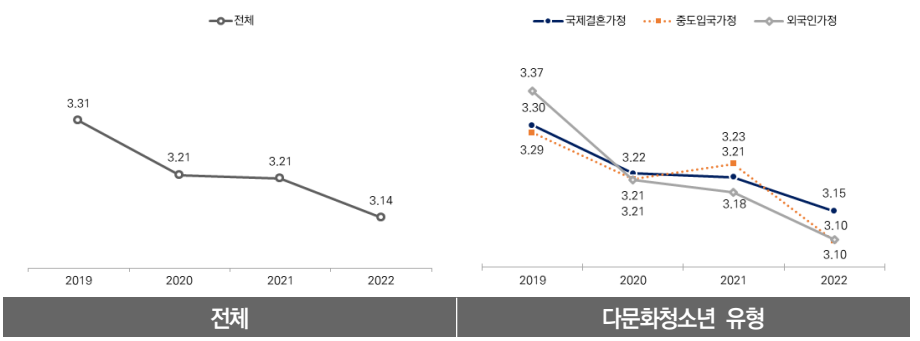


그림 V-2.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변화 추이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은 7문항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2022년과 2019년, 2021년에서 시점 간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을 2022년에 가장 높게 인지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방임'의 차이는 국제결혼과 중도입국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이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방임'을 높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문화청소년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이며, 이 조사가 시작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감독'의 양육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다. 이후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학년이 높아지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동안 자녀의 활동, 시간 관리 등 자녀의 삶에 대한 관심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독'의 양육태도와 반대로, '방임'의 양육태도는 초등학교 4학년에 가장 낮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부모의 '방임'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이 낮아지고, '방임'이 증가하는 결과는 이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저하, 보호 소홀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결혼과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리와 지원, 부모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Ⅴ-4.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1.71	0.54	1.71	0.50	1.75	0.51	1.76	0.50	–
중도입국[B]	1.76	0.55	1.77	0.56	1.75	0.53	1.79	0.47	
외국인[C]	1.59	0.53	1.62	0.47	1.71	0.50	1.72	0.48	
전체	1.70[a]	0.54	1.70[b]	0.50	1.74[c]	0.51	1.76[d]	0.50	
시점	a,b<d								4.700**
유형	C<A,B								5.240**

**p<.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시점×유형(F=1.509, p=.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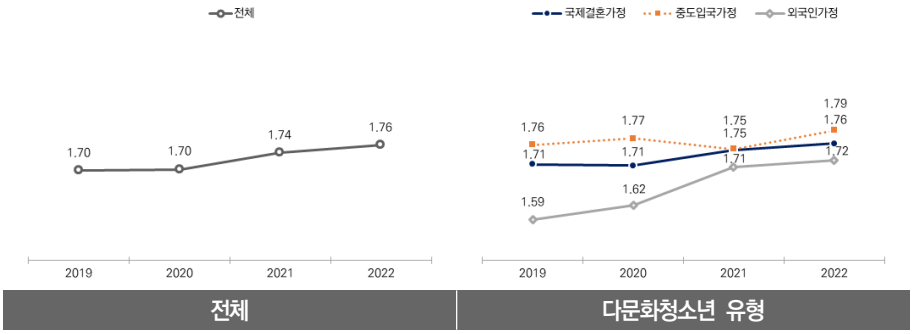


그림 V-3.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변화 추이

(2) 학교

학교 영역은 학교생활과 학업성취로 구분하였는데, 학교생활에서는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 학교공부에 어려운 점을, 학업성취에서는 학교성적 수준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인을 사용하여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삶을 살펴보았다.

①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은 학습태도, 친구 및 선생님과 우호적 관계 형성 등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며 4문항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한 학교생활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이 감소와 증가의 패턴을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학교생활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학교생활의 변화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은 이들 다문화청소년 3개 유형 모두에서 3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진학하는 초-중 전환기이며, 이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이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생활이 크게 하락한 다문화청소년 유형은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이며, 초-중 전환기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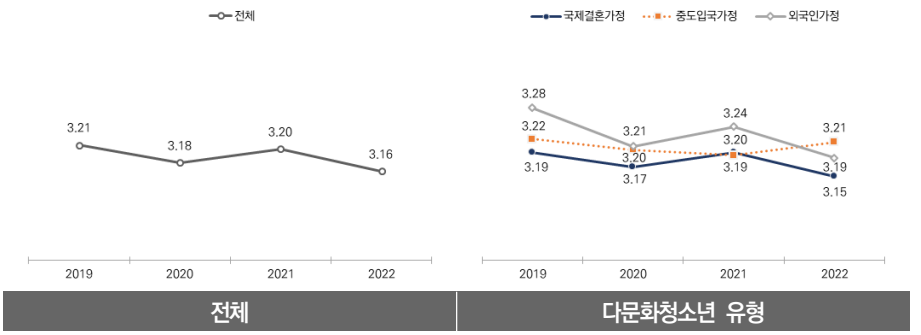
표 V-5. 학교생활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19	0.51	3.17	0.46	3.20	0.46	3.15	0.46	–
중도입국[B]	3.22	0.50	3.20	0.47	3.19	0.53	3.21	0.47	
외국인[C]	3.28	0.51	3.21	0.49	3.24	0.53	3.19	0.47	
전체	3.21[a]	0.51	3.18[b]	0.47	3.20[c]	0.47	3.16[d]	0.47	

***p<.0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시점(F=2.325, p=.075), 유형(F=2.515, p=.081), 시점×유형(F=.750, p=.606)).



전체 | 다문화청소년 유형

그림 V-4. 학교생활 변화 추이

②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다문화청소년의 약 60% 이상이 학교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 즉 초등학교 6학년에서 약 72%까지 도달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2022년에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약 70%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들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학교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점'이었는데, 2019년 약 14%가 해당하였다. 이후 2020년 약 18%, 2021년 약 15%, 2022년 약 20%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였다. 학교 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즉 초-중 전환기에 급격하게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 유형 중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학교 공부를 잘 따라지 못하는 점'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는데,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점으로 인식한 것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점'이었으며, 이들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에서만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으며,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의 어려움도 더해지면서 학교에서 학습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V-5.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단위: %)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다문화청소년의 약 80% 이상이 학교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92%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2019년 약 3%가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과 '나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이었지만, 2020년 약 3%, 2021년과 2022년 각각 약 2%의 다문화청소년이 '친한 친구가 없는 것'을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외모 놀림, 친구들의 다른 태도, 친한 친구의 부재 상황과는 다르게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대체로 다른 아이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은 또래 사이에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의 놀림 및 다르게 대하는 태도, 친구의 부재 등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일부 지니고 있었다. 특히,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장벽을 지니고 있어 친구들과 제한적인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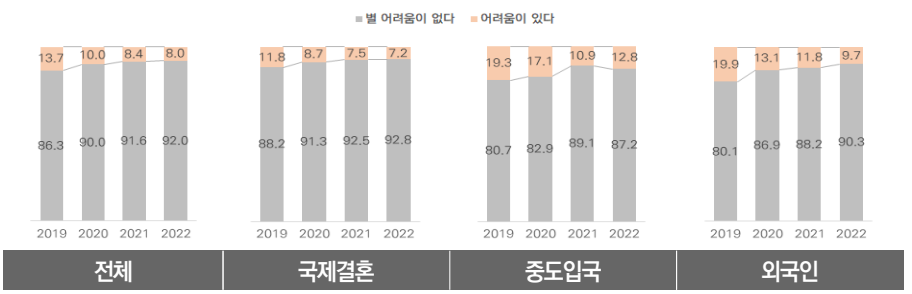


그림 Ⅴ-6.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 유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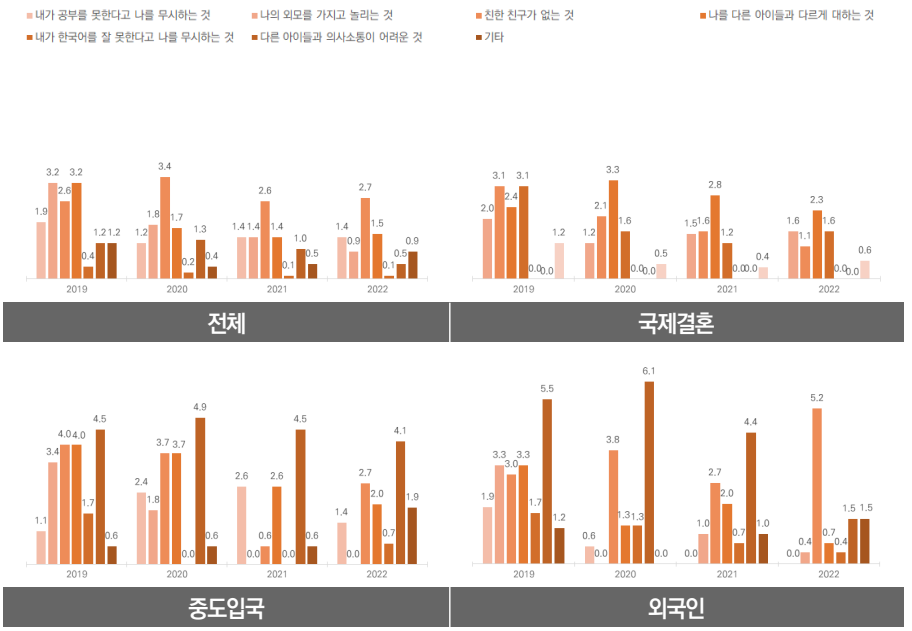


그림 Ⅴ-7.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단위: %)

③ 학교생활: 학교공부에 어려운 점

다문화청소년의 학교공부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측정하였으며, 1순위와 2순위, 3순위의 응답결과를 합산하여 살펴보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약 34% 이상이 학교공부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 즉 초등학교 6학년에 약 37%에 도달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2022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약 35%로 감소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학교공부에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였는데, 2019년 약 12%가 해당하였다. 이후 2021년까지 약 13%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약 10%로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것은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로 2019년 약 11%에서 2020년 약 12%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약 10%로 감소하였다. 2019년 약 7%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2년 약 12%까지 증가한 어려움은 '공부에 흥미가 없다'였는데,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 한 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학교공부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다문화청소

년의 3개 유형 모두에서도 나타났으며, 이중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의 '공부에 흥미가 없다' 비율은 초-중 전환기에 약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숙제나 과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공부를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문해력에서 기인된 어려움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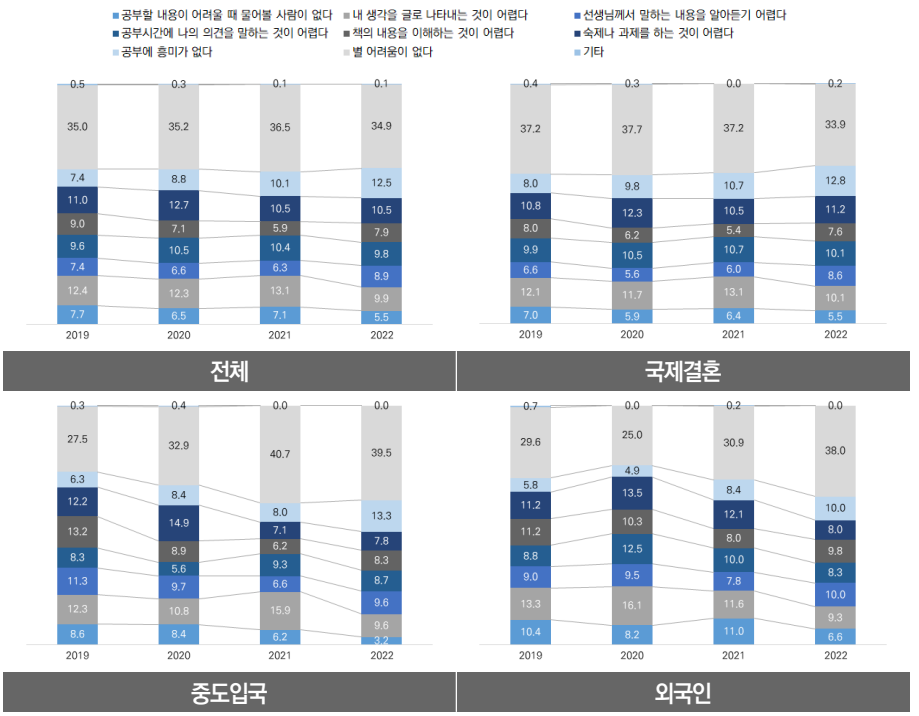


그림 Ⅴ-8. 학교공부에 어려운 점(1순위+2순위+3순위)(단위: %)

④ 학업성취: 학교성적

학교성적은 다문화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성적 수준을 의미하며 단일문항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학교성적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성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와 증가의 변화를 보이며 점차 감소하였으며, 2021년과 2019년, 2020년, 2022년에서 시점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22년은 2019년과 2020년과 비교하여 학교성적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성적

격차는 2019년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성적이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던 사례를 제외하고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간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적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성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성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상승하였지만, 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성적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움'의 응답 중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중학교 1학년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로 볼 수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학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6. 학교성적 수준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42	0.75	3.32	0.75	3.42	0.79	3.18	0.75	–
중도입국^{B}	3.20	0.96	3.33	0.76	3.44	0.81	3.19	0.73	
외국인^{C}	3.33	0.78	3.26	0.78	3.37	0.87	3.18	0.77	
전체	3.39^{a}	0.78	3.31^{b}	0.75	3.41^{c}	0.80	3.18^{d}	0.75	
시점	a,b,d<c, d<a,b								19.140***
시점×유형	B<A		–		–		–		2.768*

*p<.05, ***p<.0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유형(F=.963, p=.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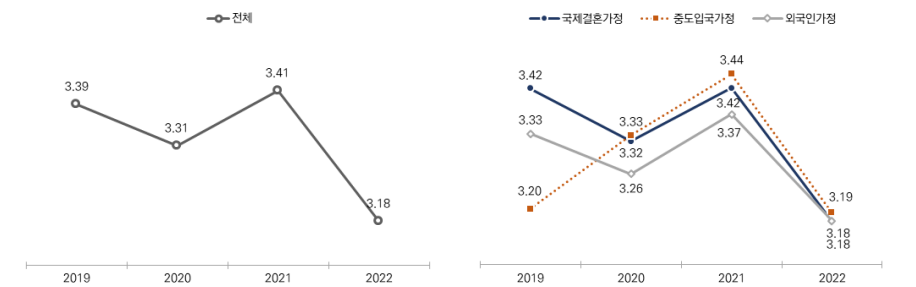


그림 V-9. 학교성적 수준 변화 추이

⑤ 학업성취: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 자신이 얼마만큼 성적에 만족하는지를 단일문항의 4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점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과 대비해 2022년이 이전 연도보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았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 유형에 따른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만족한 수준이었지만,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성적 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불만족에 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청소년의 3개 유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다문화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학교성적과도 관련되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학교성적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성적에 대한 만족도 역시 동시에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7. 성적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01	0.66	2.94	0.65	2.94	0.65	2.69	0.68	–
중도입국[B]	2.82	0.78	2.77	0.69	2.85	0.69	2.66	0.73	
외국인[C]	2.84	0.69	2.76	0.70	2.79	0.70	2.60	0.72	
전체	2.97[a]	0.68	2.90[b]	0.66	2.91[c]	0.66	2.67[d]	0.69	
시점	d<a,b,c								28.902***
유형	B,C<A								13.221***

***p<.0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시점×유형, F=1.418, p=.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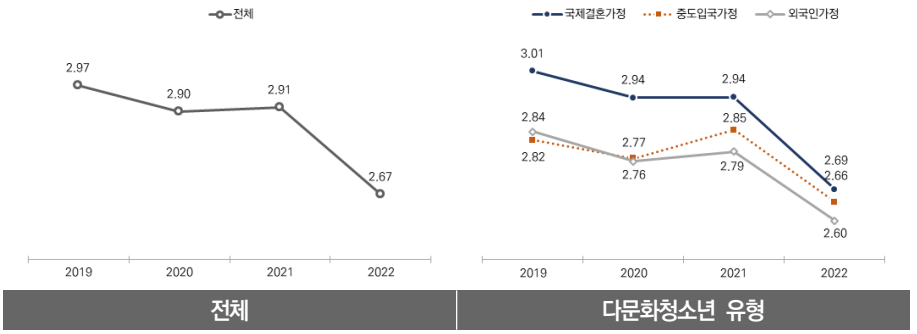


그림 V-10.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

(3) 심리·사회 적응

심리·사회 적응 영역은 심리 적응, 사회적응 및 지지로 구분하였으며, 심리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사회적응 및 지지는 친한 친구 수와 친구의지지, 부모의지지, 교사의지지, 학교 내·외에서 도와주는 어른 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① 심리적응: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은 3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시점 간 차이에서도 2022년의 자아존중감은 2019년의 자아존중감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자아존중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최초 조사시점인 2019년에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중 초등학교 5학년에서 급격한 하락을 나타낸 후 중학교 1학년까지 감소의 변화를 유지하였다. 특히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하락 폭이 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자신에 대한 가치, 스스로에 대한 만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8. 자아존중감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26	0.54	3.23	0.54	3.25	0.53	3.25	0.56	–
중도입국[B]	3.29	0.64	3.28	0.51	3.27	0.50	3.25	0.54	
외국인[C]	3.36	0.56	3.28	0.57	3.26	0.59	3.19	0.64	
전체	3.28[a]	0.55	3.24[b]	0.54	3.25[c]	0.54	3.24[d]	0.57	
시점	d<a								3.644*
시점×유형	A<C		–		–		–		2.464*

*p<.05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유형(F=.707, p=.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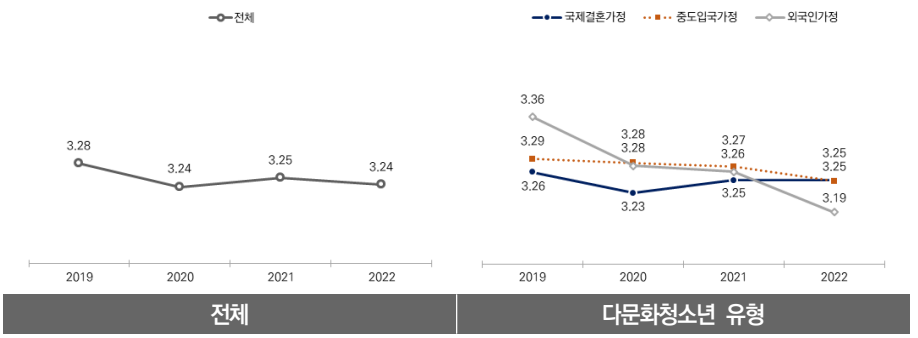


그림 V-11.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

② 심리적응: 삶의 만족도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지 인식하는 정도인 삶의 만족도는 3문항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시점 간 차이에서는 2019년과 2020년, 2021년, 2022년 간 나타났으며 4년간의 삶의 만족도 중 2019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 유형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중 초등학교 5학년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중학교 1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의 변화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4학년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를 거쳐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이들 스스로 삶의 행복과 즐거움의 만족 정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 하락의 폭이 가장 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동기, 목표 등 삶에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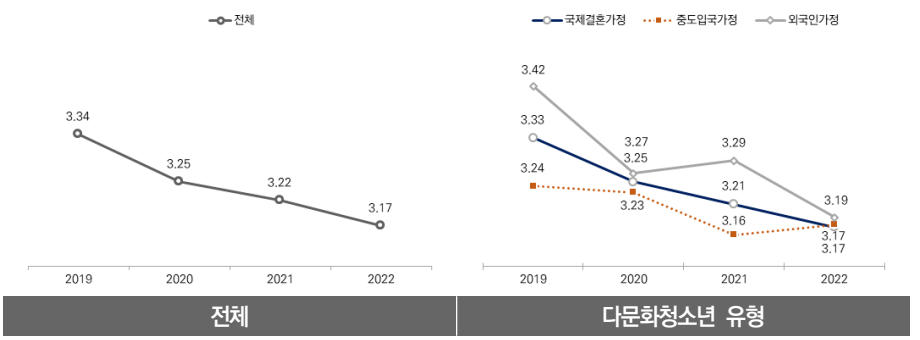
표 V-9.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33	0.56	3.25	0.55	3.21	0.54	3.17	0.57	–
중도입국[B]	3.24	0.60	3.23	0.57	3.16	0.57	3.17	0.61	
외국인[C]	3.42	0.52	3.27	0.56	3.29	0.55	3.19	0.60	
전체	3.34[a]	0.56	3.25[b]	0.55	3.22[c]	0.55	3.17[d]	0.58	
시점	b,c,d<a, d<b								16.710***

***p<.0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유형(F=2.760, p=.064), 시점×유형(F=1.588, p=.149))



전체 | 다문화청소년 유형

그림 V-12.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

③ 사회적응 및 지지: 친한 친구 수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지지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친한 친구가 몇 명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친한 친구 수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친구 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시점 간 차이는 2019년과 2022년이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2019년에 7.38명으로 친한 친구 수가 가장 많았지만, 2021년에는 6.45명으로 친한 친구 수가 가장 적었다. 다문화청소년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이 국제결혼가정의 다문화청소년보다 친한 친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유형에 따른 친한 친구 수의 변화 양상에도 차이가 있었다. 다만, 시기별로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친한 친구 수 차이가 있었으나,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친한 친구 수가 가장 적은 양상은 유지되었다.

종합하면, 다문화청소년의 친한 친구 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중학교 진학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에서 친한 친구 수 변화가 이러한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환경 내에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확장하여 또래관계를 형성한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10. 친한 친구 수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6.74	6.89	6.23	4.84	6.08	4.27	6.99	5.31	–
중도입국[B]	8.43	10.24	7.72	6.48	8.00	6.28	8.03	5.14	
외국인[C]	10.33	9.70	8.16	6.16	7.65	5.45	8.96	7.12	
전체	7.38[a]	7.75	6.62[b]	5.24	6.45[c]	4.68	7.35[d]	5.63	
시점	b,c<a,d								10.771***
유형	A<B,C								42.586***
시점×유형	A<B,C, B<C		A<B,C		A<B,C		A<C		3.981**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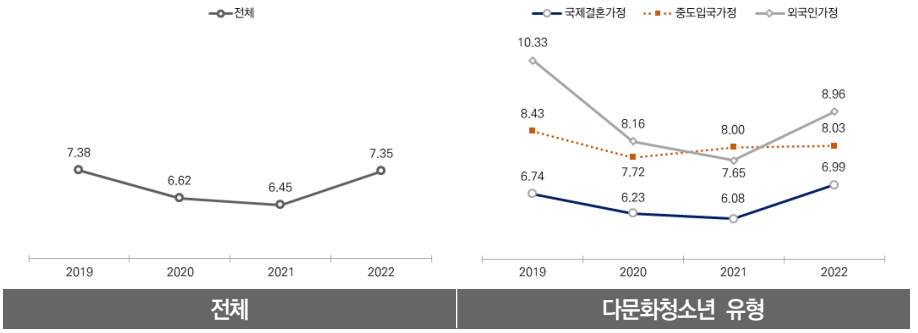


그림 V-13. 친한 친구 수 변화 추이

④ 사회적응 및 지지: 친구의지지

친구의지지는 다문화청소년 자신을 친구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 3문항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친구의지지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친구의지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다. 시점별로는 2019년과 2022년이 2020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때, 다문화청소년은 2022년에 친구의지지를 가장 높게 인지한 반면, 2020년에 가장 낮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친구의지지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친구의지지의 변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친구의지지가 가장 높은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며, 이때 다문화청소년은 또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친한 친구 수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되며, 이는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적응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11. 친구의지지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84	0.80	3.80	0.71	3.86	0.67	3.92	0.66	–
중도입국[B]	3.89	0.77	3.81	0.64	3.87	0.65	3.95	0.65	
외국인[C]	3.93	0.86	3.81	0.73	3.84	0.73	3.87	0.68	
전체	3.85[a]	0.81	3.80[b]	0.71	3.86[c]	0.68	3.92[d]	0.66	
시점	b<a,d								5.289**

***p*<.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유형(*F*=.179, *p*=.836), 시점×유형(*F*=1.406, *p*=.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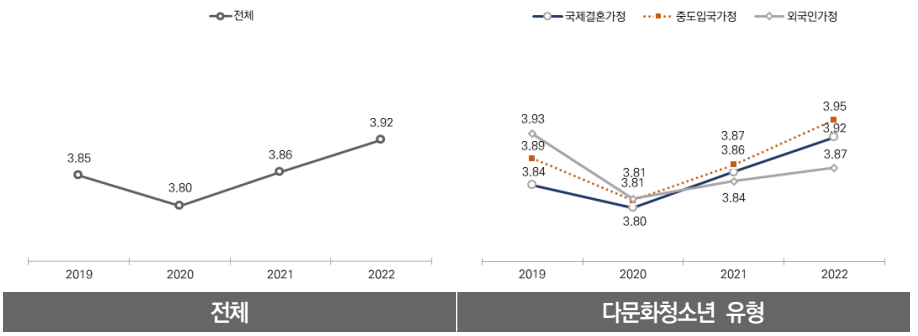


그림 V-14. 친구의지지 변화 추이

⑤ 사회적응 및 지지: 부모의지지

부모의지지는 공부 격려, 학교생활 도움, 진학 격려 등 부모의 교육적지지 정도로 6문항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지지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점 간 차이에서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2021년, 2022년의 부모의지지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차이를 살펴보면, 외국인가정이 국제결혼가정보다 부모의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모의지지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9년과 2021년도에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부모의지지 차이가 두드러졌던 점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지지는 3점대의 높은 수준의 평균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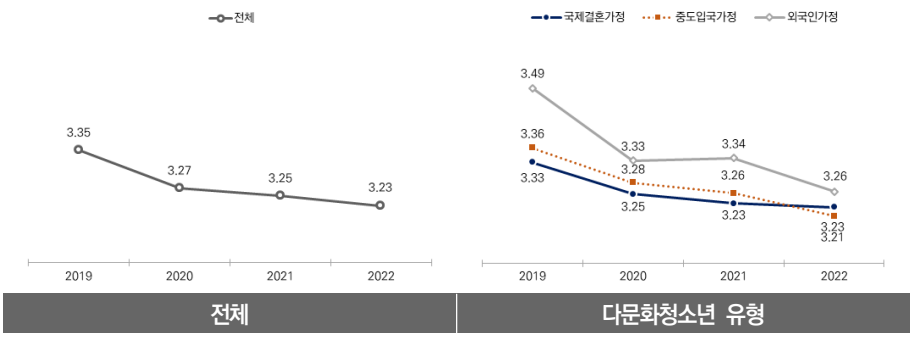
에 가장 높았지만, 그 다음해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모든 다문화청소년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변화의 폭이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지지는 국제결혼가정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V-12. 부모의지지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33	0.54	3.25	0.53	3.23	0.50	3.23	0.49	–
중도입국[B]	3.36	0.51	3.28	0.53	3.26	0.50	3.21	0.50	
외국인[C]	3.49	0.53	3.33	0.55	3.34	0.49	3.26	0.46	
전체	3.35[a]	0.54	3.27[b]	0.54	3.25[c]	0.50	3.23[d]	0.48	
시점	b,c,d<a d<b								22.784***
유형	A<C								6.901**
시점×유형	A<C		–		A<C		–		2.195*

*p<.05, **p<.01, ***p<.001



전체 다문화청소년 유형

그림 V-15. 부모의지지 변화 추이

⑥ 사회적응 및 지지: 교사의지지

교사의지지는 나에 대한 관심, 걱정 등 교사의 지지 정도를 3문항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교사의지지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교사의지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시점 간 차이는

2021년과 2022년이 2020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은 2022년에 교사의지지를 가장 높게 인지한 반면, 2020년에 가장 낮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교사의지지 차이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지지의 변화 양상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의 교사의지지는 3점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에 교사의지지가 가장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변화 형태를 보였다. 특히, 교사의지지가 가장 높은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며, 이 시기의 다문화청소년은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들에 대한 유대관계가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다문화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개 유형의 다문화청소년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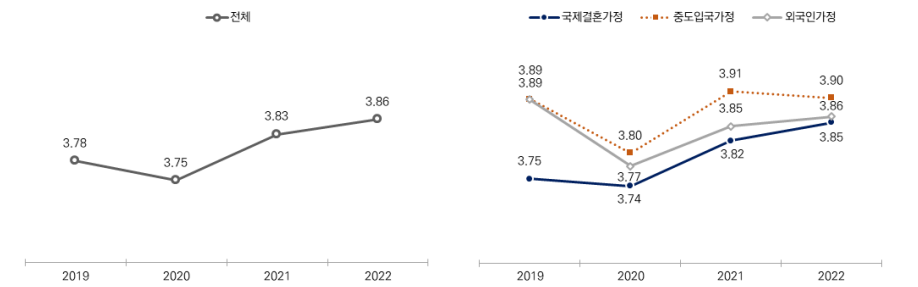
표 V-13. 교사의지지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75	0.82	3.74	0.71	3.82	0.72	3.85	0.69	–
중도입국^{B}	3.89	0.74	3.80	0.73	3.91	0.76	3.90	0.72	
외국인^{C}	3.89	0.79	3.77	0.76	3.85	0.75	3.86	0.72	
전체	3.78^{a}	0.81	3.75^{b}	0.72	3.83^{c}	0.73	3.86^{d}	0.70	
시점	b<c,d								4.417**

**p<.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유형(F=2.567, p=.077), 시점×유형(F=1.332, p=.241))



전체 | 다문화청소년 유형

그림 V-16. 교사의지지 변화 추이

⑦ 사회적응 및 지지: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고민, 슬픈 일, 마음일 상한 일 등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를 통해 학교 내 지지체계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9년에 약 83%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 약 89%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19년에 약 16%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부재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매년 비율이 감소하여 2022년에는 약 10%의 다문화청소년만이 학교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 유형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보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없다고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V-17.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 여부(단위: %)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하였다. 다만, 2019년에 설문된 선택 항목이 이듬해부터 조사된 선택 항목과 상이하여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응답 자료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50% 이상이 담임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목할 점은 중학교 진학 이후 담임 선생님을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약 55%로 감소한 반면, 교과전담 선생님의 비율은 약 20%로 증가한 점이다. 이외에도 보건선생님, 상담 혹은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은 3년 동안 약 8~10% 내외의 비율을 매년 유지하고 있었다.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국제결혼 및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대부분이 학교

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전담 선생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모국어를 할 수 있는 다문화 언어 선생님을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2020년 약 4%, 2021년 약 3%, 2022년 약 2%내외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모국어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선생님을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도와주는 어른이라고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 언어 선생님과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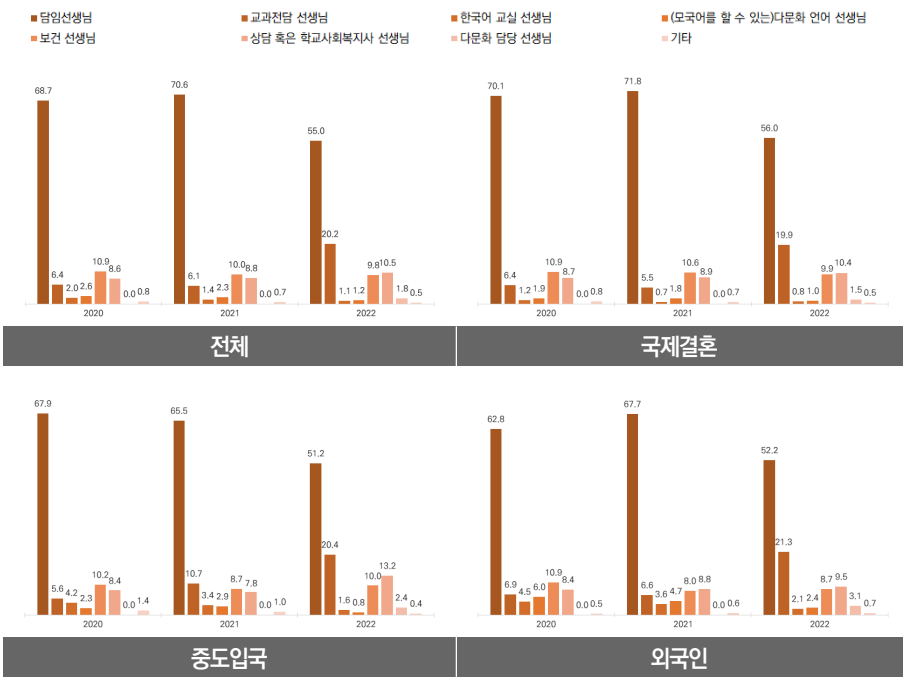


그림 V-18.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복수응답) (단위: %)

⑧ 사회적응 및 지지: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숙제할 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를 통해 가정과 학교 밖에서의 지지체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약 53% 다문화청소년은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2022년에도 약 53%로 4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달리 말하면 절반에 가까운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밖에

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부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도입국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지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46% → 60.1%)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청소년의 규모가 40%를 넘어가는 결과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상호작용이 부재하거나 관계망 형성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망의 형성 및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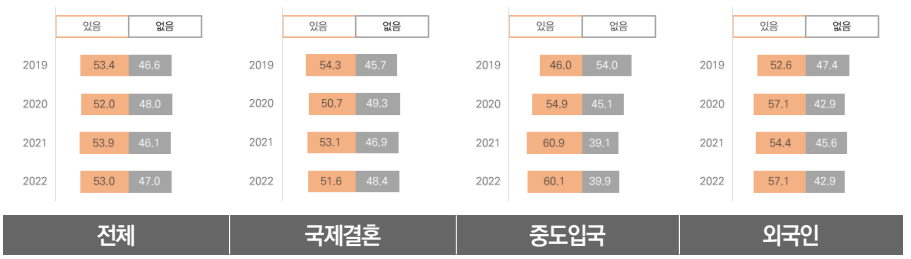


그림 Ⅴ-19.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 여부(단위: %)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조사하였다. 2019년 설문된 선택 항목이 이듬해부터 조사된 선택 항목과 상이하여 2019년 자료는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역 기관 선생님, 이웃 어른들이었다. 특히, 학년이 증가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원 등 사교육 선생님의 비율은 2020년 약 53%에서 2022년 약 60%로 높아진 반면, 지역기관 선생님의 비율은 2020년 약 23%에서 2022년 약 14%로 낮아졌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인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국제결혼 및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지역아동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다문화관련 센터 등 지역 기관 선생님과도 교류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이웃 어른을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율은 2020년 약 17%, 2021년 약 20%, 2022년 약 15~20% 내외로 나타나 주거지

근처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나 이웃 등 지역 사회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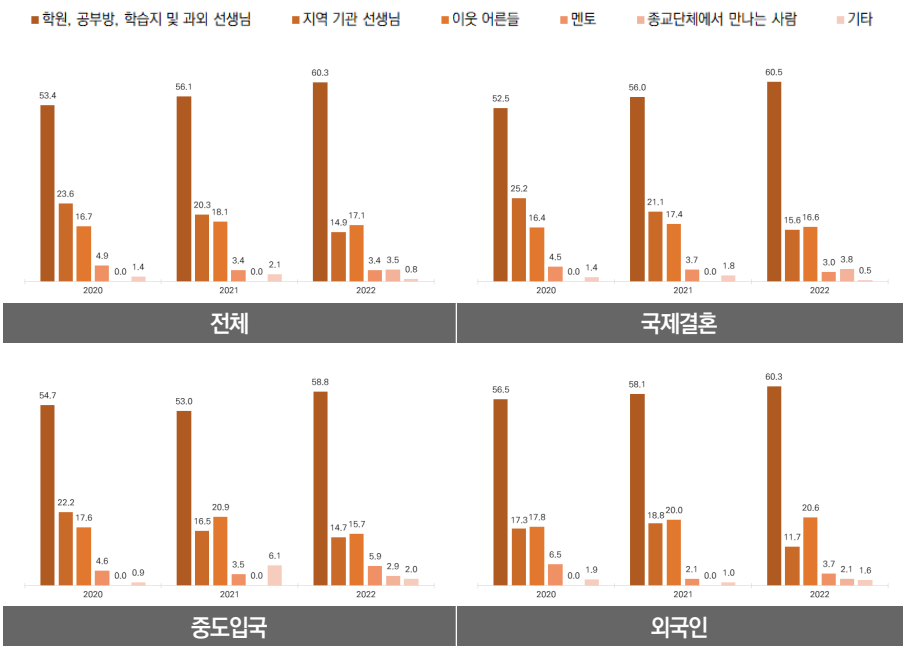


그림 Ⅴ-20.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복수응답)(단위: %)

(4) 정체성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요인은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정체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국가정체성은 국적에 대한 인식과 한국인정체성을, 다문화정체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변인을 사용하였다.

① 국가정체성: 국적에 대한 인식

다문화청소년에게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약 70%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사람'이라고 인식하였고, 2020년에 약 68%로 감소하다가 2022년에 약 72%로 다시 증가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2019년에 다문화청소년의 약 17%가 자신이 '한국사람이기도 하면서 본국/부모님 나라사람'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들의 비율이 2021년에 약 22%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약 20%로 감소하였다. 또한, 자신이 '본국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다문화청소년은 2019년에 약 9%이었지만, 매년 감소하여 2022년에는 약 5%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약 2%의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이 한국사람인지, 본국사람인지 혹은 부모나라사람인지 등 국적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 국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사람'으로 인식한다는 다문화청소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결혼가정의 약 81~82%, 중도입국가정의 약 49~51%, 외국인가정의 약 27~32%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본국/외국인 부모나라 사람'이라는 비율이 2019년에 약 33%에서 2022년에 약 41%로 증가하였는데, '본국/외국인 부모나라 사람'이라는 비율은 2019년에 약 14%에서 2022년에 약 4%로 감소하였다.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사람이기도 하면서 본국/부모님 나라사람'이라는 인식은 초-중 전환기에 다시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두 나라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갖추게 된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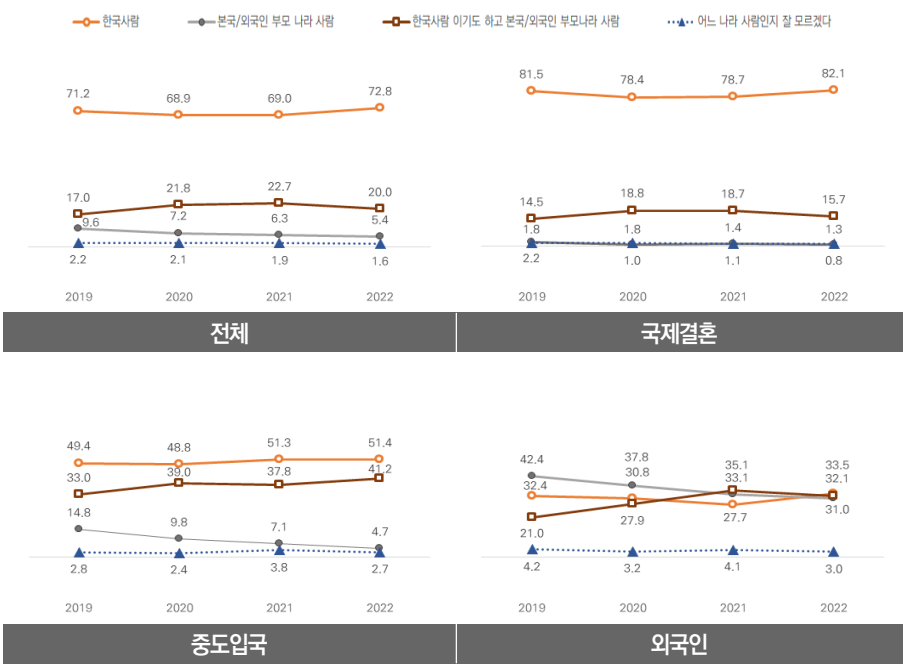


그림 V-21. 국적에 대한 인식(단위: %)

② 국가정체성: 한국인정체성

한국인정체성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4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인정체성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인정체성이 점차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며, 시점 간 차이에서는 2019년의 한국인정체성이 2020년과 2021년, 2022년의 한국인정체성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한국인정체성 차이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국인정체성의 변화 양상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인정체성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지만, 학교급이 전환되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다문화청소년 유형 중 국제결혼가정에서 그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14. 한국인정체성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2.63	0.73	2.67	0.72	2.81	0.67	2.75	0.67	–
중도입국[B]	2.65	0.71	2.77	0.62	2.81	0.65	2.75	0.66	
외국인[C]	2.56	0.69	2.68	0.62	2.70	0.68	2.62	0.68	
전체	2.62[a]	0.72	2.68[b]	0.70	2.80[c]	0.67	2.73[d]	0.67	
시점	a<b,c,d								10.639***
유형	–								3.220*

*p<.05, ***p<.0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시점×유형(F=1.616, p=.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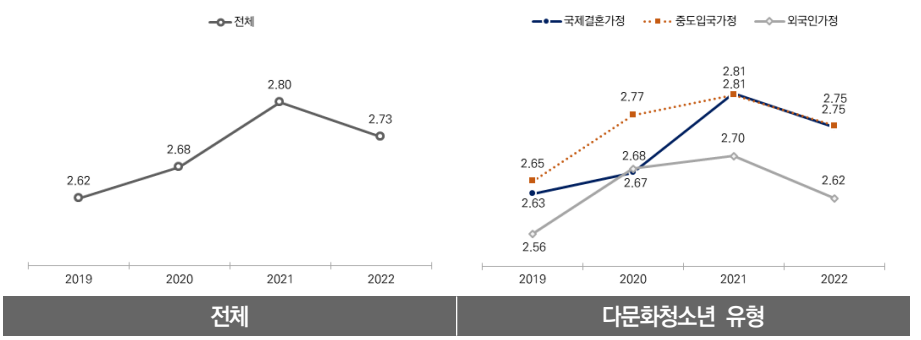


그림 V-22. 한국인정체성 변화 추이

③ 다문화정체성: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8문항의 4점 척도로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점차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문화적응스트레스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문화청소년 2개 유형 모두에서 1.3점대 이상의 점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변화의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미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지수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두 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지수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본국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V-15. 문화적응스트레스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도입국[B]	1.33	0.44	1.32	0.40	1.36	0.42	1.40	0.44	-
외국인[C]	1.35	0.45	1.38	0.45	1.35	0.43	1.41	0.43	
전체	1.34[a]	0.44	1.36[b]	0.43	1.35[c]	0.42	1.41[d]	0.43	

***p<.0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시점(F=2.408, p=.069, 유형(F=.351, p=.554), 시점×유형(F=.703, p=.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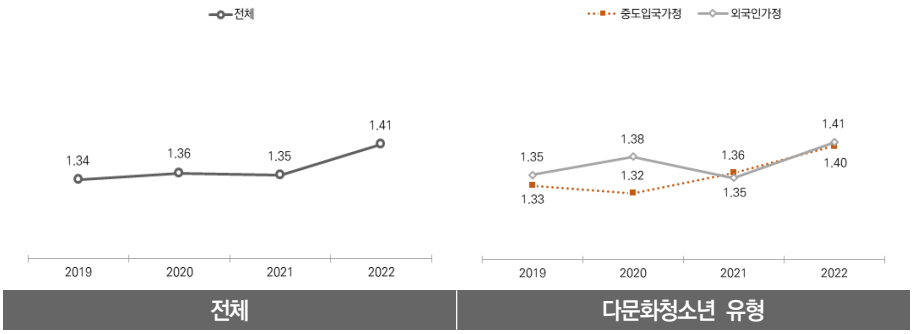


그림 V-23.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 추이

④ 다문화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한국문화와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의 수용 태도를 의미하는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한국문화 5문항,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문화 5문항으로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까지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면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점 간 차이에서는 2022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이중문화수용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도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이중문화수용태도(전체)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2.94	0.45	2.93	0.41	2.94	0.40	2.90	0.38	–
중도입국^{B}	2.93	0.45	2.97	0.41	2.96	0.44	2.93	0.36	
외국인^{C}	2.99	0.42	2.97	0.40	2.93	0.41	2.88	0.38	
전체	2.95^{a}	0.44	2.94^{b}	0.41	2.94^{c}	0.40	2.90^{d}	0.37	
시점	d<a,b,c								4.577**

**p<.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유형(F=.286, p=.751), 시점×유형(F=1.483, p=.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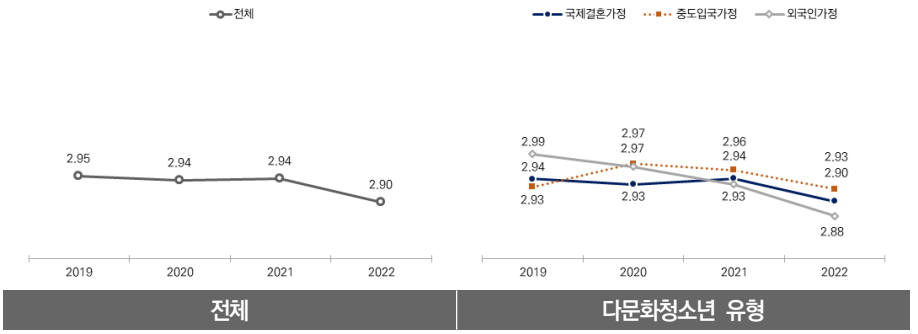


그림 Ⅴ-24.이중문화수용태도(전체) 변화 추이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문화수용태도가 점차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변화추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한국문화수용태도의 변화 차이는 2022년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국제결혼가정이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한국문화수용태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는 3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초-중 전환기를 기점으로 이전의 변화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는 초-중 전환기에 다른 유형보다 변화의 폭이 컸으며, 중학교 1학년에서는 다른 두 유형보다 한국문화수용태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Ⅴ-17. 이중문화수용태도(한국문화)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27	0.51	3.29	0.49	3.33	0.47	3.29	0.46	–
중도입국[B]	3.21	0.47	3.28	0.54	3.24	0.49	3.26	0.51	
외국인[C]	3.30	0.53	3.30	0.51	3.28	0.51	3.21	0.49	
전체	3.27[a]	0.51	3.29[b]	0.50	3.31[c]	0.48	3.28[d]	0.47	
시점×유형	–		–		–		C〈A		2.165*

***p<.05

* 주: 분산비(F)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은 표에서 제외함(시점(F=1.371, p=.250, 유형(F=1.705, p=.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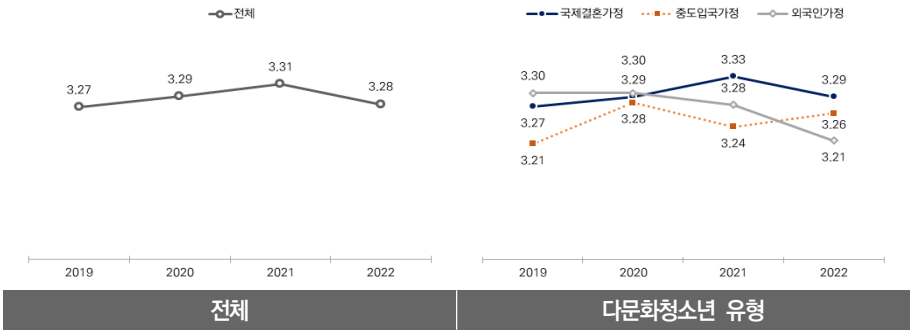


그림 V-25. 이중문화수용태도(한국문화) 변화 추이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시점 간 차이에서는 2022년이 2019년, 2020년, 2021년의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차이에서는 중도입국가정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8.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2.61	0.61	2.58	0.56	2.56	0.54	2.52	0.52	–
중도입국^{B}	2.65	0.66	2.66	0.56	2.68	0.61	2.59	0.54	
외국인^{C}	2.68	0.57	2.63	0.54	2.59	0.52	2.54	0.56	
전체	2.63^{a}	0.60	2.59^{b}	0.56	2.58^{c}	0.55	2.53^{d}	0.53	
시점	d<a,b,c								7.171***
유형	A<B								3.482*

*p<.05, ***p<.0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시점×유형(F=.667, p=.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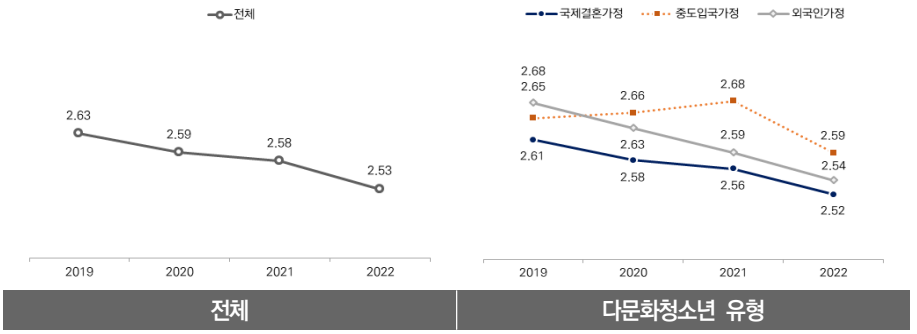


그림 V-26.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변화 추이

⑤ 다문화정체성: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 전체가 외국출신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며 2문항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시점 간 차이에서는 2019년이 2021년보다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의 변화 양상의 차이가 2020년에 나타났는데,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은 4년 동안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변화 양상을 보였지만, 3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19.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20	0.68	3.09	0.66	3.13	0.61	3.17	0.58	
중도입국[B]	3.21	0.63	3.26	0.66	3.06	0.71	3.16	0.52	–
외국인[C]	3.27	0.65	3.23	0.60	3.18	0.70	3.13	0.55	
전체	3.21[a]	0.67	3.12[b]	0.66	3.13[c]	0.63	3.17[d]	0.57	
시점	c<a								4.500**
시점×유형	–		A<B,C		–		–		3.640**

**p<.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유형(F=2.227, p=.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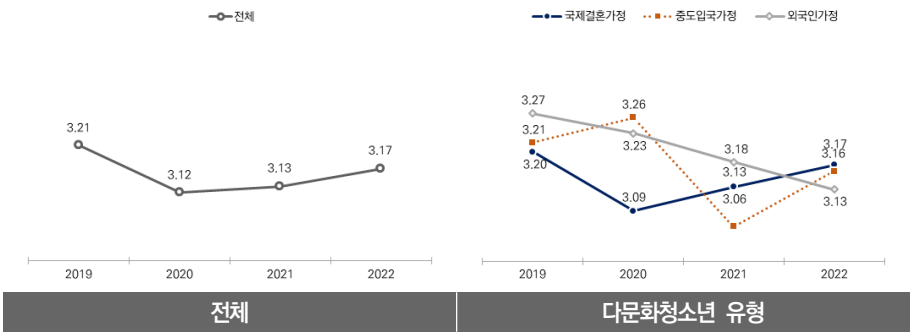


그림 V-27.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변화 추이

(5) 신체발달 및 건강

신체발달 및 건강은 다문화청소년의 키, 몸무게, 건강평가 변인을 사용하여 신체발달 현황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신체발달: 키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발달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키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신장이 매년 평균적으로 약 6cm 성장하였다.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키의 차이는 중도입국가정과 외국인가정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키의 변화에서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신장은 중도입국가정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20. 키

(단위: cm)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141.55	7.12	148.17	7.08	154.54	7.03	160.30	7.11	–
중도입국^{B}	144.32	8.00	149.83	7.56	156.24	7.89	161.89	8.23	
외국인^{C}	143.99	8.09	150.80	7.60	157.03	7.28	162.27	7.35	
전체	142.11^{a}	7.41	148.67^{b}	7.26	155.02^{c}	7.19	160.70^{d}	7.27	
시점	a<b,c,d b<c,d, c<d								4127.149***
유형	A<B,C								18.403***
시점×유형	A<B,C		A<B,C		A<B,C		A<B,C		2.51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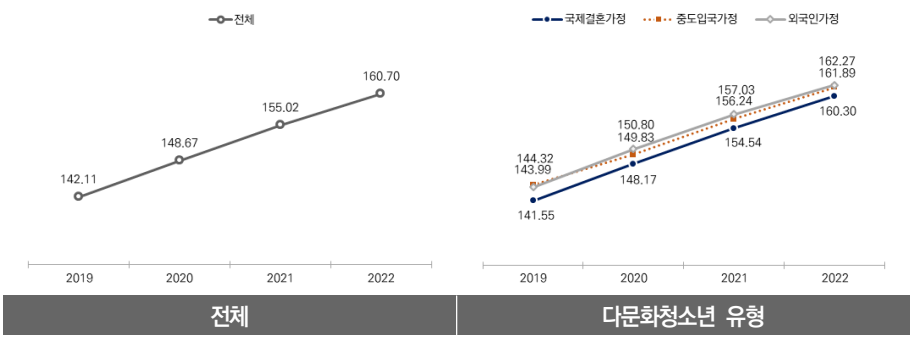


그림 V-28. 키 변화 추이

② 신체발달: 몸무게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발달 중 몸무게의 변화 추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몸무게가 매년 평균적으로 약 4kg 이상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에 국제결혼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의 몸무게가 중도입국가정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보다 다소 가벼운 양상을 보였지만, 4년의 시간이 흘러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면서 세 유형 간 몸무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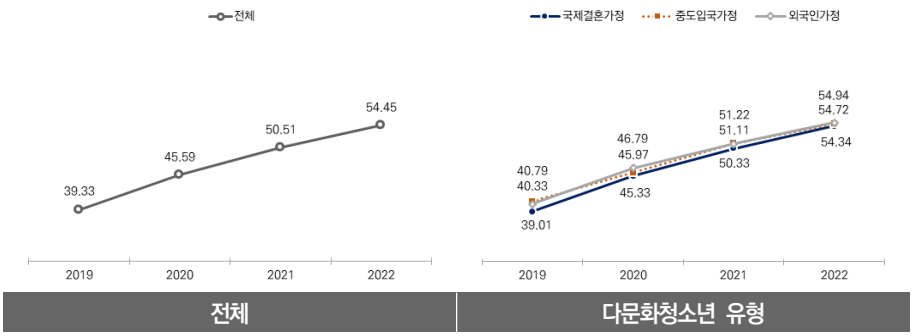
표 V-21. 몸무게

(단위: kg)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9.01	9.75	45.33	10.92	50.33	11.78	54.34	12.49	–
중도입국[B]	40.79	10.13	45.97	10.63	51.22	12.24	54.72	12.82	
외국인[C]	40.33	8.85	46.79	10.03	51.11	11.08	54.94	11.64	
전체	39.33[a]	9.68	45.59[b]	10.78	50.51[c]	11.72	54.45[d]	12.39	
시점	a<b,c,d b<c,d, c<d								1483.100***

***p<.001

*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산비(F)는 표에서 제외함(유형(F=1.954, p=.084, 시점×유형(*F*=1.461, p=.232))



전체 | 다문화청소년 유형

그림 V-29. 몸무게 변화 추이

③ 건강평가

건강평가는 다문화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며 2문항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평가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2022년의 건강평가가 2019년, 2020년, 2021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에서도 건강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스스로에 대한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건강평가의 변화 양상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2019년에 외국인가정이 국제결혼가정과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자신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평가는 3점대로 높은 수준의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그 다음해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 유형 중 외국인과 국제결혼가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그 변화의 폭이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는 다르게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가장 낮았지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면서 이전 연도보다 자신의 건강을 낮게 평가하였다.

표 V-22. 건강평가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결혼^{A}	3.47	0.55	3.47	0.53	3.44	0.56	3.38	0.56	–
중도입국^{B}	3.43	0.60	3.54	0.50	3.55	0.53	3.48	0.56	
외국인^{C}	3.60	0.51	3.55	0.52	3.48	0.55	3.42	0.58	
전체	3.49^{a}	0.55	3.49^{b}	0.53	3.45^{c}	0.56	3.40^{d}	0.56	
시점	d〈a,b,c								5.900**
유형	A〈C								4.602*
시점×유형	A,B〈C		–		–		–		2.81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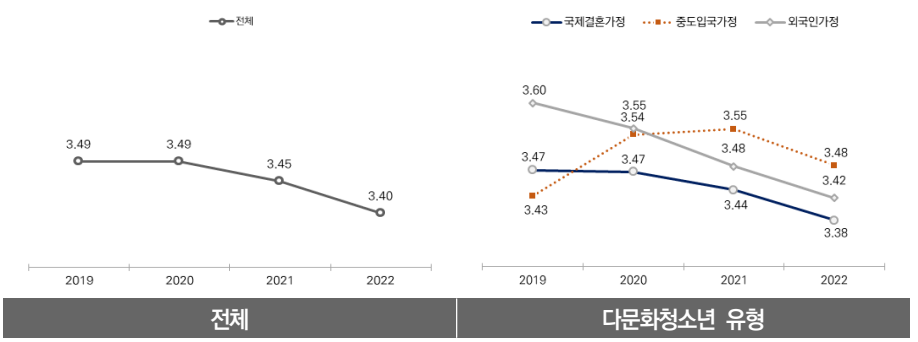


그림 V-30. 건강평가 변화 추이

3) 요약 및 소결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영역으로 구분하여 4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영역에서는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매년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렇듯 매년 상승하는 월 평균 가구소득의 추이 속에서 국제결혼가정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소득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양상은 4년간 지속되었다. 또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가계수지 전체평균을 통해 이들의 객관적인 소득수준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가정은 소득분위 3분위를, 국제결혼가정은 소득분위 2분위를 유지한 반면, 중도입국가정은 소득분위 2분위에서 3분위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뤄 볼 때, 다문화청소년 가정 대부분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소득분위 2-3분위에 속하며, 전체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은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의 시간동안 양육태도에서 변화를 보이는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가장 높은 감독의 양육태도를, 가장 낮은 방임의 양육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초-중 전환기인 중학교 1학년에 그들 부모는 자녀의 활동, 시간 관리 등 자녀에 대한 관심, 즉 감독의 양육태도가 낮아지고 보호소홀, 무관심 등 방임의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이들 자녀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등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홍나미, 박현정, 2017), 밖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애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철희, 송진영, 문선혜, 정선화, 2023; 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자녀의 돌봄, 교육문제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사안을 함께 의논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전무하거나 미미한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이유로 방임의 양육태도가 높아질 수 있기에 다문화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초-중 전환기를 포함한 자녀의 발달적 상황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육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영역에서는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으며,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태도, 친구 및 선생님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초-중 전환기에 큰 폭으로 낮아졌다.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 지목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친구관계였으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공부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학업에 대한 어려움은 중학교 진학 후 가속화되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힘들거나 숙제나 과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학교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낮은 문해력과 이독성 (Readability)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문해력과 이독성은 기초학력의 부진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학습 의욕, 학업 동기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심현기와 박소영, 박상완(2022)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에서 우수학교와 기초학력 미달 학교를 구분하는 예측요인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재학 여부를 꼽았으며, 다문화청소년이 많은 학교일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낮게 나타나 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가 미숙하여 학교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구와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학급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지만 낮은 단계의 한국어 능력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학습격차가 발생하여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직면한다(안진숙, 2023).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부족한 문해력을 보완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어 학습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 학습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사회 적응영역에서는 심리적응, 사회적응 및 지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심리적응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중학교 진학 이후 심리적 불안정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초-중 전환기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발달궤적을 나타낸다는 인효연(2018)의 결과처럼 다문화청소년도 학교급의 전환으로 인한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지지가 감소하고, 친구의지지와 교사의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관계를 확장하면서 사회적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특히, 긍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Wentzel, 1998),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전반에도 중요하다(이기수, 원성준, 2023). 다만, 이러한 사회적지지 체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하의 다문화청소년은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역사회 내 상호작용이 부재하거나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기관의 지지체계 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체성영역에서는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정체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다문화청소년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국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본국/외국인 부모나라 사람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한국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 두 국가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비율이 반향되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한국인정체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중학교에 진학 후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국가정체성은 소속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Tajfel & Turner, 1986), 이주배경으로 부모나라와 한국문화의 혼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중 전환기에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중학교 입학 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는 중학교 입학 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은 초등학교 5학년에 큰 차이를 보인 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유사한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며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도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은 초등학교 5학년에 감소한 후 반등하여 중학교 1학년까지 증가하는 변화 추이를 보였고,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그 감소폭이 매우 컸지만, 다시 반등하여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과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신체발달 및 건강의 영역에서는 신체발달과 건강평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신체발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키는 국제결혼가정이 가장 작았는데 이러한 추세는 중학교 1학년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하였지만, 이러한 평가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상기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학교, 심리·사회 적응,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영역은 4년간 증가, 감소, 유지 등 다양한 변화 추이를 보였으며, 다문화청소년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문화청소년은 가정, 학교, 개인 등 다양한 요소에서 다차원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차원적 지원으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4년간 발달추이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V-23. 다문화청소년 4년간 발달추이 결과 요약

구 분	주요 결과
가정	•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내 월 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매년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지만, 국제결혼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2022년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소득과 비교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내 월 평균 소득이 월 평균 가계수지 전체 평균보다 낮으며, 경제적 취약성을 지님.
	•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자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였으며, 학년이 높아지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자녀의 활동, 시간관리 등 관심 및 감독이 점차 낮아졌음. 특히 중1 시기에는 방임의 양육태도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학교	• 학교생활에서 학습태도, 친구 및 선생님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지만,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에서는 초-중 전환기에 학교생활 만족도가 큰 폭으로 낮아짐. •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이 초4에는 친구관계였지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초-중 전환기에 어려움의 크기가 가속화됨. •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학교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한국어가 미숙하여 친구와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을 어려워함.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인 학업성적과 만족도는 점차 낮아졌으며,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성적에 대한 만족도도 감소함.
심리·사회 적응	• 초4 시기보다 중학교 진학 이후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그 차이가 컸으며,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변화 추이를 보였으며, 초5와 중1 시기에 감소의 폭이 컸음.
	• 친한 친구 수는 초4부터 초6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중학교 진학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래관계의 확장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임. • 초5 시기 친구의지지와 교사의지지가 낮았다가 다시 회복하는 변화 추이를 보이며 중1 시기 가장 높음.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의지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외국인가정에서 초5시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변화를 보였지만 국제결혼가정보다는 부모의지지 수준이 높음. •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전담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의 비율이 증가와 감소를 보였지만, 절반 정도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내 상호작용이 부재하거나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지체계의 지원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구 분	주요 결과
정체성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이 한국사람이기도 하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초6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인정체성은 초4부터 초6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중학교 진학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
	•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중학교 입학 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는 중학교 입학 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변화 양상을 보임. • 중도입국가정과 외국인가정 간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은 초5 시기에 큰 차이를 나타냄. •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는 초6시기까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는 중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의 변화추이를 나타냄. •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은 초5시기 감소 후 다시 회복하여 중1까지 증가의 추이를 보임.
신체발달 및 건강	• 초4부터 중1까지 매년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키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작음. • 초-중 전환기를 거쳐 중1 시기에 도래했을 때, 국제결혼가정과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몸무게 간 차이가 없음. • 다문화청소년의 대부분은 자신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하였지만, 초4부터 중1까지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외국인가정과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 간 차이를 보였으며,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이 더 건강하다고 평가함.

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경향성 8년 주기 비교: 1, 2기 패널

1) 분석개요

이 절에서는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의 8년 주기 비교를 통해 초-중 전환기의 적응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에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축된 1기 패널의 4차년도(2014년)와 8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에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구축된 2기 패널의 4차년도(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8년 주기로 조사된 다문화청소년 패널 간 개인, 환경, 다문화 영역 전반의 비교를 통해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분석변인

1기 패널과 2기 패널 비교는 2011년과 2019년의 8년이라는 시간 간격에 동일한 연령 및 학년으로 구성된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적응의 변화 양상을 패널 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절의 패널 간 비교는 1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4개의 집단에 대해 두 시점 간 코호트 효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와 2기 패널의 4차년도 청소년용 자료에서 동일하게 설문된 문항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1기 패널에서 측정된 하위문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항이 삭제되어 2기 패널에서 측정된 경우에는 문항 내용, 척도, 응답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에 응답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즉, 분석변인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1기와 2기 패널 모두에 측정된 변인이더라도 하위문항이 불일치하거나 척도의 변경, 응답방식, 응답항목 등이 수정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기와 2기 패널에서 동일하게 측정된 변인을 확인하였으며, 19개의 변인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19개의 변인을 개인, 환경, 다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다문화청소년의 성별, 지역규모,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의 배경변인을 토대로 기술통계, t검정, 교차분석(χ^2검정), 일원분산분석(ANOVA)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원분산분석 후 사후검증은 Bonferroni 방법을 적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분석에 사용한 변인을 영역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24. 다문화청소년 1기와 2기 패널 간 비교 분석 영역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1기 패널	2기 패널	문항수 (1기, 2기)
			2014	2022	
개인	심리·사회적응	삶의 만족도	○	○	3
		사회적 위축	○	○	3
		우울	○	○	5
	진로	희망교육수준	○	○	1
		진로태도 결정성	○	○	10
환경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	○	○	10
		부모의지지	○	○	6
	학교	학교생활	○	○	1
		친구의지지	○	○	3
		교사의지지	○	○	3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1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1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	○	6
		학업중단 위험요인 생활 및 태도	○	○	6
다문화	언어능력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	○	○	1
	이중문화	국적에 대한 인식	○	○	1
		문화적응스트레스	○	○	9
		국가정체성	○	○	4
		이중문화수용태도	○	○	10

* 출처: 양계민 외(2020: 229) 표 Ⅷ-2. 수정 및 보완

(2) 배경변인

비교분석을 위해 사용된 배경변인은 다문화청소년의 성별, 지역규모,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이다. 이 중 1기와 2기 패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원자료를 토대로 월 평균 가구소득 변인은 재산출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기와 2기 패널의 4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2014년과 2022년 소득분위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국 2인 이상 가구 소득분위 경계값(2014년 4/4분기, 2022년 4/4분기 기준)을 기준으로 소득 5분위를 산출하였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에서부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까지 5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각 분위별 경계값은 2014년에 221만원부터 333만원, 437만원, 591만원이었고, 2022년에 296만원부터 441만원, 592만원, 816만원이었다(KOSIS 국가통계포털, 2023b).

배경변인에 따라 1기와 2기 패널의 다문화청소년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기 패널은 4차년도 자료 기준으로 국제결혼가정 1,380명, 2기 패널은 4차년도 자료 기준으로 국제결혼가정 1,479명, 중도입국가정 148명, 외국인가정 268명으로 총 1,895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 다문화청소년의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은 1기와 2기 패널 모두에서 약 50% 내외로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그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3개의 범주(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로 구분하였다. 이때,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광역시더라도 군지역인 경우 읍·면지역으로 편입되어 산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 규모별 비율을 살펴보면, 1기 패널에서는 읍·면지역이 4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달리 2기 패널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였고,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에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46.0%, 49.6%로 높았던 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비율은 1기와 2기 패널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2기 패널에서 고등학교 졸업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은 중학교 졸업이하 34.3%, 중도입국가정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8.4%, 외국인가정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2.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2기 패널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상이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을 소득분위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1기 패널의 1분위 비율이 52.1%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3.0%가 2분위에 속하였다. 즉, 1기 패널 가정의 소득수준은 대부분 하위 40%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기 패널에서 2분위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43.4%, 중도입국가정 31.1%, 외국인가정 4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1분위 비율이 국제결혼가정 36.7%, 중도입국가정 29.7%, 외국인가정 25.4%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약 70~80%의 가정이 소득수준 하위 40%에 속하였다. 2기 패널에서는 3분위에 속한 비율이 국제결혼가정 14.6%, 중도입국가정 27.7%, 외국인 가정 21.3%로 1기 패널의 3분위 9.1%보다 높아졌으며, 2기 패널의 경우 소득분위 1-2분위에 속한 비율이 1기 패널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소득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5. 배경변인별 다문화청소년 빈도

(단위: 빈도(%))

구분		1기 패널 (2014년)	2기 패널(2022년)			
		국제결혼	합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전체		1,380 (100.0)	1,895 (100.0)	1,479 (100.0)	148 (100.0)	268 (100.0)
성별	남자	674 (48.8)	974 (51.4)	757 (51.2)	82 (55.4)	135 (50.4)
	여자	706 (51.2)	921 (48.6)	722 (48.8)	66 (44.6)	133 (49.6)
지역규모	대도시	347 (25.1)	580 (30.6)	426 (28.8)	61 (41.2)	93 (34.7)
	중소도시	401 (29.1)	736 (38.8)	535 (36.2)	68 (46.0)	133 (49.6)
	읍·면지역	632 (45.8)	579 (30.6)	518 (35.0)	19 (12.8)	42 (15.7)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57 (11.4)	576 (30.4)	508 (34.3)	19 (12.8)	49 (18.3)
	고등학교 졸업	643 (46.6)	839 (44.3)	643 (43.5)	65 (43.9)	131 (48.9)
	2~3년제 대학 졸업	352 (25.4)	197 (10.4)	147 (9.9)	22 (14.9)	28 (10.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28 (16.6)	283 (14.9)	181 (12.3)	42 (28.4)	60 (22.4)
월 평균 가구 소득[14]	1분위(하위 20%)	719 (52.1)	655 (34.6)	543 (36.7)	44 (29.7)	68 (25.4)
	2분위	455 (33.0)	809 (42.7)	642 (43.4)	46 (31.1)	121 (45.1)
	3분위	125 (9.1)	314 (16.6)	216 (14.6)	41 (27.7)	57 (21.3)
	4분위	57 (4.1)	93 (4.9)	64 (4.3)	14 (9.5)	15 (5.6)
	5분위(상위 20%)	14 (1.0)	16 (0.8)	7 (0.5)	3 (2.0)	6 (2.2)
	모름/무응답	10 (0.7)	8 (0.4)	7 (0.5)	0 (0.0)	1 (0.4)

14) 월 평균 가구소득의 '5분위' 비율이 각 유형별로 2% 내외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본 절의 분석에서는 4분위와 5분위를 통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2) 분석결과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기와 2기 패널의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개인, 환경, 다문화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에 성별, 지역규모,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의 배경변인에 따라 각 영역별 변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1) 개인

1기와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영역은 심리·사회 적응과 진로로 구분하였다. 심리·사회 적응은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 우울이며, 진로는 희망교육수준과 진로태도 결정성으로 두 패널에서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8년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① 심리·사회 적응: 삶의 만족도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는 1기 패널에 비해 2기 패널에서 소폭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두 패널 모두에서 3점대 이상의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배경변인에 따라 1기와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두 시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을 제외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인식의 양상은 패널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1기 패널은 읍·면지역에서 중소도시, 대도시로 거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2기 패널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두 패널 간 삶의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2기 패널의 중도입국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는 두 패널의 다문화청소년 유형에 따라 소득분위별로 상이한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 중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 3분위가 1분위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26. 삶의 만족도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22 (0.59)	-	3.17 (0.57)	-	3.18 (0.61)	-	3.20 (0.61)	-
성별	남자	3.30 (0.59)	4.941***	3.24 (0.57)	4.786***	3.28 (0.54)	2.264*	3.20 (0.59)	.195
	여자	3.15 (0.59)		3.10 (0.55)		3.06 (0.67)		3.19 (0.62)	
지역 규모	대도시[a]	3.17 (0.61)	3.111*	3.20 (0.56)	.796	3.23 (0.54)	.502	3.36 (0.61)	5.647** b,c<a
	중소도시[b]	3.20 (0.56)		3.16 (0.57)		3.13 (0.69)		3.13 (0.63)	
	읍·면지역[c]	3.26 (0.60)		3.15 (0.57)		3.19 (0.52)		3.06 (0.41)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3.17 (0.58)	1.406	3.11 (0.57)	2.908*	3.25 (0.44)	.305	3.18 (0.67)	2.040
	고졸[b]	3.23 (0.60)		3.18 (0.55)		3.21 (0.63)		3.16 (0.58)	
	2~3년제 대졸[c]	3.20 (0.60)		3.23 (0.61)		3.17 (0.59)		3.06 (0.51)	
	4년제 대졸 이상[d]	3.28 (0.57)		3.22 (0.58)		3.11 (0.67)		3.36 (0.63)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23 (0.60)	1.955	3.10 (0.59)	5.079** a<c	3.09 (0.64)	.716	3.15 (0.57)	.976
	2분위[b]	3.19 (0.57)		3.18 (0.56)		3.16 (0.65)		3.25 (0.61)	
	3분위[c]	3.23 (0.61)		3.26 (0.55)		3.28 (0.53)		3.11 (0.66)	
	4-5분위[d]	3.37 (0.59)		3.23 (0.49)		3.24 (0.60)		3.27 (0.56)	

*p<.05, **p<.01, ***p<.001

② 심리·사회 적응: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4점 척도에서 대부분 2점대의 평균을 나타냈으며, 1기 패널보다 2기 패널에서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배경변인에 따라 1기와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살펴본 결과,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을 제외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위축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인식의 양상은 패널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소규모 지역에 거주할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아졌다. 특히 2기 패널의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에서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대도시 거주보다 사회적 위축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패널 간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일 때보다 중학교 졸업의 낮은 학력일 때 사회적 위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③ 심리·사회 적응: 우울

우울은 패널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에서 1점대의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1기와 2기 패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을 더 인지하였으며,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패널 간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1기 패널에서는 큰 도시에 살수록, 2기 패널의 국제결혼과 중도입국가정에서는 작은 지역에 살수록 우울이 더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이 인식한 우울은 두 패널 모두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1기와 2기 패널의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1분위에 속한 다문화청소년이 4-5분위에 속한 다문화청소년보다 우울의 정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는 다르게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의 수준이 1분위에서 4-5분위로 갈수록 우울의 정도가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27. 사회적 위축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23 (0.76)	-	2.21 (0.81)	-	2.18 (0.80)	-	2.19 (0.80)	-
성별	남자	2.18 (0.76)	-2.523*	2.18 (0.81)	-1.389	2.11 (0.76)	-1.047	2.20 (0.79)	.175
	여자	2.28 (0.76)		2.24 (0.81)		2.25 (0.85)		2.18 (0.81)	
지역 규모	대도시[a]	2.19 (0.71)	.871	2.10 (0.82)	5.651** a<b,c	2.01 (0.77)	2.665	1.97 (0.82)	5.830** a<b,c
	중소도시[b]	2.24 (0.77)		2.23 (0.80)		2.25 (0.80)		2.29 (0.79)	
	읍·면지역[c]	2.26 (0.78)		2.27 (0.81)		2.44 (0.82)		2.37 (0.69)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2.25 (0.77)	.403	2.30 (0.81)	3.445* b<a	2.11 (0.82)	.151	2.00 (0.76)	1.994
	고졸[b]	2.25 (0.75)		2.16 (0.79)		2.22 (0.81)		2.26 (0.83)	
	2~3년제 대졸[c]	2.22 (0.78)		2.15 (0.84)		2.18 (0.83)		2.36 (0.67)	
	4년제 대졸 이상[d]	2.19 (0.76)		2.15 (0.83)		2.13 (0.79)		2.10 (0.79)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25 (0.79)	.613	2.22 (0.82)	1.633	2.30 (0.78)	1.240	2.09 (0.86)	.422
	2분위[b]	2.23 (0.73)		2.21 (0.80)		2.23 (0.87)		2.21 (0.83)	
	3분위[c]	2.17 (0.69)		2.23 (0.79)		1.98 (0.77)		2.23 (0.71)	
	4-5분위[d]	2.17 (0.82)		2.00 (0.79)		2.16 (0.71)		2.22 (0.66)	

*p<.05, **p<.01

표 V-28. 우울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6 (0.53)	-	1.55 (0.55)	-	1.60 (0.58)	-	1.56 (0.60)	-
성별	남자	1.53 (0.52)	-2.461*	1.52 (0.55)	-2.566*	1.53 (0.59)	-1.651	1.53 (0.53)	-.682
	여자	1.60 (0.53)		1.59 (0.56)		1.68 (0.57)		1.58 (0.67)	
지역 규모	대도시[a]	1.59 (0.53)	1.852	1.50 (0.55)	2.573	1.48 (0.53)	2.592	1.48 (0.56)	3.947*
	중소도시[b]	1.59 (0.51)		1.58 (0.55)		1.66 (0.62)		1.66 (0.65)	
	읍·면지역[c]	1.53 (0.53)		1.57 (0.56)		1.77 (0.54)		1.41 (0.49)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1.61 (0.56)	1.307	1.60 (0.54)	1.952	1.71 (0.67)	.626	1.56 (0.64)	.455
	고졸[b]	1.57 (0.52)		1.53 (0.56)		1.54 (0.60)		1.60 (0.60)	
	2~3년제 대졸[c]	1.57 (0.53)		1.52 (0.58)		1.69 (0.58)		1.54 (0.43)	
	4년제 대졸 이상[d]	1.51 (0.51)		1.54 (0.54)		1.59 (0.52)		1.49 (0.65)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55 (0.53)	1.207	1.60 (0.58)	3.373* d<a	1.69 (0.61)	.565	1.51 (0.50)	1.194
	2분위[b]	1.60 (0.52)		1.54 (0.54)		1.59 (0.67)		1.52 (0.59)	
	3분위[c]	1.55 (0.54)		1.52 (0.54)		1.54 (0.48)		1.65 (0.69)	
	4-5분위[d]	1.52 (0.53)		1.41 (0.48)		1.53 (0.48)		1.70 (0.67)	

*p<.05

④ 진로: 희망교육수준

다문화청소년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5개의 범주로 조사되었지만, 일부 선택항을 소수의 청소년이 응답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학교와 대학원을 통합한 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재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1기와 2기 패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대부분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2기 패널의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약 90% 이상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길 원하고 있었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두 패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이상의 비율이 대학교 이상을 희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1기와 2기 패널 간 경향이 상이하였으며,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는 거주지역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약 97%가 대학교 이상을 선택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학교 이상을 선호의 비율이 높았지만, 중도입국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학교 이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희망교육수준은 패널 간 상이한 경향을 보였고, 1기와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은 월 평균 가구소득이 상위에 근접할수록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은 1분위와 3분위 소득에 해당할 경우 대학교 이상을 선호하는 비율이 외국인가정의 평균 비율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⑤ 진로: 진로태도 결정성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태도 결정성은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소폭 낮아졌지만, 패널과 관계없이 유사한 평균값을 보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두 패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태도 결정성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은 진로태도 결정성을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규모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패널 및 배경변인의 수준과 관계없이 평균 점수와 유사한 값을 보이면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 결정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소득수준이 4-5분위에 속할수록 2분위에 속한 다문화청소년보다 높은 진로태도 결정성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V-29. 희망교육수준 패널 간 비교

(단위: %)

구분		1기 패널(2014) 국제결혼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χ^2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χ^2
전체		2.03	10.43	87.54	-	1.01	12.24	86.75	-
성별	남자	3.41	10.09	86.50	12.741**	1.72	13.47	84.81	10.168**
	여자	0.71	10.76	88.53		0.28	10.94	88.78	
지역 규모	대도시	1.44	10.66	87.90	2.385	0.70	12.44	86.86	.740
	중소도시	2.00	8.98	89.02		1.12	11.78	87.10	
	읍·면지역	2.38	11.23	86.39		1.16	12.55	86.29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	2.55	16.56	80.89	11.128	1.58	14.17	84.25	12.750*
	고졸	2.02	10.42	87.56		0.62	12.60	86.78	
	2~3년제 대졸	2.27	10.23	87.50		1.36	4.76	93.88	
	4년제 대졸 이상	1.32	6.58	92.10		0.55	11.60	87.85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	2.50	11.13	86.37	17.074**	1.29	13.63	85.08	6.116
	2분위	0.22	9.89	89.89		1.25	11.84	86.91	
	3분위	4.00	12.80	83.20		0.00	11.11	88.89	
	4-5분위	4.23	4.23	91.54		0.00	8.45	91.55	

구분		2기 패널(2022) 중도입국				외국인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χ^2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χ^2
전체		2.03	4.05	93.92	-	1.12	9.33	89.55	-
성별	남자	2.44	4.88	92.68	.492	0.74	11.11	88.15	1.335
	여자	1.52	3.03	95.45		1.50	7.52	90.98	
지역 규모	대도시	3.28	4.92	91.80	1.969	3.23	7.53	89.24	10.229*
	중소도시	1.47	4.41	94.12		0.00	12.78	87.22	
	읍·면지역	0.00	0.00	100.00		0.00	2.38	97.62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	0.00	0.00	100.00	19.592**	0.00	14.29	85.71	12.478
	고졸	0.00	3.08	96.92		0.00	8.40	91.60	
	2~3년제 대졸	13.64	4.55	81.81		0.00	10.71	89.29	
	4년제 대졸 이상	0.00	7.14	92.86		5.00	6.67	88.33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	2.27	9.09	88.64	7.321	1.47	7.35	91.18	16.035*
	2분위	0.00	2.17	97.83		0.00	10.74	89.26	
	3분위	4.88	2.44	92.68		0.00	8.77	91.23	
	4-5분위	0.00	0.00	100.00		9.52	9.52	80.96	

*p<.05, **p<.01

표 V-30. 진로태도 결정성 패널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62 (0.54)	-	2.58 (0.57)	-	2.63 (0.56)	-	2.62 (0.54)	-
성별	남자	2.63 (0.54)	.574	2.61 (0.56)	1.766	2.66 (0.56)	.704	2.60 (0.49)	-.828
	여자	2.61 (0.55)		2.56 (0.58)		2.59 (0.56)		2.65 (0.59)	
지역 규모	대도시[a]	2.62 (0.58)	.092	2.63 (0.59)	1.715	2.66 (0.46)	.186	2.72 (0.52)	2.562
	중소도시[b]	2.61 (0.56)		2.57 (0.56)		2.60 (0.64)		2.57 (0.55)	
	읍·면지역[c]	2.62 (0.51)		2.56 (0.56)		2.60 (0.53)		2.56 (0.53)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2.65 (0.53)	1.261	2.55 (0.55)	1.327	2.64 (0.36)	.853	2.56 (0.59)	.364
	고졸[b]	2.60 (0.53)		2.59 (0.56)		2.69 (0.57)		2.65 (0.52)	
	2~3년제 대졸[c]	2.59 (0.54)		2.59 (0.59)		2.48 (0.51)		2.59 (0.58)	
	4년제 대졸 이상[d]	2.67 (0.60)		2.65 (0.64)		2.60 (0.63)		2.64 (0.55)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62 (0.53)	3.379* b<d	2.59 (0.59)	3.397* b<d	2.56 (0.62)	.379	2.62 (0.46)	.840
	2분위[b]	2.57 (0.54)		2.55 (0.53)		2.65 (0.52)		2.61 (0.59)	
	3분위[c]	2.66 (0.55)		2.61 (0.59)		2.64 (0.55)		2.58 (0.52)	
	4-5분위[d]	2.77 (0.60)		2.76 (0.65)		2.71 (0.56)		2.80 (0.57)	

*p<.05

(2) 환경

1기와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의 환경 영역은 가정, 학교로 구분하였다. 가정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지지를, 학교는 학교생활과 친구의지지, 교사의지지, 학교 안/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학업중단 위험요인 생활 및 태도를 통해 두 패널에서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8년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①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감독'과 '방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은 모든 패널에서 3점대의 평균을 보였다.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에서 낮아진 경향을 나타냈는데, 2기 패널의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지역규모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의 차이는 두 패널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1기 패널에서는 중소도시 거주자, 2기 패널의 모든 다문화가정 유형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전체 평균보다 낮은 평균을 보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차이는 패널 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은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일수록 중학교 졸업의 낮은 학력의 어머니보다 '감독'의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은 '감독'의 양육태도가 패널 내 유형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감독'의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은 두 패널의 모든 유형에서 1점대의 낮은 평균을 보였으며,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에서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1기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방임'의 양육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기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1기와 2기 패널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방임'의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두 패널의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패널 간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은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보다 중학교 졸업의 낮은 학력일수록 '방임'의 양육태도를 더 높게 인식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방임'의 양육태도에 대한 패널 내 유형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

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방임'의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1분위 소득수준과 4-5분위 소득수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31.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22 (0.61)	-	3.15 (0.61)	-	3.10 (0.59)	-	3.10 (0.56)	-
성별	남자	3.20 (0.62)	-1.259	3.15 (0.63)	.323	3.13 (0.57)	.517	3.08 (0.61)	-.677
	여자	3.24 (0.61)		3.14 (0.59)		3.08 (0.61)		3.13 (0.51)	
지역 규모	대도시[a]	3.24 (0.63)	1.959	3.13 (0.64)	.260	3.05 (0.62)	.465	3.07 (0.70)	.402
	중소도시[b]	3.17 (0.62)		3.16 (0.58)		3.12 (0.58)		3.14 (0.49)	
	읍·면지역[c]	3.24 (0.60)		3.15 (0.62)		3.19 (0.50)		3.08 (0.38)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3.10 (0.62)	2.489	3.06 (0.62)	6.637*** a<c,d	3.07 (0.39)	.084	3.00 (0.61)	2.079
	고졸[b]	3.21 (0.62)		3.16 (0.61)		3.12 (0.59)		3.07 (0.56)	
	2~3년제 대졸[c]	3.25 (0.59)		3.22 (0.57)		3.06 (0.59)		3.27 (0.47)	
	4년제 대졸 이상[d]	3.25 (0.62)		3.28 (0.58)		3.11 (0.66)		3.19 (0.55)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23 (0.62)	.600	3.09 (0.61)	2.886*	2.94 (0.60)	2.356	3.08 (0.61)	.425
	2분위[b]	3.19 (0.60)		3.17 (0.62)		3.10 (0.62)		3.13 (0.54)	
	3분위[c]	3.25 (0.62)		3.16 (0.61)		3.19 (0.53)		3.04 (0.54)	
	4-5분위[d]	3.27 (0.59)		3.29 (0.49)		3.33 (0.53)		3.14 (0.57)	

*p<.05, ***p<.001

표 V-32.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76 (0.51)	-	1.71 (0.49)	-	1.73 (0.46)	-	1.66 (0.45)	-
성별	남자	1.79 (0.52)	2.242*	1.71 (0.50)	.423	1.71 (0.50)	-.732	1.65 (0.48)	-.177
	여자	1.73 (0.50)		1.70 (0.48)		1.76 (0.41)		1.66 (0.43)	
지역 규모	대도시[a]	1.73 (0.51)	1.125	1.70 (0.51)	.202	1.75 (0.50)	.093	1.62 (0.47)	2.550
	중소도시[b]	1.75 (0.50)		1.70 (0.49)		1.72 (0.45)		1.64 (0.44)	
	읍·면지역[c]	1.78 (0.52)		1.72 (0.48)		1.74 (0.40)		1.80 (0.44)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1.81 (0.48)	1.359	1.76 (0.47)	5.035** c,d〈a	1.79 (0.41)	.637	1.63 (0.45)	1.168
	고졸[b]	1.74 (0.50)		1.71 (0.50)		1.73 (0.50)		1.71 (0.46)	
	2~3년제 대졸[c]	1.79 (0.53)		1.61 (0.48)		1.82 (0.47)		1.56 (0.42)	
	4년제 대졸 이상[d]	1.73 (0.52)		1.64 (0.51)		1.67 (0.43)		1.62 (0.46)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77 (0.51)	2.610	1.76 (0.50)	5.461** d〈a	1.81 (0.48)	1.412	1.70 (0.44)	.539
	2분위[b]	1.76 (0.49)		1.69 (0.49)		1.78 (0.48)		1.62 (0.46)	
	3분위[c]	1.77 (0.55)		1.68 (0.45)		1.65 (0.43)		1.68 (0.48)	
	4-5분위[d]	1.59 (0.51)		1.54 (0.51)		1.61 (0.42)		1.69 (0.42)	

*p<.05, **p<.01

② 가정: 부모의지지

부모의지지는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에서 다소 높아졌으며, 두 패널 모두에서 3점대 이상의 부모의지지 수준을 나타냈다. 배경변인에 따라 1기와 2기 패널을 확인한 결과, 부모의지지 수준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에서도 대부분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보다 부모의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두 패널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상이하였다. 특히 1기와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지지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기와 2기 패널 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1기 패널에서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지닌 다문화청소년보다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의 다문화청소년이 더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기 패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어머니가 2-3년제 대졸 및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가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보다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모의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외국인가정을 제외하고 두 패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1기와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4-5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순으로 부모의지지를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하위 수준의 1분위와 4-5분위 간 차이가 컸다.

표 Ⅴ-33. 부모의지지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20 (0.53)	-	3.21 (0.49)	-	3.22 (0.49)	-	3.25 (0.46)	-
성별	남자	3.22 (0.52)	1.275	3.23 (0.50)	1.887	3.23 (0.49)	.401	3.25 (0.48)	-.066
	여자	3.18 (0.54)		3.19 (0.48)		3.20 (0.49)		3.25 (0.45)	
지역 규모	대도시[a]	3.20 (0.55)	.086	3.21 (0.51)	1.520	3.18 (0.46)	.346	3.30 (0.50)	3.162* c<a
	중소도시[b]	3.20 (0.51)		3.24 (0.48)		3.23 (0.52)		3.27 (0.45)	
	읍·면지역[c]	3.21 (0.54)		3.19 (0.48)		3.27 (0.50)		3.09 (0.37)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3.10 (0.61)	3.024*** a<d	3.14 (0.49)	13.053*** a,b<c,d	3.27 (0.42)	.415	3.26 (0.47)	.975
	고졸[b]	3.22 (0.51)		3.20 (0.48)		3.23 (0.50)		3.21 (0.47)	
	2~3년제 대졸[c]	3.18 (0.52)		3.35 (0.44)		3.11 (0.48)		3.35 (0.46)	
	4년제 대졸 이상[d]	3.26 (0.52)		3.35 (0.51)		3.22 (0.52)		3.30 (0.46)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17 (0.53)	2.884*	3.15 (0.52)	7.631*** a<c,d b<d	3.16 (0.52)	.906	3.22 (0.43)	2.548
	2분위[b]	3.22 (0.52)		3.21 (0.47)		3.16 (0.48)		3.33 (0.47)	
	3분위[c]	3.26 (0.54)		3.28 (0.44)		3.28 (0.47)		3.17 (0.46)	
	4-5분위[d]	3.34 (0.52)		3.40 (0.45)		3.33 (0.48)		3.12 (0.47)	

*p<.05, ***p<.001

③ 학교: 학교생활

수업시간이 재미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학교생활은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에서는 높아진 경향을 나타냈다. 배경변인에 따라 학교생활을 살펴본 결과, 1기 패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 수준이 더 높았지만, 2기 패널의 다문화청소년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생활의 인식 양상은 패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기 패널은 읍·면지역에서 중소도시,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 수준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2기 패널의 중도입국가정과 외국인가정에서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중소도시와 읍·면지역과 같은 작은 규모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생활의 지역 간 차이는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두 패널 간 학교생활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이가 1기 패널에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학교: 친구의지지

친구의지지는 1기 패널에 비해 2기 패널에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기 패널에서 중도입국가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순으로 친구의지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친구의지지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인식한 친구의지지 수준은 전체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다르게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두 패널 모든 유형에서 친구의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친구의지지 수준 차이는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문화청소년보다 어머니가 2-3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친구의지지가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1기 패널에서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은 친구에 대한 관심, 이해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친구의지지 상승은 2기 패널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34. 학교생활 패널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91 (0.70)	-	2.88 (0.67)	-	3.03 (0.67)	-	2.97 (0.61)	-
성별	남자	2.97 (0.69)	3.230**	2.88 (0.69)	.126	3.09 (0.69)	1.038	2.91 (0.65)	-1.599
	여자	2.85 (0.72)		2.88 (0.65)		2.97 (0.66)		3.03 (0.56)	
지역 규모	대도시[a]	2.87 (0.74)	.831	2.92 (0.66)	2.560	3.11 (0.66)	.769	3.06 (0.57)	3.078*
	중소도시[b]	2.92 (0.64)		2.83 (0.68)		2.99 (0.70)		2.96 (0.63)	
	읍·면지역[c]	2.93 (0.72)		2.90 (0.66)		2.95 (0.62)		2.79 (0.61)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2.81 (0.73)	1.455	2.83 (0.66)	2.738*	3.11 (0.57)	.383	3.02 (0.66)	.284
	고졸[b]	2.93 (0.71)		2.87 (0.67)		2.97 (0.68)		2.97 (0.55)	
	2~3년제 대졸[c]	2.89 (0.69)		2.99 (0.62)		3.05 (0.79)		3.00 (0.47)	
	4년제 대졸 이상[d]	2.93 (0.70)		2.95 (0.73)		3.10 (0.66)		2.92 (0.74)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90 (0.72)	2.735*	2.88 (0.66)	.932	2.89 (0.65)	1.007	2.90 (0.58)	.470
	2분위[b]	2.87 (0.67)		2.86 (0.66)		3.09 (0.66)		2.98 (0.66)	
	3분위[c]	2.99 (0.71)		2.90 (0.72)		3.10 (0.74)		3.02 (0.58)	
	4-5분위[d]	3.10 (0.68)		2.99 (0.60)		3.12 (0.60)		3.00 (0.55)	

*p<.05, **p<.01

표 Ⅴ-35. 친구의지지 패널 간 비교(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4.08 (0.83)	-	3.92 (0.66)	-	3.95 (0.64)	-	3.87 (0.68)	-
성별	남자	4.05 (0.82)	-1.353	3.85 (0.68)	-4.157***	3.89 (0.65)	-1.464	3.83 (0.66)	-1.026
	여자	4.11 (0.83)		3.99 (0.64)		4.04 (0.63)		3.92 (0.70)	
지역 규모	대도시[a]	4.02 (0.84)	1.059	3.91 (0.65)	.678	3.92 (0.59)	.125	3.94 (0.69)	2.036
	중소도시[b]	4.11 (0.82)		3.95 (0.66)		3.98 (0.72)		3.88 (0.70)	
	읍·면지역[c]	4.08 (0.82)		3.90 (0.69)		3.98 (0.48)		3.69 (0.58)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4.02 (0.82)	.428	3.87 (0.66)	4.769** a,b<c	3.89 (0.65)	.824	3.90 (0.66)	.965
	고졸[b]	4.08 (0.84)		3.90 (0.67)		3.93 (0.68)		3.81 (0.63)	
	2~3년제 대졸[c]	4.11 (0.84)		4.09 (0.60)		3.85 (0.76)		3.92 (0.76)	
	4년제 대졸 이상[d]	4.06 (0.78)		3.98 (0.69)		4.08 (0.50)		3.98 (0.75)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4.07 (0.83)	3.428*	3.89 (0.68)	.964	3.86 (0.78)	2.161	3.93 (0.68)	.544
	2분위[b]	4.03 (0.84)		3.93 (0.66)		3.84 (0.59)		3.88 (0.73)	
	3분위[c]	4.21 (0.77)		3.96 (0.66)		4.15 (0.54)		3.78 (0.65)	
	4-5분위[d]	4.31 (0.77)		3.99 (0.62)		4.04 (0.51)		3.89 (0.46)	

*p<.05, **p<.01, ***p<.001

⑤ 학교: 교사의지지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사의지지는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에서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다만, 두 패널 모두에서 3점대 후반의 값을 나타내며 교사의지지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라 두 패널의 교사의지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1기 패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없었지만, 2기 패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의지지 수준이 높았으며, 외국인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교사의지지 수준은 1기와 2기 패널 간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1기 패널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서 읍·면지역의 작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이 교사의지지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였지만,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는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와 같이 지역규모가 큰 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사의지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교사의지지 수준은 두 패널 간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1기 패널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2-3년제 대학일 때 가장 낮은 지지 수준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의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일 때보다 2-3년제 대졸이나 4년제 대졸 이상일 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교사의지지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는 1기와 2기 패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4-5분위에 속한 가구일수록 교사의지지 전체 평균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사의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기와 2기 패널 모두에서 나타났다.

Ⅴ-36. 교사의지지 패널 간 비교(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73 (0.88)	-	3.85 (0.69)	-	3.89 (0.72)	-	3.87 (0.72)	-
성별	남자	3.73 (0.87)	.091	3.82 (0.71)	-1.802	3.86 (0.75)	-.560	3.78 (0.74)	-2.094*
	여자	3.73 (0.88)		3.88 (0.68)		3.92 (0.68)		3.96 (0.68)	
지역 규모	대도시[a]	3.67 (0.91)	3.438*	3.86 (0.70)	.268	3.84 (0.72)	.346	3.92 (0.76)	8.133*** c<a,b
	중소도시[b]	3.67 (0.90)		3.83 (0.68)		3.91 (0.72)		3.95 (0.68)	
	읍·면지역[c]	3.80 (0.84)		3.86 (0.71)		3.98 (0.73)		3.47 (0.61)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3.72 (0.82)	1.282	3.83 (0.69)	6.585*** a,b<c,d	3.89 (0.80)	.765	4.01 (0.71)	1.400
	고졸[b]	3.75 (0.88)		3.79 (0.70)		3.79 (0.71)		3.78 (0.75)	
	2~3년제 대졸[c]	3.65 (0.89)		4.00 (0.65)		4.03 (0.82)		3.87 (0.55)	
	4년제 대졸 이상[d]	3.78 (0.86)		3.99 (0.70)		3.95 (0.64)		3.92 (0.71)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74 (0.87)	1.849	3.84 (0.71)	1.380	3.83 (0.79)	1.736	3.84 (0.77)	.071
	2분위[b]	3.67 (0.89)		3.83 (0.68)		3.75 (0.72)		3.88 (0.75)	
	3분위[c]	3.79 (0.88)		3.93 (0.70)		4.08 (0.60)		3.84 (0.61)	
	4-5분위[d]	3.91 (0.82)		3.91 (0.66)		3.94 (0.71)		3.87 (0.59)	

*p<.05, ***p<.001

⑥ 학교: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학교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에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1기 패널에서는 약 49%, 2기 패널에서는 약 89~91%가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여 약 1.8배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1기와 2기 패널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라 두 패널 간 차이가 있었으며, 1기 패널에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을 비교할 경우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약 41%와 54%로 읍·면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기 패널에서의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에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을 비교할 경우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약 92%와 80% 내외로 대도시 지역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이 1기 패널에서는 작은 규모의 지역에, 2기 패널에서는 큰 규모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두 패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⑦ 학교: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에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1기 패널에서는 약 38%, 2기 패널에서는 약 51~60%로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한 응답이 약 1.3배 상승한 수치이며, 절반 이상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1기와 2기 패널 모두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규모에 따라 두 패널 간 차이가 있었으며, 1기 패널에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할 때, 2기 패널에서의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에서는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의 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4-5분위 소득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1기와 2기 패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7. 학교 안/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패널 간 비교

(단위: %)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학교 안	χ^2	학교 밖	χ^2	학교 안	χ^2	학교 밖	χ^2
전체		49.28	-	38.62	-	89.11	-	51.59	-
성별	남자	49.85	.175	37.54	.656	88.64	.361	50.07	1.440
	여자	48.73		39.66		89.61		53.19	
지역 규모	대도시	41.50	14.445**	36.89	12.019**	92.72	9.420**	58.45	16.128***
	중소도시	48.38		45.64		86.54		52.15	
	읍·면지역	54.11		35.13		88.80		45.37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	48.41	.448	34.39	8.011*	89.76	2.100	51.38	.837
	고졸	50.23		42.15		87.87		50.70	
	2~3년제 대졸	48.58		33.81		89.80		54.42	
	4년제 대졸 이상	48.25		39.04		91.16		53.04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	50.21	2.306	39.78	5.828	88.95	2.543	47.33	8.709*
	2분위	48.35		35.38		88.32		52.49	
	3분위	44.00		39.20		92.13		57.41	
	4-5분위	53.52		49.30		90.14		59.15	

구분		2기 패널(2022)							
		중도입국				외국인			
		학교 안	χ^2	학교 밖	χ^2	학교 안	χ^2	학교 밖	χ^2
전체		91.89	-	60.14	-	91.04	-	57.09	-
성별	남자	91.46	.045	57.32	.609	90.37	.152	58.52	.227
	여자	92.42		63.64		91.73		55.64	
지역 규모	대도시	91.80	2.113	62.30	.411	92.47	6.261*	64.52	8.315*
	중소도시	89.71		57.35		93.23		57.89	
	읍·면지역	100.00		63.16		80.95		38.10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	89.47	.245	57.89	2.450	95.92	2.958	59.18	2.710
	고졸	92.31		58.46		90.84		58.78	
	2~3년제 대졸	90.91		50.00		92.86		64.29	
	4년제 대졸 이상	92.86		69.05		86.67		48.33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	88.64	1.660	63.64	6.318	94.12	3.037	52.94	2.435
	2분위	93.48		45.65		90.91		54.55	
	3분위	95.12		70.73		85.96		63.16	
	4-5분위	88.24		64.71		95.24		66.67	

*p<.05, **p<.01, ***p<.001

⑧ 학교: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서 신체적, 언어적, 비언어적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모든 피해 유형에 대한 비율이 감소하였다. 다만 국제결혼가정에 비해 중도입국가정에서는 '따돌림', '집적거림', '무시', '거짓소문'이, 외국인가정에서는 '집적거림', '신체폭력', '거짓소문'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에서는 1기와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집적거림'과 '신체폭력'의 피해가 남학생이 더 높았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따돌림', '거짓소문', '외모비하'의 괴롭힘 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기 패널의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38.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간 비교

(단위: %)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따돌림	집적거림	무시	신체폭력	거짓소문	외모비하	따돌림	집적거림	무시	신체폭력	거짓소문	외모비하
전체		4.20	5.22	3.62	1.74	2.90	3.55	2.64	4.67	3.04	1.28	2.77	2.30
성별	남자	4.15	6.82	2.82	2.67	2.08	3.41	2.77	5.81	3.04	2.11	2.64	2.38
	여자	4.25	3.68	4.39	0.85	3.68	3.68	2.49	3.46	3.05	0.42	2.91	2.22
	χ^2	.006	6.885**	2.440	6.689*	3.158	.074	.114	4.588*	.000	8.403**	.097	.043
지역규모	대도시	4.61	6.92	2.59	0.58	3.17	3.75	1.64	2.82	2.58	0.94	1.17	0.94
	중소도시	4.74	5.49	4.74	2.49	3.49	3.24	1.87	4.67	2.06	0.93	2.06	1.87
	읍·면지역	3.64	4.11	3.48	1.90	2.37	3.64	4.25	6.18	4.44	1.93	4.83	3.86
	χ^2	.928	3.640	2.517	4.176	1.211	.165	8.098*	5.936	5.501	2.622	13.165**	9.576**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5.10	3.82	4.46	0.00	3.82	3.18	2.56	4.72	2.17	0.98	2.17	2.76
	고졸	3.73	5.29	3.42	1.56	2.49	2.49	3.11	5.44	4.20	1.24	3.11	2.02
	2~3년제 대졸	5.68	6.82	3.13	2.56	3.13	6.25	1.36	2.72	1.36	2.04	3.40	2.72
	4년제 대졸 이상	2.63	3.51	4.39	2.19	3.07	2.63	2.21	3.31	2.76	1.66	2.76	1.66
	χ^2	3.974	3.795	1.019	4.558	.948	10.232*	1.635	2.870	5.698	1.231	1.183	1.140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	4.45	5.15	3.62	1.95	3.48	3.62	2.95	5.71	3.31	2.03	3.68	2.58
	2분위	4.84	6.59	4.18	1.98	2.42	4.62	2.49	4.52	3.58	0.93	2.80	2.65
	3분위	0.80	2.40	2.40	0.80	1.60	0.80	2.78	4.17	0.93	0.93	0.93	1.39
	4-5분위	2.82	2.82	2.82	0.00	1.41	1.41	1.41	0.00	2.82	0.00	1.41	0.00
	χ^2	4.533	4.548	1.056	2.219	2.569	5.189	.685	4.933	4.044	4.096	4.873	2.989

구분		2기 패널(2022)											
		중도입국						외국인					
		따돌림	집적거림	무시	신체폭력	거짓소문	외모비하	따돌림	집적거림	무시	신체폭력	거짓소문	외모비하
전체		6.76	7.43	6.08	2.70	6.08	2.03	2.61	7.46	2.99	1.87	3.73	2.24
성별	남자	7.32	7.32	6.10	3.66	6.10	2.44	4.44	8.89	1.48	2.96	4.44	2.96
	여자	6.06	7.58	6.06	1.52	6.06	1.52	0.75	6.02	4.51	0.75	3.01	1.50
	χ^2	.092	.004	.000	.639	.000	.157	3.591	.801	2.124	1.789	.385	.652
지역규모	대도시	8.20	6.56	6.56	1.64	6.56	1.64	4.30	6.45	3.23	1.08	3.23	1.08
	중소도시	5.88	8.82	5.88	4.41	4.41	2.94	1.50	10.53	3.76	2.26	5.26	3.01
	읍·면지역	5.26	5.26	5.26	0.00	10.53	0.00	2.38	0.00	0.00	2.38	0.00	2.38
	χ^2	.351	.389	.051	1.545	1.013	.725	1.694	5.332	1.586	.489	2.563	.938
어머니교육수준	중졸	5.26	5.26	5.26	5.26	5.26	5.26	2.04	8.16	0.00	2.04	2.04	4.08
	고졸	4.62	9.23	6.15	1.54	7.69	1.54	0.76	4.58	1.53	2.29	3.82	1.53
	2~3년제 대졸	18.18	13.64	9.09	9.09	9.09	4.55	3.57	17.86	7.14	3.57	7.14	7.14
	4년제 대졸 이상	4.76	2.38	4.76	0.00	2.38	0.00	6.67	8.33	6.67	0.00	3.33	0.00
	χ^2	5.364	3.224	.500	5.390	1.673	2.652	5.802	6.058	6.949	1.723	1.326	5.515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	2.27	2.27	6.82	0.00	2.27	0.00	1.47	4.41	2.94	0.00	1.47	0.00
	2분위	8.70	10.87	4.35	4.35	10.87	2.17	3.31	5.79	2.48	4.13	2.48	3.31
	3분위	4.88	4.88	4.88	2.44	4.88	2.44	1.75	8.77	5.26	0.00	7.02	3.51
	4-5분위	17.65	17.65	11.76	5.88	5.88	5.88	4.76	19.05	0.00	0.00	9.52	0.00
	χ^2	5.109	5.459	1.349	2.360	3.069	2.223	1.119	5.836	1.768	6.148	5.152	3.076

*p<.05, **p<.01

⑨ 학교: 학업중단 위험요인: 생활 및 태도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학업중단 위험요인의 생활 및 태도는 두 패널에서 1점대 후반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은 생활 및 태도에서 낮은 수준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나타냈다. 배경변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험요인의 생활 및 태도를 살펴본 결과, 두 패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업중단의 위험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에서는 1기 패널과 다르게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 및 태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 수준의 차이는 두 패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1기 패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기 패널에서는 국제결혼가정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4-5분위에 속한 가구보다 1분위와 2분위 속한 가구의 다문화청소년이 생활 및 태도에서 학업중단 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39. 학업중단 위험요인: 생활 및 태도(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79 (0.56)	-	1.73 (0.55)	-	1.76 (0.60)	-	1.72 (0.51)	-
성별	남자	1.78 (0.55)	-.888	1.68 (0.54)	-3.452**	1.71 (0.55)	-1.160	1.72 (0.51)	-.052
	여자	1.80 (0.57)		1.78 (0.56)		1.83 (0.65)		1.72 (0.51)	
지역 규모	대도시[a]	1.79 (0.53)	.575	1.68 (0.54)	2.567	1.71 (0.55)	.485	1.63 (0.49)	3.493* a<c
	중소도시[b]	1.81 (0.58)		1.76 (0.54)		1.78 (0.64)		1.74 (0.54)	
	읍·면지역[c]	1.78 (0.57)		1.75 (0.57)		1.86 (0.59)		1.87 (0.45)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1.84 (0.56)	.729	1.74 (0.56)	.364	1.76 (0.58)	.673	1.69 (0.54)	.745
	고졸[b]	1.79 (0.55)		1.74 (0.55)		1.81 (0.64)		1.72 (0.51)	
	2~3년제 대졸[c]	1.79 (0.58)		1.73 (0.57)		1.83 (0.58)		1.85 (0.54)	
	4년제 대졸 이상[d]	1.75 (0.57)		1.69 (0.57)		1.65 (0.55)		1.68 (0.48)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78 (0.57)	.579	1.76 (0.58)	3.310* d<a,b	1.77 (0.63)	.009	1.81 (0.55)	1.991
	2분위[b]	1.82 (0.55)		1.74 (0.55)		1.76 (0.55)		1.65 (0.47)	
	3분위[c]	1.75 (0.53)		1.71 (0.52)		1.77 (0.57)		1.79 (0.55)	
	4-5분위[d]	1.79 (0.55)		1.55 (0.44)		1.75 (0.73)		1.63 (0.47)	

*p<.05, **p<.01

(3) 다문화

1기와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영역은 언어능력과 이중문화로 구분하였다. 언어능력은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이며, 이중문화는 국적에 대한 인식,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로 두 패널에서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8년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① 언어능력: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

다문화청소년이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본 결과, 1기 패널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비율이 약 66%, '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약 23%로 전체 약 89%의 다문화청소년이 외국출신 어머니와 한국어로 소통하고 있었다. 반면에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만'의 비율이 약 54%, '주로 한국어'의 비율이 약 32%로 전체 약 86%로 나타나 한국어 사용비율이 8년 전보다 소폭 하락하였지만, '두 언어 반반'으로 의사소통하는 비율이 약 11%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경향과는 다르게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은 '한국어만', '주로 한국어', '두 언어 반반'의 언어 사용 비율이 약 20~35% 내외로 나타났다. 즉,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은 약 1/3 가량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패널의 다문화청소년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 경향을 토대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기 패널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한국어', '주로 부모님 나라 언어'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에서는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 규모 간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1기 패널에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할 경우 '한국어'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두 언어 반반'의 언어 사용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에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한국어'의 사용 비율이 높았는데, 읍·면지역의 경우 '두 언어 반반'의 사용 비율이 약 30%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중도입국가정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국어' 사용 비율이 감소하고 '두 언어를 반반'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 언어의 차이는 두 패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40.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 패널 간 비교

(단위: %)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한국어만	주로 한국어	두 언어 반반	주로 부모님 나라언어	부모님 나라 언어만	χ^2	한국어만	주로 한국어	두 언어 반반	주로 부모님 나라언어	부모님 나라 언어만	χ^2
전체		66.33	23.50	7.54	1.17	1.46	-	54.01	32.16	11.76	1.66	0.41	-
성별	남자	68.11	23.05	5.54	1.50	1.80	9.855*	53.84	31.63	11.84	2.15	0.54	2.957
	여자	64.60	23.93	9.46	0.86	1.15		54.20	32.72	11.66	1.14	0.28	
지역 규모	대도시	60.75	25.29	9.30	2.33	2.33	22.871**	50.12	35.53	12.65	1.46	0.24	11.544
	중소도시	63.13	26.01	9.34	0.51	1.01		52.02	33.21	12.09	2.30	0.38	
	읍·면지역	71.41	20.92	5.43	0.96	1.28		59.15	28.40	10.70	1.17	0.58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	81.28	14.84	1.94	0.65	1.29	76.713***	58.53	30.75	9.13	1.39	0.20	24.326*
	고졸	72.06	20.41	4.71	1.41	1.41		54.03	32.39	11.37	1.74	0.47	
	2~3년제 대졸	57.96	29.83	11.08	0.85	0.28		48.59	35.92	14.79	0.00	0.70	
	4년제 대졸 이상	52.71	28.38	13.96	1.35	3.60		44.91	32.34	18.56	3.59	0.60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	67.51	22.22	7.59	1.41	1.27	14.302	55.35	31.70	11.44	1.13	0.38	14.523
	2분위	67.70	23.01	6.86	0.44	1.99		51.75	34.08	11.94	2.07	0.16	
	3분위	62.90	25.81	8.06	2.42	0.81		61.15	25.59	11.37	1.42	0.47	
	4-5분위	51.42	34.29	11.43	1.43	1.43		40.30	41.78	14.93	2.99	0.00	

구분		2기 패널(2022)											
		중도입국						외국인					
		한국어만	주로 한국어	두 언어 반반	주로 부모님 나라언어	부모님 나라 언어만	χ^2	한국어만	주로 한국어	두 언어 반반	주로 부모님 나라언어	부모님 나라 언어만	χ^2
전체		23.43	25.00	35.94	10.94	4.69	-	28.69	20.00	25.28	15.09	10.94	-
성별	남자	28.36	20.90	32.83	11.94	5.97	3.399	27.82	20.30	24.06	15.79	12.03	.612
	여자	18.03	29.51	39.34	9.84	3.28		29.54	19.70	26.52	14.39	9.85	
지역 규모	대도시	22.22	22.23	44.44	9.26	1.85	9.148	25.00	28.26	26.09	14.13	6.52	18.201*
	중소도시	25.45	21.82	30.91	12.73	9.09		33.59	18.32	22.90	15.27	9.92	
	읍·면지역	21.05	42.11	26.31	10.53	0.00		21.43	7.14	30.95	16.67	23.81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	21.05	26.32	42.11	5.26	5.26	12.537	32.65	26.54	26.53	6.12	8.16	28.959**
	고졸	24.07	20.37	38.89	11.11	5.56		34.10	23.26	20.16	10.08	12.40	
	2~3년제 대졸	31.82	9.09	40.91	18.18	0.00		17.86	17.86	32.14	21.43	10.71	
	4년제 대졸 이상	18.18	42.42	24.25	9.09	6.06		18.64	8.47	32.20	30.52	10.17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	21.62	16.22	48.65	10.81	2.70	6.027	22.73	21.21	24.24	22.73	9.09	19.445
	2분위	27.50	27.50	30.00	10.00	5.00		29.76	19.01	24.79	13.22	13.22	
	3분위	19.44	33.33	30.56	11.11	5.56		22.80	26.32	31.58	8.77	10.53	
	4-5분위	26.67	20.00	33.33	13.33	6.67		60.00	5.00	15.00	15.00	5.00	

*p<.05, **p<.01, ***p<.001

② 이중문화: 국적에 대한 인식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국적은 1기와 2기 패널에서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1기 패널에서는 자신이 '한국사람'이라고 한 비율이 약 73%로 다수의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 24%는 한국과 부모님 나라 사람, 즉 두 나라에 모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한국사람'이라고 한 비율이 약 82%로 8년 전보다 약 9%가 상승하였지만 오히려 '한국사람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의 응답이 약 15%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과는 다르게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 중 '한국사람'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51%, '한국사람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41%였다. 외국인가정은 '한국사람', '부모님나라사람', '한국사람이면서 부모님 나라사람'의 비율이 약 31~33%로 균등하게 나타났다.

두 패널의 다문화청소년 유형에 따라 상이한 국적에 대한 인식의 경향을 토대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국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1기와 2기 패널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규모에 따른 국적에 대한 인식은 1기 패널에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한국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2기 패널에서는 외국인가정에서 국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특히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이 '부모님 나라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54%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국적의 차이는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양상은 유사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다문화청소년일수록 '한국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한국사람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예컨대, 1기 패널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졸 이상일 때와 중학교 졸업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이들의 자녀가 '한국사람'이라는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약 64%와 84%로 약 1.3배 차이가 있었다. 반면 자신이 '한국사람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고 한 비율은 각각 약 32%와 14%로 2배 이상 격차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국적에 대한 인식은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분위 기준으로 약 75%에서 약 8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 국적에 대한 인식 패널 간 비교

(단위: %)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한국사람	부모님 나라 사람	한국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	잘 모르겠다	χ^2	한국사람	부모님 나라 사람	한국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	잘 모르겠다	χ^2
전체		73.99	0.58	24.71	0.72	-	82.19	0.81	15.71	1.29	-
성별	남자	76.26	0.74	22.41	0.59	4.669	83.85	0.79	13.77	1.59	5.291
	여자	71.81	0.43	26.91	0.85		80.47	0.83	17.73	0.97	
지역 규모	대도시	70.02	0.58	28.82	0.58	15.298*	81.23	1.17	16.90	0.70	11.432
	중소도시	71.57	0.00	27.18	1.25		80.53	0.37	17.98	1.12	
	읍·면지역	77.69	0.95	20.89	0.47		84.72	0.97	12.38	1.93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	84.71	0.64	14.65	0.00	37.475***	86.39	1.18	11.64	0.79	38.917***
	고졸	77.92	0.47	20.68	0.93		83.98	0.78	14.00	1.24	
	2~3년제 대졸	68.19	0.28	31.25	0.28		76.03	0.00	21.92	2.05	
	4년제 대졸 이상	64.47	1.32	32.89	1.32		69.06	0.55	28.18	2.21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	75.80	0.42	22.95	0.83	16.840	81.92	0.92	15.87	1.29	12.514
	2분위	74.94	0.88	23.96	0.22		82.68	0.94	15.60	0.78	
	3분위	65.60	0.80	32.80	0.80		85.65	0.00	12.50	1.85	
	4-5분위	63.38	0.00	33.80	2.82		70.42	1.41	26.76	1.41	

구분		2기 패널(2022)									
		중도입국					외국인				
		한국사람	부모님 나라 사람	한국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	잘 모르겠다	χ^2	한국사람	부모님 나라 사람	한국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	잘 모르겠다	χ^2
전체		51.35	4.73	41.22	2.70	-	33.71	31.09	32.21	3.00	-
성별	남자	51.22	7.32	40.24	1.22	4.142	36.30	34.07	27.41	2.22	3.828
	여자	51.51	1.52	42.42	4.55		31.06	28.03	37.12	3.79	
지역 규모	대도시	49.18	4.92	40.98	4.92	4.613	29.35	27.17	39.13	4.35	17.142**
	중소도시	48.53	4.41	45.59	1.47		38.35	26.32	33.08	2.26	
	읍·면지역	68.42	5.26	26.32	0.00		28.57	54.76	14.29	2.38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	47.37	10.53	36.84	5.26	11.076	46.94	26.53	26.53	0.00	15.972
	고졸	53.84	4.62	40.00	1.54		35.11	27.48	35.11	2.29	
	2~3년제 대졸	36.37	9.09	45.45	9.09		21.43	39.29	28.57	10.71	
	4년제 대졸 이상	57.14	0.00	42.86	0.00		25.42	38.98	32.20	3.39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	54.54	4.55	34.09	6.82	8.959	40.30	28.36	29.85	1.49	13.063
	2분위	45.65	4.35	50.00	0.00		29.75	33.06	35.54	1.65	
	3분위	56.09	7.32	34.15	2.44		28.07	29.82	35.09	7.02	
	4-5분위	47.06	0.00	52.94	0.00		52.38	33.33	9.52	4.76	

*p<.05, **p<.01, ***p<.001

③ 이중문화: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다만, 이는 유형 간 차이로부터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배경변인에 따라 두 패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은 1기 패널에서 지역규모 간 차이는 없었지만, 2기 패널에서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큰 경향을 보였다. 특히,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두 패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2기 패널의 외국인가정에서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④ 이중문화: 국가정체성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1기 패널에 비해 2기 패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도입국가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순으로 이들의 국가정체성이 높았다.

배경변인에 따라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차이가 나타났다. 1기 패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기 패널에서는 중도입국가정에서 1기 패널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국가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한국인으로서 국가정체성은 1기 패널에서 지역 간 차이가 없었지만,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은 대도시의 큰 규모 지역에 거주할수록 작은 규모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한국인의 국가정체성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국가정체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두 패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Ⅴ-42. 문화적응 스트레스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27 (0.33)	-	1.40 (0.44)	-	1.41 (0.43)	-
성별	남자	1.26 (0.33)	-1.137	1.40 (0.44)	.168	1.43 (0.42)	.799
	여자	1.28 (0.34)		1.39 (0.44)		1.38 (0.44)	
지역 규모	대도시[a]	1.28 (0.35)	.823	1.40 (0.39)	.379	1.30 (0.36)	8.023*** a,b<c
	중소도시[b]	1.25 (0.31)		1.37 (0.49)		1.40 (0.42)	
	읍·면지역[c]	1.27 (0.34)		1.47 (0.42)		1.66 (0.49)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1.23 (0.33)	.793	1.42 (0.46)	1.111	1.39 (0.44)	.393
	고졸[b]	1.27 (0.33)		1.36 (0.39)		1.44 (0.44)	
	2~3년제 대졸[c]	1.28 (0.34)		1.55 (0.52)		1.43 (0.44)	
	4년제 대졸 이상[d]	1.27 (0.33)		1.36 (0.46)		1.35 (0.38)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27 (0.34)	.065	1.43 (0.49)	1.005	1.49 (0.53)	1.023
	2분위[b]	1.27 (0.33)		1.45 (0.40)		1.41 (0.38)	
	3분위[c]	1.26 (0.30)		1.30 (0.41)		1.38 (0.41)	
	4-5분위[d]	1.26 (0.32)		1.39 (0.46)		1.27 (0.41)	

***p<.001

표 Ⅴ-43. 국가정체성 패널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80 (0.67)	-	2.74 (0.69)	-	2.77 (0.67)	-	2.65 (0.68)	-
성별	남자	2.82 (0.68)	.948	2.73 (0.71)	-.593	2.84 (0.64)	1.405	2.56 (0.68)	-2.376*
	여자	2.78 (0.65)		2.75 (0.67)		2.68 (0.71)		2.75 (0.68)	
지역 규모	대도시[a]	2.75 (0.66)	2.387	2.81 (0.73)	3.211*	2.80 (0.75)	.144	2.76 (0.71)	1.641
	중소도시[b]	2.77 (0.67)		2.72 (0.67)		2.74 (0.64)		2.60 (0.71)	
	읍·면지역[c]	2.84 (0.67)		2.71 (0.67)		2.75 (0.53)		2.60 (0.49)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2.73 (0.75)	.581	2.70 (0.68)	1.961	3.02 (0.41)	1.825	2.69 (0.79)	.220
	고졸[b]	2.80 (0.65)		2.78 (0.67)		2.82 (0.64)		2.64 (0.67)	
	2~3년제 대졸[c]	2.81 (0.66)		2.79 (0.67)		2.71 (0.73)		2.57 (0.50)	
	4년제 대졸 이상[d]	2.81 (0.66)		2.70 (0.79)		2.61 (0.76)		2.68 (0.69)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81 (0.68)	.456	2.70 (0.68)	1.721	2.83 (0.59)	1.284	2.77 (0.78)	1.110
	2분위[b]	2.77 (0.63)		2.76 (0.70)		2.83 (0.71)		2.61 (0.58)	
	3분위[c]	2.78 (0.68)		2.82 (0.67)		2.59 (0.69)		2.67 (0.74)	
	4-5분위[d]	2.83 (0.73)		2.78 (0.68)		2.84 (0.70)		2.52 (0.72)	

*p<.05

⑤ 이중문화: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에서 중도입국가정에서는 증가하였지만,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에서는 감소하였다. 2기 패널에서 증가와 감소의 변화는 다소 작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1기와 2기 패널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살펴본 결과 1기 패널과 2기 패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국과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의 이중문화에 더욱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1기와 2기 패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2기 패널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1기 패널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두 패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 본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한국문화와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로 구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수용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문화수용태도를 분석한 결과,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에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기 패널에서는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가 가장 낮았다. 배경변인에 따른 한국문화수용태도의 결과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한국문화수용태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규모,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1기 패널과 2기 패널 모두 각 유형별 평균과 유사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수용태도를 분석한 결과,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에서 감소와 증가의 형태가 나타났다.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은 감소를, 중도입국가정은 증가를 나타냈다. 배경변인에 따른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는 1기 패널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일 때 가장 낮았으며, 이는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규모와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1기 패널과 2기 패널 모두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44. 이중문화수용태도 패널(전체)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92 (0.39)	-	2.90 (0.38)	-	2.93 (0.37)	-	2.88 (0.38)	-
성별	남자	2.89 (0.40)	-2.760**	2.88 (0.39)	-1.765	2.94 (0.40)	.134	2.81 (0.35)	-3.110**
	여자	2.95 (0.38)		2.92 (0.36)		2.93 (0.33)		2.95 (0.39)	
지역 규모	대도시[a]	2.90 (0.39)	.615	2.89 (0.38)	1.082	2.90 (0.40)	.710	2.90 (0.43)	.837
	중소도시[b]	2.93 (0.39)		2.92 (0.39)		2.97 (0.30)		2.89 (0.36)	
	읍·면지역[c]	2.93 (0.39)		2.89 (0.37)		2.89 (0.43)		2.81 (0.28)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2.86 (0.39)	2.692*	2.88 (0.37)	1.945	3.11 (0.35)	2.460	2.91 (0.37)	.782
	고졸[b]	2.91 (0.39)		2.90 (0.38)		2.93 (0.33)		2.85 (0.38)	
	2~3년제 대졸[c]	2.95 (0.38)		2.92 (0.39)		2.80 (0.35)		2.95 (0.29)	
	4년제 대졸 이상[d]	2.96 (0.38)		2.96 (0.39)		2.93 (0.41)		2.90 (0.40)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92 (0.40)	.994	2.89 (0.39)	1.413	2.95 (0.31)	.240	2.92 (0.31)	.894
	2분위[b]	2.91 (0.36)		2.90 (0.38)		2.95 (0.36)		2.90 (0.38)	
	3분위[c]	2.95 (0.36)		2.94 (0.36)		2.89 (0.44)		2.82 (0.41)	
	4~5분위[d]	2.98 (0.46)		2.94 (0.35)		2.92 (0.32)		2.85 (0.44)	

*p<.05, **p<.01

표 V-45. 이중문화수용태도 패널(한국문화)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28 (0.48)	-	3.29 (0.46)	-	3.27 (0.52)	-	3.22 (0.49)	-
성별	남자	3.27 (0.50)	-.926	3.28 (0.49)	-.434	3.29 (0.57)	.437	3.17 (0.51)	-1.833
	여자	3.29 (0.45)		3.29 (0.43)		3.25 (0.44)		3.28 (0.46)	
지역 규모	대도시[a]	3.30 (0.51)	.428	3.31 (0.49)	1.830	3.24 (0.56)	.380	3.26 (0.58)	1.666
	중소도시[b]	3.26 (0.46)		3.30 (0.47)		3.31 (0.48)		3.23 (0.46)	
	읍·면지역[c]	3.28 (0.47)		3.26 (0.43)		3.23 (0.49)		3.10 (0.36)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3.32 (0.47)	.679	3.28 (0.45)	.392	3.45 (0.38)	2.154	3.26 (0.53)	.690
	고졸[b]	3.27 (0.49)		3.30 (0.45)		3.29 (0.50)		3.21 (0.44)	
	2~3년제 대졸[c]	3.28 (0.48)		3.27 (0.53)		3.05 (0.68)		3.31 (0.39)	
	4년제 대졸 이상[d]	3.26 (0.45)		3.30 (0.47)		3.28 (0.47)		3.17 (0.60)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28 (0.47)	.556	3.29 (0.48)	2.655*	3.36 (0.53)	.883	3.26 (0.46)	.341
	2분위[b]	3.29 (0.48)		3.26 (0.47)		3.28 (0.50)		3.22 (0.46)	
	3분위[c]	3.23 (0.46)		3.35 (0.41)		3.18 (0.57)		3.18 (0.54)	
	4-5분위[d]	3.30 (0.54)		3.35 (0.45)		3.24 (0.38)		3.17 (0.60)	

*$p<.05$

표 Ⅴ-46. 이중문화수용태도 패널(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간 비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1기 패널(2014)		2기 패널(2022)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56 (0.57)	-	2.51 (0.52)	-	2.59 (0.54)	-	2.55 (0.55)	-
성별	남자	2.52 (0.57)	-2.985**	2.48 (0.52)	-2.184*	2.58 (0.56)	-.223	2.46 (0.53)	-2.581*
	여자	2.61 (0.56)		2.54 (0.51)		2.60 (0.53)		2.63 (0.56)	
지역 규모	대도시[a]	2.51 (0.58)	2.241	2.47 (0.56)	2.212	2.56 (0.59)	.296	2.53 (0.59)	.112
	중소도시[b]	2.59 (0.57)		2.54 (0.53)		2.63 (0.48)		2.56 (0.56)	
	읍·면지역[c]	2.58 (0.56)		2.52 (0.47)		2.56 (0.62)		2.53 (0.44)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a]	2.39 (0.59)	7.897*** a<b,c,d	2.48 (0.49)	3.308* a<d	2.76 (0.54)	.687	2.56 (0.58)	1.117
	고졸[b]	2.55 (0.56)		2.50 (0.54)		2.57 (0.48)		2.49 (0.56)	
	2~3년제 대졸[c]	2.61 (0.55)		2.57 (0.52)		2.55 (0.56)		2.59 (0.51)	
	4년제 대졸 이상[d]	2.66 (0.57)		2.61 (0.53)		2.57 (0.63)		2.64 (0.53)	
월 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56 (0.58)	2.883*	2.49 (0.53)	.628	2.55 (0.51)	.153	2.58 (0.54)	.700
	2분위[b]	2.52 (0.54)		2.53 (0.50)		2.62 (0.54)		2.57 (0.53)	
	3분위[c]	2.66 (0.54)		2.53 (0.55)		2.60 (0.61)		2.45 (0.56)	
	4-5분위[d]	2.67 (0.60)		2.52 (0.52)		2.61 (0.53)		2.53 (0.68)	

*p<.05, **p<.01, ***p<.001

3) 요약 및 소결

이 절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8년 주기 비교를 통해 초-중 전환기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와 2기 패널의 4차년도 자료를 개인, 환경, 다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두 패널을 비교·분석하였다. 1기 국제결혼가정과 2기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에서 변인 간 전체평균의 비교를 통해 8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였고, 배경변인의 특성에 따라 1기와 2기 패널 간 비교를 통해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만,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경우 1기 패널에서 조사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패널 간 비교 주요 결과

1기와 2기 패널의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의 배경변인 특성을 통해 8년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1기 패널에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2기 패널에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이들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8년 전과 비교한 결과, 국제결혼가정은 중학교 졸업 이하,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비율이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 본 결과, 1기와 비교하여 2기에서는 소득분위 1분위의 비율이 감소하고 소득분위 2-3분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들의 소득수준은 낮은 상황이었다. 즉, 8년 전과 비교하여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아진 경향을 보였으며, 2기 패널의 3개 유형 모두 낮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특성을 통해 8년 전과 비교하여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 차이는 있었지만,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인 영역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진로에 관해 두 패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의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 우울, 진로태도 결정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는 다르게 2기 패널에서 상승한 변인은 희망교육수준으로 특히 중도입국가정에서 대학교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렇듯 개인 영역에서 1기와 2기 패널 간 변화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은 심리·사회적응과 진로 지원 방식이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 영역에서는 1기 패널과 비교하여 상승, 감소, 유지의 변화 형태를 보였으며,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1기 국제결혼가정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에서는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이, 방임에서는 외국인가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외국인가정은 감독과 방임의 양육태도가 아닌 수용적인 양육태도로 두 가정과는 차이가 있었다. 친구의지지는 외국인, 국제결혼, 중도입국가정의 순으로 8년 전보다 낮았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간 비교에서 집단괴롭힘의 피해 경험은 감소의 경향을 보였지만, 중도입국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피해 경험 대부분을 더 높게 보고했다. 이러한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다른 가정과 다르게 중도입국가정에서 높은 것은 학교에서의 문화적 차이와 소외감,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모상현, 2018). 이외에도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이 8년 사이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학교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8배,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3배 상승하였다.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생활 및 태도에서 학업중단 위험요인은 지난 8년 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영역에서는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에 관해 두 패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이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8년 전과 비교하여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소폭 하락하였다.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 약 1/3은 한국어와 부모님나라 언어, 즉 두 나라의 언어로 어머니와 대화하였으며,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다문화청소년 당사자가 한국사람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8년 전과 비교하여 국제결혼가정에서 높아졌지만,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은 1기 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여전히 본국의 정체성과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가정체성과 이중문화수용태도에서 미미한 수준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들은 다문화라는 귀속적 지위와 더불어 한국 및 그 외 문화를 경험하고 생활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분절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는 혼성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주실, 2023).

앞서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영역별 1기와 2기 패널 간 차이 비교의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V-47. 영역별 패널 간 차이 비교

구분	1기 〉 2기	1기 〈 2기	1기 ≈ 2기
개인	• 희망교육수준(중도-고등학교 ▽6.38)	• 희망교육수준(중도-대학이상 △6.38)	• 삶의 만족도(국제 ▽0.05, 중도 ▽0.04, 외국 ▽0.02) • 사회적 위축(중도 ▽0.05, 외국 ▽0.04, 국제 ▽0.02) • 우울(중도 △0.04, 국제 ▽0.01, 외국 0.00) • 진로태도 결정성(중도 △0.01, 국제 ▽0.04, 외국 0.00)
환경	•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중도/외국 ▽0.12) •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 (외국 ▽0.10) • 친구의지지(외국 ▽0.21, 국제 ▽0.16, 중도 ▽ 0.13) •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따돌림, 무시(외국, 국제) -집적거림(국제) -거짓소문(중도) -외모비하(국제, 중도, 외국)	• 학교생활(중도 △0.12) • 교사의지지(중도 △0.16, 외국 △0.14, 국제 △0.12) • 학교 안 도움 주는 어른(중도 △42.61, 외국 △41.76, 국제 △39.83) • 학교 밖 도움 주는 어른(중도 △21.52, 외국 △18.47, 국제 △12.97) •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따돌림, 무시(중도) -집적거림, 거짓소문(중도, 외국)	•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국제 ▽0.07) •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국제 ▽0.05, 중도 ▽0.03) • 부모의지지(외국 △0.05, 중도 △0.02, 국제 △0.01) • 학교생활(외국 △0.06, 국제 ▽0.03) • 학업중단 위험요인: 생활 및 태도(외국 ▽0.07, 국제 ▽0.06, 중도 ▽0.03)
다문화	•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만(중도 ▽42.90, 외국 37.64, 국제 ▽12.32) -주로 한국어(외국 ▽3.50) -부모님 나라 언어만 (국제 ▽1.05) • 국적 인식 -한국사람(외국 ▽40.28, 중도 ▽22.64) -한국이면서 부모님나라 사람(국제 ▽9.00) • 국가정체성(외국 ▽0.15)	•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 -주로 한국어(국제 △8.66, 중도 △1.50) -두 언어 반반(중도 △28.40, 외국 △17.74, 국제 △4.22) -주로 부모님나라 언어(외국 △13.92, 중도 △9.77, 국제 △0.49) -부모님 나라 언어만(외국 △9.48, 중도 △3.23) • 국적 인식 -한국사람(국제 △8.20) -부모님 나라 사람(국제 △8.20) -한국이면서 부모님나라 사람 (중도 △16.51, 외국 △7.50) -모름(외국 △2.28, 중도 △1.98, 국제 △0.57) • 문화적응스트레스(외국 △0.14, 중도 △0.13)	• 국가정체성(국제 ▽0.06, 중도 ▽0.03) •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 ▽0.04, 국제 ▽0.02, 중도 ▽0.01) -한국문화수용태도(외국 ▽0.06, 중도 ▽0.01, 국제 △0.01) -부모님 나라문화 수용태도 (중도 △0.03, 국제 ▽0.05, 외국 ▽0.01)

(2) 배경변인에 따른 패널 간 비교 주요 결과

배경변인에 따라 8년의 시간이 지난 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개인과 환경, 다문화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도, 진로태도 결정성이 높았지만,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8년 전 다문화청소년에게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였다.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 8년 전과 상이한 변화를 보인 개인영역은 삶의 만족도이며, 1기 패널에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8년 후 삶의 만족도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외국인가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8년 전과 유사한 상황은 읍·면지역의 작은 규모의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었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부정적 심리·정서 요인은 작은 규모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거주지역에 따라 심리·정서 요인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사회 간 소득, 주거, 교육 등이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이다(Leventhal & Brooks-Gunn, 2000). 즉, 지역 규모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경험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는 적응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세원, 2009). 이외에도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진로태도 결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8년의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진로 등 지역,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환경영역에 따라 배경변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1기와 2기 패널 대부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 교사, 학교 안과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더 많다고 하였으며, 여학생이 사회적지지 체계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8년 전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사의지지가 더 높았지만, 8년이 지난 2022년에는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에서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교사의지지가 더 높은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이 읍·면지역의 규모가 작은 지역보다는 규모가 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맥을 같이하며,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지체계를 확립하고 넓힘으로써, 한국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부모의지지 수준이 높은 것은 1기와 2기 패널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지지, 감독의 양육태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8년 전과 동일한 현상으로 변화 없이 두 패널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14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중학교 1학년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긍정적이며, 친구의지지 수준도 높은 경향은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이처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8년 전과 비교하여 환경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가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즉, 1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과 비교하여 8년이 지난 후 2기 패널의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의 환경영역 변인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두 패널 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영역에 따라 배경변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국사람으로 인식하거나 한국인 정체성을 갖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1기와 2기 패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가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지역규모에 따라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데 한국어, 부모님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대도시에서 더 높은 경향은 1기와 2기의 국제결혼가정, 2기의 중도입국가정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가정에서는 읍·면지역이 더 높은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외국인가정은 국제결혼과 중도입국가정과는 다르게 성별, 지역규모 간 상반된 결과가 뚜렷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영역의 특성변인에 따른 외국인가정은 이전의 다문화가정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은 2014년 당시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그 수준이 높았지만, 8년이 지난 2022년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이들 변인의 수준이 높아지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1기와 2기 패널에서 어머니의 교육 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8년의 시간동안 변화가 없었다.

앞서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비교와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8년 주기 경향성의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V-48. 배경변인에 따른 패널 간 차이 비교

구분		성별				지역규모				어머니 교육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개인	삶의 만족도	+	+	+		+			+[a]		+				+[g]		
	사회적 위축	−					+[b]		+[b]		+[c]						
	우울	−	−						+						+[f]		
	희망교육수준	+	+						+		+	+		+			+
	진로태도 결정성													+[h]	+[h]		
환경	부모 양육태도-감독										+[e]				+		
	부모 양육태도-방임	+									+[c]				+[f]		
	부모의지지								+[a]	+[e]	+[d,e]			+	+[h]		
	학교생활	+							+		+			+			
	친구의지지		−								+[d]			+			
	교사의지지				−	+			+[a]		+[d,e]						
	학교 안 도움 어른					+	+		+								
	학교 밖 도움 어른					+	+		+	+					+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따돌림						+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집적거림	+	+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무시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신체폭력	+	+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거짓소문						+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외모비하						+			+							
	학업중단 위험요인		−						+[b]						+[f]		
다문화	어머니와 의사소통	+				+			+	+	+		+				
	국적에 대한 인식					+			+	+	+						
	문화적응스트레스								+[b]								
	국가정체성				−		+										
	이중문화수용태도	−			−					+							
	한국문화수용														+		
	부모나라문화수용	−	−		−					+[e]	+[e]			+			

* 주: 1)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며, 성별은 +: 남학생, −: 여학생이 높은 값임.
2) a: 대도시, b:읍·면지역, c:중졸, d: 2-3년제 대졸, e:4년제 대졸 이상, f:1분위, g :3분위, h: 4-5분위는 사후검증결과에서 높은 값을 의미함.

표 V-49. 다문화청소년 적응 경향성 8년 주기 경향성 결과 요약

구 분		주요 결과
패널비교	배경변인	• 지역규모에 따라 비교한 결과 2기 패널에서는 읍·면지역 거주 비율이 감소한 반면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비율은 상승함. • 1기 패널과 비교하여 2기 패널의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가,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에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높아짐. • 월 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할 때, 2기 패널에서는 1분위 비율이 감소한 반면에 2분위와 3분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
	개인	•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 우울, 진로태도 결정성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중도입국가정의 희망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 비율에서 높아졌지만, 고등학교 비율은 낮아짐.
	환경	• 8년 전과 비교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은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에서, 방임은 외국인가정에서 낮아진 경향을 보임. • 교사의지지 수준은 8년 전보다 높아졌으며, 중도입국, 외국인, 국제결혼가정의 순으로 상승함. •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한 비율이 상승하였는데, 학교 안은 약 1.8배, 학교 밖은 약 1.3배 증가함. • 친구의지지는 8년 전보다 낮아졌으며 외국인, 국제결혼, 중도입국가정의 순임 •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은 1기 패널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중도입국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따돌림과 무시, 집적거림, 거짓소문은 증가함. • 생활 및 태도에서 학업중단의 위험요인이 감소하였지만,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음.
	다문화	• 국제결혼가정에서는 8년 전과 비교하여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할 때 한국어 사용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와는 상대적으로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에서는 한국어와 부모님 나라 언어, 즉 두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짐. • 한국사람으로 인식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8년 전보다 국제결혼가정에서 높아졌지만,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은 낮은 상황임. • 8년 전과 비교하여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감소하였지만 변화의 폭이 미미함.
배경변인 비교	개인	•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도, 진로태도 결정성이 높았지만, 사회적 위축, 우울 수준은 여학생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8년 전과 유사한 상황임. • 지역규모에 따른 비교에서 8년 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인 개인변인은 삶의 만족도이며, 8년 전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8년 후에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냄. • 읍·면지역의 작은 규모 지역에 거주할수록 사회적 위축, 우울의 수준이 높았으며, 8년 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진로태도 결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은 8년이 지난 2022년에도 여전히 나타남.

구 분		주요 결과
	환경	• 1기와 2기 패널 대부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 교사, 학교 안/밖 도와주는 어른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적지지 체계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 8년 전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사의지지가 높았지만, 8년이 지난 후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교사의지지가 더 높은 상반된 경향을 보임. •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부모의지지가 높은 경향은 1기와 2기 패널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지지, 감독의 부모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것은 8년 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음.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친구의지지 수준이 높은 경향은 1기 패널과 동일하게 발견됨.
	다문화	•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국사람으로 인식하거나 한국정체성을 갖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1기와 2기 패널에서 유사하였지만, 외국인가정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지역규모에 따라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데 한국어와 부모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대도시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1기와 2기의 국제결혼, 중도입국가정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양상이며, 외국인가정에서는 읍·면지역이 더 높은 상반된 경향을 나타냄. •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은 2014년 당시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높아졌지만, 8년 후 2022년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높아지는 상반된 경향을 보임. • 1기와 2기 패널에서 어머니의 교육 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3.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탐색: 2기 패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다문화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육부(2022a)가 2022년 발표한 교육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학생 중 다문화학생은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에는 총 168,645명에 달해 전년 대비 8,587명(5.4%)이 증가하여 전체 학생의 3.2%(전년 대비 0.2%p 상승)를 차지했다.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향후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년 내에 우리나라는 유럽, 캐나다, 미국과 같은 다민족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후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학업 중단 등 부적응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찬, 2023; 배옥현, 2018; 최지원, 한윤선, 2021).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및 학업 중단 등의 문제는 학교적응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학교적응이라는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행 및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해 성인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Wirt et al., 1998).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며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cDougall & Vaillancourt, 2015; Wallinius et al., 2016). 학교적응이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돕기 위하여 이들의 학교적응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 또래·교사 등과의 사회적 관계, 부모의 양육, 가족생활 분위기, 지역사회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정은과 조미형(2007)의 연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는 또래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며 상호 지지적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감이 있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 정규석(200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학교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은경, 이선희,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배경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박희훈, 오성배, 2014), 특히 외모 차이로 인한 차별과 편견, 이중문화 부적응(정현영, 2006), 한국어 능력의 제한으로 인한 고립(오희선, 2012) 등의 문제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김윤희, 김현경, 2020).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때 학교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전병주, 2012).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밝히려는 여러 연구적 시도들이 있었으나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의 발달적 양상을 파악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특히 학교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구인이므로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적응의 발달적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 양상에서 이질적인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따라 종단적 발달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발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패널 1차(초4)~4차(중1)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에 대한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이들 잠재집단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학교생활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분류된 집단이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패널 1~4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패널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 종단조사로 수집된 자료이다. 최초 조사 시점인 2019년 기준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2,245명(남학생 1,145명, 여학생 1,100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교생활의 발달 양상에 따라 잠재계층을 도출해보고, 이러한 학교생활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도출된 잠재계층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의 영향력을 시점별로 검증하고, 학교생활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계층이 최종 시점(중학교 1학년)의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잠재계층의 분류를 위해 학교생활을 4차년도에 걸쳐 모두 4문항씩을 사용하였다. 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V-50〉 참조).

표 V-50. 학교생활 구인 측정도구

변수	변수 설명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학교생활	•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4개 문항의 평균 •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755	.756	.784	.769

학교생활의 발달 양상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1차부터 4차까지 모든 시점에서 측정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성별, 가구유형(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주관적인 학교성적 수준, 희망교육수준, 한국인정체성, 자아존중감, 부모님과의 대화 빈도, 부모의지지, 친구의지지, 교사의지지,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이다. 이중 가구유형(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은 각

유형별로 '1'의 값을 갖고 나머지 유형은 '0'의 값을 갖는 각각의 더미변수를 생성해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0', 여자를 '1'로 리코딩하였으며, 학교 밖에 도와주는 어른이 존재하는 경우 '1'로 코딩하고,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면 '1'부터 대학원 졸업은 '5'까지 5점 척도의 연속값으로 처리하여 값이 클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지도록 구성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정형편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아주 어렵다 '1'부터 아주 잘 산다 '5'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성적 수준도 5점 척도(매우 못 한다 '1점'부터 매우 잘한다 '5'점)로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해 높게 평가할수록 높은 점수를 갖도록 처리했다. 희망교육수준은 초등학교 '1'부터 대학원이상 '5'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 국가정체성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로 측정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에 대한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이들 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활용했다. 자아존중감은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님과의 대화 빈도는 1차시에는 4문항, 2차~4차시에는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거의 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일 한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의지지 6문항, 친구의지지 3문항, 교사의지지 3문항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사용 변수의 척도 및 신뢰도는 〈표 V-51〉 참조).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학교생활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계층이 최종 시점(중학교 1학년)의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4차 시점에서 성적에 대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된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3개 문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자세한 문항 내용과 척도, 신뢰도는 〈표 V-51〉을 참고).

표 V-51. 사용 변수 측정 문항 내용과 신뢰도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종속변수	학교생활	•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4개 문항의 평균 •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755	.756	.784	.769
예측요인	성별	• 남=0, 여=1	-	-	-	-
	가구유형	• 국제결혼가정=1, 중도입국가정=2, 외국인가정=3	-	-	-	-
	모학력	• 중졸이하=1, 고졸=2, 2~3년제 졸업=3, 4년제 졸업=4, 대학원 졸업=5	-	-	-	-
	가정경제 수준	•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1문항 • 5점 척도(아주 어렵다=1 ~ 아주 잘 산다=5)	-	-	-	-
	학교성적	• 주관적인 성적 수준, 1문항 • 5점 척도(매우 못 한다=1~ 매우 잘 한다=5)	-	-	-	-
	희망교육 수준	•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4, 대학원 이상=5	-	-	-	-
	한국인정체성	•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등 한국인 정체성과 관련된 4개 문항의 평균 •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	.822	.839	.845	869
	자아존중감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등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3개 문항의 평균 •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	.798	.818	.845	.885
	부모대화	•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빈도: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등 부모대화와 관련된 4개 문항의 평균 • 거의 하지 않는다=1, 월 1~3회=2, 주1~3회=3, 주4-6회=4, 매일 한다=5	.748	.756	.765	.774
	부모의지지	• '부모님(보호자)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신다' 등 부모의 지지와 관련된 6개 문항의 평균 •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885	.886	.876	.865
	친구의지지	•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등 친구의 지지와 관련된 3개 문항의 평균 •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852	.844	.861	.871
	교사의지지	•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등 교사의 지지와 관련된 3개 문항의 평균 •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846	.855	.870	.882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	• 아니오=0, 예=1	-	-	-	-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결과 변인	성적 만족도	• 1문항 • 4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 ~ 매우 만족한다=4)	–	–	–	–
	삶의 만족도	•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등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3개 문항의 평균 •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	–	–	.829
	우울	• '기운이 별로 없다' 등 우울과 관련된 5개 문항의 평균 •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	–	–	.878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변화유형을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Muthén & Shedden, 1999)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종단자료 분석에 사용되며, 하나의 모집단 내에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초기치와 변화율의 측면에서 서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는 하위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etras & Masyn, 2010).

잠재계층 수는 다양한 지수(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Entropy,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한 계층의 실제적 유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AIC와 BIC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며, Entropy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나타낸다. LMR-LRT와 BLRT는 k(대립가설)의 지지 여부(k-1(영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p값을 제공하고, p<.05일 때 k를 지지한다(Muthén & Muthén, 2000).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계층을 분류한 후, 학교생활의 변화양상에 따라 각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조사 시점별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에 따라 4차년도의 결과변인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 결과변수별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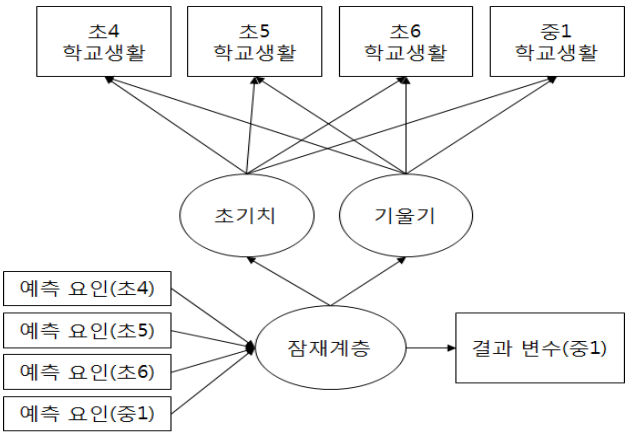


그림 V-31. 연구모형

3)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요인인 학교생활과 잠재계층 구분을 예측하는 예측 요인들의 시점별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V-52〉 ~ 〈표 V-55〉에 제시하였다.

표 V-52. 1차년도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082***	1														
(3)	-.052*	.014	1													
(4)	.001	-.030	-.493***	1												
(5)	.059**	.005	-.806***	-.117***	1											
(6)	.073**	-.051*	-.198***	.131***	.137***	1										
(7)	.055**	-.005	-.072**	.026	.064**	.142***	1									
(8)	.322***	-.006	.029	-.022	-.018	.079***	.048*	1								
(9)	.170***	.043*	-.132***	.043*	.122***	.121***	.084***	.171***	1							
(10)	.210***	-.023	.029	.015	-.043*	-.015	.044*	.102***	.106***	1						
(11)	.389***	.013	-.075***	.026	.067**	.041	.066**	.236***	.170***	.269***	1					
(12)	.191***	.017	-.110***	.058**	.086***	.100***	.128***	.122***	.174***	.263***	.180***	1				
(13)	.367***	.032	-.121***	.017	.127***	.054**	.121***	.206***	.186***	.327***	.480***	.341***	1			
(14)	.457***	.081***	-.042*	.017	.037	.031	.051*	.254***	.125***	.231***	.397***	.211***	.345***	1		
(15)	.524***	.069**	-.064**	.045*	.043*	.013	.020	.267***	.136***	.217***	.358***	.199***	.359***	.435***	1	
(16)	.174***	.061**	.026	-.030	-.009	-.051*	.050*	.087***	.049*	.147***	.130***	.118***	.189***	.140***	.145***	1
평균	3.220	0.490	0.772	0.067	0.161	2.133	2.751	3.397	3.877	2.624	3.290	2.378	3.342	3.849	3.789	0.536
표준편차	0.506	0.500	0.419	0.25	0.367	1.046	0.698	0.771	0.651	0.717	0.557	0.951	0.543	0.817	0.810	0.499
왜도	-0.385	0.040	-1.300	3.472	1.848	0.858	-0.434	-0.073	-1.376	-0.305	-0.617	0.574	-0.550	-0.490	-0.368	-0.146
첨도	0.444	-2.000	-0.310	9.063	1.416	-0.024	0.621	0.304	4.785	-0.173	0.896	-0.157	0.272	0.125	0.042	1.981

*p<.05, **p<.01, ***p<.001

* 주: (1) 학교생활, (2) 성별(여), (3) 국제결혼가정, (4) 중도입국가정, (5) 외국인가정, (6) 모학력, (7) 가정경제수준, (8) 학교성적, (9) 희망교육수준, (10) 한국인정체성, (11) 자아존중감, (12) 부모대화, (13) 부모의지지, (14) 친구의지지, (15) 교사의지지, (16) 학교밖 도와주는 어른

표 V-53. 2차년도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061**	1														
(3)	-.034	.004	1													
(4)	.014	-.011	-.400**	1												
(5)	.030	.003	-.633**	-.104**	1											
(6)	.044*	-.052*	-.206***	.134***	.144**	1										
(7)	.040	.000	-.077***	.054*	.051*	.121***	1									
(8)	.319***	-.029	.017	.016	-.031	.080***	.082***	1								
(9)	.143***	.014	-.059**	.023	.052*	.135***	.064**	.223***	1							
(10)	.253***	.041	-.017	.024	.003	.005	.041	.124***	.180***	1						
(11)	.359***	.000	-.038	.013	.035	.028	.054*	.268***	.144***	.263***	1					
(12)	.171***	.024	-.102**	.055*	.079***	.090***	.085***	.128***	.172***	.231***	.204***	1				
(13)	.359***	-.011	-.058**	.020	.053*	.093***	.101***	.237***	.184***	.316***	.448***	.358***	1			
(14)	.447***	.102***	.003	-.006	.001	.046*	.011	.270***	.122***	.248***	.404***	.194***	.364***	1		
(15)	.507***	.065**	-.002	.006	-.003	.016	.038	.295***	.118***	.282***	.418***	.203***	.391***	.511***	1	
(16)	.161***	.058**	-.051*	.021	.044*	-.006	.016	.105***	.058**	.112***	.162***	.111***	.196***	.174***	.149***	1
평균	3.174	0.490	0.709	0.061	0.141	2.129	2.725	3.309	3.850	2.679	3.241	2.479	3.259	3.796	3.741	0.520
표준편차	0.474	0.500	0.454	0.24	0.348	1.052	0.689	0.754	0.645	0.706	0.547	1.144	0.529	0.706	0.717	0.500
왜도	-0.266	0.060	-0.922	3.654	2.062	0.872	-0.461	-0.058	-1.433	-0.389	-0.420	0.531	-0.423	-0.430	-0.067	-0.079
첨도	0.693	-1.998	-1.152	9.362	2.254	-0.008	0.653	0.586	4.826	-0.088	0.630	-0.480	0.438	0.611	-0.145	-1.996

*p<.05, **p<.01, ***p<.001

* 주: (1) 학교생활, (2) 성별(여), (3) 국제결혼가정, (4) 중도입국가정, (5) 외국인가정, (6) 모학력, (7) 가정경제수준, (8) 학교성적, (9) 희망교육수준, (10) 한국인정체성, (11) 자아존중감, (12) 부모대화, (13) 부모의지지, (14) 친구의지지, (15) 교사의지지, (16) 학교밖 도와주는 어른

표 V-54. 3차년도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017	1														
(3)	-.033	.010	1													
(4)	-.002	-.015	-.367**	1												
(5)	.039	-.001	-.583**	-.098**	1											
(6)	.020	-.054*	-.197***	.130***	.137***	1										
(7)	.051*	-.001	-.045*	.012	.043	.075**	1									
(8)	.372***	-.044*	.016	.013	-.027	.089***	.075**	1								
(9)	.196***	.053*	-.052*	.029	.040	.071**	.074**	.220***	1							
(10)	.281***	-.042	.042	.002	-.050*	-.008	.044	.184***	.124***	1						
(11)	.422***	-.039	-.026	.030	.010	.048*	.062**	.338***	.144***	.288***	1					
(12)	.126***	.029	-.095***	.069**	.061**	.071**	.085***	.079***	.108***	.200***	.201***	1				
(13)	.411***	-.009	-.076**	.009	.081***	.099***	.077**	.269***	.165***	.322***	.481***	.381***	1			
(14)	.483***	.128***	.002	.007	-.008	.016	.050*	.304***	.143***	.205***	.399***	.148***	.339***	1		
(15)	.560***	.029	-.018	.014	.010	.052*	.040	.363***	.133***	.253***	.401***	.113***	.374***	.505***	1	
(16)	.177***	.038	-.027	.037	.006	.001	.022	.145***	.061**	.117***	.191***	.104***	.235***	.158***	.144***	1
평균	3.200	0.483	0.687	0.058	0.134	2.125	2.718	3.416	3.876	2.788	3.253	2.450	3.241	3.855	3.823	0.538
표준편차	0.473	0.500	0.464	0.234	0.341	1.052	0.649	0.797	0.57	0.669	0.536	1.111	0.499	0.684	0.729	0.499
왜도	-0.123	0.070	-0.806	3.788	2.149	0.866	-0.552	-0.138	-1.597	-0.459	-0.302	0.543	0.162	-0.354	-0.138	-0.154
첨도	0.298	-1.997	-1.351	9.361	2.622	-0.036	0.836	0.312	6.444	0.372	0.335	-0.487	0.052	0.304	-0.266	-1.978

*p<.05, **p<.01, ***p<.001

* 주: (1) 학교생활, (2) 성별(여), (3) 국제결혼가정, (4) 중도입국가정, (5) 외국인가정, (6) 모학력, (7) 가정경제수준, (8) 학교성적, (9) 희망교육수준, (10) 한국인정체성, (11) 자아존중감, (12) 부모대화, (13) 부모의지지, (14) 친구의지지, (15) 교사의지지, (16) 학교밖 도와주는 어른

표 V-55. 4차년도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002	1														
(3)	-.040	.006	1													
(4)	.037	-.025	-.332**	1												
(5)	.020	.010	-.516**	-.090**	1											
(6)	.036	-.069**	-.189***	.132***	.126**	1										
(7)	.034	-.009	-.063**	.030	.051*	.114**	1									
(8)	.271***	-.065**	-.004	.019	-.008	.115***	.092***	1								
(9)	.163***	.024	-.079**	.041	.063**	.080**	.032	.202***	1							
(10)	.274***	.036	.058*	-.006	-.063**	-.023	.037	.122***	.090***	1						
(11)	.274**	.036	.058*	-.006	-.063**	-.023	.037	.122**	.090**	1.000**	1					
(12)	.153***	.069**	-.034	.044	.009	.079**	.036	.132***	.086***	.228***	.228**	1				
(13)	.382***	-.045*	-.031	.007	.031	.127***	.100***	.226***	.160***	.257***	.257**	.375***	1			
(14)	.461***	.100**	.012	.027	-.033	.070**	-.013	.204***	.070**	.191**	.191**	.182***	.371***	1		
(15)	.505***	.059*	-.012	.016	.003	.075**	.018	.222***	.095***	.206**	.206**	.150***	.399***	.507***	1	
(16)	-.148***	-.019	.044	-.030	-.029	-.009	-.074**	-.106***	-.088***	-.122**	-.122**	-.115***	-.174***	-.140***	-.146***	1
평균	3.159	0.486	0.656	0.055	0.122	2.113	2.731	3.182	3.942	2.728	3.638	2.441	3.218	3.918	3.855	1.472
표준편차	0.467	0.500	0.475	0.228	0.328	1.045	0.649	0.753	0.481	0.671	0.894	1.082	0.485	0.667	0.700	0.499
왜도	-0.177	0.056	-0.656	3.815	2.304	0.882	-0.342	-0.036	-0.765	-0.215	-0.215	0.530	-0.250	-0.397	-0.079	0.114
첨도	0.864	-1.999	-1.571	9.342	3.313	0.022	0.668	0.405	3.457	0.195	0.195	-0.385	0.423	0.616	-0.340	-1.989

*p<.05, **p<.01, ***p<.001

* 주: (1) 학교생활, (2) 성별(여), (3) 국제결혼가정, (4) 중도입국가정, (5) 외국인가정, (6) 모학력, (7) 가정경제수준, (8) 학교성적, (9) 희망교육수준, (10) 한국인정체성, (11) 자아존중감, (12) 부모대화, (13) 부모의지지, (14) 친구의지지, (15) 교사의지지, (16) 학교밖 도와주는 어른

학교생활과 최종 시점(4차년도 중학교 1학년)에서 결과변인과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V-56〉에 제시하였다. 〈표 V-56〉을 보면 학교생활은 성적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4~.433, p<.001). 반면 우울은 학교생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05, p<.001).

표 V-56. 학교생활과 결과변인 간의 상관관계

	학교생활	성적 만족도	삶만족	우울
학교생활	1			
성적만족도	.284***	1		
삶만족	.433***	.330***	1	
우울	-.305***	-.231***	-.535***	1
평균	3.159	2.671	3.173	1.557
표준편차	0.467	0.693	0.575	0.564
왜도	-0.177	-0.193	-0.176	0.992
첨도	0.864	-0.091	-0.102	0.830

***p<.001

(2) 학교생활 발달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① 잠재계층 분류

잠재계층의 분류에 앞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발달 양상에 따라 어떠한 변화 모형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자 잠재성장모형의 1차 함수(선형) 모형과 2차 함수(비선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적용된 적합도 지수는 CFI와 TLI가 .95 이상(Hu & Bentler, 1999), RMSEA는 .05 이하(Browne & Cudeck, 1992), SRMR은 .08 이하(Hu & Bentler, 1999)로 모형의 양호함을 의미한다. 모형별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1차 함수 모형(χ^2=637.865(23), CFI=.872, TLI=.894, RMSEA=.082, SRMR=.082)보다 2차 함수 모형(χ^2=167.345(19), CFI=.921, TLI=.904, RMSEA=.048, SRMR=.022)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2차 함수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2차 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구분하기 위하여 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k집단과 k-1집단 간 비교를 통해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 모형 간 비교검증은 정보지수,

모형 비교검증, 분류의 질, 분류율을 고려하였다. 〈표 V-5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이 4개일 때는 추정되지 않았으며, 1개 집단을 증가시킬수록 AIC, BIC, sABIC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Entropy값은 2계층보다 3계층이 1에 더 가까운 값을 나타냈다. 반면, LMR-LRT와 BLRT(p<.001)는 모든 계층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을 구성하는 비율이 적절하고,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구분이 잘 되는 3개의 잠재계층의 수를 가진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V-57.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 지수

분류기준		잠재계층 수		
		2	3	4
정보지수	AIC	9649.502	8669.810	추정불가
	BIC	9769.548	8763.571	
	sABIC	9702.827	8709.563	
모형 비교검증	LMR-LRT	175.628(.041)	78.505(<.001)	
	BLRT	<.001	<.001	
분류의 질	Entropy	.812	.972	
분류율 (%)	계층 1(%)	39 (1.7)	1,346 (61.1)	
	계층 2(%)	2,206 (98.3)	817 (35.3)	
	계층 3(%)		82 (3.6)	

② 잠재계층 특성

최종적으로 선정된 3개의 잠재계층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계층 1은 61.1%인 1,346명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며 1차년도(초4) 시점의 중간값에서 시작하여 소폭 증가하다가 4차년도(중1)에 소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나 이러한 변화가 크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T1: 2.992, T2: 3.089, T3: 3.122, T4: 3.091). 따라서 이 계층을 '중간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는 전체의 35.3%인 817명의 사례수를 가지며 1차년도(초4) 시점에서 가장 높은 학교적응력을 보이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1: 3.730, T2: 3.440, T3: 3.302, T4: 3.316). 따라서 이 계층을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전체의 3.6%인 82명으로 가장 작은 사례수를 가지며, 1차년도(초4) 시점에서 매우 낮은 학교적응력을 보이고 점차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T1: 1.972, T2: 2.642, T3: 2.976, T4: 2.974). 따라서 이 계층을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1은 1차년도에 1,346명이었던 표본이 2차년도에 1,242명(92.3%), 3차년도에 1,206명(89.6%), 4차년도에 1,150명(85.4%)의 표본이 유지되어 4차년도에는 1차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총 14.6%의 표본이 탈락하였다. 계층2는 1차년도에 817명이었던 표본이 2차에 732명(89.6%), 3차에 701명(85.8%), 4차에 657명(80.4%)의 표본이 유지되어 4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교하였을 때 총 19.6%의 표본이 탈락하였다. 계층3은 1차년도에 82명이었던 표본이 2차에 73명(89.0%), 3차에 66명(80.5%), 4차에 63명(76.8%)의 표본이 유지되어 4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교하였을 때 총 23.2%의 표본이 탈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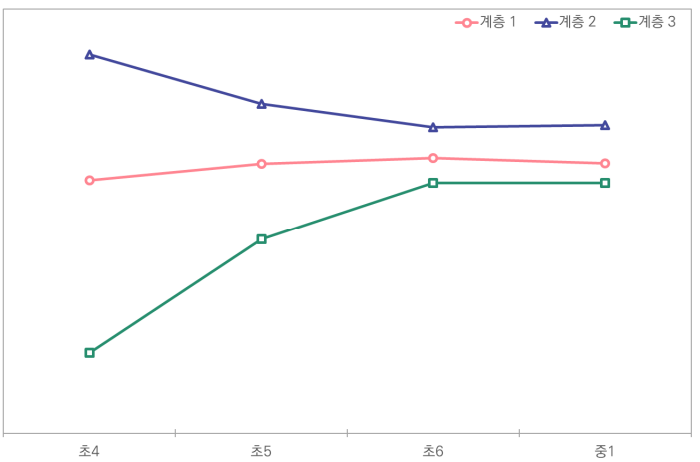


그림 V-3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발달적 변화양상

(3)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

학교생활의 발달 양상에 따라 확인된 3개의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데 있어 언제(시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측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시점별(1차, 2차, 3차, 4차) '중간유지집단계층'(계층1)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후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 요인을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표 V-58〉에 제시된 추정치는 준거집단에 비해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

표 V-58.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

구분			1차년도(초4)			2차년도(초5)			3차년도(초6)			4차년도(중1)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1 VS 2 (준거1)	일반 특성	성별(여)	.118	.105	1.125	.166	.099	1.181	-.184	.100	.832	-.149	.104	.861
		국제결혼	-.159	.146	.853	-.288 *	.135	.750	-.316 *	.137	.729	-.358 *	.142	.699
		중도입국	-.416	.238	.660	-.399	.223	.671	-.383	.227	.682	-.326	.233	.721
		모학력	.099	.051	1.104	.084	.048	1.088	.083	.048	1.087	.046	.050	1.047
		가정경제수준	-.071	.077	.932	.054	.072	1.055	.117	.077	1.124	.070	.080	1.072
	개인 및 다문화	학교성적	.420 ***	.075	1.521	.268 ***	.072	1.307	.214 **	.071	1.238	.238 **	.073	1.269
		희망교육수준	.085	.090	1.089	-.134	.082	.875	-.012	.093	.988	-.061	.111	.941
		한국인정체성	.032	.080	1.033	-.031	.075	.970	.176 *	.081	1.193	.183 *	.081	1.201
		자아존중감	.503 ***	.118	1.654	.211	.109	1.235	.087	.114	1.091	.007	.109	1.007
	환경	부모대화	.013	.060	1.013	-.019	.046	.981	-.043	.049	.958	.056	.051	1.057
		부모의지지	.377 **	.125	1.457	.436 ***	.117	1.547	.441 **	.128	1.554	.231	.134	1.260
		친구의지지	.486 ***	.079	1.627	.195 *	.087	1.216	.259 **	.090	1.296	.299 **	.096	1.349
		교사의지지	.913 ***	.082	2.493	.321 ***	.085	1.379	.125	.085	1.133	.229 *	.089	1.258
		학교밖 도움 어른	.261 *	.107	1.298	.094	.100	1.098	-.053	.102	.949	.076	.104	1.079
1 VS 3 (준거1)	일반 특성	성별(여)	-.101	.248	.904	-.118	.253	.889	-.103	.261	.902	-.152	.269	.859
		국제결혼	.180	.378	1.197	.477	.419	1.612	.558	.447	1.747	.447	.448	1.564
		중도입국	-.278	.693	.757	-.488	.823	.614	-.235	.836	.791	-.216	.834	.806

구분			1차년도(초4)			2차년도(초5)			3차년도(초6)			4차년도(중1)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모학력	−.117	.129	.890	−.151	.134	.859	−.178	.142	.837	−.155	.144	.856
		가정경제수준	.062	.168	1.064	.025	.178	1.025	.315	.208	1.370	.018	.202	1.019
	개인 및 다문화	학교성적	−.511 **	.169	.600	−.300	.173	.741	−.091	.182	.913	−.104	.190	.901
		희망교육수준	−.162	.160	.851	−.259	.170	.772	−.084	.206	.920	−.200	.267	.819
		한국인정체성	−.258	.187	.772	−.292	.191	.747	−.375	.201	.687	−.109	.211	.896
		자아존중감	−.178	.237	.837	−.420	.247	.657	.110	.290	1.116	−.181	.274	.835
	환경	부모대화	.022	.150	1.022	.048	.121	1.049	.097	.124	1.102	−.139	.142	.870
		부모의지지	.137	.241	1.147	.195	.266	1.216	−.196	.321	.822	.503	.345	1.653
		친구의지지	−.576 ***	.160	.562	−.261	.189	.770	−.303	.217	.738	−.323	.221	.724
		교사의지지	−.988 ***	.162	.372	−.336	.210	.714	−.254	.215	.776	−.268	.223	.765
		학교밖 도움 어른	.002	.259	1.002	−.106	.259	.899	−.172	.270	.842	−.312	.269	.732

*p<.05, **p<.01, ***p<.001

* 주: 1) 집단 1: 중간유지 집단, 집단 2: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 집단 3: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
2) 성별 준거: 남자; 가구유형 준거: 외국인 가정; 학교밖 도와주는 어른 준거: 학교밖 도와주는 어른 없음.

각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잠재집단 구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및 다문화특성에서는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5배 높은데 반해,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가 소폭 증가하는 집단'보다 '중간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6배 높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7배 높았다. 환경특성에서는 부모의지지, 친구의지지, 교사의지지가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5배, 1.6배, 2.5배 높은 반면, 친구의지지와 교사의지지가 높을수록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가 소폭 증가하는 집단'에 비해 '중간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0.6배, 0.4배 높았다. 또한 학교 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3배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국제결혼가정일 경우에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비해 '중간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 0.8배 높았으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3배 높았다. 부모의지지, 친구의지지, 교사의지지가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5배, 1.2배, 1.4배 높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국제결혼가정일 경우에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비해 '중간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약 0.7배 높았으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배 높았다. 또한 한국인 정체성이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배 높았다. 환경 특성에서는 부모의지지, 친구의지지가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6배, 1.3배 높았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국제결혼가정일 경우에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비해 '중간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약 0.7배 높았으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3배 높고 한국인정체성이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배 높았다. 또한 부모의지지와 교사의지지가 높을수록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약 1.3배 높았다.

정리하면, 초5부터 중1까지 세 시점에서 국제결혼가정일 경우에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비해 '중간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모든 시점(초4부터 중1)에서 중간 수준에서 학교적응을 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간 수준에서 학교적응을 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반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는 한국인정체성이 높을수록 중간 수준에서 학교적응을 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든 시점(초4부터 중1)에서 주변의 중요한 타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중간 수준에서 학교적응을 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 잠재계층 분류에 따른 결과변수의 차이

각 잠재계층별 결과변수(성적 만족도, 삶의 만족도, 우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V-59〉와 같다. 먼저, 성적 만족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의 성적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 '중간유지 집단'의 순서로 평균이 높았다. 각 집단별 성적 만족도 차이검증 결과,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과 '중간유지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삶의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간유지 집단',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의 순서로 삶의 만족도의 평균이 높았다. 각 집단별 삶의 만족도 차이검증 결과,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과 '중간유지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과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우울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의 우울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간유지 집단',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의 순서로 평균이 높았다. 각 집단별

우울의 차이검증 결과, '중간유지 집단'과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과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표 V-59. 변량분석 결과

	집단	*N*	*M*	*SD*	*F*	*Scheffe*
성적 만족도	1	1,150	2.620	0.684	8.740***	1<2
	2	657	2.760	0.698		
	3	63	2.670	0.718		
삶의 만족도	1	1,150	3.127	0.568	14.634***	1,3<2
	2	657	3.267	0.576		
	3	63	3.032	0.586		
우울	1	1,150	1.595	0.581	11.007***	2<1,3
	2	657	1.477	0.519		
	3	63	1.689	0.564		

***p<.001
* 주: 1=중간유지 집단, 2=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 3=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

4차 시점, 즉 중학교에 진입한 시기에 심리적응적 특성에 있어 집단 간 차이에서 주목할 점은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가 증가하는 집단'의 경우 성적 만족도는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낮게, 우울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학교적응력에서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은 중학교에 진입하면서 학교적응력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유지 집단'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우울이 높아지는 등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하여 학교적응력의 발달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 발달 양상에 있어 이질적인 잠재계층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 양상에서 도출된 잠재계층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간의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살펴본 결과 3가지 구별된 유형을 나타내는 잠재계층을 도출하였다. 3개의 잠재계층은 4년간 중간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이는 '중간유지 집단', '초기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조금씩 감소하는 집단', '초기 매우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조금씩 증가하는 집단'이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구별된 특성을 보이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어느 한 시점에서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특성(예를 들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낮다')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적응에 있어 다양한 발달 양상을 보이므로 다양한 도움적 접근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 양상에 따라 확인된 3개의 잠재계층을 구분하는데 있어 시점별로 어떤 변인이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요인들이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초4에서만 학교적응력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시점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진입하는 시점에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도록 도와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특히 다문화청소년이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른 외모, 한국어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장면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학교 분위기를 상쇄시키기 위한 교실과 학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시점(초4부터 중1)에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성적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됨을 의미하는데 학교적응은 학교의 수업활동 참여, 학업수행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다문화청소년이 학습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통해 학교적응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인 정체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한국인정체성을 가진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적응을 잘 하게 되므로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청소년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한국인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과 자부심을 갖도록 도우는 것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또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지지, 친구의지지, 교사의지지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에 의미있는 타자들로 지지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비교적 학교적응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의미있는 사람들이 견고한 지지체계로 다문화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부모의지지뿐 아니라 학교밖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학교적응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학교 밖에서 학습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이에 따라 학교적응을 잘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년이 증가하며 학교적응력이 높아진 다문화청소년 집단에서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선생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생님들은 다문화청소년이 학습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로 이는 학교 밖에서 학습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의 마련이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적응 발달 양상에 따라 확인된 3개의 잠재계층이 중학교 1학년에서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년이 증가하며 소폭 감소하기는 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력이 높은 집단이 성적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경우에는 중학교에 진학하여 소폭 학교적응에 감소하더라도 심리적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반면, 4차 시점에서 집단3(학교적응력에서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적응력이 높아졌음에도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집단3의 결과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학생에게는 학교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이 곧 심리적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즉, 학교 공부 분위기에 만족하고 수업시간이 재미있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더라도 특정 다문화청소년에게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우울을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적응력이 낮은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적응을 할 때 같은 문화에 소속된 또래 친구들(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같은 문화권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이나 소외 등의 문제로 인해 야기된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Alderman, 2008).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를 도울 때 심리적 측면의 적응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학교적응력의 발달 양상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력 양상을 잘 파악하고 심리적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에 대한 잠재집단을 분류해 보고, 이들 잠재집단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분류된 집단이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발달 양상에 대한 잠재집단을 분류하며 각 집단 간 이탈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연구적 한계를 지닌다. 전체적으로 이탈률이 16.7%였으며, 집단1은 4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교하였을 때 총 14.6%의 표본이 탈락하였고, 집단2는 4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교하였을 때 총 19.6%의 표본이 탈락, 집단3은 4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교하였을 때 총 23.2%의 표본이 탈락하였다. 집단3이 집단1과 집단2에 비해 이탈률이 높을 뿐 아니라 표본수도 타 집단에 비해 작은 점을 고려할 때 이탈률이 가장 높은 4차년도에서의 집단 간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심리적응 차이분석 결과에서도 집단 간 이탈률에 따른 결측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단3(초기에 학교적응이 매우 낮다가 4차 시점에 학교적응이 높아짐)의 경우 1차에서 3차 시점에서 학교적응력이 매우 낮은 표본이 이탈하며 학교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표본의 특성과 그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만 분석결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표 Ⅴ-60.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 유형 분류 및 예측요인, 결과변인 결과 요약

구 분	주요 결과
유형 분류	•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 양상을 파악한 결과 이질적인 3개의 집단이 도출됨. • 3개의 집단은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중간유지 집단',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으로 명명함.
예측요인 영향	• 초5부터 중1까지의 세 시점에서 국제결혼가정인 경우에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비해 중간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 • 모든 시점(초4부터 중1)에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 •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는 한국인 정체성이 높을수록 중간 수준에서 학교적응을 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 • 모든 시점(초4부터 중1)에서 주변의 중요한 타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중간 수준에서 학교적응을 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
결과변수 차이	•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의 성적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중간유지 집단의 순서로 성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간유지 집단,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의 순서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의 우울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간유지 집단-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소폭 감소하는 집단의 순서로 우울이 높게 나타남.
시사점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3개의 집단 유형으로 구분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적응에 있어 다양한 발달 양상을 보이므로 이에 따라 다양하게 도움적 접근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진입하는 시점에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갖도록 도와야 함을 시사함.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학교 분위기를 상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학교적응이 학교에서의 학업활동 및 학업수행능력과 관련되므로 다문화청소년이 학습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통해 학교적응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력이 높아지는 집단의 경우 부모의 지지와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가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요구되며,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에서 학습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정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적응력이 높아지더라도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우울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를 도울 때 심리적 측면의 적응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4.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 2기 패널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기에,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 저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오랜 기간 단일 민족의 신화를 지켜온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담론 중심의 논의를 거쳐(김혜순, 2008; 윤인진, 2008; 조지영, 서정민, 2013),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 관련 여러 경험적 근거들을 수집해 왔다(김경근, 이자형, 이기혜, 2015; 육주원, 신형진, 2021; 윤인진 2016; 이자형, 김경근, 2012). 인구학적 변화와 더불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사회의 시민을 길러낸다는 공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질적으로 우수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학교급별 다문화청소년 비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의 다양화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개인의 문화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며, 이것이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옳은 방향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성장뿐만 아니라, 함께 커가는 청소년 모두와 연결되어 결국엔 사회의 행복 및 삶의 질로 긴밀하게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을 다루어 온 선행연구들의 논의를(김평화, 윤혜미, 2020; 차한솔, 2021 등)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확장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문화적응은 그 자체로 달성되어야 할 규범적인 목표이기 이전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맺어가는 문화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인종이나 종족 배경을 가졌더라도, 본인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체화하는지(한국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혹은 부모 출신 국가의 사람이라고 여기는지 등) 그 패턴은 상이할 수 있다(박선웅, 2013; 이희정, 2018). 부모의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동질적인 문화 배경을 가진 것으로 단순하게 규정할 경우(혹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다면적인 성장 과정 및 학교생활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둘째,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 교육에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개인과 사회의 연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측면이다. 초·중·고 의무교육기간 이후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발을 딛게 되는데, 어떤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지, 즉 진로설정은 이 기간을 거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특히 인종이나 종족 배경이 다른 다문화청소년들은 한국의 특수한 문화 규범을 배워나가는 한편, 부모 출신 국가의 문화적 유산을 이어가야 하는 경험을 함께 다루게 되므로, 단순히 어떤 꿈을 꾸는지를 넘어서, '어디에서의' 삶을 그려나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초-중 전환기에 놓인 다문화청소년들은 여러모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 생각, 선호들이 유연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진로희망 및 계획의 유동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할 때, 급증하는 다문화청소년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계가 점차 옅어져 가는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꿈을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나타내는 지표임과 동시에, 어떻게 다문화 사회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관한 사회적 물음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미래설계(폭넓은 의미의 진로)의 연관성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후부터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현황에 대해 살펴본 뒤,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각각 분석자료 및 측정도구, 그리고 분석결과를 담는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함의와 한계를 요약한 뒤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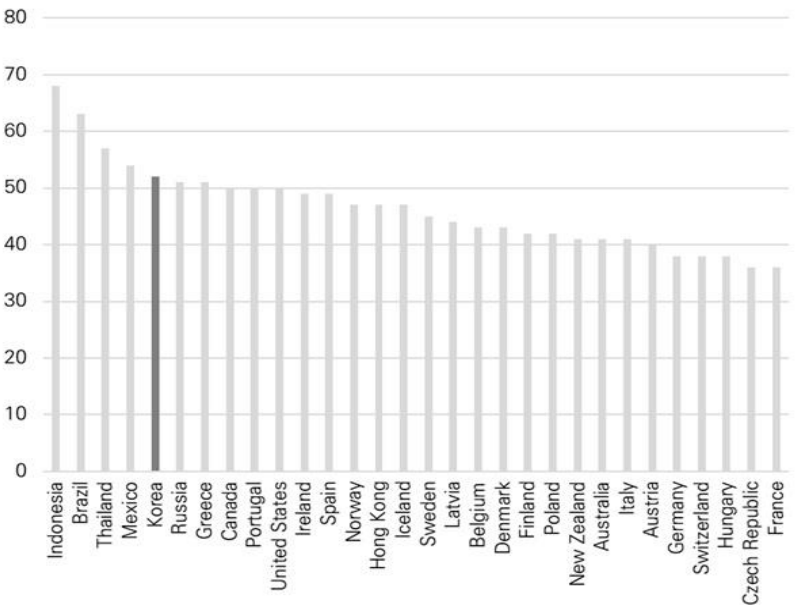
2)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 현황

(1) 한국 청소년 진로발달

① 한국 청소년 진로발달: 국가 간 비교

청소년의 진로 선택에 있어 진로 열망(career aspirations)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에 대한 검토는 청소년들이 진로 개발 및 교육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개인적인 관심사나 역량, 목표, 그리고

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진로 열망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미래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자원들을 동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 출처: Mann et al.(2020). Dream jobs: Teenagers' career aspirations and the future of work(p. 11~13, 18)

* 주: 1) Y축은 30세에 이를 때 가장 많이 언급된 10가지 직업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의 비율임.
2) 진로 집중도(career concentration)는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기대가 10가지 직업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2018년 기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직업으로 남자는 엔지니어, 기업 경영자, 의사, ICT 전문가, 운동선수 등이며 여자는 의사, 선생님, 기업 경영자, 변호사, 간호사 및 조산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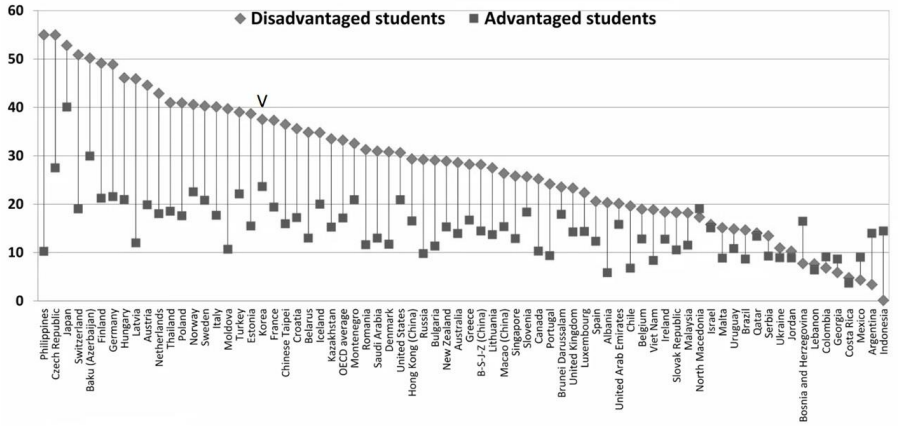
그림 V-33. 2018년 국가별 진로 희망 집중도(%)

[그림 V-33]은 2018년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참여한 OECD 31개국의 청소년의 진로 집중도를 설명한다. 진로 집중도(career concentration)란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기대가 인기 있는 10가지 직업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조사 시점에 가장 많이 언급된 직업은 남학생들의 경우 엔지니어, 기업경영자, 의사, ICT 전문가, 운동선수 등이며, 여학생들은 의사, 선생님, 기업경영자, 변호사, 간호사 등을 많이 거론했다.

진로 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태국, 멕시코,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청소년의 진로 집중도는 약 52%에 달한다. 즉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인기 있는 10가지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청소년 직업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잘 확립된 국가에서는 진로 집중도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독일, 스위스,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진로 집중 수준이 청소년 10명 중 4명 미만에 그쳤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꿈이 보다 다양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진로가 집중된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 비슷한 진로집중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 도달하는 노동 시장의 신호가 취약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적 자본이 개발되는 시기에 청소년들의 직업 기대가 현실의 수요를 반영하기보다 몇 개의 희소한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인 [그림 V-34]는 73개 국가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직업 기대 수준 관련 흥미로운 점들을 드러낸다. 보통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직업들, 즉 전문가나 관리자가 될 것을 희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가 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15] OECD 평균치를 보면, 동일한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지만 유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과 비교해, 본인이 30세에 이르렀을 때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수한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진로 열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실제 직업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15) 해당 자료는 과학점수를 토대로 학업성적의 우수성을 측정하였다.



* 출처: Mann et al.(2020). Dream jobs: Teenagers' career aspirations and the future of work(p. 31, 33)

* 주: 1) Y축은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이 전문가나 관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비율임.
2)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Advantaged students)은 사각형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Disadvantaged students)은 마름모로 표기함.

그림 Ⅴ-34. 사회경제적 지위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전문가·관리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비율(%)

국가 간 차이도 상당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체코,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우수한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경에 따른 진로 열망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림에서 좋은 배경을 지닌 학생들(사각형)과 불리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마름모) 간 전문가·관리자를 희망하는 비중의 차이로써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갭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세르비아나 카타르, 브라질 등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하다.

한국의 경우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생의 진로 열망이 15% 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우수한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나 관리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추측건대, 전반적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희망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향성이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에게서 더 뚜렷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비슷한 학업 성취수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경우 직업지위에 있어 더 낮은 직업들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교육불평등 심화가 비단 학업성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 희망에 있어서도 차이를 빚어내고 있다는 점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② 한국 청소년 진로발달 추이

다음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 자료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종은 무엇이며, 연도별 희망직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V-61〉은 2015년에서 2022년에 걸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한국 중학생들의 희망직업 순위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교사'는 조사 기간동안 학생들이 꾸준하게,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이나 '의사', '운동선수'도 지속적으로 상위권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의사는 교사 다음으로 중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군인'과 '뷰티디자이너'에 대한 직업 선호도 역시 계속되는 것을 확인한 반면, 요리사는 선호도가 하락한 대표적인 직업으로 2015년 3위에서 2022년에 8위로 하락했다. 조사기간 동안 꾸준하게 순위권에 들었던 '공무원'의 경우, 다소 순위 변동이 심한 가운데 2022년에는 10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기반 산업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도 눈에 띈다. 프로그래머나 가상현실전문가 등 '컴퓨터 공학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2018년에 처음 순위권에 등장한 이후 그 선호도가 꾸준하게 상승해 왔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선호의 증가폭이 더 뚜렷하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신산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추세가 더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22b).

표 V-61. 한국 중학생 희망직업(2015-202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선생님(교사)	선생님(교사)	선생님(교사)	교사
2	경찰	경찰	경찰	경찰관
3	요리사	의사	의사	의사
4	의사	운동선수	운동선수	운동선수
5	운동선수	군인	요리사(셰프)	조리사(요리사)
6	정보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	요리사	군인	뷰티디자이너
7	건축가·건축디자이너	생명·자연 과학자 및 연구원	공무원	군인
8	공무원	정보시스템 및 보안전문가	건축가·건축디자이너	공무원
9	간호사	가수	간호사	연주가/작곡가
10	군인	공무원	승무원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	교사	교사	교사	교사
2	의사	의사	의사	의사
3	경찰관, 수사관	경찰관, 수사관	경찰관, 수사관	운동선수
4	운동선수	군인	운동선수	경찰관, 수사관
5	요리사/조리사	운동선수	군인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6	뷰티디자이너	뷰티디자이너	공무원	군인
7	군인	공무원	요리사/조리사	시각디자이너
8	공무원	간호사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요리사, 조리사
9	간호사	요리사/조리사	뷰티디자이너	뷰티디자이너
10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영자/CEO	공무원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2) 한국 다문화청소년 인구 현황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전, 다문화청소년 인구는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구체적으로 비다문화청소년 대비 다문화청소년 인구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연도별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① 다문화청소년 인구 추이

〈표 V-62〉는 2013~2022년 청소년 인구 대비 다문화청소년의 양적인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우선 대한민국 총 인구는 2013년 50,429천명이었던 것에서 2020년에는 51,836천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청소년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해 왔는데, 2013년 청소년인구(10,020천명) 대비 2022년 청소년인구(8,147천명)는 약 19%(1,873천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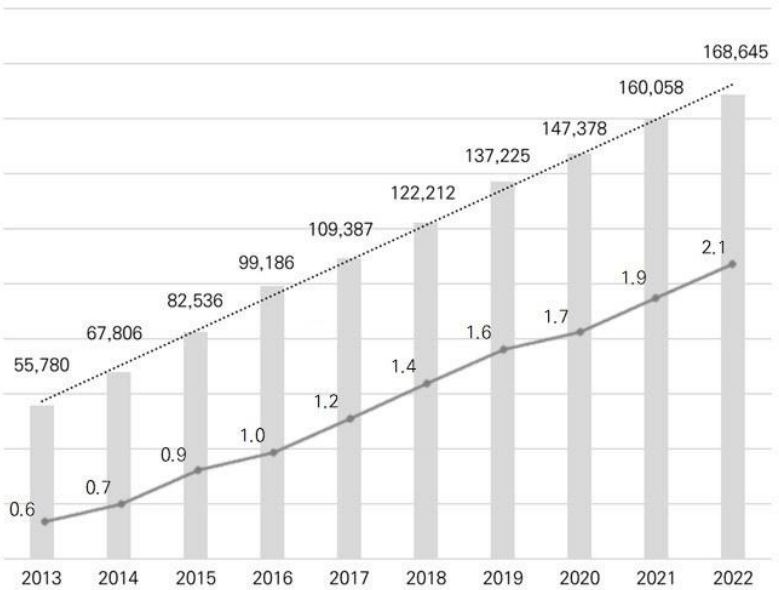
표 V-62. 청소년(9~24세) 추계 인구 및 다문화학생 수

(단위: 천명,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인구	50,429	50,747	51,015	51,218	51,362
청소년인구	10,020	9,853	9,654	9,470	9,254
다문화학생 수	56	68	83	99	109
청소년인구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0.6	0.7	0.9	1.0	1.2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인구	51,585	51,765	51,836	51,745	51,628
청소년인구	9,031	8,806	8,638	8,390	8,147
다문화학생 수	122	137	147	160	169
청소년인구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1.4	1.6	1.7	1.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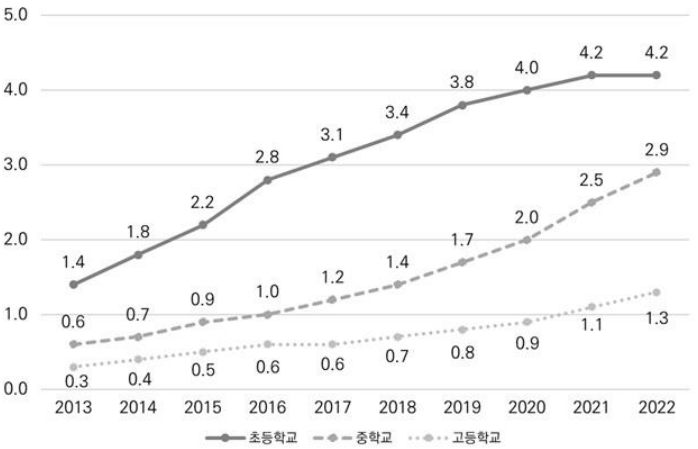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청소년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conn_path=I3)
교육부, 교육기본통계(202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429&lev=0&m=0204

반면에 다문화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 5만 6천명 수준에서 2022년 16만 9천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인구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은 2013년 1% 미만이었으나, 2016년에는 1%를 넘어서 2022년에는 2.1%까지 증가했다([그림 V-35] 참조). 한국 사회의 가족구조 변동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이나 이민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202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429&lev=0&m=0204

그림 V-35. 연도별 다문화학생 수 및 청소년 인구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명,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3~2020). https://kess.kedi.re.kr/index
교육부, 교육기본통계(202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4&opType=N&boardSeq=88238
교육부, 교육기본통계(202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429&lev=0&m=0204

그림 Ⅴ-36.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율(%)

[그림 Ⅴ-36]은 2013~2022년 해마다 다문화학생의 비율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구분한 결과를 제시한다. 학교급별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1.4%에서 2017년엔 3.1%, 2022년 4.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중학교는 같은 기간에 각각 0.6%, 1.2%, 2.9%로, 고등학교는 0.3%, 0.6%,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의 조사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학생비 증가율은 각각 3.0배, 4.8배, 4.3배로, 중학교급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의 증가 추세가 가장 빠르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문화청소년 인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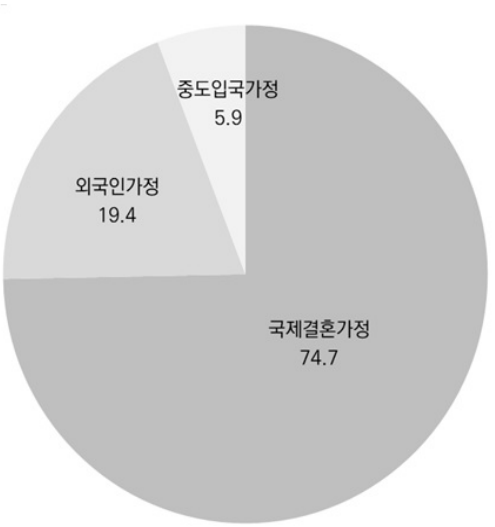
〈표 V-63〉의 자료는 다문화가구 유형과 부모의 출신 국가에 따른 다문화학생 비율을 제시한다. 국가통계에서 다문화가구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외국인가정'으로 분류하는데, 한국계 중국인이나,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을 포함한다.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사례로 분류하게 된다.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부모 밑에서 국내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으로,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부모의 자녀이지만, 결혼이민자 부/모의 본국에서 태어나 중도에 한국으로 오게 되거나, 혹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 전 본국에서 낳아서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온 경우를 '중도입국가정'으로 분류한다. 2022년 기준 약 17만명의 다문화학생들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이 75% 정도로 가장 많고, 외국인 가정이 대략 19%, 중도입국가정이 약 6% 순이다([그림 V-37] 참조).

표 V-63. 가구 유형별 부모의 출신 국가별 다문화학생(202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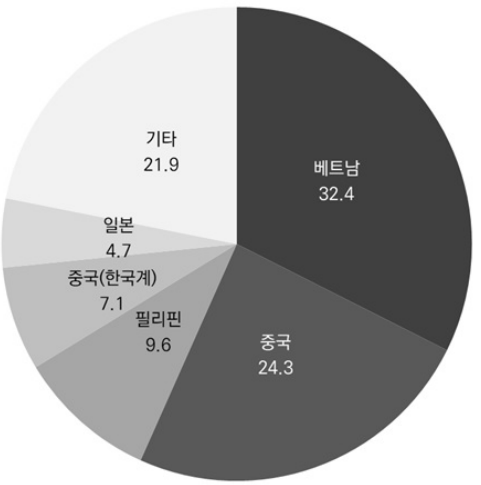
가구 유형	학생 수	비율
국제결혼가정	126,029	74.7
중도입국가정	9,938	5.9
외국인가정	32,678	19.4
합계	168,645	100.0
부모의 출신 국가	**학생 수**	**비율**
베트남	54,722	32.4
중국	41,009	24.3
필리핀	16,210	9.6
중국(한국계)	11,914	7.1
일본	7,891	4.7
기타	36,899	21.9
합계	168,645	100.0

*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202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429&lev=0&m=0204



*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202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429&lev=0&m=0204

그림 Ⅴ-37. 가구 유형별 다문화학생 비율(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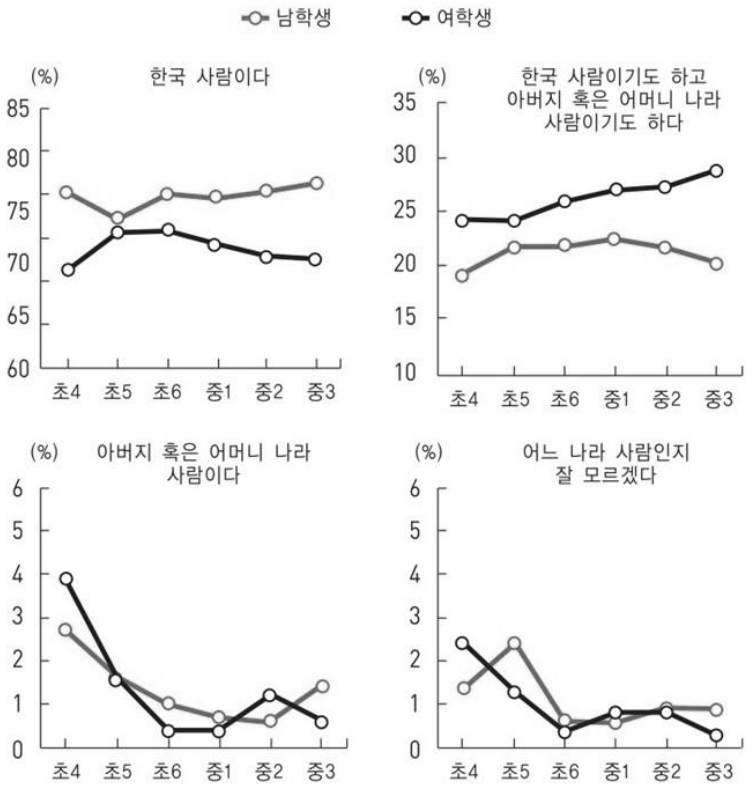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202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429&lev=0&m=0204

그림 Ⅴ-38. 부모의 출신 국가별 다문화학생 비율(2022)(%)

다음으로 [그림 V-38]을 보면, 부모의 출신 국가에 따른 다문화학생 비율은 2022년 기준 베트남 32%, 중국 24%, 필리핀 10%에 이어 한국계 중국인 7%, 일본 5%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베트남과 필리핀)의 비율이 42%에 달하는 한편,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출신 부모를 가진 비율 역시 31%였다. 이외에 이들 국가에 속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상당한데,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V-39]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 자료(2011~2016년)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다문화청소년의 국적 정체성을 성별로 도식화한 자료이다. 스스로를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모두 7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다소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외국인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는 정체성을 보이는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성장하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여학생의 경우 4%에서 0% 가까이까지 감소).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가 배경을 모두 공유한다고 보는 정체성(이중국적 정체성)은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약 20~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남학생의 경우 20% 정도의 학생들이 이중국적 정체성을 가지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25%였던 것에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러서는 약 30%의 학생들이 이중국적 정체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종합하면, 초-중 전환기의 다문화청소년들은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적으로 스스로를 정체화 하기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한국인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한편, 여학생들은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의 배경을 모두 받아들이는 이중국적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적인 실체로서 존재하기보다 개인의 내적인 과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자아와 정체성'의 특성을 여실히 드러낸다(Markus & Wulf, 198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2019)(p.152, 재인용)

그림 V-39. 다문화 가정 학생의 성별 국적 정체성 인식(2011~2016)

3) 다문화청소년 정체성과 진로발달

(1) 다문화청소년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정체성(identity)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감각으로, 개인의 행동을 견인하는 신념, 이상, 가치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Erickson, 1968; Stets & Burke, 2003).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초-중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은 10대에 접어들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맺고 활동반경을 확장하며 자아를 발전시켜 나갈 뿐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과정들을 거쳐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험한다(e.g., Brummelman & Thomaes, 2017; Vandekerckhove, 2009). 예컨대 학생이면서 여성이고, 누군가의 친구이자 딸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순간 또는 환경에서 더욱 강조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체성(salient identity, 현저한 정체성으로도 번역됨)을 파악하는 것은 10대 청소년의 발달과 성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Stryker & Serpe, 1994).

오랜 기간 인종이나 종족 동질성을 강조해 온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인종이나 종족, 국적에 따른 소속감을 핵심 정체성으로 강하게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이희정, 2018). 즉 많은 상황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서 정체성이 도드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국인' 또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과 포용감을 느끼는 수준은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것이고, 정체성은 이들의 발달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다른 인종, 종족, 문화적 배경을 갖고 한국 사회로 이주한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를 익히고 새로운 룰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 사회에 살지만 모국(본국)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거나, 한국 사회에의 소속감을 형성하면서도 모국(본국)에 대한 소속감을 지속해 나가는 다중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Grzymala-Kazlowska, 2016, 2018).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다른 인종이나 종족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달리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닻(Anchors)을 만들어나가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얼마나 한국 사람으로 적응하는지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들이 어떤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형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박선웅, 2013).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회

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지의 문제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이를 다루고자 한다.

(2)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은 그들이 설계하는 미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한 연구는 젊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구성하며, 이것이 그들의 인종이나 종족 정체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았다(Johansson & Olofsson, 2011). 스웨덴 대도시의 이민자 고등학교 학생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어떻게 교육, 직업 및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조화하여 이야기하는지 분석한 결과, 이들이 스웨덴 사회의 규범적 기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이 그들의 인생 계획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인터뷰 참가자들이 논의한 인생 계획은 그들의 교육(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을 것인지), 직업(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및 가족(가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열망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은 특히, 이민자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 끊임없이 '타자화'(Otherness)되고, 배제되는 경험을 하면서, '좋은 스웨덴 학생'이 되기 위한 규범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을 강조한다.

한국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다양한 연구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 계획을 이행하는 데 경험하는 어려움이나(김영미, 현안나, 2020; 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 진로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진로결정성(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이중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특히나 진로 계획에 있어 상충되는 가치관이나 규범을 경험한다면, 이들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 결정이나 관련한 목표 설정 및 달성에 중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2년 15-24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사례를 비교한다(변숙영 외, 2022). 후자의 경우 진로 발달에 있어 자립 기술을 획득하거나 진로 성숙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또 다문화청소년이 스스로 한국을 자신의 국가라고 인식할수록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문화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의 특수성에

따라, 즉 다문화 가구 유형뿐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에 따라서도 진로발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3) 연구목표: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을 다루면서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을 문화적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규범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거나 혹은 나쁘다)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서로 다른 강도로 한국 사회와 또 모국(본국) 또는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개념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을 논의한다. 또한 수동적인 의미에서 한국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지의 문제를 벗어나, 스스로를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기는지,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적 연결성(또는 닻, anchors)의 패턴을 포착하기 위해, 국적 정체성에 더해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다문화 가구 유형,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인식 및 차별 경험과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고려한다.

둘째, 청소년 진로의 개념을 확장하여 청소년이 어떤 미래를 구상하는지 보다 폭넓게 다루고자 한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 주목해 온 진로에 대한 확신(결정성)이나 진로장벽 및 진로발달 수준을 포함하면서, 교육학 연구에서 오랜기간 주요하게 다루어 온 교육 포부를 다룰 것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스스로가 살고 싶은 나라, 어디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 능력을 파악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진로를 넓은 의미에서 정의한다면, 학생들이 학문 세계와 앞으로의 직업 세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을 어떻게 꿈꾸어 나가는지 고루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정체성 및 이를 포괄한 사회와의 연결성에 따라, 보다 확장된 개념의 진로발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V-4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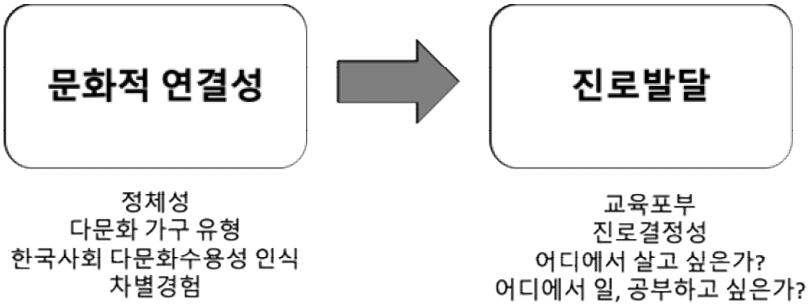


그림 V-40. 연구 모형

4) 자료 측정과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패널을 활용한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객관적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기 패널을 구축하여 4개년에 걸친 종단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배경특성, 학교생활, 심리사회적응, 신체발달, 부모-자녀관계, 정책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2019년 다문화청소년패널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의 정의에 근거하여,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다.

패널자료는 2019년 2,271명, 2020년 2,073명, 2021년 1,999명, 2022년 1,895명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2021년(초등학교 6학년)과 2022년(중학교 1학년)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핵심문항의 답변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72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교육부 공식통계에서 보고한 중학생 현황과 대체로 유사했다. 데이터의 다문화청소년 성별 구성은 남학생 48.6%, 여학생 51.4%이고, 지역별 거주 분포는 경기·인천(29.1%), 경상권(25.1%), 충청 및 강원권(17.8%), 전라 및 제주권(17.5%), 서울(10.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비교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①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파악할 수 있는 2022년 4차년도 도구들을 활용해, '교육포부', '진로결정성', '희망직업', '학업 및 거주 희망 국가'(4개 변수로 측정)와 '학업 후 일하고 싶은 나라' 등을 포괄한다.

우선 다문화청소년의 '교육포부'는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의미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의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측정된 만큼, 초등학교를 최종 희망교육수준으로 언급한 사례는 없으며, 87.6%의 학생들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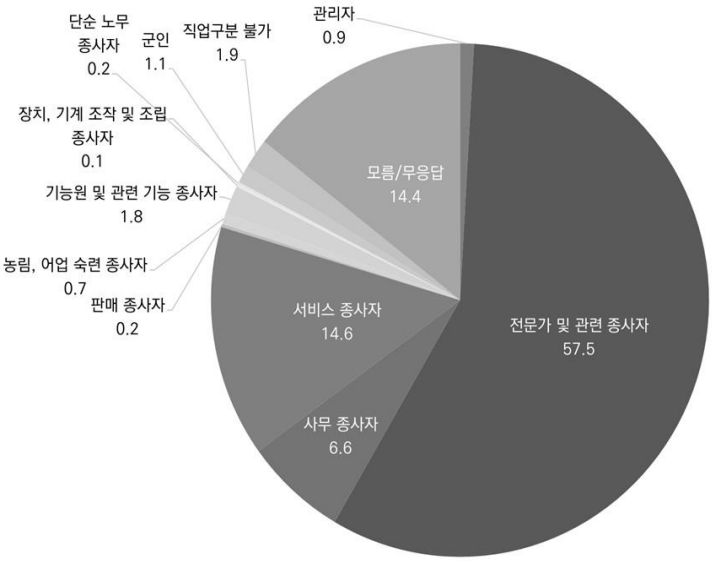
'진로결정성'은 다문화청소년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에 관한 10개 문항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역코딩)",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역코딩)",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역코딩)",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역코딩)",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역코딩)",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역코딩)"이고, 이 중 6개의 변수는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역코딩 하였다. 각 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희망직업'은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을 참고한다. 한국표준직업 대분류는 직업을 크게 10가지 직종으로 구분하는데 구체적인 항목들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을 포함한다. 대분류

는 다시 중분류로 나누어 52가지 세부직종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1을 전문가 및 관리자로, 0을 기타 직업으로 재구성하였다. 한국표준직업 대분류에 따른 희망직업분포는 [그림 V-41]에 제시하였다.

'학업 및 거주 희망 국가'는 4개 세부변수로 측정하여 이를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외국인 부모의 나라를 구분해, 다문화청소년이 어느 국가에서 학업이나 거주를 희망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한국 거주희망'은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타국 거주희망'은 "나는 앞으로 모국(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한국 학업희망'은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마지막으로 '타국 학업희망'은 "나는 모국(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라는 항목을 활용했고, 각 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이나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학업 후 일하고 싶은 나라'는 3차년도(초6)와 4차년도(중1) 응답을 토대로 초-중 전환기에 진로 설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포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각 연도마다 학교를 마친 후 일하고 싶은 나라에 "한국"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기타 "본국(외국인 부모님 나라)", "제3국", 또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각각 코딩한 뒤, 3차년도에서 4차년도의 응답 변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응답과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응답이 모두 한국인 경우, 모두 타국인 경우, 한국에서 타국으로 또는 타국에서 한국으로 응답을 수정한 경우의 사례들은 각각, 다문화청소년이 진로 설계에서 초점이 되는 국가(focal country)가 어디인지, 또 진로설계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2022년, 4차년도)

그림 Ⅴ-41. 희망직업 분포[16](%)

②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2021년 3차년도 응답에서 '정체성', '다문화 가구 유형', '한국 사회 다문화 수용성 인식' 등 세 개 측정도구를 활용한다.

'정체성'은 국적 관련 소속감에 대한 인식으로, 스스로를 '한국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reference)와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 즉 '본국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의 배경을 모두 고려하는 '이중 국적 정체성',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로 구분된다.

'다문화 가구 유형'은 부모 국적과 청소년 자녀의 입국 시점 등에 따라 분류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국내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국내

16) 한국표준직업 대분류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희망직업분포는 관리자 17명(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77명(57.5%), 사무 종사자 123명(6.6%), 서비스 종사자 274명(14.6%), 판매 종사자 3명(0.2%),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3명(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3명(1.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명(0.1%), 단순 노무 종사자 3명(0.2%), 군인 21명(1.1%), 직업구분 불가 36명(1.9%), 모름/무응답 270명(14.4%)이다.

출생) '국제결혼가정'으로, 결혼이민자 부/모의 본국에서 태어나 중도에 한국으로 오게 되거나, 혹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 전 본국에서 낳아서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온 경우를 '중도입국가정'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외국인가정'으로 분류한다.

'한국 사회 다문화 수용성 인식'은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 수준에 관한 두 가지 설문문항을 활용해 평균점수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와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을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역코딩)"는 두 개 항목이며,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두 개 항목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 변수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각종 사회적 관계와 역량, 차별 경험, 학업성적 등을 포괄한다.

우선, 부모와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지지'는 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기대에 관한 6개 세부 문항을 평균점수로 구성하였는데, 각 항목은 "부모님(보호자)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물건, 장소 등)을 잘 제공해 주신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있어 교육적 기대가 높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방임'은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관심을 쏟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경우를 학생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다음의 7개 문항을 포함한다. "부모님(보호자)은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칭찬을 하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역코딩)", "부모님(보호자)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역코딩)" 등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하기 위해, 이 중 두 개 문항을 역코딩했다. 각 항목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어머니 교육수준', '성별' 등의 정보를 활용했다. 우선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실수령액(만원)으로 측정한 수치에 자연로그를 취해 변수를 구성했다. 본 연구가 분석한 자료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변수로 활용하였고, 구체적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1), '고등학교 졸업'(=2), '대학(2~3년제) 졸업'(=3),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4),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실제 분석한 4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는 1,555명(83.1%)에 달하는 한편,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가 44명(2.4%) 뿐이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사례는 273명(14.6%)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은 0, 여학생은 1로 코딩했으며, 여학생이 51.4%로 아주 조금 많은 수준이다.

부모 이외의 사회적 관계 및 역량에 관한 요인들로 '친구 관계'와 '교사 관계', '사회적 역량', '차별경험'을 살펴본다. 우선 '친구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관한 3개 문항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항목들은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이고,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 관계'는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는 3개 문항을 활용했고, 친구 관계와 같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Ⅴ-64. 기술통계량(continuous variables)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교육포부	W3	3.88	0.57	1	5
	W4	3.94	0.48	2	5
진로결정성	-	2.59	0.57	1	4
한국거주희망	W3	3.37	0.65	1	4
	W4	3.33	0.63	1	4
타국거주희망	W3	2.19	0.77	1	4
	W4	2.15	0.74	1	4
한국학업희망	W3	3.23	0.71	1	4
	W4	3.24	0.66	1	4
타국학업희망	W3	2.07	0.75	1	4
	W4	2.04	0.72	1	4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인식	-	3.58	0.72	1	5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	5.67	0.49	0	7.1
어머니 교육수준	-	2.12	1.05	1	5
부모지지	-	3.24	0.50	1	4
부모방임	-	1.68	0.49	1	3.4
친구관계	-	3.86	0.68	1	5
교사관계	-	3.83	0.73	1	5
주관적 성적수준	-	3.41	0.80	1	5
사회적 역량	-	3.21	0.59	1	4

'사회적 역량'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는 세 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점수로 구성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다만 해당 문항은 1차년도(2019년,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만 측정되었기에 이를 결과 분석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차별 경험'은 다문화청소년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경험한 차별 유무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성적수준'은 학생의 스스로 학교성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매우 못한다'(=1), '못하는 편이다'(=2), '보통이다'(=3), '잘하는 편이다'(=4), '매우 잘한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한 정보를 활용했다.

표 Ⅴ-65. 기술통계량(categorical variables)

변수		N	%
희망직업	기타 (ref)	778	41.6
	관리자/전문가	1,094	58.4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 (W3 〉 W4)	모두 한국(ref)	1,211	64.7
	한국 〉 타국	191	10.2
	타국 〉 한국	250	13.4
	모두 타국	220	11.8
정체성(W3)	한국사람(ref)	1,296	69.2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113	6.0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424	22.6
	잘 모르겠다 & 기타	39	2.1
정체성(W4)	한국사람(ref)	1,362	72.8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101	5.4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376	20.1
	잘 모르겠다 & 기타	33	1.8
다문화 가구유형	국제결혼가정(ref)	1,460	78.0
	중도입국가정	145	7.7
	외국인가정	267	14.3
차별경험	없다(ref)	1,845	98.6
	있다	27	1.4
성별	남학생(ref)	909	48.6
	여학생	963	51.4

(3) 분석방법

다문화청소년 정체성 및 한국사회와의 연결 패턴이 다양한 진로발달 변수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살피기 위해 회귀분석(선형, 로짓, 다항로짓)을 수행하였다. 모든 모형에 기초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역량과 주관적 성적수준을 포함한 뒤, 주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R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에서 활용한 모든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연속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구분해 〈표 V-64〉와 〈표 V-65〉에 각각 제시하였다. 편의상 4점 또는 5점 척도로 측정된 서열변수들도 연속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5) 분석 결과

(1) 다문화청소년 가구유형 및 정체성

① 다문화 가구유형에 따른 특성

다문화 가구 유형에 따른 분포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출신이 1,460명으로 약 78%, '외국인가정' 출신 267명(14.3%), '중도입국가정' 출신이 145명(7.7%)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다룬 〈표 V-63〉의 2022년 교육부 통계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가정과 중도입국가정 출신이 조금 더 많이 표집된 한편, 외국인가정이 덜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표 V-66〉은 이들 다문화 가구유형별 가정배경, 사회적관계 및 역량에 따른 학생 특성을 비교 제시한다. 가장 숫자가 많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출신 학생들의 가정배경은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어머니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다른 사회적 관계 및 주관적 성적수준 등은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외국인가정 출신 학생들이 다른 가구유형의 학생들과 비교해 부모의 지지를 좀 더 강하게 인식하고,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내는 능력이 높았다.

표 V-66. 다문화 가구유형별 기술통계량: 가정배경, 사회적관계 및 역량

변수	가구유형	N	평균	표준편차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국제결혼가정**	**1,460**	**5.64**	0.48
	중도입국가정	145	5.77	0.49
	외국인가정	267	5.74	0.56
어머니 교육수준	**국제결혼가정**	**1,460**	**2.01**	0.99
	중도입국가정	145	2.63	1.12
	외국인가정	267	2.44	1.16
부모지지	국제결혼가정	1,460	3.22	0.50
	중도입국가정	145	3.26	0.51
	외국인가정	**267**	**3.34**	0.50
부모방임	국제결혼가정	1,460	1.69	0.49
	중도입국가정	145	1.68	0.51
	외국인가정	267	1.65	0.49
친구관계	국제결혼가정	1,460	3.86	0.67
	중도입국가정	145	3.87	0.65
	외국인가정	267	3.85	0.73
교사관계	국제결혼가정	1,460	3.82	0.72
	중도입국가정	145	3.91	0.76
	외국인가정	267	3.85	0.75
주관적 성적수준	국제결혼가정	1,460	3.42	0.79
	중도입국가정	145	3.43	0.81
	외국인가정	267	3.37	0.86
사회적 역량	국제결혼가정	1,460	3.20	0.58
	중도입국가정	145	3.19	0.64
	외국인가정	**267**	**3.28**	0.62

다음으로, 〈표 V-67〉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가구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출신 국적 분포를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표 V-63〉의 2022년 교육부 통계와 비교해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확인한 한편, 베트남 출신이 다소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태국/기타 출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7. 다문화 가구유형별 어머니의 출신 국적 분포

(단위: %)

	한국	중국	중국 (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국제결혼가정	1.9	17.5	9.9	41.5	10.2	6.6	2.3	10.3
중도입국가정	4.1	21.4	11.7	15.9	17.2	9.0	4.1	16.6
외국인가정	0.0	16.5	43.8	5.6	1.5	0.0	0.4	32.2
총합	**1.8**	**17.6**	**14.9**	**34.4**	**9.5**	**5.8**	**2.1**	**13.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2021년, 3차년도)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적을 보면 베트남(41.5%), 중국(17.5%), 기타(10.3%), 필리핀(10.2%), 중국(한국계)(9.9%), 일본(6.6%), 태국(2.3%), 한국(1.9%)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적은 중국(21.4%), 필리핀(17.2%), 기타(16.6%), 베트남(15.9%), 중국(한국계)(11.7%), 일본(9.0%), 태국(4.1%), 한국(4.1%) 순이다. 끝으로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적은 중국(한국계)(43.8%), 기타(32.2%), 중국(16.5%), 베트남(5.6%), 필리핀(1.5%), 태국(0.4%)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트남 출신은 국제결혼가정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중국 또는 필리핀 출신 어머니는 중도입국가정에서 가장 많았다. 외국인가정은 대다수가 중국동포이거나(43.8%) 기타 국가 출신(32.2%)이다. 이처럼 다문화 가구유형별 대표적인 출신 국가 분포가 다르기에, 이들 가정에서 자라나는 다문화청소년들은 다양한 인종, 종족,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정체성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스스로를 '한국사람'으로 정체화하는 경우는 1,296명, 약 69%에 달한다. 본국이나 외국인 부모의 나라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는 경우도 113명(6%) 정도 있었고, 한국과 본국 또는 외국인 부모의 나라를 모두 고려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은 424명으로 약 23%이다.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례도 2%가량 존재한다.

〈표 V-68〉은 다문화청소년 정체성에 따른 성별 및 가구배경 특성을 제시한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정체성 유형별로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배경에 따라서

는 다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스스로를 본국이나 외국인 부모의 나라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이중국적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은 가구소득과 어머니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인 정체성을 지닌 학생들과 비교해 타국 혹은 이중국적 정체성을 지닌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소 유리하다는 점이다.

표 V-68. 다문화청소년 정체성에 따른 기술통계량: 성별 및 가구배경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한국사람	1,296	0.48	0.50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113	0.48	0.50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424	0.50	0.50
	잘 모르겠다 & 기타	39	0.49	0.51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한국사람	1,296	5.65	0.48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113	**5.71**	0.65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424	**5.70**	0.48
	잘 모르겠다 & 기타	39	5.65	0.58
어머니 교육수준	한국사람	1,296	1.97	0.95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113	**2.53**	1.27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424	2.44	1.14
	잘 모르겠다 & 기타	39	2.44	1.05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구 유형별 청소년 정체성 분포는 〈표 V-6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상대로, 국제결혼가정 출신은 국내출생인만큼 스스로를 '한국사람'으로 정체화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았고(약 80%), 중도입국가정 출신들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52%로 떨어졌다. 흔한 예상과 달리,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학생들 중에서도 약 20%가 이중국적 정체성을 갖는다거나, 외국인가정 학생들 중 28%가 한국사람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초-중 전환기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인종이나 종족, 문화적 뿌리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현재 살아가는 한국 사회로부터 구성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중도입국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본국 정체성보다도 이중국적 정체성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표 V-69. 다문화 가구유형별 청소년 정체성 분포

			정체성				총합
			한국사람	본국/외국인 부모 나라 사람	한국 + 본국/ 외국인부모 나라 사람	잘 모르겠다 & 기타	
가구 유형	국제결혼 가정	N	1,147	16	275	22	1,460
		%	78.6	1.1	18.8	1.5	78.0
	중도입국 가정	N	75	10	55	5	145
		%	51.7	6.9	37.9	3.4	7.7
	외국인 가정	N	74	87	94	12	267
		%	27.7	32.6	35.2	4.5	14.3
총합		N	1,296	113	424	39	1,872
		%	69.2	6.0	22.6	2.1	100.0

(2) 회귀분석 결과

진로발달 관련 일곱 개의 종속변수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발견들을 보여준다. 우선 〈표 V-70〉은 교육 포부와 진로 결정성 그리고 희망 직업(이항변수)을 종속변수로 하여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한국사람의 정체성(기준범주)보다도 본국이나 외국인부모 나라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우에 진로결정성이 높다거나 (b=0.128, p<.05), 이중국적 정체성이 관리자 및 전문가를 더 많이 희망한다는 점 (b=0.062, p<.05) 등이 눈에 띈다. 앞서, 타국 또는 이중국적 정체성을 가진 다문화청소년들의 가구소득과 어머니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표 V-68〉 참조), 해당 가정배경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정체성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온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세 개의 종속변수에 대해 정체성 범주들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포부가 낮은 것도(b=-0.036, p<.05) 추가적인 인터뷰와 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 지점으로 남는다. 선행연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 온 '진로결정성' 변수에 대해서는 정체성과 주관적 성적수준(b=0.049, p<.01), 부모의 지지수준 인식(b=0.089, p<.01)을 제외하고 기타 설명변인들이 유효하지 않았다.

표 V-70. 교육포부, 진로결정성, 희망직업에 대한 (선형 및 로짓) 회귀분석

변수	교육포부	진로결정성	희망직업(Logit)	
	b(SE)	b(SE)	b(SE)	(OR)
정체성				
(ref= 한국사람)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0.039	**0.128***	0.047	1.048
	(0.054)	(0.064)	(0.055)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0.038	−0.003	**0.062***	1.064
	(0.028)	(0.033)	(0.029)	
잘 모르겠다 & 기타	−0.029	0.145	0.103	1.109
	(0.078)	(0.092)	(0.080)	
다문화 가구유형				
(ref=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0.079	0.026	0.085	1.089
	(0.042)	(0.050)	(0.044)	
외국인가정	**0.085***	−0.017	0.073	1.075
	(0.037)	(0.044)	(0.038)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인식	**−0.036***	0.002	−0.009	0.991
	(0.016)	(0.019)	(0.017)	
차별경험	0.001	−0.183	0.014	1.015
	(0.093)	(0.110)	(0.096)	
사회적 역량	0.012	0.0002	0.027	1.028
	(0.020)	(0.024)	(0.020)	
성별	0.029	−0.033	0.058*	1.059
	(0.022)	(0.026)	(0.023)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0.026	0.018	0.021	1.021
	(0.022)	(0.027)	(0.023)	
어머니 교육수준	**0.022***	0.011	**0.036****	1.037
	(0.011)	(0.013)	(0.011)	
부모방임	0.015	−0.026	−0.026	0.974
	(0.027)	(0.032)	(0.028)	
부모지지	0.052	0.089**	0.035	1.035
	(0.028)	(0.033)	(0.029)	
교사관계	0.019	−0.007	0.004	1.004
	(0.019)	(0.022)	(0.019)	
친구관계	0.029	0.007	−0.011	0.989
	(0.020)	(0.023)	(0.020)	

변수	교육포부	진로결정성	희망직업(Logit)	
	b(SE)	b(SE)	b(SE)	(OR)
주관적 성적수준	**0.064*** **	**0.049** **	**0.034***	1.035
	(0.015)	(0.018)	(0.016)	
Constant	3.211***	2.047***	0.110	1.117
	(0.189)	(0.224)	(0.194)	
Observations	1,872	1,872	1,872	
R2	0.041	0.026		
Log Likelihood			-1,298.033	

*p<.05, **p<.01, ***p<.001
*주: OR은 Odds Ratio를 의미한다.

〈표 V-71〉은 한국 및 타국 거주희망과 학업희망 수준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에 거주를 희망하는지 또는 타국에 거주하길 희망하는지는 언뜻 반대의 의미로 쓰이기는 하나, 각 응답이 온전히 대비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분석을 수행하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

'정체성'은 어디에서 거주하거나 학업하길 희망하는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본인을 한국사람으로 정체화하지 않을 때, 즉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사람이라고 여기거나(b=-0.314, p<.001), 이중국적 정체성을 갖거나(b=-0.155, p<.001),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b=-0.359, p<.001) 한국에서 거주를 희망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에서 학업을 희망하는 수준 역시 낮았다(각각 b=-0.310, p<.001; b=-0.091 p<.05; b=-0.359, p<.001). 비슷하게, 한국사람 정체성을 갖지 않는 다문화청소년들은 타국에서 거주나 학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체성에 대한 감각은 그 자체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어디에서의 삶을 꿈꾸는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가 포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학생들은 한국에서 머무르고(b=0.099, p<.001), 한국에서의 학업을 더 원하는 한편(b=0.110, p<.001), 타국에서 거주하거나(b=-0.057, p<.05) 학업을 희망하지 않는다(b=-0.063, p<.05)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가 포용적이라는 인식은 개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포용성 인식이 진로와 교육, 삶의 계획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한다.

통제변수 중, 성별과 사회적 역량도 한국 혹은 타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수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다문화청소년들 중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비교해, 한국에서의 거주를 덜 희망하면서(b=-0.075, p<.05), 타국에서 머무르길 원하는 경향이 높게(b=0.086, p<.05)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성별 추가 분석 및 탐색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협력하는 능력인 사회적 역량이 높을수록, 한국에서 거주하고 학업하길 희망하는 수준이 높았다(각각 b=0.063, p<.05; b=0.082, p<.01).

표 V-71. 한국 및 타국 거주희망과 학업희망 수준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변수	한국거주희망 b(SE)	타국거주희망 b(SE)	한국학업희망 b(SE)	타국학업희망 b(SE)
정체성 (ref= 한국사람)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0.314*** (0.070)**	**0.257** (0.083)**	**-0.310*** (0.073)**	**0.258** (0.081)**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0.155*** (0.037)**	**0.177*** (0.043)**	**-0.091* (0.038)**	**0.138** (0.042)**
잘 모르겠다 & 기타	**-0.359*** (0.102)**	**0.196 (0.120)**	**-0.359*** (0.107)**	**0.277* (0.118)**
다문화 가구유형 (ref=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0.026 (0.055)	0.038 (0.065)	0.012 (0.058)	0.039 (0.064)
외국인가정	0.043 (0.048)	**-0.128* (0.057)**	**0.129* (0.051)**	-0.038 (0.056)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인식	**0.099*** (0.021)**	**-0.057* (0.025)**	**0.110*** (0.022)**	**-0.063* (0.025)**
차별경험	-0.016 (0.122)	0.008 (0.144)	0.090 (0.127)	0.061 (0.141)
사회적 역량	**0.063* (0.026)**	-0.060 (0.031)	**0.082** (0.027)**	-0.032 (0.030)
성별	**-0.075* (0.029)**	**0.086* (0.034)**	-0.007 (0.030)	0.013 (0.034)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0.036 (0.029)	-0.005 (0.035)	-0.048 (0.031)	-0.007 (0.034)
어머니 교육수준	-0.002 (0.014)	-0.003 (0.017)	-0.012 (0.015)	0.001 (0.017)

변수	한국거주희망 b(SE)	타국거주희망 b(SE)	한국학업희망 b(SE)	타국학업희망 b(SE)
부모방임	−0.054 (0.036)	0.027 (0.042)	−0.004 (0.037)	−0.027 (0.041)
부모지지	0.017 (0.037)	0.084 (0.043)	0.090* (0.038)	0.066 (0.042)
교사관계	−0.024 (0.024)	0.072* (0.029)	−0.011 (0.025)	0.025 (0.028)
친구관계	0.055* (0.026)	0.047 (0.030)	0.018 (0.027)	0.057 (0.030)
주관적 성적수준	0.004 (0.020)	−0.020 (0.024)	0.012 (0.021)	−0.039 (0.023)
Constant	2.978*** (0.247)	1.787*** (0.292)	2.559*** (0.258)	1.997*** (0.285)
Observations	1,872	1,872	1,872	1,872
R2	0.057	0.031	0.050	0.024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표 V-72〉는 학업 후에 일하고 싶은 국가가 어디인지에 관한 응답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점(3차년도)에서 중학교 1학년 시점(4차년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패턴을 유형화한 뒤, 이를 종속변수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초-중 전환기의 응답이 '모두 한국'인 경우는 1,211명으로 전체의 약 65%였고, '모두 타국인 경우는 220명, 약 12%였다. 응답이 '한국에서 타국'으로 변화한 경우는 191명, 약 10%이고, '타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한 사례가 250명,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해당 변수는 23%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초-중 전환기를 맞아 학업 후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전반적으로 35%의 학생들이 타국에서의 삶을 그렸거나, 그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미래) 한국에 닻을 내리고(anchoring)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미래설계 패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지속적으로 응답한 경우와 나머지 세 개 범주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표 V-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을 한국사람으로 여기는 경우와 비교해 스스로를 본국이나 외국인부모 나라 출신으로 생각하거나 이중국적 정체성을 가진 경우에,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에 대한 인식이 한국이기보다 모두 타국, 또는 유동적인('한국에서 타국'으로,

또는 '타국에서 한국'으로 전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구 유형도 한국 대비 타국의 삶을 꿈꾸는 것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출신 학생들과 비교해, 중도입국가정의 학생들은 모두 한국이라고 응답하기보다는 모두 타국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성이 높았다(b=0.659, p<.01). 다만, 외국인가정 출신 학생들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출신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이 높았는데(b=-0.668, p<.01),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가정 출신 학생들의 초-중 전환기 경험이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보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인지, 혹은 이들이 한국 사회와 연결되려는 열망이 더 강한 것인지(Johansson & Olofsson, 2011) 질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V-72.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 패턴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

변수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ref= 모두 한국)					
	한국 〉 타국		타국 〉 한국		모두 타국	
	b(SE)	(RRR)	b(SE)	(RRR)	b(SE)	(RRR)
정체성 (ref= 한국사람)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1.301*** (0.361)**	**3.674**	**1.475*** (0.328)**	**4.373**	**2.450*** (0.327)**	**11.590**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0.974*** (0.192)**	**2.648**	**1.054*** (0.171)**	**2.868**	**1.829*** (0.180)**	**6.226**
잘 모르겠다 & 기타	0.873 (0.528)	2.395	0.665 (0.526)	1.945	2.193*** (0.413)	8.958
다문화 가구유형 (ref=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0.324 (0.297)	1.383	0.364 (0.259)	1.438	**0.659** (0.251)**	**1.933**
외국인가정	-0.132 (0.257)	0.876	-0.344 (0.240)	0.709	**-0.668** (0.252)**	**0.513**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인식	0.215 (0.119)	1.240	0.228* (0.106)	1.256	0.055 (0.115)	1.057
차별경험	0.151 (0.595)	1.163	-0.109 (0.596)	0.897	-0.139 (0.576)	0.870

변수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ref= 모두 한국)					
	한국 〉 타국		타국 〉 한국		모두 타국	
	b(SE)	(RRR)	b(SE)	(RRR)	b(SE)	(RRR)
사회적 역량	0.083 (0.144)	1.087	0.110 (0.130)	1.117	−0.052 (0.140)	0.949
성별	0.173 (0.161)	1.189	0.192 (0.145)	1.211	0.412* (0.160)	1.510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0.289 (0.150)	0.749	−0.290* (0.138)	0.748	−0.115 (0.162)	0.891
어머니 교육수준	0.057 (0.079)	1.059	0.160* (0.069)	1.174	0.231** (0.073)	1.260
부모방임	0.558** (0.190)	1.748	0.283 (0.179)	1.327	0.081 (0.204)	1.084
부모지지	0.217 (0.203)	1.243	0.112 (0.185)	1.118	0.244 (0.207)	1.276
교사관계	0.020 (0.134)	1.020	0.053 (0.121)	1.054	0.109 (0.133)	1.115
친구관계	−0.037 (0.142)	0.964	−0.095 (0.127)	0.909	0.049 (0.139)	1.050
주관적 성적수준	0.081 (0.110)	1.084	0.018 (0.099)	1.018	−0.034 (0.106)	0.967
Constant	−3.643** (1.321)	0.026	−2.609* (1.206)	0.074	−4.000** (1.372)	0.018

*p<.05, **p<.01, ***p<.001

* 주: RRR은 Relative Risk Ratio를 의미한다.

6) 요약 및 소결

(1) 연구의 결론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을 문화적응의 규범적 목표로만 제한하지 않고, 한국 사회와 모국 또는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가와의 다양한 연결성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다루되, 청소년 진로의 개념 또한 확장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과 장벽뿐만 아니라 교육 포부, 삶의 목표,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까지 폭넓게 고려했다. 그 결과 다음의 발견들을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이 다양하게 형성되며 특히 초-중 전환기에 유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을 한국사람으로 정체화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스스로를 본국이나 외국인 부모의 나라 사람으로 여기거나 이중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렇듯 다양한 정체성은 다문화청소년들의 개별적인 경험과 가족 배경, 사회적 경험 등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맥락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 정체성과 진로발달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특히, 본인을 한국 사람으로 정체화하지 않거나 이중국적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 진로결정에 있어 다소 유연하며, 다른 나라에서의 학업이나 일자리를 더 많이 고려하는 등 타국에서의 삶을 더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본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사실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어디에서의 삶을 계획하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진로 옵션을 고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 사회의 포용성 인식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긍정적이고, 포용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은 보다 한국에서 머무르고 학업을 이어나갈 의지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배제, 혐오가 증가하는 시대에 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학생들의 적응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환경과 정책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지점이다. 나아가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다.

(2)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

의미 있는 결과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이라는 주제에 관해 더 나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보완점들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동성을 확인한 만큼, 이들이 어떠한 경로로 정체성과 진로를 발전시켜 나가는지, 다양한 발달 단계의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은 가치관, 미래에 대한 비전, 문화적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정체화할 것이므로, 발달 시기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추가 분석에서)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에 따른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모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한국사회의 규범과의 충돌을 경험하는 강도 등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된다. 보다 넓은 의미의 가족환경과 학교생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한다면,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사회와 연결을 맺어나가는 매커니즘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설문조사 응답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논의점들을 남겼다. 예를 들어, 같은 정체성 유형으로 구분되었더라도 '한국사람'에 대한 이해나 정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할 수 없는 차원이다. 또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들이 그리는 '한국에서의 삶'과 '타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동기에서, 왜 서로 다른 꿈을 그리는지 등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탐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와 꿈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볼 때, 다문화청소년들의 그것이 한국인 부모를 둔 청소년들과 어떤 비슷한 점 혹은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모의 출신국가나 문화적 배경, 사회적 지지와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이 청소년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와의 연결성과 진로발달의 개념을 탐구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다문화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 거주하면서도 국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로와 꿈을 설정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고유한 경험을 조명하였는데, 이는 규범적인 문화적응을 강조했던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이다. 어떤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한국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꿈꾸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타국사람 또는 이중국적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여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청소년들은 누구이며 어떤 이유에서일까?

후속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진로발달에 관한 학문적인 이해를 더하는 한편, 교육 현장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진로교육의 방향성이 보다 뚜렷하고 촘촘하게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표 V-7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구 분	주요 결과	시사점
정체성의 유형	• 다문화청소년 중 스스로를 '한국사람'으로 정체화하는 청소년(69%)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이중정체성을 가진 청소년(23%), 자신을 본국이나 외국인 부모의 나라 사람으로 여기는 청소년(6%),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2%)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비율이 높으나, 이중정체성을 가졌거나, 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보인 사례도 있어 진로지도를 함에 있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함.
분석결과 및 함의	•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은 초-중 전환기에 유연하게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 간의 연관성이 존재함. 이중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은 진로 결정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타국에서의 삶(학업, 일자리)을 원하는 경향이 강함. • 한국 사회의 포용성 인식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됨.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인식하는 청소년은 한국에서 머무르고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짐.	• 개별적 경험과 가족 배경 그리고 사회적 경험에 의해 형성됨. • 이들이 다양한 진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다문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제6장 심층면접(IDI):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

1. 조사개요
2. 분석결과
3. 소결

6 심층면접(IDI):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17]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연구의 면접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이 초-중 전환기에 겪는 변화와 그에 따른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 전환기를 경험한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에 있어 이주배경 유형과 거주지역의 외국인주민 밀집 정도를 고려하였다. 먼저, 이주배경 유형은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3가지 유형의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은 언어 및 학습능력, 정서적·심리적 특성, 교우관계 등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류방란, 오성배, 2012; 박윤경, 이소연, 2009; 오성배, 2009). 해당 요인들은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정체성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유형의 다문화청소년이 전환기에 발생하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청소년을 '다문화 자녀'로 뭉뚱그리는 고정관념(양계민, 2016: 9)에서 벗어나 각 유형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주배경 유형을

17) 6장은 홍명기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고려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다문화청소년 및 어머니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의 외국인주민 밀집 정도는 외국인 밀집지역과 비밀집지역으로 구분하였다.[18] 이와 같은 분류는 지역사회의 특성이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에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백은숙 외, 2013), 도시규모별(오성배, 박희훈, 2018; 장은지, 2021) 등의 속성을 통해 지역을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에 속해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특성 혹은 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이러한 속성들 중 외국인주민의 밀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인 거주지역과 분리된 외국인 밀집지역은 동질적인 배경을 가진 구성원 간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려는 특성을 갖는다(이창호, 2013: 5).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주지 분리는 상호 간 접촉과 교류를 감소시켜 서로를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영호, 2021: 104). 물론,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다문화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김송렬과 장안서(2021)에 따르면, 중도입국 유형의 다문화청소년에게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은 문화적 차별과 언어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외국인주민의 밀집정도에 따른 지역적 속성은 사회생태학적 측면에서 개인의 행동과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송영호, 2021: 10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과 비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모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조사는 이주배경 유형과 외국인주민 밀집정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유형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운영 중인 패널 중 각 유형의 조건에 부합하는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 대상자로 섭외하였다. 처음에는 각 유형별로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각각 2명씩 총 24명을 섭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나, 한국어 능력 등의 이유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청소년 2명, 조사를 거부한 청소년 1명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각각 3명씩

18) 행정안전부(2012.04.30)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이 10%이상 또는 300명 이상 지역과 같이 정량적인 수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김지선, 라광현, 장현석, 박현호, 이민정책연구원(2019)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외국인 주민수가 5천 명 이상인 읍·면·동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외국인 밀집지역과 비밀집지역을 구분한 김지선 외(2019)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총 6명을 추가적으로 섭외하여 보완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8명이었으며, 각 유형별 조사가 완료된 대상자의 수는 〈표 Ⅵ-1〉과 같다.

표 Ⅵ-1. 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구분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비밀집지역	합계
국제결혼	• 다문화청소년 2명 • 어머니 2명	• 다문화청소년 3명 • 어머니 3명	10
중도입국	• 다문화청소년 2명 • 어머니 2명	• 다문화청소년 2명 • 어머니 2명	8
외국인가정	• 다문화청소년 2명 • 어머니 2명	• 다문화청소년 3명 • 어머니 3명	10
합계	12	16	28

구체적으로,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Ⅵ-2〉와 같다. 이주배경 유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5명, 중도입국가정 4명, 외국인가정 5명 총 1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외국인 밀집정도에 따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6명, 비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8명이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7명, 여성 청소년은 7명으로 동일하였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경인이 9명, 충청권이 2명, 전라권이 2명, 경상권이 1명으로 서울·경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중국이 2명(한족 1명, 조선족 1명), 일본 2명, 베트남 2명, 필리핀 2명, 캄보디아 1명, 몽골 2명, 우즈베키스탄 3명이었다. 연령의 경우 본 조사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이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만 14세였으며, 일부 청소년이 만 13세 혹은 만 1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시기의 경우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2010년 이전부터 2015년~2020년 사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 심층면접 참여 다문화청소년

ID	성별	다문화 배경	거주 지역	지역 특성	어머니 출신국	연령	입국시기[b]
S국1	여	국제 결혼	광주광역시	밀집	중국(조선족)	14세	-
S국2	남		전라남도	비밀집	일본	14세	-
S국3	여		경기도	밀집	베트남	14세	-
S국4[a]	남		경기도	비밀집	필리핀	14세	-
S국5	여		서울특별시	비밀집	베트남	14세	-
S중1	여	중도 입국	서울특별시	밀집	캄보디아	14세	'10년~'14년
S중2	여		서울특별시	비밀집	일본	14세	'10년 이전
S중3	남		부산광역시	비밀집	필리핀	14세	'15년~'20년
S중4	남		서울특별시	밀집	중국(한족)	14세	'15년~'20년
S외1	남	외국인 가정	대전광역시	비밀집	몽골	14세	'15년~'20년
S외2[a]	남		충청남도	밀집	우즈베키스탄	13세	'10년~'14년
S외3	여		경기도	밀집	우즈베키스탄	14세	'15년~'20년
S외4	남		경기도	비밀집	몽골	14세	'15년~'20년
S외5	남		서울특별시	밀집	우즈베키스탄	15세	'15년~'20년

* 주: [a] : 한국어 능력 등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심층면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b]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입국시기를 구간으로 제시하였음.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Ⅵ-3〉과 같으며, 이주배경 유형, 외국인 밀집정도에 따른 지역특성, 거주지역,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모두 다문화청소년의 특성과 동일하다. 직업의 경우 14명의 어머니 중 10명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용직(아르바이트), 활동지원사, 판매업, 강사, 번역가, 연구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 30대가 6명, 40대가 5명, 50대가 3명이었다. 입국시기의 경우에는 2009년 이전에 입국한 어머니 6명, 2010년~2014년 사이에 입국한 어머니 3명, 2015년~2020년 사이에 입국한 어머니 5명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표 Ⅵ-3. 2기 패널 면접조사 대상 다문화 어머니

ID	다문화 배경	거주지역	지역 특성	어머니 출신국	직업 여부	연령[a]	입국시기[a]
M국1	국제 결혼	광주광역시	밀집	중국(조선족)	X	40대	'09년 이전
M국2		전라남도	비밀집	일본	O	50대	'09년 이전
M국3		경기도	밀집	베트남	X	30대	'09년 이전
M국4		경기도	비밀집	필리핀	X	40대	'09년 이전
M국5		서울특별시	비밀집	베트남	O	30대	'09년 이전
M중1	중도 입국	서울특별시	밀집	캄보디아	O	40대	'10년~'14년
M중2		서울특별시	비밀집	일본	X	50대	'09년 이전
M중3		부산광역시	비밀집	필리핀	O	40대	'15년~'20년
M중4		서울특별시	밀집	중국(한족)	X	50대	'15년~'20년
M외1	외국인 가정	대전광역시	비밀집	몽골	O	30대	'15년~'20년
M외2		충청남도	밀집	우즈베키스탄	O	30대	'10년~'14년
M외3		경기도	밀집	우즈베키스탄	O	30대	'15년~'20년
M외4		경기도	비밀집	몽골	O	30대	'10년~'14년
M외5		서울특별시	밀집	우즈베키스탄	O	40대	'15년~'20년

* 주: [a]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연령과 입국시기를 구간으로 제시하였음.

3) 조사내용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은 〈표 Ⅵ-4〉와 같다. 먼저, 개인적 상황(특성)에서는 초-중 전환기에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정체성과 그에 영향을 준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 혹은 직업과 같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내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그리고 지역사회생활은 다문화청소년의 활동영역을 구분한 것으로, 각 영역마다 타자와의 관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경험, 그 속에서 발생한 고민 또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 등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가정생활의 조사내용 중 관계에서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과의 유대와 의사소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활동(경험)은 가족이 다문화청소년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가정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국외에서 출생한 청소년들에게는 한국으로 입국한 당시의 동기, 입국과정에서 발생한 부모와의 단절경험, 입국 전후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특성 변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학교생활은 초-중 전환기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관계적 측면에서 교사 및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밖에도 학교생활에서의 성취경험과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지역사회생활은 다문화청소년이 부모와 친구 이외에 누구와 교류하고 가정과 학교가 아닌 또 다른 장소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는 가정과 학교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등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요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초-중 전환기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다문화청소년으로서 받은 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해당 문항들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도 추가하였다.

표 Ⅵ-4. 2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조사내용

영역		주요 내용
개인적 상황(특성)		•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변화 •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와 이유 •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사건, 부끄러웠던 사건 • 미래에 하고 싶은 것, 영향을 준 배경(사람·사건·상황) • [국외출생] 입국에 대한 본인의 생각(동기)
가정생활	관계	• 부모 및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 친밀도, 관심정도, 대화시간, 대화주제, 사용언어 등
	활동(경험)	• 가정에서의 역할, 기대 •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 및 활동 유형 • [국외출생] 입국 전/후의 가정환경, 단절경험
	욕구·자원	• 가정생활에서 어려운 점 혹은 고민 및 해결과정 • 부모님 및 가족에게 바라는 점
학교생활	관계	• 교사와의 관계 • 친구와의 관계

영역		주요 내용
	활동(경험)	• 학교에 대한 만족도 및 초등학교 때와의 차이 • 학교생활 중 가장 즐거울 때/싫을 때 • 학교생활 중 성취경험 및 과정 • 성적에 대한 평가, 공부에 대한 관심(태도) • 자유학기(년)제 경험여부 및 생각
	욕구·자원	•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혹은 고민 및 해결과정 • 학교 및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
지역사회 생활	관계	• 동네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학교 친구들과의 차이 • 동네 이웃과의 관계
	활동(경험)	• 방과 후 (집 이외) 시간을 보내는 장소 및 활동 (청소년센터, 다문화센터, 학원 등) • 동네(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활용하는 언어(의사소통) • 동네 및 이웃에 대한 생각(만족감, 친밀감)
	욕구·자원	• 지역사회생활에서 어려운 점 혹은 고민 및 해결과정 • 동네 및 이웃에게 바라는 점
정책적 요구		•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은 〈표 Ⅵ-5〉와 같다. 조사내용은 크게 전환기 자녀의 생활과 상호작용, 정책적 요구와 같이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전환기 자녀의 생활은 어머니(가족)가 자녀의 생활 전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녀에게 어떤 지원(지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습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는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만족도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해 어떤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이웃)와의 상호작용에서도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만족도, 이웃과의 관계와 이를 통해 얻게 된 정보, 친척을 포함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의 존재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요구는 자녀가 다문화청소년으로서 받은 지원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받게 되었는지, 그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초-중 전환기의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과 함께 다문화 가정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VI-5. 2기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대상 조사내용

영역		주요 내용
전환기 자녀의 생활	가정생활 (양육)	• 자녀와의 의사소통 • [국외출생] 입국 전/후 자녀와의 관계 (단절여부 고려) • 자녀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관계 • 가정 내 자녀의 역할 및 기대 • 중학교 이후 자녀의 변화 • 자녀에 대해 걱정되는 점 혹은 어려운 점
	학교생활 (학업·교육)	• 자녀의 학교 적응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초등학교 때와의 비교 –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친구·교사관계 • 학교생활 중 자녀의 어려움 및 고민 인지 • 자녀의 진로(미래)에 대한 기대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생활	• 방과 후 자녀의 생활에 대한 관심 및 파악정도 • 방학 기간 자녀의 생활에 대한 관심 및 파악정도
상호작용	학교(교사)	• 자녀가 진학한 중학교에 대한 만족도, 선택이유 •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에 간 경험 및 이유 • 교사와의 관계, 초등학교와의 차이 • 학부모 간의 관계, 정보교환
	지역사회 (이웃)	• 지역사회 및 이웃에 대한 만족도·친밀감, 선택이유 • 동네 이웃들과의 관계, 정보교환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의 존재여부 및 관계
정책적 요구		•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가정에 필요한 지원

4)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먼저, 면접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본원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심의를 의뢰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조사설명문, 조사 참여 동의서, 법정대리인 조사 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와 연구자 생명윤리교육이수증 등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심의 결과, 본 조사의 윤리적 타당성과 미성년자와 보호자에 대한 동의서 수집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의 절차적 적합성을 인정받아 2023년 7월 27일자로 최종 승인[19]을 받았다(202305-HR-고유-011).

19) 보완조사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변경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2023년 8월 29일자로 변경 승인을 받았다 (202305-HR-고유-011).

면접조사는 1: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IDI)으로 이루어졌으며, 〈표 Ⅵ-6〉과 같이 1차 조사는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보완조사는 9월 2일에 실시하였다. 전체 28회의 심층면접 중 20회는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8회(청소년 7회, 어머니 1회)는 외부에서 섭외한 진행자가 수행하였다. 청소년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든 청소년은 어머니가 함께 면접장소로 오도록 안내하였고, 실제 면접은 청소년과 어머니를 분리하여 별도의 면접실에서 진행하였다. 면접 시작 전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에게 조사 설명문을 통해 조사의 목적,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조사 내용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법정대리인 연구 참여)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서면 동의와 함께 구두로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심층면접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풀어냈다. 이후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원자료(raw data)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코딩 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1차 코딩 작업을 통해 도출된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찾아 생활영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인터뷰 내용과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교차 검토함으로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생활을 세밀하게 담고자 하였다.

표 Ⅵ-6. 면접조사 일정 및 조사 대상자 수

일시	지역	조사 대상자 유형	조사 대상자 수
2023. 8. 8.	충청권(대전)	• 외국인가정 (밀집, 비밀집)	4명(청소년 2명, 어머니 2명)
2023. 8. 9.	전라권(광주)	• 국제결혼가정 (밀집, 비밀집)	4명(청소년 2명, 어머니 2명)
2023. 8. 16.	서울·경인(서울)	• 국제결혼가정 (밀집, 비밀집)	6명(청소년 3명, 어머니 3명)
2023. 8. 18.	서울·경인(서울)	• 외국인가정 (밀집, 비밀집) • 중도입국가정 (비밀집)	6명(청소년 3명, 어머니 3명)
2023. 8. 19.	경상권(부산)	• 중도입국가정 (비밀집)	2명(청소년 1명, 어머니 1명)
2023. 9. 2.	서울·경인(서울)	• 중도입국가정 (밀집) • 외국인가정 (밀집) • 국제결혼가정 (비밀집)	6명(청소년 3명, 어머니 3명)

2. 분석결과

1) 가정생활

(1) 부모 및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심층면접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은 전반적으로 가족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가족 혹은 집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을 지켜주고 편안한 곳임'(S국2), '같이 있으면 편안하다.'(S중2), '소중한 사람들, 가장 편한'(S중4), '몸도 마음도 제일 편한 존재, 집은 늘 지내던 곳이니까 익숙하고 편안하다.'(S외4), 등과 같이 긍정적인 문장 혹은 단어를 제시하였다. 다만, 가족과 집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었다. 초-중 전환기에는 사춘기로 인한 대화의 단절이 발생하기도 하며, 규칙에 대해 불만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다투는 모습도 나타난다.

사춘기로 인한 대화의 단절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은 사춘기로 인하여 부모와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짜증을 내기도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사례에서 사춘기가 심각한 갈등을 촉발하거나, 큰 다툼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어머니들이 사춘기로 변화한 자녀의 모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 그때는 사춘기가 안 와서 (같이) 가자고 하면 그냥 선선히 (따라왔나요?)
M국1: 지금도 놀러 가자고 하면 좋아(해)요. 엄마랑 하는 것도 좋아(해)요. 아기 사춘기 때 진짜 무서워요.
사회자: 사춘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M국1: 2학년 끝나고 방학 때부터요.
사회자: (사춘기 때는) 두 분 중에 누군가는 옆에 있어 줘야 하나요?
M국1: 네. 사춘기 때(는) 잘 보고 있어야 해요. 아니면 진짜 안 돼요.

사회자: 그런 거 말고도 사춘기라든가..
M국3: 사춘기 왔어요. 작년인가 정도에 왔는데 … 집에서 짜증을 내요. 친구들(과) 놀러 가고 카드 써요. (그런데) 10만 원 정도 썼는데 모자란 거예요. 애들 같이 놀러 가잖아요. 돈도 많이 쓰고, 딱 그 정도 돈 쓰는데 친구에게 돈 빌려서 쓰는 거예요.

가정 내 규칙에 대한 불만과 갈등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가정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존재하며, 주로 취침 및 귀가 시간, 전자기기(핸드폰 등)의 사용 시간에 대한 것이다. 중학생이 된 다문화청소년은 이러한 규칙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어머니와 싸우기도 한다. 다만, S외4의 어머니(M외4)는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기보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로서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자: 어머니가 정하신 규칙인가요?
M국3: 네. 규칙 다 있어요. 집에서 저녁밥 먹기 전에 TV 한 시간 보고, 핸드폰 1시간, 적어 둬요. 10시에 핸드폰 치워야 하는데 … (○○이가) 1시간 더 하게 해주면, 1분 더 하게 해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제가) 까불지 말고 다 치워. … 어저께 싸웠는데 울었어요.

사회자: 어머니가 10시에 자라고 하신다면서요.
S중4: 네. 그게 불만이에요.

사회자: ○○이랑 엄마랑 다툰 적 있어요? ○○이가 말을 안 들었다거나 아니면..
M외4: **가끔씩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는데 10시 넘게 놀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럴 때는 오면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너무 걱정했다고 했는데, (아이가) 한국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 집 청소도 안 해, 그냥 놀아(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두 시간 놀고 오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늦게 다니다 만약에 없어지면 **엄마가 어디 가서 너를 찾아? 좀 늦게 오면 한국은 안전한데**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 거 알면서도 걱정이 되고 그렵니다.

소수의 다문화청소년은 가족 혹은 집에 대해 '그냥 좋은 것들'(S국5), '그래도 가족이니까 소중하고 편안한 곳'(S중1)과 같이 다소 중립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로 대답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은 어머니와 청소년 간의 거리감이 나타나기도 하며, 서로에 대한 인식에 괴리감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어머니의 불안정한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 구성원의 문제 혹은 양육방식의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주여성이 갖는 불안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과 어머니의 괴리감: 가족 구성원의 일탈

S중1의 어머니인 M중1은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간헐적으로 아들(S중1의 오빠, 중학교 3학년)의 일탈로 인한 어려움과 걱정을 호소하였다. 현재 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에 S중1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심 두지 못하는 상태이다.

사회자: 오늘 같이 온 ○○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을 느끼신 게 있을까요?
M중1: 딸은 좀 괜찮아요. 아들이 힘들어요. 딸 둘은 괜찮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안 빠져요. 아들만 학교 잘 안 다니고 가출도 많이 하고, 지금도 집에 안 들어와요. 아들만 잘되면 괜찮아요.

따라서 어머니(M중1)와 청소년(S중1)은 서로에 대한 인식이 사뭇 다르다. M중1은 자녀와 대화도 많이 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S중1은 어머니가 자신의 고민 등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S중1은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이랑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 거죠?
M중1: 네.
사회자: 하루에 어느 정도?
M중1: 가끔 전화하고 집에 일 끝날 때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밥 먹고, 어떤 날은 하루 3~4시간 정도?
사회자: ○○랑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얘기하는 편이세요?
M중1: 오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너도 열심히 해라,

사회자: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어머니랑 하세요?
S중1: 안 해요. (이유는) **엄마가 이야기를 잘 안 들어 주세요.** 엄마가 오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도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려고 하면 말 끊고 가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엄마에게 직접 말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너 말이 맞냐, (말) 하지 마라 하세요.
사회자: 가족이나 부모님이 이런 거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S중1: 이야기를 잘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고민 같은 거요.

청소년과 어머니의 거리감: 이주여성의 우울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육 방식

S국5의 어머니(M국5)는 자녀와 대화가 잘되지 않아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언급하였다. 어머니는 S국5에게 여자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생리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고,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싶으나 자녀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자: 대화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M국5: 많이 줄었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 말 안 해 줘요. … 여자애라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고 하여튼 연애까지 다 얘기하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요.
사회자: 미래에 대한 얘기도?
M국5: 네. 어려우면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 주면 안 돼? 엄마가 들어 주고 도와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안 되면 아빠 기다렸다 도와주든지, 어차피 엄마는 도와주지 못하니까 왜 얘기해야 하냐고 그래요.
사회자: 중학생이 된 아이와 갈등이라고 하면, 아까 얼핏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화가 없어서 속이 상하신다고?
M국5: 좀 우울해요. 엄마랑 대화가 잘 안되니까, 여자애라서 생리 같은 거, 지금 시작하는데 배 아프거나 그런 거 엄마에게 얘기하면 좋겠다. … 그런데 얘기도 안 하고 참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울하고요.

이와 같은 어머니와 청소년의 거리감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과거 어머니는 이주 이후 우울로 인한 스트레스와 양육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기도 하였으며, 현재도 자녀가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윽박지르기도 한다.

사회자: 예전에 크게 혼내신 적이 있으세요?
M국5: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 세게 때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애 키우는 게 다(르)잖아요.** … 둘째는 덜 그랬는데 **큰애는 그때 저 때문에 많이 힘들고,** … 애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사회자: 어머니께서 한국에 오신 이후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셨군요?
M국5: 네. 여기 와서 **친구도 없고 가족 하나도 없고 혼자잖아요.** 오자마자 **한국말도 모르고** 바로 임신하고 애 낳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니까, 음식도 못 먹고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사회자: 왜 10시에 자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M국5: 10시에 자야 키도 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안 피곤하고 공부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집 애들은 12시, 1시에 자는데 왜 우리 집은 10시에 자, (라고 하면 저는) 너 안 자도 돼, (대신) **학교에서 너 잔다고 문자 오면 맞는다**(고 하면 아이가) 알았어요. (라고 대답해요)

(2) 가정 내 활동

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요하지 않는 부모,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청소년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 대부분은 자녀에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규칙적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들은 가끔 자녀에게 설거지와 같은 집안일을 시키지만 이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물론,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도 있으나, 자녀에게 부담이 될 정도의 일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한다.

사회자: 집에서 자녀에게 시키는 것이 있으신가요?
M국2: 설거지나 빨래, 그 정도요. 그때그때라서 매일 이거라는 거는 없고요.

M중1: 아~ 제가 항상 걔들 초등학생 때부터 일 해야 용돈을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그래서 방학이나 그럴 때 이거 하면 용돈 준다는 식으로 청소 1,500원 이렇게 해 왔고요.

M외4: 제가 생각하기에는 …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힘들게 그런 거는 없어서 그냥 공부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대부분도 가정 내에서의 역할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모습을 보인다. 청소년에게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하는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청소

년들은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부모님에 의해 설거지 혹은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회자: 집에서 해야 하는 일(역할)이 있나요?
S국1: 집안일 시키면 하고 빨래 개거나 널거나 가끔 하고요.

S국5: 딱히는 없는데 가끔 일찍 오면 엄마, 아빠에게 요리를 해 주는데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있거나.

S외5: 엄마 심부름 잘 듣고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S국3은 다른 청소년들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돕고 있으며, 힘들기도 하다고 언급하였다. 어머니가 집안일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허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5명의 동생을 챙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머니(M국3)에 의하면, S국3은 둘째 동생(초등학교 6학년)과 함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한다고 한다. 어머니는 이러한 자녀들의 도움에 많이 의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집안일로 인해 늦은 시간에 공부하는 S국3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사회자: 동생이 많으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힘들까요?
S국3: 동생이 많으면 안 심심하고 같이 노는 게 좋아요. 힘든 거는 엄마, 아빠 바쁠 때 제가 동생을 봐 줘야 하니까요.

사회자: 그러면 어머니도 ○○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시겠어요.
M국3: 네. 첫째랑 둘째요.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어머니와 청소년의 괴리

S중1과 어머니(M중1)는 가정 내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심층면접에서 M중1이 자녀에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을 부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M중1은 '착한' 자녀가 집에 있으면서 음식도 만들고, 집 청소도 잘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어머니에 의하면, 자녀는 '자기가 다 한다.'고 말하며, 어머니가 일 때문에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M중1: 아이들은 착해요. 방학동안 집에 있고 음식도 만들고 집 청소하고 잘해요. 저는 만날 일 나가요. 주말도 일 나가요. 주말에 외국인들 장사 때문에, 주말은 외국인들 많아서 못 쉬어요.
사회자: 엄마 힘든 거 ○○가 잘 알고 있어요?
M중1: 네.
사회자: 집에서도 어머니 엄청 많이 도와 드리겠어요.
M중1: 네.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래요. 동사무소에 선물 있으면 저 못 가면 자기가 가서 챙기고 자기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요.

그러나 S중1은 오빠의 일탈로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집안일의 경우 조금만 못하면 어머니가 화를 낸다고 한다. 실제로 S중1과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집 청소와 빨래와 같은 집안일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종종 나타난다. 무엇보다 자녀는 집안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S중1은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집 청소를 다 해야 해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지 않고 6시까지 집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사회자: 가족이 나에게 어떤 거를 기대한다고 생각하세요?
S중1: 엄마는 오빠가 만날 사고치고 다니니까 **기댈 사람이 저랑 동생밖에 없는데 의지를 많이 해서 집안일**을 저랑 동생이 하고 그런 거 때문에, **조금만 못하면 화내시고.. 화풀이를 저에게 많이 하세요.**
사회자: 방학 때도 그렇고 집 청소는 매일?
S중1: 네. 학교 끝나면 6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요. **엄마 들어오기 전에 집 청소를 다 해 놔야 돼서요.**

② 개인 및 가족 활동

집에서 하는 개인적인 활동: 게임, 취미생활, 공부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게임 혹은 취미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며, 학업을 위하여 스스로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들은 8-10시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통은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거나,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등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잠에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하교 후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교과서와 문제집을 푸는 등의 학습활동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회자: 집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세요?
S국1: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핸드폰을 하거나 잘 준비를 하다가 자고 그래요.

S외4: 여가활동 자주 하고요. 숙제도 하고요.

S외5: 저녁밥 먹고 자유시간에 피아노 가끔 치고 그래요.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어머니 모국으로의 여행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연 1회 정도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의 모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통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 달 정도 어머니의 모국에 체류하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의 모국에 방문한 청소년들은 보통 외가(외조부, 외숙모 등)에서 머무르며, 놀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M국1: 네. 왜냐면 큰아들 데리고, 3~4년 동안 중국 못 갔으니까요. 옛날 겨울방학 때 다 중국 보냈어요. 거기서 놀아요. 문화도 배우고요.
사회자: 거기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있나요? 친척분이나?
M국1: 네. 외숙모 있어요.

사회자: 한국과 캄보디아를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S중1: 한국에 있을 때는 친척이 없잖아요. 엄마 가족이 엄마 말고는 없어서 가끔 보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래요. (보통) 한 달 이상 있어요. 방학 때 갔다 왔어요.

사회자: 초등학교 때 가면 1년?
S중2: 아니요. 방학 때 한두 달이요. 일단 할머니 보러 가기도 하고요. 일본이 시골이니까 바다도 있고 … 여름방학에 놀러가는 듯 한 느낌이요.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

① 학업과 진학

약간의 관심과 걱정,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건 학원뿐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심 혹은 걱정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의 공부 방법 혹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며, 시험 성적을 자녀에게 묻거나, 학교로부터 발송되는 성적표를 확인하는 정도이다. 물론, 자녀의 성적이 낮거나,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대해 걱정 혹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말하는 것 이상의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사회자: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뭐예요?
M중4: 매일매일 공부 잘해 이렇게 해요.
사회자: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답답해요?
M중4: 네.
사회자: 다른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M중4: 없어요.

공통적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공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학원'뿐이다. 한 어머니는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며, 할 수 있는 것은 학원에 보내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원을 보내줄 수 없는 어머니의 경우는 미안한 감정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었다.

사회자: 학원이요?
M국1: 네. 꼭 학원 보내야 해요.
사회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M국1: **나처럼 도와줄 수 없어요. 외국인이라서 도와줄 수 없어요.** … 안 보내고 싶어도 가야 돼요. 왜냐면 수학, 영어 안 된대. 가서 다 먼저 배우고 미리 배우고 이런 거.. 다음 학기 먼저 배우고..

M국2: 학원을 보내면 좋은데 학원비가 만만찮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밖에 해결법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학습지, 학원 보내는 거?

M국3: 네. 수학, 영어 과목도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하지만 ○○가 학원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가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냥 올라가서 공부하는 거죠.
사회자: 학원을 안 가는 이유가 본인이 가기 싫어서?
M국3: 아니요. ○○는 가고 싶은데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사회자: 학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
M국3: 우리는 ○○에게 진짜 미안하고 몇 번 얘기도 했어요. 얘기하면 애가 울어. 저번에 친구가 영어 부족하니까 엄마, 아빠 학원 보내 달라고 하는데 비싸요. 25~6만 원 정도 하는데..

공부보다 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일부 어머니들의 경우 위의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시험 성적을 확인하거나,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조금씩 걱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지는 않으려 한다. 오히려 현재의 시점에서는 공부보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한 어머니는 주변의 한국인 또래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자: 보통 ○○ 같은 학생들이 잘 생활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M중2: 제 생각은 그냥 공부보다 다른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렇게 그냥 학교생활 즐기는 게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자: 얼핏 말씀하시기는 학원 별로 안 보내려고 한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M중3: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내 생각에 많이 안 놀아요. 초등학생들. 아이들 많이 학원 보내니까 중학생 되면 공부 싫어해요. 피곤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런 스트레스는 안 주고 싶었어요.

같은 기대 하지만 다른 개입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중 두 어머니만이 자녀의 학업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두 어머니 모두 높은 기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녀의 학업에 대한 개입 방식이 현저하게 차이난다는 점이다. 우선, S국5의 어머니(M국5)는 한국과 모국의 교육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수학을 직접 가르쳤다. 또한, 자녀에게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니까 공부를 못하면 괴롭힘을

당한다고 자녀에게 공부를 강조하였다. 다만, 자녀가 중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는 성적표를 확인하고, 잔소리 혹은 칭찬 정도만 해준다고 한다.

M국5: 큰애는 **수학은 4학년까지 제가 가르쳐 줬어요.** 모르면 인터넷에서 찾고 답 알아보고 애한테 설명해 주고 알려주고 그랬고, 큰애한테 무조건 공부 잘해야 한다. **너 공부 못하면 다른 애들이 너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고 공부 못하고 그러면 괴롭히니까** … 친한 언니가 … 다른 애들은 어렸을 때 너무 공부 많이 하면 크면 공부 안 하는 거야. **우리 애는 달라. 무조건 공부해야 해.**
사회자: 학교에서 베트남하고 다니셨던 중학교 시스템이 다른가요?
M국5: 완전 달라요. 우리는 학교 공부 자체도 달라요. **베트남에서는 무조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중학교 가면 공부해야 하니까 놀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어릴 때 더 많이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저도 애한테 그렇게 시켰어요. … **(지금은) 시험 볼 때 제가 많이 안 시켰어요.** …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많이 가져왔어요.

반면에, S외5의 어머니(M외5)는 자녀의 학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채워주려고 한다. 아버지도 자녀의 시험성적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성적이 낮은지를 물어보고 필요한 책을 사주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는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 중 자녀가 어려워하거나 쉬워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러한 M외5의 개입은 현재 자녀의 시험성적의 높고 낮음만을 확인하는 S국5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자: 온라인 수업도 듣고 그러는군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네. 학교에서 성적이 어떤 편이에요?
M외5: 중간, 자랑할 만한 성적은 아니에요. 왜냐면 수학, 과학 같이 … **자기 스스로 복습할 수 없는 과목들에서는 성적이 낮게 나왔어요.** 저도 수학을 시키기는 하지만 한국 수학이랑 우즈베키스탄 교수님이 온라인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방식이 다르다고 하고 나오는 것도 다르다고 해서 못 풀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못 푸는 정도는 아니에요. **자기 언어 아니니까 이해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다른 외우는 암기수업들은 성적이 잘 나왔어요.
사회자: 그건 왜 하는 거예요?
M외5: 여기서는 한국어 때문에 이해를 못 했다는 부분인데 하나라도 우즈베키스탄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시킨 거예요.
사회자: 양쪽에서?
M외5: 네. 왜냐면 고등학교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기본을 가르치는 시기잖아요.
사회자: 주로 아빠랑 어떤 얘기를 해요?
M외5: 애 아빠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 물어 보시고 수학 같은 경우도 어렵다고 했는데 따로 개념원리 같은 것도 사 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 주려고, 제가 시간이 없으면 남편이 봐 주고 그래요.

모두가 바라고 있는 대학 진학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대부분은 자녀가 최소한 대학교까지 진학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학업에 대한 관심의 차이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어머니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사회자: 그러면 ○○가 어디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세요?
M외3: 대학교요.
사회자: 이유가 뭘까요?
M외3: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은 미래 일을.. 잠깐만요. 아~ 힘들어요. (번역기)
사회자: 아~ 대학교 올라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M외3: 네.

사회자: 굳이 대학교까지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M외4: 대학교 졸업을 하고 어떻게 살지 자기가 결정을 하기가, (좋으니까요.)

M중1: 한국에는 공부 못하면 저처럼 어렵고 힘들어요. … 외국인들 한국 오면 무조건 공장일하잖아요.

M중3: 가능하면 여기도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대학교까지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

M국2: 대학은 나오면 좋을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회자: 일본도 대학교 가는 의미가 큰가요?
M국2: 저도 안 갔어요. 안 가고 돈 벌려고 취직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대학 졸업 여부를 묻는 게 많아서

② 진로

자녀의 꿈을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로부터 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수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말하는 장래 희망직업을 들어주는 편이며, 자녀에게 특정한 직업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진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 고민 혹은 걱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자녀와 함께 진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자: ○○이 장래희망 혹시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을까요?
M외1: 꿈이 엄청 활발해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 되고 싶다고 축구 엄청 열심히 했어요. … 지금은 자기 생각은 이중언어가 되니까 나중에 몽골하고 한국 사이에 통역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사회자: 아~ 통역사?
M외1: 네. 그리고 여행, 가방 매고 세계여행 다니는 사람?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봐요.** 그건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지 않냐 (하니까), **(○○이가) 아니라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사회자: 그러면 ○○가 의사 말고 미용사나 디자이너가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원해 주고 싶으세요, 그냥 의사가 되면 좋겠어요?

M외3: 상관없어요. … 제가 ○○에게 말했어요. ○○아, 너가 원하는 거 내가 꼭.. 잠깐만요. (번역기)
사회자: 아~ 뭘 하든 간에 원하는 거 하는 거 도와주고 싶다, 응원한다?
M외3: 네.

사회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 봤어요?
M외5: **자주 바뀌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는 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고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하고 IT 쪽으로 가려다가 지금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인 거 같아요.
사회자: 뚜렷하게 정해진 목표가 생겼다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세요?
M외5: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지지해 주고 싶어요.

강요하지 않지만 ○○○이 되었으면 바라는 부모

일부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꿈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특정한 직업(군)을 제시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자녀에게 특정 직업을 권유하는 정도이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길 바라는 마음은 위의 어머니들과 동일하다. S국1의 어머니(M국1)는 자신의 조카가 ○급 공무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라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자녀에게 권유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어머니(M국5)는 의사가 되면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S외4의 어머니(M외4)는 자녀의 꿈은 축구 선수를 반대하고 음악과 관련된 직업(가수 등)을 권유하였다. 이는 자녀의 건강(피부) 때문에 싫어한 것이었으며, 음악의 경우 자녀가 잘하고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사회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를 지지하세요?
M국1: 아니요. 왜냐면 큰아빠 집에 아들, 우리 ○○한테는 오빠인데 나라근무 ○급 땄어요. 나라근무 하는데 좋아요. 하고 싶은데 알아요. 너무 어려워요. ○급 따는 거 어려워요. …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돼요. … **지금 생각하지 않고 대학교 끝났을 때 생각해도 돼.**

사회자: 어머니는 의사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고요?
M국5: 네. 나중에 뭐 되면 좋겠다 하면 의사? … 노력하는데 안 되면 하지 말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꼭 의사 되는 건 아니고 너가 좋아하는 거 골라야지

사회자: 뭐 하고 싶다고 하던가요?
M외4: 축구선수요. … (또) 경기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사회자: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이가 축구 말고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적은 있으세요?
M외4: 너 축구 못해 바로 말했어요. 좋아해서 쉬는 시간에 축구해도 되는데 축구선수는 못 해.
사회자: 이유가 있을까요?
M외4: ○○이 어렸을 때부터 앉아서 하는 거 잘했어요. 피아노 치는 거나, 피아노 학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피아노 잘 쳐요. 그리고 … 제가 축구 하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가 몸에 많은 게 나와요. … 축구하면 심해지니까 제가 싫어하고요.

위의 세 어머니는 자녀에게 직업을 권유함에 있어서 자녀가 무엇을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를 1순위로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S중1의 어머니(M중1)는 자녀보다 자신의 미래를 고려한 직업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중1은 자녀의 진로를 들은 적이 없으며, 직접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미래에는 자신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M중1의 권유에는 자신의 희망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 고민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세요?
M중1: 말 없어요. 계속 저는 물어 봤는데 영어 많이 배우라고 나중에 핸드폰 매장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관심 없다고 해요.
사회자: 어머니는 ○○가 핸드폰 매장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M중1: 네.
사회자: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서?
M중1: 네.
사회자: ○○에게 앞으로 해 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M중1: 나중에 생각하는 거는 가게 하면 좋아요. 벌고 나눠 가져가고 그래요. 한국 사장님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 많이 힘들지만 그냥 다른 사람 일 같이 하는 게 힘들죠.

(4) 중도입국가정과 외국인가정의 입국 과정과 생활

① 입국 과정과 입국 의사

입국 당시의 연령과 입국 과정에서의 단절 경험

아래의 표는 중도입국가정과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입국 당시 연령과 단절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만 6세부터 10세 사이에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며, 중도입국가정의 청소년 2명(S중1, S중2)만이 태어난 이후 곧바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입국 전과 직후의 생활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S중1	S중2	S중3	S중4	S외1	S외2	S외3	S외4	S외5
입국 연령	5세 이하	5세 이하	6세 이상	6세 이상	6세 이상	5세 이하	6세 이상	6세 이상	6세 이상
단절 경험	O	X	X	X	X	O	X	O	O

어머니가 먼저 입국하여 단절 경험이 존재하는 청소년은 4명(S중1, S외2, S외4, S외5)이었다. 이 중 S중1은 입국 전후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S외2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청소년은 입국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단절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S외2의 경우 어머니에 의하면, 2살 때 자신과 떨어져 지낸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을 왜 버리고 한국에 갔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단절 경험으로 인하여 자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2살이었지만 모국에서는 밖에서 잘 놀고, 친구들도 많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자: ○○에게 이런 거를 해 주고 싶었는데 못 해 준 거, 후회되는 거, 아까 얘기해 주신 거 말고 또 있을까요?
M외2: 처음에는 한국에 2010년에 남편과 들어 왔어요. … 서류 다 만들고 나서 애기랑 같이 들어 왔어요. 그건 **○○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왜 저를 버리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자: 두 살인데 기억이 난다고 해요?
M외2: 네.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비행기 탈 때는 한 번 ○○가 많이 울다가 주스를 던져 버리고 옷이 다 젖었어요. 그때는 ○○에게 화를 많이 냈는데 그 사건도 기억이 나요. 엄마, … 우리는 둘이 한국에 와서 애기는 거기 있으면서 **그때 아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애기가 마음 닫은 거 같아요.** 그 전에는 밖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애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입국 직전의 생활과 입국 의사

전술한 바와 같이 입국 직전의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다. 일부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감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S외3의 어머니(M외3)는 2008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6개월 간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는 모국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자녀에게 한글과 함께 숫자, 동물 단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S외3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가고 싶어 했으며,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었다고 한다.

S외3: 엄마가 서울에서 공부한 적 있는데 졸업 못 했어요. 그냥 급한 일 때문에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 태어나고 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학원 같은 거 열었어요. 수학, 영어 같은 거 가르쳐 주고 한국어 몇 개 배웠어요.
사회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갈 거다 부모님에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S외3: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와 보고 싶어서, 2학년 끝나고 여름방학에 한국에 갈 거야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S외5의 어머니(M외5)는 2003년에 처음 한국에 왔던 경험이 있으며, 2006년에 다시 입국하여 2009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모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후 자녀를 출산하였고, 2017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홀로 한국에 온 뒤 2018년에 남편과 자녀가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S외5의 아버지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한국과의 연수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한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S외5의 가정에는 한국과 관련된 책이 많았으며, 한국으로 들어오기 몇 달 전 아버지의 권유로 한글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 S외5는 한국에 입국할 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행복감과 함께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S외5는 모국에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며,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싫었다고 회고하였다.

사회자: 2018년에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한국에 다 같이 살려고 오자 한 거잖아요.
S외5: 일단 제가 한국어를 모국에서 배웠거든요. **아버지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라고 해서 가나다부터 배웠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한국 관련된 책이 엄청 많아요.** 한국 만화책들 많이 보고 주변 배경을 많이 인식했거든요. 너무 옛날 책이라 한국이 이럴까 싶어서 이런 생각들로 한국에 넘어왔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사회자: 혹시 모국에서 넘어올 때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나요?
S외5: 조금 있었어요.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갈 때 몇 년 있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도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그게 **아쉬웠던 게 고향 떠나니까 그게 좀 싫었어요.**

S외4의 어머니(M외4)는 2010년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홀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혼과 재혼이 있었다고 한다. 자녀가 입국한 2016년까지 어머니는 모국과 한국을 왕복하면서 자녀를 보았으며, 2015년 몽골로 가서 자녀와 1년 정도 함께 살고 2016년에 함께 입국하였다. S외4는 홀로 모국에 있는 동안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불안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과 비행기를 탄다는 것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좋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자: 몽골에서 여기 한국으로 데리고 왔을 때 ○○이 반응은 어땠나요?
M외4: 엄마한테 오는 거라 좋아했죠. 그때는 아기라서 한국 나라 그냥 비행기 타고 여기 오는 것만 좋아하고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엄마한테 간다.**
사회자: 비행기 타는 거랑 엄마한테 가는 거랑?
M외4: 네. 그때 친구들 다 몽골에 있었고 아기라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국 어때? 엄마가 있어서 좋아.

② 입국 직후의 생활 및 한국어 습득 과정

문제없이 시작한 한국 생활, 빠르게 익힌 한국어

S외3과 S외5는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한국에 입국한 이후 큰 문제없이 생활하였으며, 한국어도 빠른 시간에 습득한 사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으나, 두 청소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모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S외3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국어 시험을 보았다고 하며, 한국어를 읽는데 큰

문제가 없어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닌 4학년으로 입학하였다.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에는 학교에 있는 온누리반에서 5학년 때까지 한국어를 배웠으며, 6학년 때는 한국어를 잘하게 되어 더 이상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S외3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 다른 나라에 와서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어 매우 좋았다고 회고하였다.

사회자: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집에서 한국어를 잘 안 썼잖아요. 학교에서도 러시아어를 썼고요. 어떻게 한국어를 잘하게 되어서 한국에 온 다음 적응을 잘했는지 궁금해요.
S외3: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말 알고 있었어요. **한글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숫자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 덕분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방학 때 러시아분인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이 계셔서 한국어도 배웠고 **초등학교 갔을 때 온누리반이 있어서 4, 5학년 때 배웠어요.** 6학년 때는 잘해서 그만 뒀고 **중학교 때는 더 이상 한국어 공부 안 해요.**
사회자: (한국에) 왔는데?
S외3: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다른 나라에 왔고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새로운 경험 같은 거 많이 생겼어요.

S외5는 입국한 직후 책에서 보던 것보다 한국이 더 선진국 같았으며, 높은 건물과 많은 사람 그리고 발달된 시설을 보면서 모국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S외5도 S외3과 마찬가지로 모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은 있었으나, 한글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국어 공부를 추가적으로 시켰으며, 스스로도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가 매우 빠르게 늘었다고 한다.

사회자: 책에서 배운 것보다 더 좋게 느껴진 거예요?
S외5: 네.
사회자: 어떤 점이 책이랑 달랐어요?
S외5: 일단 책 배경보다 좀 더 선진국인 느낌이 많이 났고요. 높은 건물들 많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시설들도 발달되어 있고 재미있고 … **모국과 다른 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사회자: 사실상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로 온 거네요?
M외5: 네. 아예 못하는 상태로 왔어요.
사회자: 초등학교를 한국어가 안 되는 상태로 다닌 거잖아요. 어때 보였어요?
M외5: 저는 지켜봤는데 아이가 원래 말을 원래 잘했어요. … 언어 감각이 뛰어났어요. **한국말도 잘하겠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수업을 들었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추가로 시켰기 때문에 말이 엄청 빨리 늘었어요. 저에게도 물어보고 아빠에게도 물어보고 …

새로운 언어, 쉽지 않은 입국 직후의 한국 생활

위의 S외3과 S외5를 제외한 청소년들은 한국에 입국하면서 한국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들은 입국 직후 낯선 공간과 사람 그리고 언어로 인하여 친구 관계, 생활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린이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S외1은 아래의 표와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다양한 기관을 오고 간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입국(7월) → 어린이집(7월-8월) → 재한 몽골 학교(9월) → 어린이집(10월-이듬해 2월) → 초등학교 입학(3월)

S외1의 어머니(M외1)에 의하면 자녀는 입국 후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한국말을 못하였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여 친구들과 싸웠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본 어머니는 자녀를 재한 몽골 학교에 보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 간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이 다문화 센터를 연결해주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사회자: 7살 때 왔을 때 (아이의 언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M외1: 맨 처음에 와서 어린이집에 한 달 정도 다녔는데 애기가 말도 못하고 **친구들은 말을 다 하는데 갖고 싶은 거를 표현을 못 하니까 답답하고 애들이랑 싸우고,** …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몽골 초등학교가 있어요.
사회자: 서울에 있는 몽골 초등학교요?
M외1: 네. … 서울로 몽골 학교를 보냈어요.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 학비도 내야 하니까 어떻게든 여기 와서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나서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동.. 뭐지?
사회자: 지원해 주는 센터요?
M외1: 네. ○○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센터 그런 거 있어요. 원장님이 거기랑 연결을 해 주셨어요.** 거기서 …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2학년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가 찾아 가서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오셔서 해 주시고 … 아동센터 다니니까 거기도 직접 와서 해 주시고, …

S외4의 어머니(M외4)에 의하면, S외4는 6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잠깐 어린이집(6월-8월)을 다닌 후 9월에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에는 한국말을 하지 못해 집에만 있다가 태권도 학원을 다녀오는 것만 반복하였다고 한다. S외4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한국어가 잘되지 않아 어려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끼어서 놀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센터와 멘토 선생님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로 된 만화를 보면서 서서히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자: 한국 와서 한국어를 시작하신 거예요?
S외4: 네. … 처음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어려웠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만화 같은 거 보다 보니까 **한국어가 귀에 들리기 시작해서 친구들이랑 말하고 친해지고** 그때부터 친구관계를 쌓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M외4: 6월에 왔는데 9월에 학교 들어가고, **처음에는 한국말 못하니까 집에만 있고** 태권도 학원가고 TV 보고 그랬는데 2학년 때부터는 잘 지내고 친구도 많이 생겼고 계속 잘 지냈어요.
사회자: 한국으로 왔을 때 한국어를 거의 못 했을 거 같은데 태권도 학원 다니고..
M외4: 다문화 선생님이랑 하루 공부하고 멘토 선생님이 … 1학년 때 계속 토요일에 데리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5) 요약

지금까지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면접 내용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가정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7. 가정생활 면접내용 분석결과 요약

구분	내용
1. 부모 및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 중학교 진학 이후 사춘기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되거나, 규칙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청소년-부모 간의 갈등이 발생함. •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 방식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거리감을 느끼는 다문화청소년이 존재함. 가족 구성원의 일탈 혹은 이주여성으로서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양육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 가정 내 활동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 다문화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부여받지 않는 편임.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보다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함. • 일부 가정은 가정 내 역할에 대해 어머니의 분노와 기대로 힘들어하는 청소년, 자발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간의 괴리가 나타나기도 함.
개인 및 가족 활동	•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게임 혹은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밀린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모국에 방문함. 외가 친척들을 만나거나, 놀러 다니는 등 휴식하는 시간을 가짐.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	
학업 및 진학	•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보이고 있으나 낮은 성적에 대한 걱정, 공부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는 정도에 그침. • 자녀의 학습에 대한 어머니의 직접적인 개입은 나타나지 않는 편임.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함. • 일부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학업에 있어 '다문화청소년'이 갖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학습 방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어머니의 대부분은 자녀가 대학까지 진학하길 희망하고 있음. 한국사회에서 대학을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진로	• 현 시점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를 듣고, 응원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자녀에게 특정 직업(군)을 제시 혹은 권유하는 일부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제공하기보다 막연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정도임.

구분	내용
4. 입국 과정과 생활	
입국 과정과 입국 의사	• 입국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단절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존재함. 단절 경험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타남. • 입국 의사의 경우 어머니와 단절되어 있던 청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입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남. 다만, 모국의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사실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함.
입국 직후의 생활 및 한국어 습득 과정	•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경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따라 입국 직후 생활에 대한 적응과 한국어 습득 과정에 차이를 보임. • 입국 직후 어린이집, 다문화 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를 습득하기도 하며, 또래와 대화 혹은 영상을 통해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사례도 존재함.

2) 학교생활

(1) 초-중 전환기의 변화에 대한 인식

① '중학생이 된다는 것'의 의미

성숙해지는 시기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 시기

심층면접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공부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지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초등학생 때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청소년도 있었으며, 변화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교를 진학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도 존재하였다.

사회자: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S중1: 더 성숙해지거나 철들 때 필요한 시기? 그런거요.

S외3: 나이도 먹고 어린이도 아니고 언니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S국5: 조금 더 성숙해지는거? 초등학교 때는 막 놀러 다녔는데 지금은 공부하러 다니니까 놀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거나 그냥 집에만 있게 돼요.

S중3: 나이 많아지고 공부할 게 많아지고 해야 될 게 좀 더 많아지는 거요.

S외4: 미래에 대한 진로를 고민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S중2: 처음에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보다 다를 게 없다.

S국3: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거.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에 대한 인식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초등학교와는 다른 중학교의 다양한 환경들이 더 마음에 든다고 언급하였다.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더 다양하고,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자: 초등학교와 비교해서 중학교가 더 좋은 점이 있나요?
S국1: 중학교는 선생님이 계속 다르게 들어오시고 미술실, 음악실 이렇게 가니까 재미있었어요.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만 계속 계시니까 시간이 잘 안 가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오시면 선생님들마다 특징도 있으시고 재미있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게 좋았던 거 같아요.

S외3: 중학교 올라가면 프로젝트나 활동 같은 거 다르고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더 재미있는 게 많은 거 같아요. 나이가 많아졌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더 재미있는 거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체험학습 같은 거 가면 미술관, 박물관을 가는데 중학교는 놀이공원이라든지 재미있는 장소를 가요.

S중2: 시설 같은 게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학교가 사립이라서 저희에게 많이 신경 쓰는 거 같아서요.

더 어려워진 수업 내용과 시험

청소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또 다른 차이는 수업 내용의 난이도이다. 전반적으로, 중학교의 수업 내용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교과목 중에서도 수학에 대한 어려움이 면접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시험이라는 평가 방식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회자: 공부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잖아요. 어떤 점에서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S국5: 수학은 이해는 하고 풀 수 있는데 실수를 많이 하니까 몇 번을 봐야 하는데 시험 볼 때 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못하고요.

S외5: 일단 첫 중간고사 끝내고 느낌이 달랐어요. 시험 문제들은 일단 제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만 잘 알거든요. 시험 보면 추가적인 내용들도 많아서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S중4: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 거 자체가 싫어요. (시험을 보는 것도) 어려워요.

새롭게 생긴 규칙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는 학생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면접에 참여한 몇몇의 다문화청소년들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규칙이 더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벌점제와 연결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잘못한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혼나는 정도였지만, 중학교에서는 벌점을 받기 시작한다. 청소년들은 상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며,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생활하기도 한다.

사회자: 어떤 규칙들이 새롭게 바뀌었나요?
S외5: 일단 질서유지가 달라졌어요. 급식실에 여러 계단, 통로가 있는데 어떤 곳은 통제되거나 출입하면 벌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하면 벌점 준다거나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면 벌점 주거나 하는 규칙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S국5: 초등학교 때는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났는데 중학교에는 상벌점이 있으니까 상점 받으려고 잘하는 거 같아요.

엄격해진 선생님과 성숙해진 또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일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를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친구들의 변화에서 인식하고 있다. 선생님의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엄격하다' 이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무슨 장난을 치더라도 초등학생이라 많이 이해해주었는데, 중학교 선생님은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많이 혼내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다.

사회자: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선생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S외5: 초등학교 선생님은 일단 애들이 무슨 장난을 해 줘도 초등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중학교에서 하면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많이 혼내시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지도하시거나, 조금씩 바뀐 거 같아요.

S중3: (초등학교 선생님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잘못을 물어보거나 경고해 주시는데 중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진짜 잘못되면 바로 학폭 이렇게 가 버리고요.

S외4와 S외5에게 초등학교 친구와 중학교 친구의 가장 큰 변화를 '성숙'이며, 이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를 더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S외4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또래로부터 자신이 온 국가에 대한 비난을 듣고 싸운 경험이 있고 한다.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도 더 넓은 것 같고, 초등학교 친구들보다 성숙하기 때문에 차분히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자: 초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중학교 때 좋은점 또는 어려워진 점은 무엇인가요?
S외4: 좋은 점은 친구들이 성숙해지고 초등학교 때보다는 생각하는 것도 넓어지고, 애들이 성숙해지니까 차분하게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점은 딱히 없어요.

사회자: (초등학교 때) 왜 싸웠는지 알고 계신가요?
M외4: 들어보니까 (○○이가) 외국 사람이라서 (주변의 아이들이) 니네 몽골 나라는 북한 도와주고, 우리는

북한 싫어하는데 몽골이 계속 북한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가 북한 도와주는지 아닌지 내가 우리나라가 도와주는지 어떻게 알아,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해서 한 번 싸웠어요.

S외5에게도 중학교 친구들의 '성숙'이 반가울 따름이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의 또래들은 활발하기는 하였지만 자신과 친해지려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S외5가 회상하기로 초등학생들은 외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져서 자신을 무서워하거나 자신과 친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M외5)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또래들로부터 피부색과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학생은 인식이 다르다 보니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친구가 되어주는 또래가 많아졌다고 한다.

사회자: 초등학교 때 비교해서 중학교 때 좋았던 점이 뭔가요?
S외5: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아무리 활발해도 저랑 친해지는 친구가 거의 없어서 그저 그랬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애들이 저를 이해해 주고 친구가 되어 주니까 그게 좋아요.**
사회자: 초등학교 때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게 어려웠나요?
S외5: 네.
사회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준 거 같아요?
S외5: 일단 **초등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무서워하거나 저랑 친해지면 뭔가 안 될 거 같아서 애들이 저랑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중학생은 인식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친구가 되어 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회자: 계기는 뭐예요?
M외5: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들이 심한 말 하게 되고 부딪치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시기잖아요. **피부색깔** 가지고 놀리거나 우리는 **이슬람 국가라 종교적인 것**도 있었던 거 같고요.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 극복해서 자신감이 생긴 거 같아요.
사회자: 심했다는 게? 놀리는 거?
M외5: 놀리고 자기들도 못생겼으면서 자기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했거든요.
사회자: 장난 식인 거예요, 서로 놀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따돌림 느낌인지?
M외5: 마음에 가깝게 받아들인 거 같아요. **농담도 건들면 상처 받은 거 같아요.** 서울에 올라오면서 오히려 여기는 다들 좋아한다고, 친구들이 친절하다고 하다가 …

(2)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① 교사와의 관계

친밀감은 느끼지만, 고민 상담의 대상은 아닌 선생님

다문화청소년들 대부분은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한다.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유심히 보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S국2), '학생들이 좋아하

는 주제로 대화를 자주 해주기 때문에'(S국1), '친절하고, 유쾌해서'(S외1, S외2, S중3),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어서'(S외4, S외5, S중1) 등이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모두 좋아하는 선생님과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지만 재학 중인 중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은 없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선생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 몇몇 다문화청소년들이 과거 선생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현재 고민 상담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S국3은 과거 선생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선생님이 잘 반응해주지 않아 그 이후로 고민 상담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자: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 다른 선생님 포함해서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S국3: 없어요.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면 공감을 잘 안 해 주셔서** 친구에게 물어 봐서 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사회자: 공감을 안 해 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S국3: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친구는 다 이유도 설명해 주고 위로를 해 줬는데 쌤은 안 해 주셨어요.
사회자: 그 이후로는 선생님에게 고민상담은?
S국3: 안 해요.

물론, 위의 S국3의 사례와 같이 고민 상담을 했던 청소년 모두가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은 아니다. S외4의 경우 선생님과 고민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고민에 대한 충고를 들었으며, 선생님의 충고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S외5의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에게 어려움이나 고민을 다 털어 놓았을 때 선생님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고 한다.

사회자: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선생님에게는 고민 얘기 안 하세요?
S외4: 선생님이 반 학생들 다 교무실로 불러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때 그냥 있는 고민 털어 놔요.
사회자: 선생님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 했을 때 선생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S외4: 충고를 해 주시고 지금 뭐가 달라져야 나아지는지 알려 주시고 충고를 많이 해 주세요.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본인의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털어 놓은 경험도 있나요?
S외5: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착하셔서 다 털어 놨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다문화'에 관심 가져주고, 이해해주는 선생님

S외3은 ○○ 선생님의 과목 회장(반장)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과 친해지게 되었고, 자신

이 지역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다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S외3이 교내의 다문화학생을 돕는 동아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사회자: 친한 선생님은?
S외3: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랑 이번 연도에 동아리 같은 것도 열었고 다문화 애들을 위한 동아리**, 매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이랑..
사회자: 특활 활동 동아리인가요, 개인적으로..
S외3: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만든 동아리예요. 작년 1학년 2학기 끝날 때 선생님과 동아리 만들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동아리 만들지 … 무슨 활동을 할지 생각을 해 놓고 2학년 올라가서 만든 거예요.
사회자: 그 선생님이 다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이유도 궁금하네요.
S외3: 아마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사를 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S외5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한다. 어머니(M외5)에 의하면, S외5는 점심시간에 돼지고기를 골라낼 수 없는 음식이 있으면 밥과 야채만 먹거나, 굶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어머니가 따로 도시락을 싸주려고 하였으나, 자녀가 따로 도시락을 싸가는 것을 꺼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S외5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교장 선생님은 S외5의 급식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주었다.

M외5: **교장 선생님이 급식하시는 분들에게 애한테 그거 (돼지고기) 빼고 따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나 봐요. 엄청 그거를 감동적으로 보고 오늘 엄청 맛있게 먹었다, 다른 애들 대박~ 했다고 말을 해 줬거든요.
사회자: (전에는) 돼지고기를 스스로 골라내고?
M외5: 골라 낼 수도 없는 음식이잖아요. 따로 있으면 그냥 빼고 먹을 수 있는데 들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밥과 야채만 먹을 수밖에 없고요.
사회자: 따로 반찬만 가져 온다거나?
M외5: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엄마가 그러면 따로 해 줄까 했거든요. 따로 가져오는 거는 자기가 싫어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 따로 도시락 싸는 거 자체를 꺼려해서 아예 굶거나 적게 먹었거든요.

② 친구와의 관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변함없는 친구

중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을 접하게 되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초등학교에서 같이 온 친구들은 많은 힘이 된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에 입학한 다문화청소년에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초등학교 친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중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중학교 친구들과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는 청소년도 존재한다.

사회자: 지금 내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나는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어요?
S중4: 8~9명이요.
사회자: 8~9명은 전부 다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S중4: 네.
사회자: 중학교 때 와서 새로 친해진 친구들은?
S중4: 말만 좀 하는 친구요.
사회자: 점심 때 볼 차는 친구들은?
S중4: 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요.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 편하기도 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은 뭔가 안 편하고..

아무도 모르는 공간, 새로운 친구 관계 형성

초-중 전환기 청소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또래들과 만나 친구가 되는 과정일 것이다. 이사 혹은 학교 배정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홀로 중학교에 진학한 청소년들은 그 사실에 대해 울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많은 걱정을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걱정이 무색하게 친구들과 서로 좋아하는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같이 급식을 먹고, 게임을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사회자: 혼자만 떨어져서 (중학교에 올라) 간 거예요?
S국1: 네. 학교에서 몇 명 간 애들이 있기는 한데 다 모르는 애들이라서요.

사회자: 다른 학교로 갔는데 같이 잘 어울리는 친구들과 학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땠나요?
M국1: **다른 애들 □□중 나와요. 우리 애가 ○○중 나오고 울었어요.** … 착한 친구들 있어요. ○○야 근처인데 아는 친구 있어. 거기 언니가 거기 다니고 있어. ○○중 괜찮대. … 이렇게 말해(줘)서 집에 와서 나에게 엄마, ○○중도 괜찮대. 나 친구 언니가 거기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회자: 중학교 와서 어떻게 친해졌어요?
S중2: 일단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요. **처음에는 모르는 애들밖에 없어서 힘들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 봤더니 저랑 잘 맞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걱정보다는 중학교를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기회로 삼는 청소년도 있었다. S외5는 앞에서 보았듯이 초등학교 시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주변 또래의 좋지 않은 시선으로 친구들을 만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학교 스포츠 동아리에 들어가서 새로운 또래들과 함께 배구나 농구를 하면서 초등학교에는 없었던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거의 없는 거고?
S외5: 아예 없어요.
사회자: (친구들과)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S외5: 일반적으로 같이 **수업시간에 모둠 활동** 같은 거 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게임도 하고**, 그게 재미있어서 친해졌어요. (다른 반 친구의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이나 추가선택 **동아리**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 **같이 활동을 재미있게 하다 보니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S중1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친한 친구들도 많았으며, 친구를 사귀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로 인하여 새로운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다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학교로 입학하였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많이 꾸미고 다녀서 친구도 많이 생겼다고 한다. S국5 역시 초등학교 5학년에 전학을 오면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였고, 중학교에 입학하고서도 한동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고모의 조언으로 조금씩 친구들을 만들어가면서 친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다.

사회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교하면 뭐가 가장 다르다고 생각해요?
S중1: 초등학교 때는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 다 새롭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꾸미고 다녀서 친구도 많이 생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뀌었어요.

사회자: 친한 친구들 □□중 간 거 아니에요?
S국5: 그냥 학교는 다른데 그냥 친하게 지내는 애들도 있고 ○○초에서 온 애들은 별로 안 친해요.
사회자: 5~6학년밖에 안 다녀서?
S국5: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사회자: 친구관계는 어때요?
M국5: 잘 어울려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사를 왔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사귀잖아요. … 중학교 올라가서 입학할 때부터 1학기까지 와서 성격이 너무 바뀌었어요. **친구 아직 못 사귀어서 너무 힘들다**,… 고모가 … 얘기하니까 2학기 때부터 다시 활발해졌어요.

S외3은 위의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초등학교 친구들이 없는 중학교를 1지망으로 선택하여 진학하였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다문화 청소년이 별로 없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S외3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러시아어권에서 온 또래가 많은 학교로, S외3은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지만 러시아어권 또래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회자: (초등학교 친구들이 가는) 그 학교는 2순위?
S외3: 저는 그 학교**(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에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외국 친구들이 많아서요.** 러시아 친구들이 많으면 싸움 같은 게 잘 일어날 수 있어서 가기 싫었어요. 러시아 사람이면 그냥 서로 욕하고 다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피부가 흑색인 사람들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이랑 다른 피부면 … 피부가 밝은 친구들이 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자주 나요.**
사회자: 중학교에서?
S외3: 초등학교에서도 날 수 있어요. 러시아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 내가 그 애들이랑 잘 친하지 않다면 애들이 가해자로 내가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회자: 이 친구가 가해자로서 내가?
S외3: 내가 피해자로 학교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도 학교폭력을 당한 적은 없는데 다른 친구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요.

현재 S외3은 자신이 한국어로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놀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

사회자: 초등학교 때 사귄 친구는 연락 안 하세요?
S외3: 연락 안 해요. 지금 러시아 친구들과 별로 통화하지도 않고,
사회자: 중학교에 새로 올라온 다음에 사귄 한국 친구들과는 주로 한국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확실히 초등학교 때보다 한국어 쓰는 시간이 늘어 난 거죠?
S외3: 네. 늘어났어요. 중학교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한국 애들이랑 대화 나누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한국 애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재미있는 거를 많이 알잖아요.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어려운 친구 사귀기

S외2는 S외3과 정반대로 초등학교 때는 러시아어를 쓰는 또래가 많지 않았지만 중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또래가 더 많다고 하며, 그 점이 편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도 친한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많이 어려워한다. 어머니(M외2)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 1명을 제외하면 다른 친구들이 없다고 하며, 다른 또래들이 있어도, 그 친구가 나오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자: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 좋아요, 나빠요?
S외2: 좋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요.

사회자: 공부를 포함해서 ○○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 온 이후에 ○○에 대해서 고민이 혹시 있으신가요?
M외2: 친구는 실제로 한 명밖에 없어요. □□도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 △△이랑 요즘 잘 안 만나요.
사회자: △△이랑 요즘 잘 안 만나요?
M외2: 네. 지금 □□이 있는데 … 실제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이 없어요. … □□이 안 나오면 ○○도 안 가요. … 다른 친구들이랑 잘 안 어울리고 혼자서만 있다가 …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댈 수 있는 관계

위에서 보았듯이 중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은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마다 차이는 있지만 친구들과 큰 고민보다는 사소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며(S국1), 연애와 관련된 고민을 들어주기도 한다(S외3).

사회자: 혹시 그러면 친구들하고 … 고민거리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도 같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S국1: 고민은 엄청 큰 고민보다 사소한 고민, … 그런 거 위주로

S외3: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학교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애들에게 물어 보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가야 되는지도 물어 보고요.
사회자: 서로 고민도 같이 얘기해요?
S외3: 네. 저도 들어 줘요. 새벽에 친구한테 메시지 왔어요. …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친구의 고민을 들어 줬어요.

특히, S중1에게 친구는 가족 문제로 어려워하는 자신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다. S중1은 친구들에게 가족 문제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어머니와 오빠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도 가족 문제가 있어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서로 가족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사회자: 중학교 오니까 친구들에게 고민상담도 해요?
S중1: 네. (주로) 제가 가족들과 안 친하게 되면 엄마, 오빠랑 싸웠으면 이거 때문에 힘들다.
사회자: 마음이 해소가 되고 그분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 궁금해요.
S중1: 제일 친한 친구도 가족 문제가 있어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고 말도 잘 하는 애니까..

(3) 학교에서의 활동과 경험

① 학교 공부(학업)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은 학교 공부

개인의 차이 혹은 어머니의 관심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은 학교 공부를 어려워해도 포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모든 과목을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자신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S외3: 수학이랑 역사요. (왜냐하면) 역사는 옛날에 벌어진 일이라 궁금해서 좋아하고요. 수학은 여러 문제를 풀어야 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사회자: 방과 후 혹은 방학 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S국3: 방과 후 하다 보면 (학교에 오래 있어요.) 방과 후 안 해도 저랑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걔랑 같이 끝나는 대로 복습을 하기 위해서 반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해요.

M외5: 큰애는 계속 수학을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방학 때는 그거 했고요. 이번에 학교 점수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책 다 집에 가지고 와서 복습을 다시 했거든요.

물론, 학교 공부와 시험 성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도 존재한다. S중2는 공부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여 체육만 열심히 하고 있다. S중4도 마찬가지로 공부보다는 현재 게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다만, 위의 청소년들이 공부 자체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S중2는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서울런'을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중4의 경우에도 자신의 성적이 낮아 스스로 학원을 다닌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자: 어떤 지원을 받고 있어요?
S중2: 서울런이라고 그거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는 안 해요.
사회자: 제가 서울런을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S중2: 일단은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영상이나 그런 게 많고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멘토도 할 수 있고요.
사회자: 서울런은 언제 해요?
S중2: 가끔 부족하다 싶을 때요.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요인 : 한국어와 국가별 학습 내용의 차이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 중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국가별로 다른 학습 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을 보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S외2는 심층면접을 진행할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청소년이다. 실제로 S외2는 학교에서 한국어보다는 러시아어로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S외2는 가장 어려운 수업으로 '국어'를 언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이 힘들다고 한다.

사회자: 그러면 제일 어려운 수업?
S외2: 국어요.
사회자: 한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어때요?
S외2: 다 어려워요.

S외5는 한국어로 교사 및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수업을 듣는 것에도 크게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S외5는 많은 글을 빠른

시간에 읽어내야 하는 국어 시험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어머니(M외5)에 의하면, 수학 점수가 낮은 이유는 모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을 별개로 수업을 완벽하게 따라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회자: 국어는 어떤 점이 많이 어려워요?
S외5: **일단 읽기가 생각보다 느리거든요.** 나머지는 보통이라도 읽기가 느려서 시험지가 다섯 장 정도 되는데 글이 엄청 길거든요. … **다시 읽어 보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많이 못 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사회자: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보니까 한국어를 잘하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그걸로 수업을 따라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가요?
M외5: 네. 스스로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씩 이해하면서 풀어야 하니까 시간이 없죠.
사회자: 교육과정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수학도 그렇고 다를 거 같은데..
M외5: 네. **들어 보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요.** 한국에는 다른 방법을 쓰면서 빨리 푸는데 거기는 약간 옛날?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푸는 거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오히려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렵게 가냐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 같아요.

② 기억에 남는 학교에서의 활동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과 시간은 중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면접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중학교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들은 체육대회와 수련회와 같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활동을 손에 꼽았다.

사회자: 중학교 생활에서 즐거웠던 순간은?
S국1: 체육대회 때, … 1학년 때 저희 반에 축구부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축구나 이런 거는 잘할 수 있었고 저도 다른 친구들이 비해 조금은 잘하는 편이라서 저희가 1학년 때 1등을 했거든요.

S외3: 우리 학교에 매 학기마다 점심시간에 농구나 스포츠 같은 것을 해요. 1학기 때 농구하는데 친구들이랑 힘을 합쳐서 2등 했어요. 2학년 중에서 2등이요. 원래 2학년이 7반까지 있는데 2등 했어요.

S외5: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가 있거든요. … 제가 알기로는 수련회 주요 목적은 친구와의 관계를 잘 보살펴 주는 거 같아요. …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서 좋았어요.

불쾌하고 싫었던 경험들

전술한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의 즐거움으로 남기도 하지만 불쾌한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 주로,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웠던 일,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무서운 선생님에게 걸려서 혼났던 순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 등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

사회자: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싫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S중4: 친구랑 싸운 거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동아리 시간에 어떻게 해서 싸운 거 같아요. (의견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거 같아요.

S국2: 반끼리 싸웠을 때? 저는 상관이 없는데 기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반 애들이 우리 반을 놀려서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싸운 적이 있는 거 같아요.

무언가를 성취했던 경험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중학교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저마다의 성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은 것에서 성취감을 얻기도 하며, 친구들을 잘 사귄 자신의 모습에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S외3은 자신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애들'을 사귀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현재는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운 자신의 모습을 성취 경험으로 언급하였다.

사회자: 중학교에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S국1: 기말고사 때 잘 보고 싶었던 과목이 있었는데 영어, 수학을 되도록이면 100점을 맞고 싶었고 … 수학이 낮았기는 했는데 다른 것들을 공부를 안 한 거 치고는 평상시에 암기력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평균이 저번보다 높아졌어요.

S중4: 중간고사 처음 볼 때 과학 성적이 잘 나온 거요.

S중3: 친구들 잘 사귄 거? (친구가) 10명 정도 되죠. 다 중학교 때 만났어요.

S외3: 중학교 올라가서 한국 애들이랑 생활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고민하고, 대화하게 되었을 때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할까, … (한국어 배우려고 노력하고 단어 찾고 하는 과정들이) 자랑스러워요.

또한, S외5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치는 멋진 곡을 듣고 스스로 열심히 연습하여 피아노를 잘 치게 되었다는 것을 성취 경험으로 꼽는다. 그러나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치게 된 것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자신의 피아노 실력을 친구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있었으며, 그 이후 더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었던 것이 성취감의 가장 큰 이유였다.

S외5: 중학교 올라오니 방과 후도 끝내고 집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치는 멋진 곡들도 듣고 알아서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저와 친구들을 가장 친밀하게 만들어 준 게 피아노인 거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제일 친한 친구가 한두 명 있었는데 **2학년 올라와서 왜 많아진 거냐면 피아노를 잘 쳐서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사회자: 아~

S외5: 처음에 음악시간 들어올 때 뭐 배우고 어떤 열정이 있는지 설문을 하잖아요. 제가 피아노 좋아한다고 쳤거든요. 쌤이 잠깐 나가서 쳐 줄래 했거든요. … 들려주니 애들이 놀라서 사이가 좋아진 거 같아요.

④ 자유학기(년)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자유학기(년)제

연구에 참여한 많은 다문화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 당시 자유학기(년)제 동안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자유학기(년)제는 시험을 보지 않아서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시험 대신에 쪽지시험과 같은 수행평가를 보았던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자유학기(년)제 동안 학교 밖으로 나가 체험활동을 했다고 언급한 청소년도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갔는지 혹은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했던 활동들이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느끼는 정도였다.

사회자: 자유학기(년)제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S국2: 어디 놀러 가거나 그랬어요. (가장 기억나는 건) 까먹었어요. (무언가를 체험한 것은) 직업체험이요. 그냥 로봇 같은 거?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S중3: 동아리 이런 거 했어요. 춤추거나. (직업체험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S외5: 아예 학교를 안 나온 게 아니라 버스가 와서 선배들이 시험 보는 동안 어디 타고 활동을 갔거든요.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경복궁 가서 2시간 동안 공연도 보고 그랬던 게 재미있었고요. 과학의 날에 참여를 해서 좋은 순위를 가져가서 상품권 받고 재미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학교 참여의 정도를 불문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상당수가 자유학기(년)제의 존재에 대해 모르거나,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년)제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다. 체험활동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 또한 다문화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나요?
M국2: 잠시만요. 이야기 들었어요.
사회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거는 있나요?
M국2: 아니요.
사회자: 어머니께서도 자유학년제니까 뭔가를 더 해 봐야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M국2: 없어요.

사회자: 작년에 자유학기제라는 거를 했을 텐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M외2: 아니요.

사회자: 자유학년제였나요, 자유학기제였나요?
M중2: 자유학기제예요.
사회자: 자유학기제 때 ○○가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배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M중2: 그냥 직업 견학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자유학기(년)제

S국3은 자유학기(년)제 동안 직업체험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다고 언급하였다. S국3의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배우는 것, 연기하는 것, 개그맨이 어떻게 되는 것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었다. 연기자(연예인)가 되는 것이 꿈인 S국3은 연기반을 선택하여 체험활동을 하였고, 그 활동이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이 연기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지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자: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보면 나의 진로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S국3: 네. 처음에 연기자 하려고 네이버, 유튜브에서 계속 쳐서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연기자 활동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직접 제 몸으로 하고 활동을 해 보니까 재밌고 신나서 그거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S중1은 자유학기(년)제의 주제선택활동이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 딱히 꿈이 없었던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4-6개의 주제 중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S중1은 '연예인'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여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거나, 연예인 중 한명을 골라 누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왜 되고 싶은지를 조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자: 예를 들면 직업체험도 있고,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 하셨어요?
S중1: 1학년 때는 주제 선택 활동이 있는데 각자 골라서, 예를 들어 영화 보고 감상문 쓰는 거나 한 아티스트를 골라서 누가 되고 싶은지 왜 되고 싶은지 그런 활동을 했어요.
사회자: 선택해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S중1: 네. 영화 보고 감상문 쓰기랑 인플루언서..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사회자: 참여한 다음에 공부나 진로에 있어서 바뀐 게 있을까요?
S중1: 1학년 때는 딱히 꿈이 없었는데요. 인플루언서나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내가 이게 되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S중2는 위의 두 사례와 달리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체험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학교 일정에 따라 반 단위로 나누어져 결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자신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였고, 친구들과도 이러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사회자: 자유학기제가 나의 진로선택이나 현재 고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나요?
S중2: 네. 많이 되는 거 같아요.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은 직업들을 접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사회자: 그런 거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S중2: 네.

아쉬움이 남는 자유학기(년)제

S국1은 자유학기(년)제의 활동이 수업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이어서 아쉬웠다고 언급하였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전문가가 방문하여 손으로 만들어보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고 싶었으나 그러한 체험은 없었다고 한다. S국1은 오히려 초등학교 때 진로체험도 많이하고, 외부의 선생님이 오셔서 로봇 등을 만드는 활동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중학교의 자유학기(년)제의 활동에 더욱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S국5의 경우에도 자유학기(학년)제의 활동이 자신의 진로희망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어서 아쉬웠다고 한다. 직업체험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자신의 진로희망에 맞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체험하였다고 한다.

사회자: 자유학년제 하면서 이거는 더 해줬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S국1: 초등학교 때는 진로체험도 많이 하고 선생님이 오셔서 뭔가 만들기도 …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걸 덜 한 거 같아요. 나가는 게 아니더라도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고 **손으로 만들어 보는 거를 해 보고 싶기는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수업시간에 잠깐 나가서 관찰을 하다든지 그런 거라서.

사회자: 체험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게 있나요?
S국5: 딱히 한 게 없어서.. 식물원은 다 같이 갔고 월드컵경기장에서 한 거는 골라서 갔어요. 약국 체험이랑 인테리어 디자이너 체험이요. … 그냥 궁금해서요.
사회자: ○○ 학생은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데요?
S국5: 의사 아니면 네일 아티스트요.
사회자: 그런데 그거 (희망 진로) 관련된 거는 진로체험에서 안 했네요?
S국5: **네. 그때는 없어서요.**

(4)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그 이후

① 친구들의 괴롭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괴롭힘

S외5는 과거에도 또래와 다른 외모로 인하여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는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으나, 중학교 1학년 당시 다른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S외5는 왜 자신을 괴롭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자녀의 외모 차이로 인한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중학교에 들어와서 이때가 가장 싫었다(고 느꼈던 순간은)?
S외5: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중1 때 … 수업준비 하던 중에 복도를 다니고 있었는데 키 큰 사람이 저를 밀쳤거든요. 신경 안 쓰고 갔는데 갑자기 다음 쉬는 시간 때 우리 반에 그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불러오라고 했거든요. 뭐지? 해서 갔는데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를 했거든요. 선생님에게 이르라고 해서 이르고 사과 받고 끝냈거든요.

사회자: (중학교에 다문화청소년이) 많지는 않군요. 왜 ○○을 타겟으로 했을까요?
M외5: 보시면 다르게 생겼잖아요. 편견이 있는 거 같아요.

S외5는 이 일에 대해 친구들과 상의한 끝에 선생님에게 사건에 대해서 말하여 괴롭혔던 또래들에게 사과를 받고 끝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S외5가 돼지고기를 못 먹는 것을 알게 된 같은 반의 또 다른 또래가 놀리기 시작하였고, 지난번 자신을 괴롭혔던 또래도 다시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S외5: (처음 괴롭힘을 당한 이후)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 제가 이슬람이라 돼지고기 같은 거 못 먹으니까 …그 애들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이번만 버티려고 했는데 저번에 사과한 애들도 시비 걸기 시작했거든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다시 생활안전부에 갔는데 … 애들이 다 징계 받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저 건드리지 않아요.

같은 다문화청소년으로부터의 괴롭힘

S외2는 중학교 1학년 당시 약 4개월 간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S외2는 지속되는 괴롭힘을 못 참고 자신을 괴롭히는 또래와 싸우기도 하였는데, 그 날 이후에도 괴롭힘과 폭행이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어머니(M외2)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계속 졸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 사건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 자녀가 친구와 싸웠던 경험이 있을까요?
M외2: 그 아이가 3~6월까지 계속 괴롭혔어요. ○○는 많이 참았다가 한 번에 화가 많이 나서 나가서 같이 싸우자고 했어요. … 다음날 학교 와서 그 친구가 심하게 괴롭힘을 시켜서 … 폭행을 했다가 ○○가 학교를 안 간다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왜 ○○가 수업에 자고 있다고, … ○○에게 물어 보면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온다고, 학교 가기 무섭다고**..

괴롭힘으로 인하여 S외2는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하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 받아 먹기도 하였다. 어머니(M외2)는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녀가 태권도를 다니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고 하여 태권도를 보내게 되었으며, 그 이후 자녀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사회자: 학교 가기 무섭다고?
M외2: 네. 그리고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봤어요. … **정신과 가서 약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먹고 효과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시부모님과 아버지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러시아로 다시 가야 되는 게 좋은지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 이후로 ○○가 **태권도 다니면 자신감이 생길 거 같아요** (라고)해서 (그 이후) 진짜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거 같아요.

비행 친구들의 권유와 괴롭힘

S외1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학교에 함께 입학한 친구들이 1학년 때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있었으며, S외1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친구를 하지 않겠다' 혹은 '같이 놀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였다고 한다.

사회자: ○○이가 작년에는 친구들과 갈등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괴롭힘..
M외1: 담배 피우는 거 때문에, 왜 안 하냐고, 자기들 하는데 … 너랑 안 논다,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요. 어린이집~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다닌 친구들이에요. 좋은 애들도 있고 나쁜 애들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있던 친구들이에요.

② 친구들의 괴롭힘 이후의 대처(대응)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어머니의 참여

S외5가 괴롭힘을 당한 사건 이후 학교에서 어머니(M외5)에게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할 건지 연락이 왔고,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학교에 방문하여 자녀의 상황을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괴롭힌 또래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이후 괴롭힌 또래들의

어머니로부터 유선으로 사과를 받았으며, 학교에서는 괴롭힌 또래 한 명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반 배정할 때 괴롭힌 또래들과 같은 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었으며, 쉬는 시간에도 마주칠 수 없도록 최대한 거리가 먼 반으로 배정을 해주었다고 한다.

사회자: (자녀와 친구 간에) 싸움 같은게 있었어요?
M외5: 네. 있었다고 합니다. 거친 친구들 다섯 명이 모여서 ○○이한테 싸움을 일으키고 … 선생님이 학교폭력 신청하실 건지 전화 왔거든요. … 남편이랑 같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폭력 신고하실 거냐고, 그런데 저는 굳이 거기까지, 애들이잖아요.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조용히 마무리 했어요.

사회자: 그렇게 괴롭히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에 놀린 친구들은 같은 반에 같이 있어요?
S외5: 새학기 시작되면 반 배정하잖아요. 일단 학교폭력 관련된 애들은 제외하고 봅기를 해요.
사회자: 선생님들이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신 거네요?
S외5: 네. 일단 종교에 관한 거는 처음이라서 조사를 해 보고 일주일 동안 못 나오게 했거든요. … 벌점도 많이 주고 끝났거든요. 쉬는 시간만 되면 각자 반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저랑은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사회자: 학교에서 그렇게 대처해 준 거에 대해서 만족해요?
S외5: 네.

어머니의 소극적 대응과 이웃의 도움

S외2의 경우 사건 이후 어머니는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언어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으며, 자신과 같이 결혼하여 이민을 온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어머니(M외2)에게 연락이 왔으나, 어머니는 한국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학교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이후 S외2는 학교에서 심리상담(치료)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괴롭힌 또래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가끔씩 수업시간에 만나면 얼굴을 안 보고 싶다고 한다.

사회자: 싸웠을 때 경찰서 가셨잖아요. 경찰서에서 언어적인 지원이나 그런 거를 따로..
M외2: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한국말 잘하는 친구 있어서 친구랑 같이 갔어요.
사회자: 그 친구가 대신 통역사 역할을 해 준 건가요?
M외2: 네. … 그 친구 애기들이 한국어밖에 안 해요. 그 친구가 애기들에게 연락을 해서 … 거기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하라고 애기들이 가르쳐 줬어요.
사회자: 상담은 혹시 따로 받으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센터나 이런 쪽에..
M외2: 없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도 한국말을 그 정도 안 하고 있어서 그건 참석 안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는 **학교에 심리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 오시는 거 같아요.** 선생님이랑 수업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 같아요.
사회자: 지금은 태권도도 다니고 상담도 받으면서 많이 괜찮아진 건가요?
M외2: 네. 지금도 알아보는데 그 친구가 다른 학교로 가면 좋다고 해요. 지금도 말로만 싸움을 해요.

어머니의 소극적 대응과 친척의 도움

어머니는 S외1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알고 학교 선생님과 다른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이후 S외1은 2차례 흡연을 하였다고 이모에게 많이 혼났다고 한다. 이후 자녀는 흡연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과 아예 관계를 끊었다고 한다.

M외1: 아들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 … 엄마가 학교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학교에 얘기하면 더 커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가 알아서 한다고, 저에게 두 번 약속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친구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 집에서 담배 피우고 하는데 … 그때는 ○○이 믿고 넘어 가고 다음에 학교에서 피우려고 하다가 **이모에게 들켜서 (이모가) 길거리에서 너 왜 이렇게 담배 피우냐, 엄마 생각은 안 하냐, 이게 좋은 거라 생각 하냐 (라고) 하니까** … 그 이후로는 그 친구들이랑 아예 끊어진 거 같아요.

(5) 어머니의 학교 참여

① 어머니와 교사(학교)와의 상호작용

궁금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어머니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상당수는 자녀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부분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 먼저 연락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 선생님과의 상담을 부탁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사회자: 주로 아이와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보통은 아버님하고 많이 하게 되나요?
M국5: 아버님이 잘 안 해요. 고모가 해요. … 우선 저에게 연락하는데 1학기 때부터 조사 했는데 ○○가 죽고 싶다고, … 담임 선생님 전화왔어요. 조사에 이런 거 나왔는데 어머니 오셔야겠다. … 그때 머리가 확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고모가 연락해서 설명해 주고 … **무슨 일 있으면 고모에게 전화를 하라고**

사회자: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혹시 하나요?
M중4: **선생님이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남편이 얘기했어요.**
사회자: 선생님하고 남편분께서 주로 이야기를 하세요?
M중4: 네. (번역기)
사회자: 아~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분과 주로 이야기를 해요?
M중4: 네. 제가 한국말 못해요.

교사에게 오는 연락은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

하고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또한, 직업적으로 바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선생님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었다.

사회자: ○○이가 다니는 중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M외4: 네. 잘하고 있어요. 1학년 때는 자주 연락 오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2학년 담임 선생님 엄청 잘해요.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이가 이랬다 저랬다 전화하고 **제가 바빠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에게 전화 오고 … 얘기를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 제가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잘하고 있어요.

사회자: 혹시 선생님들, ○○의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신 적 있으세요?
M중1: 계속 연락해요. **○○가 학교 공부 어렵다고 하면 선생님이 가끔 알려 줘요.**

다만, 어머니 중 일부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비교하면서 중학교 선생님에게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M중2: 중학교는 1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갔고요. 2학년 돼도 그냥 ○○에게 얘기만 듣고 제가 상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초등학교까지는 매년 했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아직 상담을 안 했어요.
사회자: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M중2: 네.

사회자: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선생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M중3: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머니들과 많이 통화해요. 아니면 학교 어머니 왔을 때 (상담)도 하고, 지금은 (중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알아서, 부모님 아니고, 왜냐면 내 생각에는 그 학생이니까 자기 알아서 해야 돼.

방문이 어려운 자녀의 중학교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의 절반 정도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교에 간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학교에 방문하였다고 언급한 어머니의 경우에도 입학서류 혹은 사건(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다. 방문이 어려운 것은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하다. 의사소통의 문제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자: 학교에 어머니들 오셔서 하는 행사 같은 거?
M외5: (알고) 있(었)는데 저는 유학생이고 빨리 학위를 따야 빨리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시기였잖아요. 지방에 있고 더군다나 여자이고 다 있으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 같아요.

사회자: ○○가 중학교 간 이후로 어머니가 학교에 가신 적은 있으세요?
M국3: 한 번도 안 갔어요.
사회자: 그러시군요. 그러면 궁금한 거 있을 때는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셨어요?
M국3: 네. (연락해서) ○○가 많이 부끄러우니까 잘 봐 주고 다리가 좀 안 좋아요. … 수술했어요. 그런데 빨리 뛰지를 못하죠. 학교에서 운동하잖아요. 많이 있으면 빼 달라고 얘기 했거든요.

몇몇 어머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에 비해 중학교에 찾아가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언급하였다. 시간적인 문제로 방문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걱정 혹은 관심이 줄어든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일부 어머니만이 학교에 방문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을 비롯하여 학교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나 학교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회자: 왜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는 참여를 못 하신 건가요?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까요?
M중3: 왜냐면 좀 복잡해요. … 아들 초등학생 때 늘 학원(강의)에 가는 거는 아니고 … 월수금만 했어요. 그래서 화목 참석할 수 있(었)어요. … 하지만 지금은 학원 (강의를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사회자: 초등학교, 중학교나 다 마찬가지로 (방문한 적이 없나요?)
M국2: 네. 아~ 초등학교 때는 좀 갔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서요. 교육 이렇게 하면 애기가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근황 이런 거?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가 중학교 입학한 이후로 엄마가 학교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M중2: 네.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로 된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은 교사와의 연락과 학교로의 방문 이외에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어머니가 한국어로 된 가정통신문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 모두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한국어를 읽는 것이 어려운 어머니는 자녀 혹은 남편에게 부탁하거나 번역기를 사용하여 내용을 확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어머니는 가정통신문을 번역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같은 거를 보내잖아요. 다 한국말로 되어 있죠?
M국1: 네. 다 한국말로요.
사회자: 따로 번역을 해서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알려 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M국1: 아니요.
사회자: 보는 거는 어떻게?
M국1: 남편, 아들, 딸이 봐서 중요한 거는 얘기해 주고 아니면 얘기를 안 하고요.

사회자: 안내문, 가정통신문 같은 거 보는 거에는 특별히 문제없으세요?
M중3: 잘 몰라요. 그러면 사전, 아니면 파파고 통역, 하지만 가끔씩 틀리기 때문에 남편이 설명하고 알 수 있어요.
사회자: 아드님에게도 물어보세요?
M중3: 네. 진짜 모르면요. 가끔씩 엄마 사전 보세요.

③ 학부모들과의 교류

초등학교 때만큼 원활하지 않은 학부모들과의 소통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대부분이 중학교의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부모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초등학교의 학부모들과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어떤 학원이 싸고 괜찮은지, 어떤 선생님이 안 좋은지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한다.

사회자: (초등학교 때 어머니 모임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M중2: 학원 얘기 많이 하죠.
사회자: 좀 더 구체적으로?
M중2: 그때는 중학교 전후니까 영어, 수학학원에 관해서 어디가 좋다, 어디 선생님이 안 좋다, 어디가 가격 싸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고학년 되니까 그런 얘기 심하게 많이 했죠.

M국3: 좋은 데 얘기해 주는 거죠. 애들 학교생활도, 저에게 애 왜 이렇게 많이 낳냐,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물어 보는 거죠.

그러나 일을 시작하거나, 이사를 오게 되는 상황들로 인하여 중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특히, S중3의 어머니(M중3)는 한국 사람처럼 의사소통하는 것이 힘들지만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며, 중학교에도 학부모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사회자: 중학교 들어오면서 새로 사귀게 된 학부모는?
M국5: 없어요. 이쪽 엄마들은 다 직장 다니나 봐요. 하나도 없어요.
사회자: 어머니께서 학교를 안 가셨기도 하고?
M국5: 네. 저도요.

사회자: 중학교에 같은 반이나 같은 학교의 다른 어머니들하고 모임을 만든다든지 그러고 싶은 생각은 혹시 있으세요?
M중3: 네.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좋은 학생 (어머니) 모임 있으면 참석할 거예요.

의사소통이 원활한 모국의 어머니들과의 교류

일부 어머니들은 한국 어머니들과는 소통하지 않고,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어머니들과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 어머니들과 만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어머니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도 하지 않고,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모국의 어머니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는 자녀의 학교생활 혹은 학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국의 어머니들끼리는 자녀의 공부에 대한 정보 혹은 심각한 일(사건 혹은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자: ○○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연락 하시는 것도 있나요?
M외2: 아예 없어요. 그냥 러시아 부모들끼리 연락을 하면서 한국 부모들이 따로 있어요.

M외3: 같이 공부하는 친구, 러시아분들, 그 엄마랑 러시아 엄마랑 많이 말해요. 공부 위해서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되어) 밖에서 놀면 이것도 물어 봐요.
사회자: 보통 한국인 엄마들이랑은 별로 안 친하세요?
M외3: 그래요.

(6) 요약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어머니의 학교 참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8. 학교생활 면접내용 분석결과 요약

구분	내용
1. 초-중 전환기의 변화	
중학생이 된다는 것의 의미	• 다문화청소년은 중학생이 된다는 것을 성숙해지고, 공부에 열중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일부는 큰 변화를 체감하기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학급이 올라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에 대한 인식	• 다문화청소년은 다양한 부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간과 시설부분에서 더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며, 더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함. • 학업(공부)의 경우 수업 내용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며,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학교 규칙과 선생님이 더 엄격해졌다고 생각함. • 친구(또래)에 대해서는 성숙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특히, 초등학교 또래들로부터 거리감과 편견 그리고 놀림을 당했던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성숙해진 중학교 또래들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2.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 다문화청소년 대부분은 교사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선생님의 친절함, 수업 방식, 소통 정도에 따라 좋아하는 교사와 싫어하는 교사가 있음. 다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교사라고 하더라도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편임. • 일부 교사는 '다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도 함.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친밀감과 고마움을 느낌.
친구와의 관계	• 친한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로 입학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생활 초기 관계 형성에 걱정이나 어려움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홀로 중학교에 입학한 청소년은 입학 전 걱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변의 조언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 원만한 친구 관계를 형성해나감. 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중학교 진학 후에도 같은 어려움을 보임.
3. 학교에서의 활동과 경험	

구분	내용
학교 공부 (학업)	• 청소년 대부분은 어려워진 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원 및 온라인 수업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어로 시험을 보는 것 그리고 국가별 문제의 접근 방식의 차이 등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견됨.
기억에 남는 활동	•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체육대회, 동아리 등)을 학교생활 중 즐거웠던 경험으로, 친구 관계의 갈등을 싫었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음. • 또한,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에서의 좋은 성적,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서 성취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유학기(년)제	• 다문화청소년 대부분은 자유학기(년)제 동안의 활동을 기억하지 못함. 시험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임. • 일부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하지 못한 청소년은 아쉬움을 표현함.
4.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그 이후	
친구들의 괴롭힘	• 일부 다문화청소년은 문화적 차이에 의해 혹은 같은 다문화청소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남. 괴롭힘의 정도가 심했던 사례는 약을 복용하기도 함.
괴롭힘 이후의 대처(대응)	• 괴롭힘에 대한 부모의 대응은 학교를 찾아가느냐, 찾아가지 않느냐의 차이였으며,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주변의 언어적·정서적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
5. 어머니의 학교 참여	
교사(학교)와의 상호작용	• 어머니 대부분이 교사에게 오는 연락을 받아 자녀의 학교생활을 확인함.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연락 오는 정도와 관심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 초등학교에 비해 학교로의 방문 빈도가 낮아짐. 이는 바빠진 생활과도 관련이 있으나, 중학생이 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줌 • 가정통신문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는 번역기, 남편 등에게 부탁하여 확인함. 다만, 시간이 없을 때는 읽지 않고, 넘어가기도 함.
학부모와의 교류	• 어머니의 성향, 언어 능력에 따라 학부모들과의 교류 빈도 및 정보 공유에 차이가 있음. 초등학교에 비해 학부모 간의 교류가 적어지거나, 끊기는 것으로 나타남.

3) 지역사회 생활

(1) 살고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인식

① 거주지 선택의 이유

직장과 가정형편으로 인한 선택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처음 거주지를 선택할 때 직장과의 거리(위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했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자: 베트남에서 오셨을 때부터 계속 안산에서 사셨던 거예요?
M국3: 네. … 일 때문에.

사회자: 처음에 ○○에서 살기로 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M외2: 직장이요. … 기숙사 아파트로 받고 나서 거기로 이사를 갔어요.
사회자: 그러면 지금 ○○로 이사 오시게 된 이유는?
M외2: 그것도 직장 때문이었어요.

사회자: 서울로 이사를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직장?
M외5: 네. 직장 때문에요. … 직장 가깝고 다니기도 편해서 계속 있어요.

자녀를 위한 이사: 안전과 더 넓은 집

이사 경험이 있는 어머니도 있었으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비싸지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 중 일부는 자녀를 위하여 이사를 하였다고 언급한다. 다만,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녀의 안전 혹은 자녀들이 성장해가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이사한 어머니는 모두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적게 사는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자: 거기 사셨을 때는 주변에 ○○○ 마을 있고 이랬던 건가요?
M국1: 아니요. 원래는 ○○동 살았어요. ○○동 저쪽은 주택 많아요. 임대하는데 외국인 많아요. … 너는 여자니까 여기 다 주택이니까 위험해서 안 돼. 학교 끝났을 때 도로에 사람 별로 없어요. 걱정돼서 큰 도로 가라고, 여기도 시간 있을 때 우리 딸 데려와요. 딸 때문에 이사 했어요.

사회자: ○○동으로 이사한 이유가 있으세요?
M국5: 저는 이사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좁아서 애들 키우기 그렇다고 넓은 공간에 애들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 왔어요. … 그래도 나도 넓은 집에서 한번 살고 싶어서

②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대한 인식

놀 거리는 적지만 만족스러운 나의 동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학교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는 S외2를 제외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싫어하는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놀 수 있는 시설(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다.

사회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만족하고 있나요?
S국1: 네. 그런데 놀 게 너무 없어요. 일단은 ○○자구, … 놀 게 많잖아요. 코인노래방, PC방 이런 거는 당연하게 있고 ○○구는 박물관, 미술관도 있고, … 저희는 산 넘어 가면 산이고 시골이고..

S중2: 일단 주변에 놀 거리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근처에 ○○대가 있는데 카페, 게임 같은 것만 있고 볼링 같은 게임은 없는 거 같아요.

S외4: 다른 동네에 비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거기서 지내서 거기 동네가 좋아요. (그렇지만) … 저희 집 주변에 상가들이 있으면 좀 편할 거 같아요.

살다보니 자녀에게 괜찮은 동네

어머니들도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S중3의 어머니(M중3)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과거 거주하는 지역에 비해 자녀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 거주하던 지역은 외국인이 많고, 러시아어권 또래가 많아 자녀가 러시아어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한국 사람이 대부분이라 자녀가 한국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자: 맨 처음 오실 때는 러시아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셨잖아요.
M중3: 외국인이 많아서, 러시아인, 중국 사람들 많이 있어서 월세 조금 비싸요. 그런데 여기 (예전에 살던 곳) 보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곳) 가 조금 더 싸요. 복잡한 구역이 아니에요.
사회자: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외국 사람이 오히려 엄청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어서 좋은 것도 있으세요?
M중3: 친구들이 다 러시아 애들이어서 러시아말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애기 두 명이어서 한국말만 배워요. 여기 한국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이거 좋아요.**

S외4의 어머니(M외4)는 현재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바로 주변에 모국 출신의 가정과 또래가 많이 사는 동네가 존재한다고 한다. 원래 M외4는 처음 자녀가 한국을 왔을 때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국 출신의 또래가 많은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한 적이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후 어머니는 그 지역의 또래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자녀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사회자: 외국에서 살 때 외국 친구들이 많은 곳에 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이처럼 한국 애들이 많이 있는 곳이 좋은 거 같으세요?
M외4: 한국 애들이 많은 데 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2) 지역사회 내 관계와 활동

① 이웃과의 관계

인사 정도하는 이웃, 부모님을 통해 만나는 이웃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이웃 혹은 어른들에게 큰 관심이 없다. 이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친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알고 있는 이웃이 있다고 언급하였더라도 자신이 자주 가는 가게에서 일하는 어른들이며, 인사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사회자: 그러면 지금 혹시 동네에 친구 말고 아는 친하게 지내는 어른이라든가 있어요?
S국1: 아~ 지금 후문에 편의점 했는데 …그 사장님은 저를 아시고 정문 쪽에 편의점 ○○가 있는데 제가 자주 가서 거기 여자 사장님이 … 저를 자주 보셔서 누구인지 정도는 아시고 인사를 해 주세요.
사회자: 얘기를 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인사를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S국1: 네.

사회자: 경비 아저씨 말고는 없고?
S국2: 네.

사회자: 그러면 친하게 지내는 어른 있어요?
S외2: 편의점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를 알아요.

사회자: 동네에서 아는 어른들도 있어요?
S중4: 네. 치킨집 삼촌, 이발소 머리 자르는 데 아주머니도 알고 편의점에서도 알고요. 가끔 가다 인사하고 얘기 나누는 정도요.

소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집에 찾아와 대화를 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 다만, 이들은 부모님의 지인들로, 청소년이 직접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게 된 이웃은 아니다.

사회자: 우즈베키스탄에 계실 때도 알고 계시던 분들이에요?
S외3: 아니요. 한국에 와서..
사회자: 그러면 우리 가족이 힘들 때 그분들이 실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S외3: 네. 힘들면 저희에게 와서 맛있는 것도 사 주고 너무 힘들면 부모님이 그 사람들 만나서 고민 들어 주고
사회자: 내가 개인적으로 도움 받은 적은 있을까요?
S외3: 그런 거는 없어요. **부모님의 친구죠.**

사회자: 주변에 살고 있는 친척들도 있을까요?
S외5: 지금은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 같이 여행 다니거나 캠핑한 적 많아요.

지역사회에서 만난 학교 친구 이외의 또래들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 친구관계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은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에게서 학교

밖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몇몇 청소년들이 친구의 언니, 태권도 학원에서 만난 형 혹은 누나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자: 학교친구 말고 지역에서 친구를 따로 사귀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같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라든지?
S국3: 고등학생 선배 한 명 … 친구는 원래 초등학생 친구였는데 멀어져서 다른 중학교로 가게 된 거고 멀어졌던 그 친구가 언니가 있는데 고등학생이어서 친하니까 저에게 얘기해 주고..
사회자: 그분과 만나면 보통 뭐 하세요?
S국3: 고등학생 언니니까 할 수 있는 게 많고 공부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 보기도 하고 수다 떨고 놀고 그래요.

S중4: 네. 몇 명 있는 거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형, 누나요.
사회자: 형, 누나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S중4: 초등학교 돌봄을 다녀서 알게 되었고 태권도 다녀서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해 주는 돌봄이요.

다만, S중2는 다른 다문화청소년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과정을 언급하였다. S중2는 지역사회에서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쓰는 다문화청소년에게 다가가 친하게 지내게 된 친구가 있다고 한다. 일본어와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공통점에서 친근감과 기쁨을 느끼고 관계를 형성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S중2: 한 명은 1학년 때 같은 반이라 알게 되었고 또 한 명은 **길 가다 일본어 쓰는 거 듣고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사회자: 어떤 마음에 다가 갔어요?
S중2: **다문화인가 보다 하고 조금 더 기뻤어요.**
사회자: 친근감 그런 건가요?
S중2: 네.

② 활동과 경험

생활의 일부가 된 학원

다문화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학원'이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주로 수학과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일부는 태권도와 같은 예체능 학원에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오후 3-4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시 쉬다가 바로 학원을 가서 8-10시에 귀가하고 있다. 즉,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셈이다.

사회자: 집에 와서 학원은 언제 가요?
S국5: 5시 반이나 6시요. (학원은) 두 시간이요.

사회자: 학원이 언제 끝나요?
S외4: 수학학원 가는 날은 10시에 끝나고 수학학원 안 가는 날은 영어학원만 다녀서 5~6시에 끝나요.

사회자: 중학교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놀고 방과 후에도 같이 놀아요?
S중3: 방과 후에는 대부분 저도 그렇고 학원가서 못 놀고 주말이나 빨간 날은 놀아요.

S중4: 바로 학원을 가야 돼서 쉴 수 없어요.

친구와 어머니에 의해 확장되는 활동 공간

위에서 보았듯이 다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은 평일에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학교와 학원 밖의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초등학교 때는 자신을 비롯하여 친구들이 어렸기 때문에 동네 혹은 동네 근처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때는 동네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PC방부터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번화가와 놀이동산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몇몇 청소년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사회자: ○○ 학생이 생각했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는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S국5: **친구들이 노는 데가 달라졌고요. 애들이랑 노는 시간도 달라졌고** 공부하는 것도 달라졌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가까운 ○○ 같은 데 나갔는데 지금은 멀리 나가기도 하고 혼자 ○○○나 놀이동산을 갔다 온다거나 **그렇게 멀리 가 봤어요.**

사회자: 주말에는 보통 친구들과 어디로 놀러 가는 편이에요?
S중3: 학교에서 축구 하거나 ○○○요. 가끔씩 바닷가 가서 놀기도 하고요.
사회자: 겨울에는 해변가에서 놀기 힘들 거 같은데?
S중3: 네. 그때는 PC방 가거나 실내에서 놀아요.

사회자: 그 지역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센터는 안 이용해 보셨어요?
S중2: 몇 번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수영, 도자기요. 일단 친구를 통해서 거기를 같이 참여하게 된 거라서요.

S외3은 봉사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와 칭찬으로 지역에 있는 외국인 지원단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로 한국어 선생님, 의료봉사를 나오는 의사 선생님의 한국어를 통역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자: 어떤 봉사예요?
S외3: 사무실에 가서 전화가 오면 받아서 통역 같은 거 필요하면 했어요. 고려인 청소년 센터 같은 거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랑 그런 거 많았어요.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사회자: 도서관 봉사, ○○ 센터에서의 봉사를 다 하면서 성적이 좋잖아요. 운동도 잘하고요. 이유가 뭘까요?
S외3: (어머니가) ○○ 센터 가 봐, **봉사 해 봐** 라는 말도 하셨고, … **너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자주 말도 하시고요. **다 엄마 덕분이죠.**

중학생이 된 이후 발길을 끊게 된 다문화 센터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초등학생 때 다문화 센터를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들은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비롯하여 수학 혹은 영어 등을 배우거나 센터를 다니는 또래와 함께 여행을 갔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심심하여 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청소년들도 있었다.

사회자; 예전에 (다문화) 센터 혹은 가족센터에 다닌 경험이 있나요?
S국1: ○○동에 다문화센터 예전에 중국어 수업 듣고 그러면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중에 몇 명 추첨을 해서, … 다 제주도를 학생이랑 동반 학부모 한 명까지 해서 제주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거든요.

S외1: 있는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없는 거 같아요. 문제집 풀고 시간 나면 놀고..밤 9시 될 때까지 있어요. (학교) 1시쯤 끝나서 집 갔다가 센터 가서 놀았어요.

S중3: (센터에) 다녔을 걸요. 한 5학년 때까지 다녔던 거 같아요. (센터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동생, 친구나 형들과 놀고요. 수학 아니면 영어 공부했어요.

그러나 중학생이 된 시점에서 다문화 센터를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초등학교 때보다 늦은 하교 시간과 함께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센터에 갈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센터에서 보내던 시간이 자연스럽게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 (현재) 다문화센터나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이용하는 데 있어요?
S외3: 6학년 때 다문화센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사를 해서 그만 뒀고 중학교 올라가서 늦게 수업이 끝나서 다닐 수 없을 거 같아서 그만 뒀어요.

M외2: 네. 가족센터 다녔어요. 한국어 수업 받았어요. 네.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태권도 시간이 급해서 한국어 수업을 그냥 포기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센터에서 초등학생 때처럼 중학생에게 공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다문화 센터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몇몇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문화 센터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현재는 시험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서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자: 지금은 왜 (다문화 센터) 안 다녀요?
S국5: 거기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다닐 수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라는 (봉사)동아리가 있는데 면접 봐서 통과하면 그걸로 다닐 수 있어요. … 작년에 많이 가서 봉사시간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험도 있고 가기가 귀찮고 그래서요. (안가요)

S국1: 올해부터는 봉사활동 하면 아예 완전 정기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끔씩 엄마가 이번주에 있는데 갈래? 이러면 알았어요, 하고 가고 …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올해는 안 하고 있어요.

M외3: 왜냐면 초등학생들만 다닐 수 있어요. (중학생 때는) 다른 거, 다른 학원에 가야 돼요.

추가적으로, 다문화 센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청소년도 존재한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센터는 보통 어머니를 통해 다니기 시작하게 된다. 실제로 다문화 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어머니가 다문화 센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이거나, 외국인 가정은 다문화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과거 센터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어머니는 자녀를 센터에 보내길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자: 어머니는 다문화센터에 가 보신 적이 있나요?
M외5: 외국인 가정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 봤어요.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간 거 같아요.

M국3: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다문화센터 안 가니까요. 외국 사람도 많고 가족도 만나니까 싫어요.
사회자: 외국 분들 만나는 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M국3: 싫어하는 거 아니고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 집에서 생활도 하고 놀러도 못 가는데, …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서 좋게 얘기하고 뒤에서 나쁜 얘기 하고 그러니까 싫어요.

(4) 어머니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

①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

한국인보다는 외국인(다문화)과의 교류

해당 유형의 어머니들은 외국인(다문화)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어머니는 한국인과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들의 연결망을 촉진하는 요인은 '다문화 센터'이다. 어머니들은 다문화 센터를 통해 다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과 접촉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 센터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 있는 자녀의 친구 중 출신 국가가 같은 자녀의 어머니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자: 일본인 엄마 모임..
M중2: 있었어요. 거기에 저랑 해서 두 명 더 있었거든요. 1학년 때부터 알아서 6학년까지 세 명만 있었으니까 그 세 명은 자주 만났어요. 일본인 엄마들은 (공부와 관련된)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요.

사회자: 필리핀분들이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 같은 게 있나요?
M중3: 그 친구들은 다문화센터 공부했기 때문에 필리핀 친구들은 다문화 센터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 아니었지만 **다문화센터에서 계속 만나서 나중에 친한 친구가 되어서** 그 언니들이랑 교회 다녀요.
사회자: 아이들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나 진학에 대한, 학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정보나 학원은 어디가 좋다든지 이런 거를 알려 주면 좋다든지,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얻으세요?
M중3: 필리핀 친한 언니는 언니 아들이 나이 조금 많아요. 중학생 전에 언니 아들 학원 안 보내고 싶어. 아들은 무슨 책 공부했을까 해요. 언니는 저에게 알려 주고 다른 외국인 친구는 그 얘기는 없어요.

사회자: 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어디서 알게 되었어요?
M중4: **다문화센터 한국어 공부 때문에 안 사람들이에요.**
사회자: 중국 친구들과만 연락하는 이유는 말이 잘 통해서?
M중4: 네. … **제가 한국말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외국인(다문화)보다는 한국인과의 교류

해당 유형의 어머니들은 한국인과만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처음부터 외국인(다문화)과 교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과거 외국인(다문화)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외국인(다문화) 모임 혹은 커뮤니티의 교류를 중단한 것이다.

M국3: 저는 외국사람 친구 없어요. 딱 한 명이요. 외국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저는 한국 사람만 만나요.
사회자: 외국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하세요?
M국3: 안 좋아하는 거 아니고 … 놀러도 못 가고 애랑 집에 살림만 하고 이런 거죠.

M국5: **거짓말처럼,** 왜냐면 **베트남에서 부자인데 왜 여기 와서 못 사는데 왜 왔냐고,** 차라리 베트남에서 살지 여기에 왔냐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요. 설명해도 안 믿잖아요.

사회자: 한국에 있는 몽골 모임 있잖아요.
M외4: 네. 별로 안 가요. 몽골 모임 그런 거 별로 없는데요? 아~ 있기는 있어요. 엄마들 모여서 학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안 가요.
사회자: 안 가시는 이유가?
M외4: 그냥 시간이 좀.. 그냥 거기 가면 시간 낭비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런 데 가면 좀 아예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몇 년 전에 한두 번은 갔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다문화) 모두와의 교류

해당 유형의 어머니들은 한국인과 외국인(다문화) 모두와 교류하고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척(아버지 쪽)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며, 한국인 어머니 혹은 직장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으로부터 자녀의 생활과 학교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다. 외국인(다문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류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어머니도 있으며, 동네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국이 같은 출신의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자: 그러면 지금 한국에 엄마의 친척들..
M외3: 많아요. 아빠 친척들도 많고 엄마 친척들도 많아요.
사회자: 다 주변에서 살고 계세요?
M외3: 네. (서로 도와줘요) 한국어도 도와주고 돈도 도와주고

사회자: 그러면 한국에서 나중에 학원을 보낸다, 고등학교 어디를 간다, 애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세요?
M외5: 일단 언어가 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원하는 내용이 없으면 커뮤니티 우즈벡어나 러시아어로, **외국인들이 올린 커뮤니티**도 있고.. 주로 홈페이지, 거기가 제일 정확한 정보니까 봐요.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런 것도 있더라.
사회자: 어떤 게 유용해요?
M외5: 제가 가입되어 있는 거는 둘째 때문에 옛날에 했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 커뮤니티인데 육아부터 시작해서 지역 프로그램들 사람들이 다 올렸거든요. 주로 이쪽보다는 저는 언어가 되니까 직접 찾아서 확인해요.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서 절차 이런 게 올려져 있으면 **한국 사람들에게, 동료 분에게 여쭤보고 도움을 받고**, 아니면 상담해야 될 거 있으면, 어차피 저도 편하게 할 수 없을 때 부탁하기도 해요.

답답함과 고립감, 단절된 교류

해당 유형의 어머니들은 한국인과 외국인(다문화)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있어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어머니(M국2)의 성향으로 인하여 가족 이외에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M외1의 경우에는 그나마 친척이 주변에 살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가정 내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유형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 혹은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 놓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답답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사회자: 깊은 이야기는 주로 누구와 하세요?
M국2: 안 해요.
사회자: 하실 만한 곳이 없으세요?

M국2: 네.
사회자: 다른 어머니들과 가깝게 안 지내는 이유가 있으세요?
M국2: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거를 꺼려해요)
사회자: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안 하시지만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M국2: 네. 있는데 참석해도 불편해요.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거 같고, 그냥 제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사회자: 한국인 부모님들로 이루어졌나요?
M국2: 거기는 아예 못 가요.

사회자: 어머님께서 아까 ○○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속도 상하고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야기를 할 만한 분이 주변에 동생분 밖에 없으신 건가요?
M외1: 네. 그런데 동생에게도 너무 무서워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다른 집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동생에게도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사회자: 답답하셨겠어요.
M외1: 네. **답답한데 ○○이에게 잘 얘기하고 하니까..**

(5) 요약

다문화청소년의 지역사회 생활과 어머니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9. 지역사회 생활 면접내용 분석결과 요약

구분	내용
1. 살고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인식	
거주지 선택의 이유	• 거주지를 선택할 때 직장의 위치(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직장을 옮기거나 더 싼 월세/전세를 찾아 이동하기도 함. • 일부 어머니는 자녀의 안전 혹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넓은 집이 필요하여 이사한 것으로 나타남.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대한 인식	•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만족하는 편이지만, 놀 수 있는 공간(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음. • 어머니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만족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이 적은 구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은 한국 사람과 함께 사는 환경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2. 지역사회 내 관계와 활동	
이웃과의 관계	• 학교 친구 이외에 동네에서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드문 편임. 또한, 주로 이용하는 가게의 주인과 인사를 하는 정도로 이웃(어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음.
활동과 경험	• 다문화청소년은 중학생이 된 이후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 학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방학과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초등학교에 비해 활동 공간이 넓어짐. 초등학교 때 주요 활동 장소였던 다문화 센터는 더 이상 찾지 않음.

구분	내용
3. 어머니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	
사회적 연결망의 형태	• 어머니의 성향, 한국어 능력, 과거의 경험에 따라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에 차이가 존재함. 다문화 센터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및 모국 사람과 친분을 가지기도 하며, 관계를 단절하기도 함. • 주변 이웃보다 직장 및 학교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녀의 생활과 학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연결망이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위한 정보를 찾는 것은 물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4)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1) 초-중 전환기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① 신체적 변화

중학생이 되면서 생긴 나의 신체적 변화: 키, 외모, 변성기, 건강

심층면접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키가 커지고, 변성기가 온 것을 자신의 변화 중 하나라고 언급한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드름이 나거나, 외모가 바뀌는 것을 신체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건강(다리)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힘들어하는 청소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자: 신체적으로 초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중학교 때 바뀐 게 있나요?
S중3: 그냥 키가 많이 큰 거 같아요.

S외5: 변성기는 좀 있지만 사춘기는 안 느껴봤어요.

S국5: (외모가 바뀌는게) 부정적이요. 애들이랑 얼굴 비교하게 돼요. 약간 애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고.. 여드름이 나거나 그런 것들이요. 나기는 하는데 몇몇 애들은 안 나니까 부러울 때가 있어요.

S국3: 신체적인 거는 제가 다리가 살짝 안 좋아서 그게 나중에 커서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힘든 거 같아요.

② 정신적 변화

중학생이 되면서 생긴 나의 정신적 변화: 사춘기, 성격

신체적 변화와 함께 다문화청소년들은 중학교에 입학 후 자신의 성격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사춘기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욱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는 청소년도 있었고, 초등학생 때에 비해 조용한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특히, S외5는 조용해진 친구들 그리고 엄격해진 규칙으로 인하여 활발했던 성격이 조용한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자: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바뀐게 있을까요?
S중3: (마음적으로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가끔 욱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절 하기는 하니까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욱 해요.

S국1: 1학년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부터 너무 애들이, 장난도 많이 치기는 했는데 장난을 많이 치고 친근하게 굴면서 시끄럽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때부터 성격이 바뀌어서 조용해 졌거든요.

S외5: 저도 (조용한 성격으로) 바뀐 거 같아요. 애들 영향을 받다 보니 바뀐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활발하고 수업시간에 재미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중학교 가니 규칙도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니 바뀐 거 같아요.

(2) 자신이 정의하는 '나'와 만족 정도

① 자신에 대한 정의

'그냥, 평범한 나'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냥' 혹은 '평범한' 의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였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잘하는 것도 혹은 못하는 것도 없으며, 신체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평범한 중학생으로 여긴다.

사회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S국1: 저는 딱히 큰 특징이 없어서요. 저도 나를 설명하기에는,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완전 못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S외4: 그냥 평범한 청소년이라고 생각해요. 신체적으로 평범하고 일상도 평범해서 평범한 중학생이라고 생각해요.

S국3: 그냥 착한 사람. 가족이랑 싸우지 않고, 동생이랑 싸우지 않는 거, 엄마, 아빠랑 안 싸우니까 그게 착한 사람인 거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착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S중4: 게임만 하는 사람 같아요. (친구들에게는) 되게 장난을 잘 받아 주는 친구. 가끔 너무 잘 받아 준다고 욕도 좀 하라고 해요. (부모님은)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나에게는) 그냥 동생?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나'

다문화청소년 중 일부는 자신을 표현할 때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S외3은 자신을 '친절하고 부끄럼 많지만 대화하게

되면 잘 통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한다. 실제로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S외3은 친구를 사귈 때 '부끄러운 경우가 많다.' 혹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이라는 문장을 언급하였다. 다만, 이러한 부끄러움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S외3은 자신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고민하여 중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자: 나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S외3: 친절하고 부끄럼 많지만 대화하게 되면 잘 통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S외3: 중학교 올라가서 한국 애들이랑 생활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고민하고, … 온라인으로 톡 하면 많이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부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S중2도 자신의 모습을 평범함이 아닌 '조금 쿨한데 쿨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한다. 심층면접에서 가족생활에 대한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S외2는 부모님의 성격이 '쿨'하며, 어떤 일에도 바로 화를 내지 않고 얘기를 들어주는 점을 닮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자신도 부모님처럼 쿨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것을 미루어볼 때 S외2의 '쿨'은 부모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S중2: 조금 쿨한데 쿨하지 않은 사람?
사회자: 쿨한 거는 뭘까요?
S중2: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런 느낌이요.
사회자: 쿨하지 않은 거는?
S중2: 친구들이 장난 같은 거 칠 때는 저도 완전 진심으로 장난을 치는 느낌이에요. … 일단 쿨한 사람을 보면 친구가 장난을 쳐도 그냥 즐겁게 넘어 가는 느낌인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요.

②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청소년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을 좋아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좋아함' 혹은 '만족'과 같이 긍정적인 단어를 언급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해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은 많지 않았다. 자신을 왜 좋아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건강, 성격, 모범심, 자랑스러움 등을 이유로 삼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자: 자기 자신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S외5: 제가 인간으로서 자기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S중2: 좋아해요. 성격이나 그런 점이 좋은 거 같아요.
S외4: 좋아해요. 건강하니까요.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S중3: 좋아하죠. 모범심이 좀 있어서요.

자신을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하는 청소년

다만, 몇몇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도 그리고 싫어하기도 한다고 한다. S국3은 자신을 좋아할 때도, 싫어할 때도 있다고 하지만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그 이유가 자신의 어떤 성격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집보다 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점이다. 실제로 S국3은 허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많은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심층면접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애착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이 자신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S중1은 싫다기에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좋다기에는 너무 다른 것을 다 귀찮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자신은 공부나 엄마가 말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귀찮아하고 성취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S중1의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공부와 관련된 활동이 대부분이며, 성취 경험도 시험 성적을 높인 것이었다. 또한,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에서도 개인적인 활동 혹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보다 집안일에 대한 묘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S중1이 현재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모습은 가족 문제로 인하여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자: 스스로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S국3: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 중) 좋아할 때가 더 많은 거 같아요.
사회자: 그 이유는 뭘까요?
S국3: 좋아하게 된 거는 다른 집이랑 저희 집이랑, 저희 집은 대가족이고 다른 집은 4인 가족이라 차이가 많이 커서, 다른 집은 동생이 한 명이라 더 심심하다는 얘기도 많고 저희 집은 동생이 많다 보니까 더 재미있고 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S중1: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거 같아요.
S중1: 싫다기에는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니까, 좋다기에는 너무 다른 것도 다 귀찮아하는 거 같아서요.
사회자: 다른 거라면?
S중1: 공부나, 엄마가 말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귀찮아하고 성취하지 않는 거 같아서요.

(3) 진로(장래희망)의 탐색과 결정 과정

다문화청소년들의 다양한 장래 희망직업

다문화청소년들이 되고 싶었던 혹은 되고 싶은 직업들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목록은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장래희망과 관련하여 언급한 직업들이다.

세무사, 공무원, 음악 선생님, 연기자, 간호사, 의사, 네일 아티스트, 축구선수, 번역가, 미용사, 디자이너, 피아니스트, 파티시에, 과학자, 사업가, 개그맨

중요한 점은 본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를 탐색 혹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적 배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면접 내용에서 진로를 탐색 혹은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이 다문화청소년이기 때문에 갖는 부정적인 감정(불안 혹은 걱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모든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되고 싶은 직업 중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으며, 모종의 이유로 가지고 있던 장래 희망을 포기하고 새로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도 존재한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중 일부는 현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선택한 장래 희망직업은 자신의 선택 혹은 어머니의 영향에 의한 결과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이후 꿈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노력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S국3은 자신의 꿈을 연기하는 연예인(연기자)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으나 중학교로 진학한 후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드라마를 보면서 연예인이 하고 싶어졌다고 언급하였다. S국3은 연기자가 되기 위해 집에서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거나, 대본을 쓰고 가족들을 앞에 두고 연기 연습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연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부모님에게 묻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본다고 한다.

사회자: 언제부터 연예인이 꿈이었을까요?
S국3: 6학년 때 메이크업 하는 사람도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 공부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TV를 많이 봐서 드라마 같은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연예인이 하고 싶어 졌어요.
사회자: 연기자가 꿈인 것도 (부모님이) 알고 계세요?
S국3: 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집에서 드라마 같은 거를 하루 종일 보는데 제가 대본을 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드라마를 보고 장면을 대본으로 쓰면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놀아요.
사회자: 그 외 주변에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궁금해요.
S국3: 아니요. 저는 저 혼자 스스로 하는 편이에요.

S외3은 자신의 장래희망을 의사라고 한다. 의사가 꿈인 이유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의사가 되어 봉사도 자주하고, 사람들이 아프면 치료해주어 오래 살도록 돕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S외3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기술·가정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병원에서 필요한 말들도 외운다고 한다. 다만,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혹은 잘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자: 왜 의사가 꿈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S외3: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해요. 봉사 자주 하고 인생을 길게.. 사람이 아프면 치료해 주고 오래 살 수 있기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사회자: 혹시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S외3: 기가 같은 거.. 기술가정이요. 줄여서 기가라고 해요. 기술가정 더 열심히 배우고 필요한 말, 병원에 필요한 말도 좀 외우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

몇몇 다문화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래 하고 싶었던 장래 희망직업을 포기하고, 현재 새로운 진로를 탐색 혹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포기의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어머니의 반대 혹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 등이다. 그 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진로를 탐색 중이나, 아직까지 새로운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S외4는 어릴 적에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여 포기하였다고 한다. 여기에는 코로나 이후 축구를 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서 축구의 흥미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어머니의 영향이다. 어머니(M외4)에 의하면 자녀는 피부에 두드러기가 많이 생기는데, 축구를 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자녀가 축구 선수를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S외4

는 축구를 취미로만 고려하고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공부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자: 미래 장래희망이 뭔지 궁금해요.
S외4: 아직은 장래희망이 없어요. (고민해 본 적은) 네. 있어요.
사회자: 뭐예요? 예전에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S외4: 어릴 때 단순하게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선수가 하고 싶었는데 … 현실적으로 힘들어서요. 코로나 터지고 해서 축구도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요. 축구에 대한 흥미가 잠깐 떨어졌어요.
사회자: 지금은 축구를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대안이 없는(건)지 꿈이 없어진 건지 궁금해요.
S외4: **그냥 축구를 취미로만, 다른 길로 가려고요. 공부로 대학교 들어가는 거요.**

S외5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으나 현재는 취미 생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낀 것도 있지만, 피아니스트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술중이나 피아노와 관련된 시설을 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예술중을 가고 싶었으나,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까운 중학교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S외5는 아직까지도 예술중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다. 현재 S외5는 사업가를 장래 희망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가를 선택해야 할지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자: 피아노를 통해서 뭔가 해내고 있는데, 그러면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적은 없어요?
S외5: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제가 4~6학년까지 있었는데 … 피아니스트는 어려운 길이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예술중이나 사설을 잘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 취미로 떨어진 거 같아요.
사회자: 지금 중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1지망 써서 가잖아요.
S외5: 어머니가 ○○○ 연구원으로 일하시다 보니까 … 예술중학교는 멀었거든요. **굳이 거기로 가는 것보다 여기 중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하셨거든요.**
사회자: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가까운 데 가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S외5: 네. (지금도) 아쉬워요.
사회자: 그러면 장래희망은 뭡니까?
S외5: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 어렵지만 **사업가를 선택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사업가도 종류가 많으니까 무슨 종류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사회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거나 도움을 구한 적이 있어요?
S외5: **도서관에서 관련된 책 빌려서 읽었어요.** (부모님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가가 되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제대로 말을 못해요.**

S중4는 중학교 2학년 초까지는 과학자가 꿈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였다고 한다. S중4는 자신이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과학자

가 되는 것이 어려우며, 수학을 잘 해보려고 했지만 머리가 좋지 않아서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바로 포기하였다고 한다. 과학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 S중4는 현재 구체적으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기보다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한다. 대학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나, 기술·가정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건축 설계도를 한 번 그려주면 50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듣고 건축과 관련된 학과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자: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게요. 혹시 꿈 있어요?
S중4: 과학자인데 너무 어려운 거 같아서 포기했어요.
사회자: 어떤 점에서 과학자가 되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S중4: 수학을 못 해서요.
사회자: 수학을 잘해서 과학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은 안 했어요?
S중4: 했는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요.
사회자: 고등학교는 어디 가고 싶다 생각해 본 거 있어요?
S중4: 집이랑 가까운 데요. 원래는 과고를 가고 싶었지만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바로 포기를 했죠.
사회자: (대학에서) 무슨 과 가고 싶어요?
S중4: 원래는 과학 쪽을 가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건축 쪽.. 설계도 그려주면 돈 많이 준다고 해서요. 기가시간에 쌤이 얘기해 줬어요. 한 번 그려 주는데 5백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위의 사례 이외에도 많은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극히 일부(S국2)를 제외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다양하게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와 같이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이 매우 추상적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노력들도 보이지 않는다.

사회자: (현재)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S국1: 옛날에는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도 종류가 많고 공무원 준비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을 원하고 있기는 한데 다른 직업들도 어떤가 하고, **저의 다른 장점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저희 음악쌤이 새로 오셨는데 저희 밴드부 담당해주는 선생님이어서 **저도 음악 선생님이 되어서 밴드부 관리 같은 거를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행정직 공무원도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확실히 들어오고 그래서, … **좋아하는 거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S중1: 일단 운동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운동 중에.. 부모님은 제가 운동을 잘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운동선수보다는 가르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세요.

S국5: (장래희망으로) 간호사는 옛날부터 간호사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피를 무서워해서 의사는 싫고 간호사는 해 보고 싶어요. **의사는 그냥 일단 공부만 하고 있고 네일 아티스트는 심심할 때 하는 거요.** (그런데) 지금은 네일은 별로 안 하고 패션, 액세서리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4) 요약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상황)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10.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상황) 면접내용 분석결과 요약

구분	내용
1. 초-중 전환기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신체적 변화	• 다문화청소년이 체감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변화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키, 변성기, 여드름, 외모(얼굴)의 변화 등임.
정신적 변화	• 다문화청소년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생각함. 사춘기의 영향도 있으며, 친구의 변화 및 학교 규칙의 영향도 존재함.
2. 자신이 정의하는 '나'와 만족 정도	
자신에 대한 정의	• 다수의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함. 주변의 다른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인식함. 일부 청소년의 경우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함. 여기에는 현재 상황, 자신의 성격, 부모의 모습이 투영됨.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	• 다수의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편임.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일부 청소년은 자신을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의 상황 혹은 문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3. 진로(장래희망)의 탐색과 결정 과정	
진로 탐색 및 결정 유형	• 다문화청소년 중에서는 이미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였거나, 과거 결정한 진로를 포기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고 있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함. • 다양한 유형들의 공통점은 구체적인 계획 혹은 정보를 근거로 한 탐색 혹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임.

5) 정책적 요구

(1) 받은 지원에 대한 인식

받은 적 없는 지원, 일부 기억에 남는 지원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는 '전환기' 또는 '다문화'이기에 받은 지원이 없었다고 언급한다. 일부 어머니가 특정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선물을 받은 것과 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어디에

서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은 지원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교육 혹은 학업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2년 정도 학습지 지원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였다.

사회자: 자녀가 다문화청소년이라서 혹은 중학교로 진학한다고 해서 지원받은 적이 있었나요?
M국2: 선물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런 데서 많이 챙겨 주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네. 학습 도움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두 시간씩 오셔서.. 문제집을 이용해서 같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M외5: 입학준비금 그거 엄청 좋은 거 같아요. 교복 같은 거 사줘야 되는데 지원금 받고 사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30만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로 느껴진 거 같아서

M중2: 이것저것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고 있으면 주시잖아요. 그런 거 많았는데, 멘토 같은 것도 있었고요. 다문화라 받는 건지, 공부 가르쳐 주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2) '전환기'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학습(교육)에 대한 지원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는 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들은 주변의 한국인 어머니들 그리고 공부를 어려워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학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청소년 역시 어려워지는 학교 수업에 대한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집(학습지)과 학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더 많은 방과 후 학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S국5: 공부 아니면 지원금? 학원비 그런 거 받으면 괜찮을 거 같아요. (학교 공부 중) 잘 안 되는 거요. (방과 후 수업이) 있기는 한데 다 돈 내고 하는 거라 안 해요.

M중1: 교육하는 거, 언어. 네. 외국어. 한국어는 별로, 안 해도 돼요. 애들 잘해요. 한국에는 영어해야 하잖아요. 우리 애들 영어 잘 해 주면 좋아요. 다른 언어 있어도 좋아요. 외국 언어.

M외1: (필요한 지원이) 있어요. 수학, 국어요. … (또한)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에 상담을 받을 때 ○○이가 손으로 만드는 거를 잘한다고 했어요. 조립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M외3: 공부. 돈 아니고 공부해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돈 주면 사람들이 돈만 기다려요.

의사소통(언어) 관련 지원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는 학습(공부)이외에도 한국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 혹은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 불안 혹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혹은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한국인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이 능숙하지 않은 자녀를 위해 중학교에도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배치되기를 희망한다는 어머니도 존재하였다.

사회자: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혹은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지원이 있을까요?
S외3: 의사소통 같은 거? (현재도 한국어를 잘 하지만) 그래도 더 잘하려면요. 그냥 대화를 편하게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 말고 지역사회에서도. (멘토보다는) 취미반 같은 거요. 취미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만들거나 하는 취미반이요.

M중3: 공부 많이 했지만 조금 더 하면 필요할 거 같아서, 멘토링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 아들한테 국어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어려운 단어도 아들 가르쳐 주고 아니면 대화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국어에 부족한 면은 없지만) 조금 더.

생활과 진로 계획에 필요한 정보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선택(결정) 과정에서 한계점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청소년과 어머니의 경우에도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희망한다. 또한, 한국 생활 혹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M외4에 의하면, 지금도 모국 사람 중 일부는 자녀가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졸업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물론, 자녀의 생활에 대한 정보는 '다문화 센터'에서 얻을 수 있겠으나, 다문화 센터에는 국제결혼가정이 많아 가끔 방문할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

사회자: 자녀 양육에 있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M국2: 장래희망 같은 거, 자기가 되고 싶은 거에 필요한 거? 이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요.

M외1: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아동센터 다니고, 방학 때도 거기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점심, 저녁 챙겨 주고 놀고 공부도 해 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는 거 같아요.

M외4: 정보가 좀 없어요.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데도 모르니까, 만약에 ○○사무소 가면 몽골 말로 가끔 있기는 있는데 아이들(과 관련한 정보는) 없어요.
사회자: 아이들 관련해서?
M외4: 네. 아이들 관련해서, 그리고 다문화센터도 있기는 있는데 다문화센터는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만, 그런 거 좀 많이 있어서, … 그러니까 다문화 가면 가끔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디 가서 영어 할 수 있는지 그거 알 수 있게 그런 거, 정보 있으면..

(3)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지원

경제적 지원 : 모국 방문, 다자녀, 병원(치료)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모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M국1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와 함께 모국에 다녀올 수 있는 지원금과 같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머니는 오랜 기간 모국에 있는 친정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원금만 주어지더라도 자녀와 함께 모국에 방문하여 자녀에게 어머니의 나라와 문화를 가르쳐주면서 자녀들도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일례로, M국3은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적십자에서 모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지원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지원이 없어진 상태라 아쉬우며, 이러한 지원들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으며,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M국1: 대부분 경제가 괜찮을 때 중국 보낼 수 있어요. … 안 좋은 가구들이 몇 년 못 가, 5년, 10년 친정 집 못 가는 집도 있잖아요. 그냥 **지원금만 있어서 같이 가서** 중국 문화, 엄마 모어? … 문화 무슨 차이 있는지 가서 좀 좋아요. 그냥 **아기들도 엄마가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사회자: 아~ 다자녀라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다고요?
M국3: 사람들이 나한테 애기 많이 낳으니까 나라에서 많이 주냐고 하는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요. 2005년? 6년? 적십자 그거에서 저에게 비행기를 해 줬거든요.
사회자: 그때 한 번 갔다 오신 거예요?
M국3: 네. (이후로는 베트남에 다녀오지 못하였고) 신청 하려는데 이제 없다고 해요.
사회자: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이것과 연결해서 엄마나 가족에게는 뭐를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M국3: 우리 애들은 그냥 다자녀이니까 애기 많으니까 도와주는 거 있고 생활비? 우리 애들 용품, 그리고 베트남 고향에 보내 주면 좋겠어요. 고향도 못 가요. 엄마, 아빠 보러 못 가고 그래요.

또 다른 어머니(M외3)는 다문화 가정과 부모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어를 어려워하고, 경력과 한국의 대학 졸업증이 없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결국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건강상태가 나빠짐에도 병원비가 비싸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M외3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어머니와 외국인을 보아왔으며, 그들에 대한 병원비 할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자: 다문화 가족들에게, 다문화 엄마, 아빠에게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면 좋겠어요?
M외3: 병원에 가면 치료 무료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고 다른 다문화 가족 … 엄마들, 다문화 외국 분들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몸이 안 좋아요. 치료 무료 받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주변에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못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M외3: 네. 이런 사람들이 아프면 직장에 나올 수 없어요. … 치료비도 많이 비싸요. 힘들어요. … 다문화 가족 아니면 외국분들 할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S외4: 다쳤을 때 병원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 같은 거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친 거는 부모님이 돈을 대신 내 줘야 되니까요. 비용적인 부담을 덜 받으시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위한 정보, 교육, 상담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M외4)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길 바란다. 현재 M외4와 남편은 모국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부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어디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M외4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 수만 있다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의식주와 자녀의 교육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다문화 가족, 혹은 엄마, 아빠에게는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나요?
M외4: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게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취업 관련해서) 네.
사회자: 정보가 부족한 걸까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그럴까요?
M외4: 정보가 부족해서요. 일자리 어디서 찾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사회자: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 줘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M외4: 네. 계속 직장 다니면 우리도 정해진 재산이 있어서 그때그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알바로 가니까 좀 그래요. … 직장 다니거나 취업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S중3의 어머니(M중3)는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S중3의 경우 사춘기가 심하지 않지만 가끔 예민해져 대화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사춘기를 이해해주는 문화이지만 모국의 경우에는 사춘기라는 것을 이해해주는 문화가 없다고 한다. 즉, 이러한 문화적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어머니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자: 아드님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 이런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M중3: 네. 있습니다. 사춘기 시작하고 가끔씩 집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싫어해요. 사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끔씩 예민한데 그거 싫어요. 저는 대화하고 싶은데
사회자: 사춘기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 같은 거?
M중3: 네. 그냥 **사춘기는 우리나라와 달라요.** 여기는 만약에 청소 빨리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바로 아이들이나 사춘기잖아 (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요.
사회자: 혹시 오시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는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M중3: 지금은 사춘기 시작했지만 너무 심하지 않지만 만약에 나중에 다문화센터에서 아니면 다른 데 만약에 그거를 받아 주면 저는 신청할 겁니다. 참석하고 싶어요. … **사춘기 자녀 아니면 한국에서의 생활.**

또 다른 어머니(M중2)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거주하고, 3명의 자녀를 키워오면서 '눈치를 보는 다문화청소년'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것을 티 내지 않으려 하고, 자녀에게도 '하면 안 돼'와 같은 말을 많이 한 결과라고 한다. M중2는 자녀의 한국인 친구들은 어린이다운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다문화청소년들은 어른스럽게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한국에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혹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관계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편하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모임·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M중2: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한국 애들은 와~ 하면서 애스럽다고 하나? 어린이스러운데 **다문화 가정 애들은 그런 게, 어른스럽다고 하는 눈치 보는 게 있거든요.** 뭔가 그런 거를, **엄마가 편하게 살기 위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느낌이 가끔 해요. **엄마가 눈치를 보며 살아서 그런지 다 비슷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사회자: 아이가 혹시 엄마가 외국인이라 상처 받을까봐?
M중2: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특히 베트남 쪽 애들도 그렇고 그런 애들이 많은 거 같아요. 조심스럽게 엄마도 그렇게 하니까 애도 그런 식으로 어른들 눈치 보면서, 그런 게 다 비슷해 보이네요.
사회자: 다문화 가족이나 엄마, 아빠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M중2: 내 주위에서는 안 맞아서 **한국 엄마랑 안 맞는다고 해서 혼자서, 아무도 사귀지 않는 엄마들 많거든요.** 그런 엄마들 보면 … **애도 고독하게 사는 거 같고 혼자만 있다는 애가 많거든요.** … 센터에서나 그런 데서도 그렇고 **모임 같은 거 해 주고 편하게 해 주는 그런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4) 요약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정책적 요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11. 정책적 요구 면접내용 분석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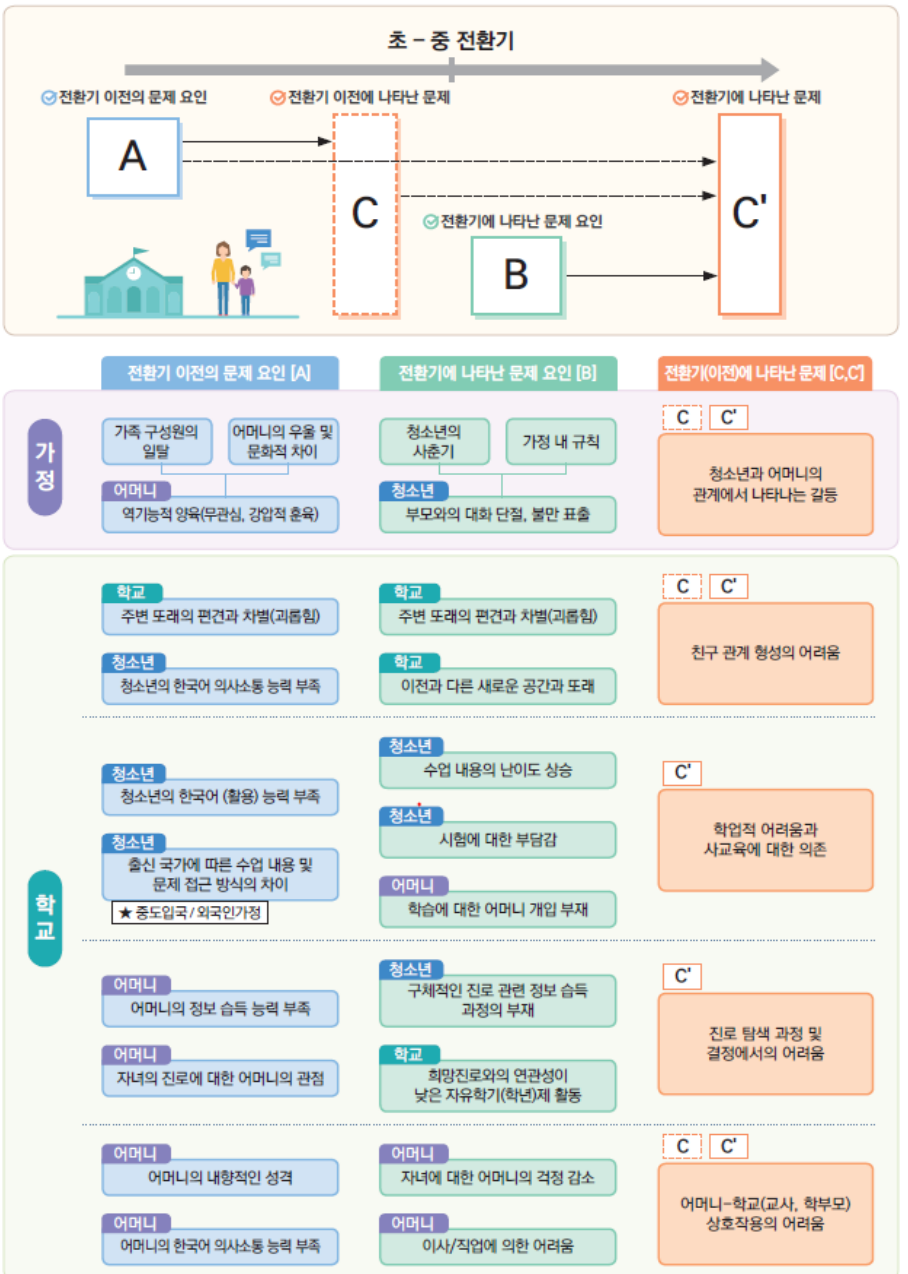
구분	내용
받은 지원에 대한 인식	• 많은 수의 청소년과 어머니는 '전환기' 혹은 '다문화'이기에 받은 지원이 없다고 응답함. 다문화 센터에서 받은 학습지원 및 활동을 받았음에도 받은 지원 중 하나로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청소년과 어머니는 선물(용품)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응답함. 학습 혹은 체험 프로그램은 선생님을 통해 연결되어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남.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 가장 필요한 것은 학습(교육)에 대한 지원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높음. 사교육 이외에 학습 방법 혹은 경로(도구)가 필요함. • 의사소통(언어)의 경우 한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생활과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

구분	내용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다문화 가정' 에게 필요한 지원	• 일부 어머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모국에의 방문과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함임. • 비경제적 지원으로는 부모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알지 못했던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그리고 이주자로서 가지고 있는 생활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함.

3. 소결

본 조사는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에 대한 면접을 통해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각각의 영역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고,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관심과 지원은 어떠하며,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형태와 그 속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하였다. 초-중 전환기 전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은 사춘기 혹은 가정 내 규칙으로 인하여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초-중 전환기에 나타나는 사춘기로 인한 대화의 단절과 규칙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환기 이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전환기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사춘기'를 이해하지 않는 문화권에서 이주한 어머니에게 한국에서 자라는 자녀의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사례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방식으로 이어져 청소년과 어머니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초기 한국 생활에서 우울과 스트레스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자녀를 강압적으로 훈육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일탈과 경제적 어려움에 매몰되어 자녀에 대한 무관심한 어머니가 존재하였다. 해당 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에게 거리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맡겨진 집안일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환기 시점의 가족에게 맡기기보다 입국 전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상담 등의 지원 혹은 가정에 대한 개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VI-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과 영향 요인

다음으로, 중학교 입학 초기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걱정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학교급의 전환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친구들과 다른 공간에 떨어진 청소년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때 친구 관계로 어려워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전환기 이후에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전환기 이전 시점에서 관계 형성과 관련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중학교 입학 초기 청소년들의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다문화청소년은 초등학교 때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편견 혹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으며, 중학교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이해받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 초-중 전환기의 다문화청소년에게 친구는 학교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다문화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다문화적 배경이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반 청소년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교사)의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환기 전후에 학교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확대와 문화적 편견 및 차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초-중 전환기는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수업 내용의 난이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시험을 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대부분은 사교육(학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머니도 사교육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다문화청소년에게 학업의 어려움을 주는 요인은 한국어와 국가별 학습 내용의 차이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물론 읽고 쓰는 것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한국어를 '활용'하여 시험을 보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학의 경우 국가마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기호 등이 다르기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나타났다. 학업은 청소년의 의지와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어머니의 개입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 도구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어머니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환기 이전 중학교의 수업 내용과 시험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은 초-중 전환기에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있으며,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진로 탐색

및 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 부모의 영향, 현재 좋아하는 것에 근거한 추상적인 탐색 및 결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습득은 주로 인터넷, 동영상, 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에 어머니 혹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희망 진로를 이야기할 뿐이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로부터 진로에 대해 듣고 응원할 뿐 아직까지 깊게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과 부족한 정보로 인하여 자녀의 진로에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년)제를 통해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 혹은 결정한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한 일부 다문화청소년들은 큰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종합하자면, 청소년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년)제의 다양한 활동들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에 맞춘 세분화한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학교(교사 및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어머니 대부분이 학교에 먼저 연락하기보다 교사에게 오는 연락을 받아 자녀의 학교생활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나, 중학교에서는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적인 이유와 함께 중학생이 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줄어듦으로서 초등학교 때에 비해 찾아가는 횟수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와의 교류 역시 초등학교 때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생활, 학원, 선생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직업, 이사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부모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 전환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새로운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공간의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전환기 이전 어머니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를 인식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은 전환기 이후의 대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전환기에 나타나는 문제라도 그 원인이 전환기의 변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전환기 이전의 문제가 지속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려움과 고민이

청소년 본인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다양한 생활영역 내에서 관계를 맺는 대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전환기 이후'와 '다문화청소년'에게 한정하기보다 지원시점과 대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I-1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구 분	주요 결과	시사점
가족 관계	• 초-중 전환기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사춘기로 인한 대화 단절 및 규칙에 대한 불만과 같이 전환기에 나타나는 요인이 갈등을 촉발함. • 입국 초기 어머니의 우울과 문화적 차이 혹은 가족 구성원의 문제는 역기능적 양육으로 이어짐.	• 전환기 이전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사춘기 청소년의 양육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함. • 전환기를 벗어나 입국 전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혹은 가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친구 관계	• 다문화청소년은 중학교 입학 초기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걱정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음. • 전환기 이전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경우 전환기 이후에도 동일한 어려움에 봉착함. • 전환기 전후 주변 또래로부터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견과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존재함.	• 전환기 전후에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문화적 편견 및 차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공유가 필요함.
학업	•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은 수업 내용의 난이도 상승과 시험을 통한 평가 방식에 어려움을 겪음. •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 사교육 이외에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활용 능력 및 모국과의 수업 내용(방식)의 차이가 학업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침.	• 다문화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 도구(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학업에 대한 어머니의 참여를 위해 어머니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진로	•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은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음. •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이 없어, 주로 인터넷 등에 의존하여 피상적인 정보만을 습득하고 있음. • 어머니와 자유학기(년)제는 청소년의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 또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필요함. • 청소년의 희망진로와 자유학기(년)제 활동의 관련성을 높여야 함.
어머니-학교 상호작용	• 어머니들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교사로부터 오는 연락의 질과 빈도가 낮아졌다고 생각함. • 학교 방문 역시 시간적 한계와 관심의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에 비해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와의 교류 또한 이사/직업적 문제로 초등학교 때 형성한 교류가 끊어지는 경우도 존재함. • 내성적인 성향 혹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어머니는 전환기 전후 모두 교류가 없음.	• 전환기 이전 어머니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전환기 이후에도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교사 및 학부모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제7장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

1. 제언 도출 방법
2.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3.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안)

7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20]

1. 정책제언 도출 방법

이 연구에서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료분석-시사점도출-정책제언의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초-중 전환기 청소년(다문화청소년)의 적응 관련 국내외 학술연구를 검토하고,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국내의 법, 국정과제, 기본계획, 그리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초-중 전환기에 특히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심리·사회, 학교생활, 진로영역의 변화 양상에 주목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실시했다. 양적연구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수집된 2기 패널 4차년을 포함하는 종단자료와 1기 패널자료를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진로발달 양상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널자료 분석은 ①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2기 패널(1~4차), ②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경향성 8년 주기 비교: 1, 2기 패널(4차), ③ 다문화청소년 학교적응 변화양상 유형구분 및 영향요인 탐색: 2기 패널(1~4차), ④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 2기 패널(3~4차)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였다. 질적연구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그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과 이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중 전환기의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 등과 관련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시사점 도출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두 차례 개최한 콜로키움에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특성과 진로교육에 대한 사례와 다문화학생의 성장과 지원 실태에 대한 현황을 다룸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 7장은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했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본원의 청소년진로개발센터와 연합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와 관련한 연구와 정책 우수사례로부터 정책고도화를 위한 함의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현장 밀착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 및 서울시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진행과 제언을 위한 시사점 도출의 일환으로 현장과 학계에 있는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 출처: 저자작성

그림 Ⅶ-1. 제언 도출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원칙을 설정하였고, 기존 또는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규과제와 정책고도화 방안을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세부과제의 제안 배경과 관련부처도 제시하였다.

2.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 법률, 공공정책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급 전환기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심리·정서 불안,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진로성숙도 후퇴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함께 겪는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부정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기된다.

다문화청소년은 이와 같은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데, 잦은 이주나 짧은 한국어 학습기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교육격차가 학교급 전환으로 인해 내재화되거나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다문화청소년이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전환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크기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양상은 연구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비다문화청소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이는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다문화청소년 중 일부 유형만 다루었거나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모형에 기반하지 않은 이유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국내의 법과 공공정책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체계는 어느 정도 그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법령마다 지원대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의 적용범위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며,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정책의 경우 "학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공교육 체계를 떠나 있는 청소년은 여러 지원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다문화 교육정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신설 조항을 통해 일부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부 법령에서는 사회적응 및 학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또는 청소년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 주어지는 지원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접근에만 근거했을 때 사후적인 지원에 집중될 위험성이 있다. 사후적 지원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선제적인 접근에 근거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에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설정해 추진하는 정책은 징검다리 과정이 유일하다. 그러나 징검다리 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는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기준 전국 11개에 불과하다. 이는 중학교 진학 예정 다문화청소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폭넓은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 사업이 담임교사나 다문화 언어강사와 같이 기존 학교에 존재하는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수요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특성상 학기 중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과 개별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시점에 정확한 대상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은 사업운영 방식의 변화도 고민해봐야 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레인보우스쿨이나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학교 진학 또는 전입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라면 학교배정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기본으로 중도에 입국하는 대상자에게는 수시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재설계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 밀착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부모교육과 같은 경우 해당 서비스를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3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원활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가정에 적절한 지원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녀 연령이 만12세를 넘어가는 경우 더 이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부모교육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생애주기 가운데 마지막 시점인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는 연령범위가 길어

사실상 초-중 전환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학부모 교육자료 제작 및 설명회 실시 등은 학교급 전환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다문화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정책사례로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정보전달이 중심이 되고 있고, 획득한 정보의 내면화 과정은 온전히 학부모에게 맡겨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방문교육, 온라인 또는 AI기기를 통한 학습, 교내 보조인력 배치 등과 같은 정책은 학습역량의 개선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함께 추구하며,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 중 드물게 일부 지자체에서 중학생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중 전환기 원활한 이행을 돕는 유의미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사업의 대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지원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생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진학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와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구성된 예비학교 및 공교육 진입 전후 집중학습 과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특성으로 특정한 배경 또는 국가출신의 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 본래 사업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실무적 조율을 사업의 운영상 고려해야 한다.

2) 패널자료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패널자료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심리·사회 적응 등 여러 차원에 걸쳐 4년간의 변화 추이를 이주배경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했다. 둘째, 초-중 전환기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양상이 시대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와 2기 패널의 4차년도 자료를 통해 8년 주기 비교를 실시했다. 셋째, 초-중 전환기 필요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의 종단적 학교적응 변화양상의 유형을 구분하고, 구분된 유형에 대한 예측 요인을 탐색하였다. 넷째, 초-중 전환기 시점에서의 정체성 발달과 진로발달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어디에서의' 삶을 그려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2기 패널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영역으로 구분하여 4년간의 발달 추이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내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가정 대부분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소득분위 2-3분위에 속하며, 전체 평균을 하회하고 있었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은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에 접어들어 자녀의 활동, 시간 관리 등 자녀에 대한 관심, 즉 감독의 양육태도가 낮아지고 보호소홀, 무관심 등 방임의 양육태도가 높아졌다.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들은 많은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사안을 함께 의논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초-중 전환기를 포함한 자녀의 발달적 상황을 고려한 세분화된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영역에서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태도, 친구 및 선생님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초-중 전환기에 큰 폭으로 낮아졌다.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 지목한 것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친구관계(초4)에서 학교공부로 바뀌었는데, 중학교 진학 후 학업에 대한 어려움은 가속화되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힘들거나 숙제나 과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학교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낮은 문해력과 이독성 (Readability)에 기인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가 미숙하여 학교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구와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부족한 문해력을 보완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어 학습 시간의 확대를 통해 학습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사회 적응영역에서는 심리적응, 사회적응 및 지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심리적응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변화추이를 보였으

며, 중학교 진학 이후 심리적 불안정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로부터 지지는 감소하였지만, 친구·교사로부터 지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비율도 점차 상승했다. 이는 가정 내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적 관계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다만, 절반 이하의 다문화청소년은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내 상호작용이 부재하거나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기관의 지지체계 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체성영역에서는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정체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다문화청소년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국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본국/외국인 부모나라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비율도 높았다. 초-중 전환기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 한국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최저 수준을 보인 반면, 두 국가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비율이 반향되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한국인정체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 4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중학교에 진학 후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역시 초-중 전환기에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로부터 조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중학교 입학 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한국문화수용태도는 중학교 입학 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중 전환기 경험하는 여러 형태의 혼란을 대변하는 결과일 수 있다.

다섯째, 신체발달 및 건강의 영역에서는 신체발달과 건강평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신체발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키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가장 작았는데 이러한 추세는 중학교 1학년까지 유지되었다. 반면, 몸무게에서 이주배경유형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하였지만, 이러한 평가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경향성 8년 주기 비교: 1,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와 2기 패널 각각의 4차년도 자료(초-중 전환기: 중학교 1학년)를 개인, 환경, 다문화 영역으로 구분해 1기 국제결혼가정과 2기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에서 변인 간 전체평균을 비교하고, 배경변인의 특성에 따른 1기와 2기 패널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1기와 2기 패널 간 배경특성을 비교 해 본 결과,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 차이는 있었지만,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례가 많았다. 영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영역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진로에 관해 두 패널을 비교한 결과, 2기 패널의 희망교육수준이 1기 패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중도입국가정에서 대학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 우울, 진로태도 결정성)에서 패널 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개인 영역에서 1기와 2기 패널 간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심리·사회적응이나 진로 지원과 관련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같은 변인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관계도 1기와 2기 패널 간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진로태도 결정성이 높아지는 경향도 8년이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다. 개인 영역 변인과 배경변인 간 관계에서, 1기와 2기 차이가 있었던 것은, 거주지역에 다른 삶의 만족도이다. 지난 1기 패널에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8년 후 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외국인가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환경 영역에서는 1기와 2기 패널 간 차이가 변인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고 상승, 감소, 유지의 형태를 보였으며,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도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보면 "감독"은 1기 패널과 비교하여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방임"은 외국인가정에서 더 낮았다. 친구의지지는 외국인, 국제결혼, 중도입국가정의 순으로 1기 패널보다 낮았다. 집단괴롭힘의 피해 경험은 1기 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입국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 무시, 집적거림, 거짓소문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중도입국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낮은 친구의지지에 대한 인식으로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은 지난 8년 사이 큰 폭으로 높아졌는데, 학교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8배,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3배 상승하였다. 한편, 환경 영역의 변인과 배경변인 간 관계는, 8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가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다문화영역에서는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에 초점을 맞춰 비교한 결과, 국제결혼가

정에서 자녀가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8년 전과 비교하여 소폭 하락했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이 스스로를 한국사람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은 8년 전보다 높아졌다. 다문화영역에 따라 배경변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둘 간 관계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주로 외국인가정에서 나타났다.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국사람으로 인식하거나 한국정체성을 갖는 비율이 1기와 2기 통틀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외국인가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외국출신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데 한국어, 부모님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대도시에서 더 높은 경향은 1기와 2기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외국인가정만 읍·면지역이 더 높은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가정의 이질성을 드러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다문화청소년 학교적응 변화양상 유형구분 및 영향요인 탐색: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을 유형화하고 구분된 유형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간의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살펴본 결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세 집단은 4년간 중간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이는 '중간유지집단', '초기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조금씩 감소하는 집단', '초기 매우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조금씩 증가하는 집단'이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시점에 집중하기보다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적응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시점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자아존중감은 해당 시점 외에 다른 시점에서는 집단의 구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의 심리정서적 변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성적에 대한 인식, 의미있는 타자(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과 학교적응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4, 초5, 중1 시점에서 학교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또한,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이 있을 때 대체로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잠재집단별 학교적응 수준에 대한 차이가 매우 작은 4차시에도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이와 같은 변인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일정수준 이상까지 학교적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좋은 학교성적을 받거나 문화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수준, 또는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높은 지지를 얻는 데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보여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가 증가하는 집단의 경우 학교적응력이 증가한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주목하여 살펴본 결과, 부모의 지지가 높고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학교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낮은 적응력을 보이는 다문화청소년들도 부모의 지지적 행동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부모교육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밖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도와주는 존재는 학교적응의 변화를 일정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집단에 속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주로 응답한 대상이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선생님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들 선생님의 학업에 대한 지원이 바탕이 되어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학교적응 변화양상에 따라 구분한 유형별로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년이 증가하며 소폭 감소하기는 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이 성적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은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학교적응 수준이 낮았다가 점차 증가한 집단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다른 집단과 거의 유사한 학교적응 수준을 보이지만, 심리적 특성 요인에서는 여전히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공부 분위기에 만족하고 수업시간에 재미를 느끼며, 선생님과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더라도 특정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우울을 낮추는 밝혀지지 않은 요인이 여전히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4)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 2기 패널

이 분석에서는 초-중 전환기 시점에서의 정체성 발달과 진로발달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춰 다문화청소년이 '어디에서의' 삶을 그려나가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선행연구들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미래설계(폭넓은 의미의 진로)의 연관성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정체성 및 한국사회와의 연결 패턴이 다양한 진로발달 변수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살피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패널의 3-4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선형, 로짓, 다항로짓)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은 다양하게 형성되며 특히 초-중 전환기에 유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을 한국사람으로 정체화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스스로를 본국이나 외국인 부모의 나라 사람으로 여기거나 이중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렇듯 다양한 정체성은 다문화청소년들의 개별적인 경험과 가족 배경, 사회적 경험 등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맥락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 정체성과 진로발달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특히, 본인을 한국 사람으로 정체화하지 않거나 이중국적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 진로결정에 있어 다소 유연하며, 다른 나라에서의 학업이나 일자리를 더 많이 고려하는 등 타국에서의 삶을 더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본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사실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어디에서의 삶을 계획하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진로 옵션을 고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 사회의 포용성 인식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긍정적이고, 포용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은 보다 한국에서 머무르고 학업을 이어나갈 의지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배제, 혐오가 증가하는 시대에 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학생들의 적응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환경과 정책을 조성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지점이다. 나아가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다.

3) 심층면담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본 조사는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에 대한 면접을 통해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맺는 관계와 활동(경험)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및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과 질을 확인하였다. 초-중 전환기 전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은 초-중 전환기에 부모와 대화를 단절하거나, 규칙에 불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도 비다문화청소년과 같은 발달단계를 거치며, 가족에서 또래관계로 확장하면서 부모와의 대화가 적어지는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전환기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가 다른 문화권에서 이주한 어머니가 자녀의 변화에 대해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입국 초기 어머니의 우울(스트레스)과 문화적 차이 혹은 가족 구성원의 일탈과 경제적 어려움이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에게 거리감을 느끼며,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입국 전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상담 등의 지원 혹은 가정에 대한 개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학교 입학 초기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걱정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홀로 새로운 공간에 떨어진 청소년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전환기 이전부터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한국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청소년은 전환기 이후에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환기 이전에 관계 형성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전환기 초기에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다문화청소년은 전환기 전후로 또래에 의한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야 하며, 학교의 적절한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공유할 필요가 있다.

초-중 전환기는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중학교에 진학한 다문화청소년은 수업 내용의 난이도와 시험을 보는 것에 어려움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 사교육(학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부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를 '활용'하여 시험을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경우 모국과 한국의 수업내용 및 접근방식의 차이가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이어졌다. 학업은 청소년의 의지와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어머니

의 개입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환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 도구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어머니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수업 내용과 시험에 쉽게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초-중 전환기에 다양한 진로를 탐색 혹은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 좋아하는 것에 근거한 추상적인 탐색 및 결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로 인터넷, 책 등에 의존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주변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현 시점에서 자녀의 진로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년)제를 통해 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희망진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청소년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학기(년)제의 다양한 활동들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의 희망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학교(교사 및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어머니 대부분이 교사에게 오는 연락을 받아 자녀의 학교생활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머니 중 일부는 초등학교 때는 교사로부터 자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으나, 중학교 때는 교사로부터의 연락 빈도와 질이 낮아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 방문의 경우에도 직업적인 이유와 함께 중학생이 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줄어듦으로서 초등학교 때에 비해 찾아가는 횟수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와의 교류 역시 전환기 이후 직업, 이사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존 학부모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 전환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새로운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공간의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전환기 이전 어머니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를 인식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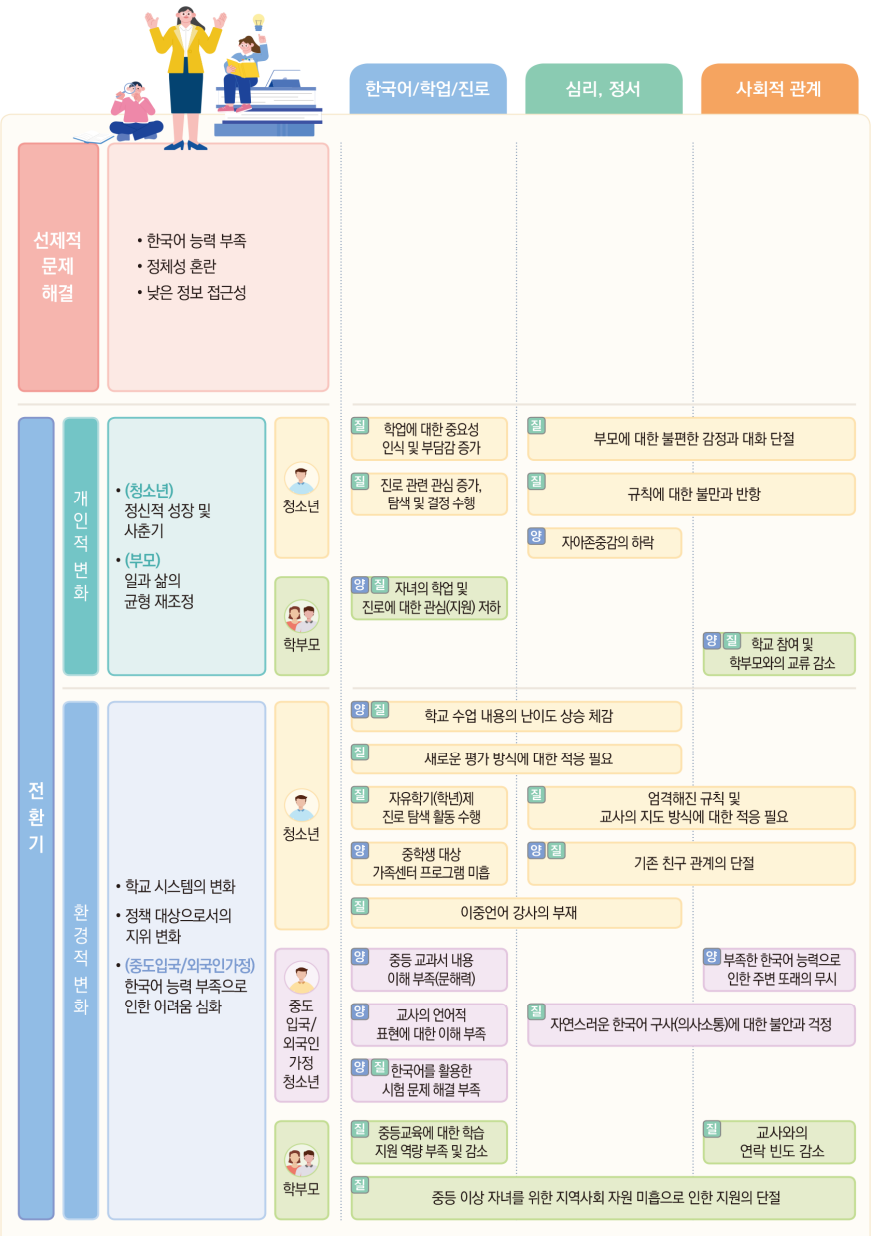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은 전환기 이후의 대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전환기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전환기의 변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전환기 이전의 문제가 전환기 이후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이 청소년 본인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다양한 생활영역 내에서 관계를 맺는 대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전환기 이후'와 '다문화청소년'에게 한정하기보다 지원시점과 대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분석결과 도식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양적·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시사점을 정책 체계화를 위한 틀에 배치한 결과는 [그림 Ⅶ-2]와 같다. 이 연구가 초-중 전환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환기 변화를 중심에 두고, 이 시기 개인적 변화와 환경적 변화에 따라 한국어/학업/진로,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양상이 청소년과 학부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내 이질성을 보이는 결과를 구분하고자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별도로 정리하였다. 또한, 전환기를 연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초점은 아니었으나 전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정리하고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선제적 문제해결" 차원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각각의 결과가 어떠한 자료(양적 또는 질적)로부터 도출되었는지 표기하였다.

다음절에서는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식화한 내용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각 정책이 어떠한 원칙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 4가지 원칙을 먼저 제시하였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Ⅶ-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분석결과 도식화

3.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안)

1) 정책방향(비전과 원칙)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이행 과정을 여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개인과 환경 등의 변화로 다문화청소년은 여러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 시기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에 추진되는 관련 정책이 존재함에도 여러 한계로 실질적인 지원이 광범위하게 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환기 원활한 이행이 지연될 경우 그 과정에서 여러 차원의 격차가 내재화되면서 이후의 삶에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원활한 초-중 전환기 이행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Ⅷ-3.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원칙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될 과제가 바탕을 두어야 할 원칙은, 1 선제적 지원 2 다차원적 지원 3 차별없는 지원 4 지속가능한 지원, 총 4가지이다. 첫째, 선제적 지원은, 그동안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지원의 상당부분이 어려움이 발생한 이후 처방적으로 추진되었거나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제시하였다. 특히, 초-중

전환기는 개인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동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계로 진행되기 이전 선제적 대응으로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다차원적 지원의 원칙이다. 다문화청소년이 초-중 전환기에 경험하는 어려움은 대체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전환기에 이전부터 누적된 격차가 전환기를 거치며 증폭되기도 하고, 전환기 변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여러 차원의 문제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악화되기도 한다.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각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정책연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연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무현장에서 서로 다른 추진체계 간 연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책 간 연계가 미흡하게 되면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지원의 원칙에 근거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차별없는 지원 원칙은 법률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달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다. 국내의 법률 가운데 이주배경 또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이 있는데, 각 법률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책의 대상은 제각각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책인지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규모가 다르고, 해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르다. 특히, 정책소외가 자주 발생하는 집단은 외국인가정 자녀인데, 여기에 중도입국 배경까지 가지고 있을 경우 학적을 생성하기까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다수의 정책에서 배제된 채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에서 출생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연령대의 다문화청소년은 대부분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대상 간 정책불균형은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없는 지원 원칙에 의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지원 원칙이다. 다문화청소년이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일 때가 많다. 따라서 지원의 지속성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상당수의 정책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취업 조건 등에 비해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열악한 처우와 협약 사업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질 때 정책 참여자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업 자체의 효과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초-중 전환기 불안정의 일부 근원이 단절로 인한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2) 세부과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원활한 초-중 전환기 이행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원칙(선제적 지원, 다차원적 지원, 차별없는 지원, 지속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Ⅶ-1. 세부 정책 과제

정책과제명	도출근거						추진일정	추진방식
	패널자료 분석				심층 면담	정책 분석	단기/중기/장기	개선/활용
	1절	2절	심화1	심화2				
과제 Ⅰ. 징검다리 과정	◎					◎	단기	개선
과제 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	◎	단·중기	개선
과제 Ⅲ.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제도	◎				◎	◎	중기	개선
과제 Ⅳ. AI 디지털 교과서	◎	◎			◎		중·장기	활용
과제 Ⅴ. 진로연계학기		◎		◎		◎	중기	활용

각 세부과제는 기존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과제Ⅰ, 과제Ⅱ, 과제Ⅲ), 향후 새롭게 도입될 계획인 정책적 움직임에 다문화청소년의 원활한 초-중 전환기 이행을 위해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과제Ⅳ, 과제Ⅴ)하였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해당 정책을 제시하였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Ⅶ-4.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체계

과제 Ⅰ	징검다리 과정(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학교급 전환기 다문화청소년들은 개인과 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심리·정서 불안,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진로성숙도 후퇴 등을 겪을 수 있음.
- 잦은 이주나 한국어 능력의 부족,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교육격차가 학교급 전환으로 인해 내재화되거나 증폭될 수 있음.
-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징검다리 과정을 추진하고 있음.
-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학생 연령대의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전국에서 운영되는 징검다리 과정은 2023년 계획 기준 11개에 불과함.
- 작은 예산 규모와 사업 대상자의 예측 불가능성 등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킴.
- 학기 도중 발생하는 수요가 있음.

세부내용

- 주요개선방안

	기존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변경
대상	• 중학교(징검다리 과정 운영학교) 입학 예정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	• 지역 내 중학교 진학 예정 다문화청소년이라면 학교배정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운영방식	• 개별 학교단위	• 지역단위
운영시기	• 입학 전(1~2월) 및 2학기 시작 전(7~8월), 2회	• 입학 전(1~2월) 및 2학기 시작 전(7~8월)으로 유지하되 중도입국 수요 등을 고려해 학기 중 각 1회씩 추가해 총 4회 운영
운영기관	• 징검다리 과정 운영학교	• 접근성을 고려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지역거점예비학교(추진중) 등의 활용도 고려

- 한국어 강사 및 다국어 통역 지원
- 징검다리 과정 내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실시
  - 안내자료 제작 및 보급을 넘어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
  - 학부모가 자녀가 배정된 학교를 둘러보고 동일학교에 배정된 다른 학부모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중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과 동시에 학교급 전환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

기타사항

- 지역별 대상자 파악을 위한 부처간 협조 필요
- 입학 예정 학교별 맞춤형 자료(자유학기제 포함) 제작 및 지원을 위해 업무 담당자 지정
- 징검다리 과정 내에서 한국어 예비과정('25년 사업본격화) 참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함으로써 행정효율화 달성
- 향후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되면 그 효과성에 따라 본 사업의 역할 전환이 요청될 수 있음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추진 일정			주관부처	개선/활용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선

과제 II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일부 학부모들은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업무량을 늘리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재조정하면서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쏟는 관심이 줄어들기도 함. • 학교 참여 및 교사와 교류 빈도가 줄어들고, 다른 학부모와의 교류 감소가 발생하기도 함. • 중등교육에 대한 학습 지원 역량의 부족으로 학부모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지자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이나 설명회 등은 의미가 있으나 주로 단순한 정보전달이 중심이 되고 있고, 획득한 정보의 내면화 과정은 온전히 학부모에게 맡겨지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밀착해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중학교 진학을 전후로 한 시점에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 자격요건(한글교육: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 또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 120시간 이상 이수 / 생활지도사: 건강가정사, 보육교사·교원 자격증 소지 또는 유아·아동·복지 관련 학과 등의 전공자)과 돌봄 서비스에 가까운 업무내용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 – 방문교육지도사는 2021년 기준 월 32회 수업 시 평균 80만 원(각종 수당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되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시 12,500원(20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에 해당함. –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투철한 봉사정신에 의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남정연, 김영순, 2022)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높은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세부내용	• 지원대상의 확대 –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년 이하), 유아기(생후 1년 초과 ~ 만 4세 이하), 아동기(생후 4년 초과 ~ 만 12세 이하) 등 생애주기별 각 1회(회기당 2시간, 주 2회, 총 40회기 기준)씩 총 3회 제공되는 것에 청소년기(만 12세 초과 ~ 만 14세 이하) 1회를 추가하여 총 4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 지원내용의 확대 – 중학교 연령대를 추가함에 따라 초-중 전환기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로서 적절한 학습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부모교육으로 다뤄야함. – 자녀의 연령대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 •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 2022년 기준 여가부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 편차가 있는 편임.
기타사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확대에 따른 방문교육지도사 보수교육 또는 워크숍 등 개최 필요 •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관련 지자체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추진 일정			주관부처	개선/활용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		여성가족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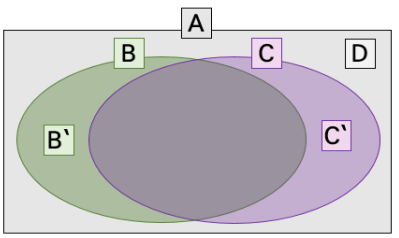
과제 Ⅲ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제도(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국내의 법과 공공정책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체계는 어느 정도 그 기반을 갖추고 있음.
- 법령마다 지원대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의 적용범위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예컨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어 구성원 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센터 이용은 대체로 초등학생 이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미흡하기 때문임.
- 중등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역시 미흡으로 인한 단절이 발생함.
- 지역에 따라 이중언어 강사가 부재한 경우가 있음.

세부내용

- 다문화청소년 관련 개념 간 관계



A : 다문화청소년
B : 다문화학생
B` : 재학 외국인가정 자녀
C : 다문화가족 자녀
C` : 외국인가정 자녀를 제외한 학교밖 다문화청소년
D : 미재학 외국인가정 자녀

* 출처: 저자작성

그림Ⅶ -5. 다문화청소년 관련 개념 간 관계

-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 근거 법률 개정
  - 다문화청소년 또는 이주배경청소년(A)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가장 넓은 범위의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음.

표 Ⅶ-2. 「청소년복지지원법」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10월 11일 인출

  - 다문화학생 또는 이주배경학생(B)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 추진 중임. 신설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대상 범위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내국인)과 입학예정 및 재학중인 외국인으로 다문화학생(B)의 범위보다 넓으며, 대부분의 동일한 연령기준의 다문화청소년을 포괄함. 다만, "입학예정"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문구를 좁게 해석한다면 학교를 중퇴한 상태의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예) 입학예정·재학중 외국인 → 입학예정·재학중·학교밖 외국인

표 Ⅶ-3. 다문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신설내용

① (국가·지자체 의무) 다문화 교육정책에 필요한 시책마련 의무
② (정책대상 범위) 다문화가족 구성원(내국인) + 입학예정·재학중 외국인
③ (교육부장관·교육감 권리)
  1) 교육부장관의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 실시권
  2) 교육감의 한국어학급 등 특별학급 설치·운영권
  3)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특별학급에 대한 필요경비 및 인력지원권
  4)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권/지정·위탁권
④ (학교장 의무) 1)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2) 다양성 존중 3)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할 의무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 다문화가족 자녀(C)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도 유사한 대상(결혼이민자 자녀)을 지원함. 다만,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동일 연령대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협소해 [그림 Ⅶ-5]의 B, B`, D와 같은 대상을 포괄하지 못함. 따라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정의함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법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하는 안을 제안함.

예) 제10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 청소년 보육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과 **"재한외국인의 자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Ⅶ-4. 「다문화가족지원법」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 ·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아동 · 청소년 보육 ·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 청소년 보육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 · 청소년 보육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제목개정 2015. 12. 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23년 2월 17일 인출

	- 재한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홍보를 위한 교육·홍보, 그밖에 조치를 위한 노력"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짐.

기타사항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신설조항 일부 수정 • 재한외국인 자녀 지원을 위한 조항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한시적으로 포함 • 징검다리 과정 내 한국어 예비과정(추진중) 대상자 파악을 통해 행정효율화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추진 일정**			**주관부처**	**개선/활용**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개선

과제 Ⅳ	AI 디지털 교과서(활용)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다문화청소년들은 비다문화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부담을 느끼며,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됨. • 동시에 수업내용의 난이도가 상승했음을 체감하기도 함. • 다문화청소년 중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수업결손과 학습부진을 겪는 경우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경험하는 수업내용의 심화와 생소한 평가 방식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내재화하게 되고, 그 결과 교육체계로부터 이탈할 위험이 커짐. • 한정된 학습시간 내 한국어 교육과 교과 교육 간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음. • 외국에서의 학습 경험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이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언어를 뛰어 넘는 학습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24년 운영을 목표로 AI 기반 한국어 학습관리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음. • '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 우선도입을 목표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중이며, 다국어번역 기능을 지원할 계획임(교육부 보도자료, 2023.06.08.) • 단순한 교과내용의 번역 수준을 넘어서는 활용법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세부내용	• 해외의 교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 –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그 확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있음. 다문화청소년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외국가의 교과서 또는 교재 활용을 협의하고, 이를 적용해 학습 시 능동적인 학습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어 수업 참여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보충 지원 – 재학중인 학년 외 그 이전 학년 교과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방과후학교나 연계기관에서 관리 또는 지도할 수 있도록 추진 •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 관련 교과 개발 – 일반학교에서 접근성이 낮은 제2외국어 교과를 AI 디지털 교과로 개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이 이중언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
기타사항	• 대상 해외국가와 자료 활용 관련 협의 필요. • AI 기능의 적용범위에 따라 본 제안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 • 구독 방식으로 교과서 가격체계 전환 시 해외콘텐츠 관리·유지로 인한 가격상승이 있을 수 있음.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추진 일정			주관부처	개선/활용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	교육부	활용

과제 Ⅴ	진로연계학기(활용)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은 다양하게 형성되며 특히 초-중 전환기에 유연하게 나타남. • 학교급 전환에 따른 여러 변화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다문화청소년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학기 도입을 발표하였음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계획 상 다문화적 요소의 고려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진로연계학기의 운영이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세부내용	• 정주기간이나 한국어 능력, 기초학습능력 등과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진로연계학기 참여가 가능하도록 모듈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정체성과 진로를 연결 지어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진로활동을 개발 • 다문화밀집지역에 있는 학교에서의 진로연계학기 운영을 위한 이중언어강사나 통역 등 지원이 필요함. • 진로연계학기의 의미와 부모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다문화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교육 • 지역내 한국어 집중교육 기관,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기의 의미와 지원방법에 관한 내용의 워크숍을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학교안과 밖에서 공동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표 Ⅶ-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내 진로연계교육 관련 내용**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3) 생략 4) 학교는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학년)으로 진학하기 전 학기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는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한글 해득 교육 등의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교육으로 운영한다. 나) 학교는 **중학교의 생활 및 학습 준비, 진로 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다) 학교는 **진로연계교육의 중점을 학생의 역량 함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두고, 교과별 학습 내용 및 학습 방법의 학교급 간 연계, 교과와 연계한 진로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한다. * 출처: 교육부(2022c).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기타사항	• 지역별 대상자 파악을 위한 부처간 협조 필요 • 입학 예정 학교별 맞춤형 자료 제작 및 지원을 위해 업무 담당자 지정 • 징검다리 과정 내 한국어 예비과정(추진중) 대상자 파악을 통해 행정효율화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추진 일정			주관부처	개선/활용
	단기('24~'25)	중기('26-'29)	장기('30-'35)		
		▶		교육부, 여성가족부	활용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갑준, 임수진 (2018). 중학교 신입생들의 전환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행정학연구, 36**(4), 133-170.

강하라 (2021).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양육행동을 매개로 초기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127-162.

경상북도교육청 (2023). **행복한 중학교 생활 길라잡이**. 안동: 경상북도교육청.

관계기관합동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년)**.

관계부처합동 (2023).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교육부 (2022a). **2022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b).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 **2022년 간추린 교육통계** (수탁통계자료 CSM 2022-02).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수탁사업 2015-5-5).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수탁사업 2016-04-4-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수탁사업 2017-02-4-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수탁사업 2018-17-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수탁사업 2019-08-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수탁사업 2020-12-0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수탁사업 2021-08-01).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수탁사업 2022-01-01).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권혜진, 다그와더르지 아마르자르갈, 김학선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이론의 국내와 국외 연구동향 비교분석. **산업혁신연구, 38**(2), 89-104.

김경근, 이자형, 이기혜 (2015). 한국인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수준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1), 1-28.

김경준, 김희진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통계** (연구보고 14-R14-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김기헌,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김균희, 이용해 (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1-06). 서울: 여성가족부.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연구보고 21-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미진, 김경은 (2021). 중등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군집유형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1), 147-169.

김민경, 권효원, 문찬주, 박나실, 방혜진, 황승록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2)** (수탁사업 2022-01-01).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보영, 장은비 (2015).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과 성취가치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31-52.

김세원 (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3 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8**, 101-135.

김송렬, 장안서 (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동네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1), 59-80.
김순규 (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연구보고 06-R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양분, 남궁지영, 박경호, 김미숙, 김위정 (2015).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Ⅲ): 조사개요 보고서** (연구보고 RR 2013-25).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양수경, 이병식, 임후남, 최정윤 (2011).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Ⅶ** (연구보고 RR2011-2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영미, 현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49**, 311-338.
김영혜, 김다경 (2016). **경기도 다문화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보고서 2016-30).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유빈, 이지은, 신선옥, 정현상, 권익성 (2019). **한국노동패널 1~21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윤경, 박주희 (2018).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의 전환기 동안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부모의 과잉간섭의 영향과 또래유능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 **아동학회지, 39**(4), 93-105.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족지지 및 한국어 능력과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경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367-396.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혜, 서지은, 노충래 (2019).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지도감독,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복지연구, 21**(2), 97-121.
김은혜, 최려나, 노충래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한국아동복지학, 70**(3), 127-154.
김종운, 김지현 (2008).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와 진로성숙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1**(2), 127-143.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 19-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혜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115-124.
김지혜, 김지림, 김철효, 김현미, 박영아, 이완, 허오영숙 (2019).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철희, 송진영, 문선혜, 정선화 (2023).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방임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99-121.
김태은, 노원경, 안태연, 고정화 (2015).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들의 교과태도 및 학교행복감 차이 분석. **초등교육연구, 28**(4), 61-89.
김평화, 윤혜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25-53.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19-R02-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김희찬 (2023). 다문화청소년 무단결석과 비행경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30**(3), 319-341.
남정연, 김영순 (202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돌봄 서비스 : 실천에 관한 의미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2), 179-205.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외모만족도와 한국어능력의 종단적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407-417.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함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노충래, 고주애, 윤수경 (2018).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

11).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류방란, 김경애, 이재분, 송혜정, 강일국 (2012).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 RR 2012-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오성배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류은수, 박민신, 박진희, 김자영, 오현아 (2020). 중학교 전환기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입학 전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실제-또래 문화 기반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4**, 213-258.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 및 또래친구 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4**, 67-93.
박근영, 오지연, 장윤정, 이정환, 김은미, 설가인, 이상민, 이윤정 (2019). **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통계자료 SM2019-09).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박미현, 박경자, 김현경 (2012). 초등학생 아동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5년에 걸친 발달적 변화. **아동학회지, 33**(4), 1-17.
박상현 (2019). 초기 청소년기의 자존감과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1319-1337.
박선웅 (2013). 초·중등학생의 "한국인"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사회이론, 43**, 161-199.
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1-19.
박윤경, 이소연 (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41-71.
박정현, 이미숙 (2014).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45-63.
박찬호, 서공주 (2020). 종단 문항반응이론 혼합모형의 적용을 통한 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31**(3), 5-32.
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배옥현 (2018).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방안. **다문화와 인간, 7**(12), 1-30.

백은순, 박형민, 김재우, 정재훈 (2013).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 -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 (RM 2013-11).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년~2022년)**. 세종: 법무부.

변숙영, 한상근, 유진영, 이정민, 김호진, 최영렬, 이수경 (2022).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지원 방안(2022): 다문화청소년** (기본연구 2022-18).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5**(3), 33-48.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송영호 (2021). 서울 구로구의 동네 효과(neighborhood effect)가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집합효율성과 외국인 친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구 사회과학연구), 45**(3), 103-129.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현기, 박소영, 박상완 (2022). 학교 간 학력 차이 요인 분석: 우수학력과 기초학력미달 중학교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5), 481-504.

안진숙 (2023).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77-98.

양계민 (2016). 종단연구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3), 3-21.

양계민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보고서** (연구보고 18-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강경균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연구보고 17-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

연구 Ⅱ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지연, 장윤선, 김사강, 김동진, 이탁건, 김주영, 변수정, 조성호, 김은정, 이주연, 조혜영, 김성식, 김이선, 최윤정, 이명진, 동제연, 이민영, 장인숙, …김유연 (20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협동연구총서 20-06-01, 연구보고서 19-R19).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양계민, 이정민, 정윤미, 엄진섭, 장윤선, 전경숙 (2022).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9-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0-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정윤미, 장윤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MYF21-19-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8-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엄선영, 이강이 (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3), 89-100.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1**. 서울: 여성가족부.

연은모, 최효식 (2020).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 추정 및 예측요인 탐색.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370-379.

오성배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오성배, 박희훈 (2018).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6**(1), 71-92.

오정아, 변수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7), 125-136.

오희선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 안산시 원곡동 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연구보고 22-일반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순화 (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5-375.
유한구, 민숙원, 류지영, 신동준, 이은혜, 이의규, 정태화 (201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2017)** (기본사업 2017-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육주원, 신형진 (2021). 한국인의 사회적 관용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인구학, 44**(4), 1-18.
윤예린, 오범호 (2020). 다문화멘토링 사업 참여가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31**(4), 1-16.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윤인진 (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0**(1), 125-154.
윤인진, 김은빈 (2012). 다문화가족의 언어사용과 아동의 사회정체성. **이중언어학, 48**, 273-307.
윤혜준, 송창용, 황성수, 민숙원, 백원영, 이은혜, 이지은, 금예진, 김혜정, 박라인, 손희전, 윤종혁, 김영식 (2019).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19)** (기본사업 2019-09).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Ⅰ-조사개요보고서-** (연구보고 03-R1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기수, 원성준 (2023). 다문화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9**(3), 401-424.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이남주, 김민 (2017).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다문화교육연구, 10(1), 141-170.
이민희 (2018). 대학생의 부모애착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종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5**(11), 35-64.
이윤정 (1999).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계획.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 이선희 (2019).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에 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6), 1-13.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이자형, 김경근 (2012).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교육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163-192.
이정은, 조미형 (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02.
이종화, 김현숙 (2012). 중학교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및 자아정체감에 대한 학급단위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191-21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2). **2022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주실 (2023).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30**(7), 75-99.
이창호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Ⅰ: 질적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3-R12-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이효경, 손은령 (2019). 전환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871-892.

이희정 (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3**, 143-171.

이희정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한국사회학, 52**(1), 77-115.

인효연 (2018). 초, 중학교 전환기 아동의 성취가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와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9**(4), 885-912.

임성애, 이은주 (2017).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초등교육연구, 30**(1), 121-145.

임효진, 한지은, 김정수, 선혜연 (2016). 청소년의 진로경험 및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의 종단변화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상담학연구, 17**(5), 289-306.

장은애, 정현희 (2019).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유대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0**(1), 313-340.

장은지 (2021). 이주배경청소년 학업성취 관련 요인의 지역 간 구조적 모형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 689-705.

전병주 (201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29-38.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6**(10), 259-290.

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경로 확인: 성장모형을 적용한 2년간의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32**(1), 177-197.

정규석 (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235-252.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외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연국보고서 2020-0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22-109).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송, 우연경, 송주연, 노언경 (2022).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의 유형화 및 종단적 변화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33**(2), 183-209.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57-85.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주연, 이은정 (2018). 사회 자아개념 및 학업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32**(3), 379-396.

조지영, 서정민 (2013). 누가 다문화 사회를 노래하는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써의 한국 다문화 담론과 그 효과. **한국사회학, 47**(5), 101-137.

차한솔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스트레스, 사회적위축,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28**(10), 489-523.

최미원, 이재신 (2018). 초·중학교 전환기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에 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4), 875-900.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최지원, 한윤선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승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탐구. **청소년복지연구, 23**(3), 1-28.

최희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업 적응을 매개로. **다문화교육연구, 15**(1), 1-20.

충청북도국제교육원 (2023). **2023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취학진학진로 자료집 WITH**. 청주: 충청북도국제교육원.

통계개발원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1). **한국종사상지위분류 해설서**. 대전: 통계청.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Ⅸ: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8-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3). **20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스트레스 과정 모델 검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1), 231-257.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준, 이희길, 정병은, 김대훈, 김월화 (2019).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8**(2), 125-151.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 (2018). **청년패널2007 11차(2017) 조사기초분석보고서** (기본사업 2018-107).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황진구, 전현정, 이용해 (2022). **202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lderman, M. K. (2008). Motivation for achievement: Possibilities for teaching and learning(3rd ed). Routledge. 김종남, 임선아 역(2015). **성취동기: 교수-학습에서 성취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학지사.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Baker, R. W. and B. Siryk.(1984). Meas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Bodovski, K., & Farkas, G. (2007). Mathematics growth in early elementary

school: The roles of beginning knowledge, student engagement, and instruct io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8(2), 115-130.

Bodovski, K., & Youn, M. J. (2012). Students' mathematics learning from kinder garten through 8th grad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2), 97-122.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Brummelman, E., & Thomaes, S. (2017). How children construct views of thems elves: A social-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88*(6), 1763-1773.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 & Maschman, T.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Eccles, J. S., & Roeser, R. W. (2011). Schools as developmental context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225-241.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Gazelle, H., & Rudolph, K. D. (2004). Moving toward and away from the world: Social approach and avoidance trajectories in anxious solitary youth. *Child Development, 75*(3), 829-849.

Gibaud-Wallston, J., & Wandersman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John F. Kennedy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Grzymala-Kazlowska, A. (2016). Social anchoring: Immigrant identity, security and integration reconnected?. *Sociology, 50*(6), 1123-1139.

Grzymala-Kazlowska, A. (2018). From connecting to social anchoring: Adaptat ion and 'settlement'of Polish migrants in the UK. *Journal of Ethnic and Migra tion Studies, 44*(2), 252-269.

Haselhuhn, C. W., Al-Mabuk, R., Gabriele, A., Groen, M., & Galloway, S. (2007).

Promoting positive achievement in the middle school: A look at teachers' motivational knowledge, beliefs, and teaching practices. *RMLE Online, 30*(9), 1-20.

Herres, J., & Kobak, R. (2015). The role of parent, teacher, and peer events in maintaining depressive symptoms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2), 325-337.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Johansson, T., & Olofsson, R. (2011). The art of becoming 'Swedish': Immigrant youth, school careers and life plans. *Ethnicities, 11*(2), 184-201.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Psychological, demographic, and behavioral profiles of emigrating Koreans, non-emigrating Koreans, and Korean-Canadians*. Unpublished Ph.D. dissertatin, Queen's University, Kingston, Canada.

Lester, L., Waters, S., & Cross, D.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connectedness and mental health during the transition to secondary school: A path analysis. *Journal of Psychologists and Counsellors in Schools, 23*(2), 157-171.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li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 309-337.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1), 299-337.

Mann, A., Denis, V., Schleicher, A., Ekhtiari, H., Forsyth, T., Liu, E., &

Chambers, N. (2020). *Dream jobs?: teenagers' career aspirations and the future of work*. OECD. 1-55.

McDougall, P., & Vaillancourt, T. (2015). Long-term adult outcomes of peer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athways to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70*(4), 300-310.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Muthén, B., & Shedden, K. (1999). Finite mixture modeling with mixture outcomes using the EM algorithm. *Biometrics, 55*(2), 463-469.

OECD (2012). *Untapped skills: Realising the potential of immigrant students*. OECD Publishing Paris.

Paul, M. (2014). Manag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mathematics to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Teachers' and learners' perspectives.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5*(25), 205-215.

Petras, H., & Masyn, K. (2010). *General growth mixture analysis wi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hange*. Handbook of quantitative criminology, 69-100.

Portes, A., & Rumbaut, R. G. (2008). *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 (CILS), 1991-2006.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Russell, D.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0-40.

Ryan, A. M., Shim, S. S., & Makara, K. A. (2013). Changes in academic adjustment and relational self-worth across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9), 1372-1384.

Schwartz, A. E. & Stiefel, L. (2006). Is there a nativity gap? New evidence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immigrant students. *Education Finance and Policy, 1*(1), 17-49.

Shell, M. D., Gazelle, H., & Faldowski, R. A. (2014). Anxious solitude and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A diathesis stress model of peer exclusion and victimization trajecto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50*(5), 1569-1583.

Stets, J. E., & Burke, P. J. (2003). A sociological approach to self and identity.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23-50.

Stryker, S., & Serpe, R. T. (1994). Identity salience and psychological centrality: Equivalent, overlapping, or complementary concep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6-35.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and W. G. Austin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relations (pp. 7-24). Chicago, IL: Nelson- Hall.

Wallinius, M., Delfin, C., Billstedt, E., Nilsson, T., Anckarsäter, H., & Hofvander, B. (2016). Offenders in emerging adulthood: School maladjustment, childhood adversities, and prediction of aggressive antisocial behaviors. *Law and Human Behavior, 40*(5), 551-563.

Way, N., Reddy, R., & Rhodes, J. (2007). Students' perceptions of school climate during the middle school years: Associations with trajectories of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0*, 194-213.

Wentzel, K. R. (1998). Social relationships and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2), 202-209.

Wirt, J., Snyder, T., Sable, J., Choy, S. P., Bae, Y., Stennett, J., ... & Perie,

M. (1998). *The Condition of Education 1998*. US Department of Education, ED Pubs, PO Box 1398, Jessup, MD 20794-1398.

Vandekerckhove, M. M. P. (2009). Memory, autonoetic consciousness and the self: Consciousness as a continuum of stages. *Self and Identity, 8*(1), 4-23.

[인터넷 자료]

건강보험 홈페이지.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지도사**.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105/sub/s03_03.html에서 2023년 10월 27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20.08.27.).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81682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21.08.26.). **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4&opType=N&boardSeq=88238에서 2023년 10월 2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22.08.31.).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42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3년 2월 14일, 10월 2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23.06.08.).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526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5&s=moe&m=020402&opType=N에서 2023년 10월 27일 인출.

통계청 (2017). **2017년 사회조사표(청소년)**. http://kostat.go.kr에서 2021년 7월 27일 인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3년 10월 2일 인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청소년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conn_path=I3에서 2023년 10월 2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년 10월 2

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35413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60528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66841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73857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2).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ELMvFbsWDR0AzGx8DdB3ezU.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2.04.30.)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생활환경 크게 개선된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8937에서 2023년 5월 24일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31.).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3만 명, 2년 연속 감소 - 외국인근로자는 13.2% 감소, 유학생은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

0000000008&nttId=96022#none에서 2023년 2월 14일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2023a).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U001&vw_cd=MT_ZTITLE&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046738159&markType=S&itmNm=%EC%A0%84%EA%B5%AD에서 2023년 9월 7일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2023b). **가구당 월 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2인이상, 가구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V014&vw_cd=MT_ZTITLE&list_id=G_A_10_004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법령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23년 2월 1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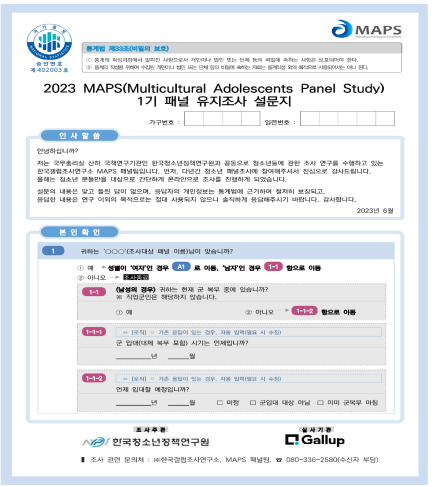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로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에서 2023년 2월 17일, 10월 11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10월 11일 인출.

부 록

부 록

1. 1기 패널 유지조사 청소년 설문지



2023 MAPS(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1기 패널 유지조사 설문지

가구번호 : 일련번호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청소년들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다문화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입니다. 먼저, 다년간 청소년 패널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청소년 문화만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에 내용은 모고 들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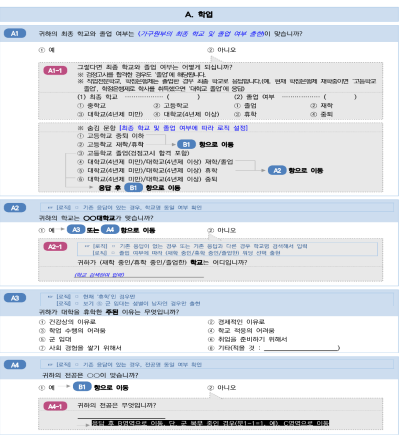
2023년 6월

본 인 확 인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기관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A. 학업

A1 귀하의 최종 학교와 졸업 여부는 (가구원부의 최종 학교 및 졸업 여부 응답)이 맞습니까?

A1-1 그렇다면 최종 학교와 졸업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A2 귀하의 학교는 ○○대학교가 맞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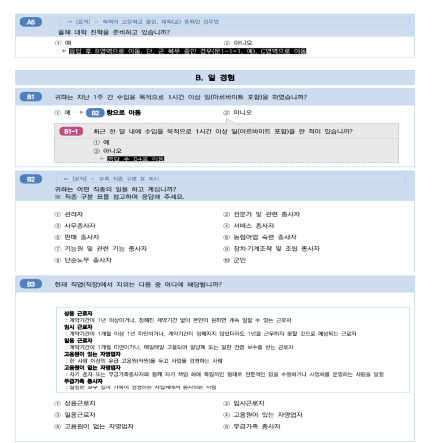
A2-1 귀하가 대학 중인/휴학 중인/졸업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A3 귀하가 대학을 휴학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4 귀하의 전공은 ○○이 맞습니까?

A4-1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5 (대학 재학 중인 경우만)

올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B. 일 경험

B1 귀하는 지난 1주 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하였습니까?

B1-1 최근 한 달 내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B2 귀하는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B3 현재 직업(직장)에서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상용 근로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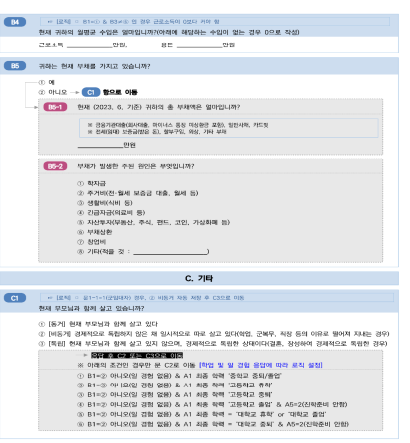
임시 근로자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또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본인 사업 이외의 일용 고용원(사장님)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혼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단골적인 없을 수행하거나 사장님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일정한 보수 없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2023 MAPS | 3



B4 현재 귀하의 일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주말에 해당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 0으로 작성)

B5 귀하는 현재 부채를 기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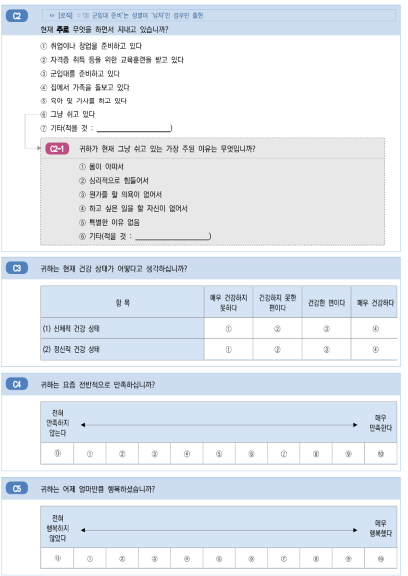
B5-1 현재 (2023. 6. 기준) 귀하의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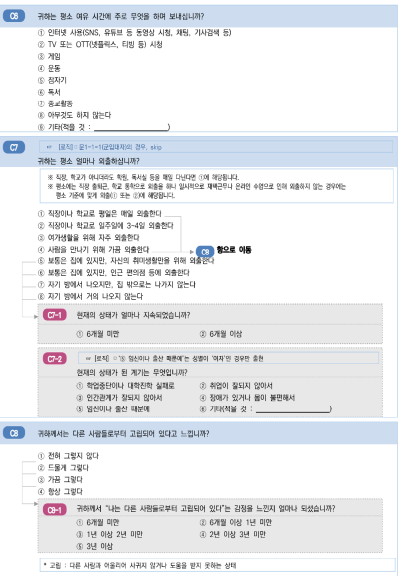
B5-2 부채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C.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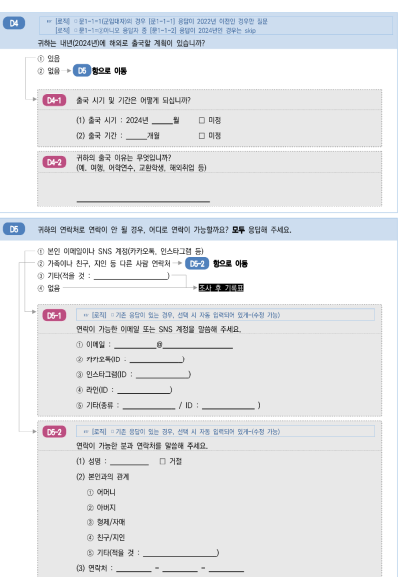
C1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2
☞ [로직 ☆]는 근업대 준비는 상황에 '노저'인 경우만 출현
현재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②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③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④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
⑤ 국어 및 가사를 하고 있다
⑥ 그냥 쉬고 있다
⑦ 기타(적을 것 : _____)
C2-1
귀하가 현재 그냥 쉬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몸이 아파서
②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③ 뭔가를 할 의욕이 없어서
④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
⑤ 특별한 이유 없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C3
귀하는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1) 신체적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2) 정신적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C4
귀하는 요즘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5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6
귀하는 평소 여유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① 인터넷 사용(SNS,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 채팅, 기사검색 등)
② TV 또는 OTT(넷플릭스, 티빙 등) 시청
③ 게임
④ 운동
⑤ 정자기
⑥ 독서
⑦ 종교활동
⑧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⑨ 기타(적을 것 : _____)
C7
☞ [로직 ☆]=1~11(군입대자)의 경우, skip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직장,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원, 독서실 등을 매일 다닌다면 ①에 해당됩니다.
※ 평소에는 직장 등처은 학교 등학으로 외출을 하나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소 기준에 맞게 ①번 또는 ②에 해당합니다.
① 직장이나 학교로 매일은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C8 항으로 이동
⑤ 볼일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볼일은 집에 있지만, 안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C7-1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C7-2
☞ [로직 ☆]는 일상이나 출산 확률에는 상황이 '여자'인 경우만 출현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힘들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C8
귀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낍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드물게 그렇다
③ 가끔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C8-1
귀하께서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아나 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고립 :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D. 거주지 및 연락처
D1
☞ [로직 ☆]≥ C1=1 동거 응답자만
귀 댁에 주소는 (가구원보의 집 주소 출현)이 맞습니까?
① 예 ▸ D4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D1-1
그렇다면 귀 댁의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 검색버튼 클릭) → 응답 후 D4 항으로 이동
D2
☞ [로직 ☆]≥ C1=2 비동거 응답자만
[로직 ☆]=안, 문1~1=1(군입대자)의 경우, skip
본가의 주소는 (가구원보의 집 주소 출현)이 맞습니까?
① 예 ▸ D5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D2-1
그렇다면 본가의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 검색버튼 클릭) → 응답 후 D5 항으로 이동
D3
☞ [로직 ☆]≥ C1=2 비동거 또는 3 독립 응답자만
[로직 ☆]=기존 거주지 주소 정보가 있는 경우만 D3 응답, 없는 경우 D3-1로 이동
[로직 ☆]=안, 문1~1=1(군입대자)의 경우, skip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는 (기존 응답 거주지 주소 출현)이 맞습니까?
① 예 ▸ D9-2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D3-1
☞ [로직 ☆]≥ C1=2 비동거 또는 3 독립 응답자 중 기존 거주지 주소 정보가 없거나 기존과 다른 경우
[로직 ☆]=안, 문1~1=1(군입대자)의 경우, skip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 검색버튼 클릭)
□ 상세주소 모름 □ 거절
D3-1-1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해외
D3-2
☞ [로직 ☆]≥ C1=2 비동거 또는 3 독립 응답자만
[로직 ☆]=안, 문1~1=1(군입대자)의 경우, skip
귀하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숙사 ⑤ 기타(적을 것 : _____)


D4
☞ [로직 ☆]=문1~1=1(군입대자)의 경우 [문1~1=1] 응답이 2022년 이전인 경우만 질문
[로직 ☆]=문1~1=2이나요 응답자 중 [문1~1=2] 응답이 2024년인 경우는 skip
귀하는 내년(2024년)에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D6 항으로 이동
D4-1
출국 시기 및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출국 시기 : 2024년 _____월 □ 미정
(2) 출국 기간 : _____개월 □ 미정
D4-2
귀하의 출국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해외취업 등)
D5
귀하의 연락처로 연락이 안 될 경우, 어디로 연락이 가능할까요?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본인 이메일이나 SNS 계정(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②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다른 사람 연락처 ▸ D5-2 항으로 이동
③ 기타(적을 것 : _____)
④ 없음 ▸ D5-3 로 이동
D5-1
☞ [로직 ☆]≥ 기존 응답이 있는 경우, 선택 시 자동 입력되어 있게(수정 가능)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또는 SNS 계정을 알려해 주세요.
① 이메일 : _____@_____
② 카카오톡ID : _____)
③ 인스타그램ID : _____)
④ 라인(ID : _____)
⑤ 기타(종류 : _____ / ID : _____)
D5-2
☞ [로직 ☆]≥ 기존 응답이 있는 경우, 선택 시 자동 입력되어 있게(수정 가능)
연락이 가능한 분과 연락처를 알려해 주세요.
(1) 성명 : _____ □ 거절
(2) 본인과의 관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친구/지인
⑤ 기타(적을 것 : _____)
(3) 연락처 : _____ - _____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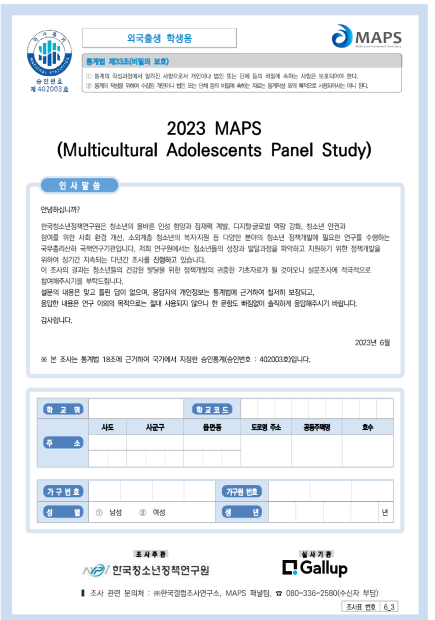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_____) - (_____) - (_____) **※ 상품권 발송 번호와 동일 여부** ① 네, 동일한 번호로 발송 ② 아니오, 다른 번호로 발송 ☞ 1) 다른 연락처 : _____ - _____ - _____ 2) 사유 : _____
조사 일시	2023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향후 패널 참여 의사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적을 것 : _____)
기타 특이사항	

[부록] 직종 구분

직종 구분	세부 직종
1.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판매 종사자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0. 군인	• 군인

2. 2기 패널 설문지(외국출생 청소년용)



외국출생 학생용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람이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 작성을 위해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는 아니 된다.

승인번호 제 402003호

2023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안전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상기간 지속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성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학 교 명 | 학교 코드

주 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도로명 주소 | 공동주택명 | 호수

가구 번호 | 가구원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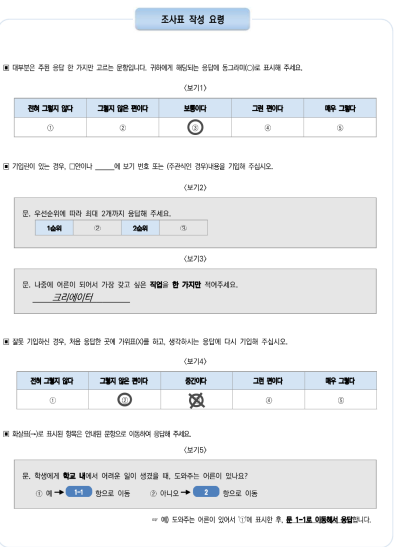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 생 년 년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기관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6_3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관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③

〈보기3〉

문.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크리에이터

▣ 질문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⑦	⊠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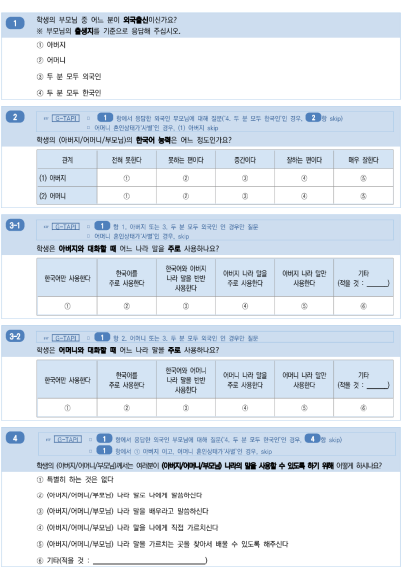
〈보기5〉

문.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예) 도와주는 어른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학생의 부모님 중 어느 분이 **외국출신**이신가요?
※ 부모님의 **출생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두 분 모두 외국인
④ 두 분 모두 한국인

2 ☞ 1-TAP!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2 항 skip)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1) 아버지 skip

학생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검체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아버니	①	②	③	④	⑤

3-1 ☞ 1-TAP! ○ 1 항 1. 아버지 또는 3. 두 분 모두 외국인 인 경우만 질문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skip

학생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한국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어와 아버지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	아버지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	아버지 나라 말만 사용한다	기타 (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3-2 ☞ 1-TAP! ○ 1 항 2. 어머니 또는 3. 두 분 모두 외국인 인 경우만 질문

학생은 **어머니와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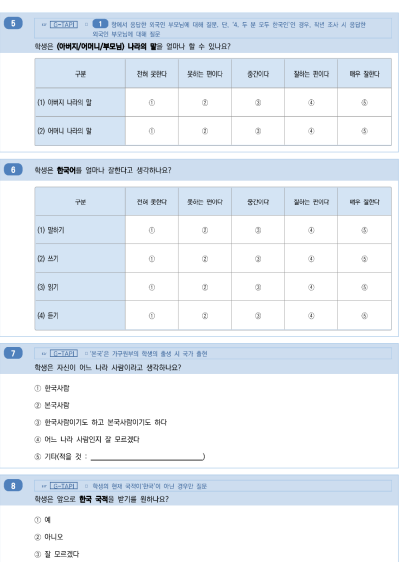
한국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	어머니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	어머니 나라 말만 사용한다	기타 (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4 ☞ 1-TAP!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4 항 skip)
○ 1 항에서 ① 아버지 이고,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skip

학생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에서는 어려분이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하시나요?

①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②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③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④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나에게 직접 가르치신다
⑤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2023 MAPS | 3



5 ☞ 1-TAP!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 단,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차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

학생은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의 말**을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구분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아버지 나라의 말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나라의 말	①	②	③	④	⑤

6 학생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2) 쓰기	①	②	③	④	⑤
(3) 읽기	①	②	③	④	⑤
(4) 듣기	①	②	③	④	⑤

7 ☞ 1-TAP! ○ '본국은 가구원'의 학생의 응답 시 국가 출현

학생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한국사람
② 본국사람
③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본국사람이기도 하다
④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8 ☞ 1-TAP! ○ 학생의 현재 국적이 '한국'에 아닌 경우만 질문

학생은 앞으로 **한국 국적**을 분기를 원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 학생은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10 항으로 이동**

9-1 ※ 다시보기 ☆ 본국은 가구원보의 학생의 출생 시 국가 출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② 한국의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③ 한국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서
④ 본국이 그리워서
⑤ 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서
⑥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⑦ 차별 받을 거 같아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10 ※ 다시보기 ☆ (3) 상명당의 '내가 태어난 나라'에 학생의 출생 시 국가 출한

학생은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나요?
※ 친한 친구란 **한국에 있는 친구 중** 함께 자주 놀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구분	친한 친구 수
총 친한 친구 수	_____명
(1)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	_____명
(2) 나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친구	_____명
(3)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친구 ※ 다른 나라란 '한국'이나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나라를 말합니다.	_____명
(4)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친구	_____명

11 학생의 **친구들**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너 친구들은 너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너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너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하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13 학생의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점
②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
③ 학교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점
④ 학교 규칙을 지키는 일
⑤ 선생님과의 관계
⑥ 학업이 어려운 점이 없다
⑦ 기타(적을 것 : _____)

14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② 나의 얼굴이나 성격새 등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③ 친한 친구가 없는 것
④ 나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
⑤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⑥ 다른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⑦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의사소통 : 대화하면서 말로를 서로 이해하는 것

15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세 가지** 이내로 답해주세요.
※ 어려운 점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인 경우, 1순위 혹은 2순위까지만 응답하셔도 됩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② 내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이 어렵다
③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④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⑤ 책/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⑥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⑦ 공부에 흥미가 없다
⑧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⑨ 기타(적을 것 : _____)

16 학생의 **지난 학기(2023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17 학생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18 학생의 **담임선생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담임선생님은 내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려거나 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날 적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9 **지난 학기(2023년 1학기) 동안** 다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항 목	한 번도 없었다	한 달에 1~2번 있었다	한 주에 1~2번 있었다	거의 매일 있었다
(1)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2)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장적거림이나 놀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원하지 무시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밀로 저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5) 나에 대해 거짓소문을 퍼뜨리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6)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심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20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21 항으로 이동**

20-1 (학교 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담임선생님
② 교과 선생님
③ 한국어 학급 선생님
④ (모국어를 할 수 있는) 다문화 언어 선생님
⑤ 보건 선생님
⑥ 상담 혹은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
⑦ 다문화 담당 선생님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이때은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란?
-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마음이 슬프거나 속상하다고 느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학교에서 어려움이 나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
-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욕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알릴 수 있는 사람 등

21 학생에게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 가족이나 학교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동거가족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 **22 항으로 이동**

21-1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② 지역 기관 선생님
(예 : 다문화관련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③ 이웃 어른들
④ 멘토
⑤ 종교단체에서 만나는 사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멘토** : 사회학생, 대학생, 사회적 어른 등 성가적으로 만나 상무을 가르쳐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내용 등을 적은 사람을 말합니다.

22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나요?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 **23 항으로 이동**

22-1 학생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나요?

① 한국 ② 외국 → **23 항으로 이동**

22-2 학생이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나요?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23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24 ※ 다시보기 ☆ 본국은 가구원보에 학생의 출생 시 국가 출한

학생은 나중에 커서 학교를 다 마친 후에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나요?

① 한국
② 본국
③ 제3국(한국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④ 아직 잘 모르겠다

25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아직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위하여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앞으로 직업과 하는 것을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5) 주위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6)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①	②	③	④
(7)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쉽 늦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8) 나중에 바꿀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9)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10)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2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확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가 불안한 직업을 발견하면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진로 계획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목표 달성의 어려울 때 계획을 성실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끊임가 불확실하더라도 꾸준하는 진로에 도전해본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직업에서의 성장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최선하는 진로를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7 다음은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학생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대는 자야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고등학교 우수졸업생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교내외 창의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독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전학을 갈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 [G-1A01] : 아버니 출산상의가 사별이면, (1) 아버지께만 있을것 응답 가능
[B-1] 에서 ① 학력, 경력, 학력기및 과외 선생님(종교 경외, (7) 학력, 경력, 학력기및 과외 선생님 계시 않은 응답 불가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많이므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등)
다음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 하나요?

항 목	전혀 대화 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 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해당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4) 친척·친지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선생님(담임, 교과 선생님)	①	②	③	④	–
(6) 상담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7)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8) 친구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관련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29 학생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30 학생의 평소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작장기라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1 학생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내 자신에 대해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가치있는 사람 : 설모있고 중요한 사람
* 성품 : 사람이 성질이나 빌림이

32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①	②	③	④
(2)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3)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4)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6)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7) 가끔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9)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11) 모든 일이 힘겹다	①	②	③	④

3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고립 :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33-1 ((4)번 문항에서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34 ↩ [G-1A01] : 아버니 출산상의가 사별이면, (5), (6)은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 (1)는 어지니께은 전체의 경도, 학생 현재 국어이 정국어영기별 경로만 응답 가능

학생이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매우 걱정한다	해당 없음
(1) 공부, 성적 문제	①	②	③	④	–
(2) 학교 생활 문제	①	②	③	④	–
(3) 진학, 진로 문제*	①	②	③	④	–
(4) 가정의 경제적 형편	①	②	③	④	–
(5) 부모님 사이의 불화(부부싸움 등)	①	②	③	④	⑤
(6) 아버지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어머니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8) 형제자매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이성친구관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와의 문제	①	②	③	④	–
(11) 나의 성격 문제	①	②	③	④	–
(12) 나의 외모 문제	①	②	③	④	–
(13) 나의 건강 문제(신체적, 정신적)	①	②	③	④	–
(14) 대래에 대한 불안감	①	②	③	④	–
(15) 병자/체류 문제	①	②	③	④	⑤

* 진학, 진로 문제 : 앞으로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일을 할지 등과 관련된 문제
* 갈등: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툼

35 ↩ [G-1A01] : [1] 항목에서 응답한 아기일 부모님께 아주 희망 출동
: [1] 항목에서 4, 등 본 문제 한국인인 경우, 직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께 대해 질문

학생의 평소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이(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놀림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아버지/어머니/부모님)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3)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4)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5)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6) 나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가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했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가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①	②	③	④
(9)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①	②	③	④

* 문화 : 문화에는 음식, 옷, 음악, 명화 등이 포함됩니다.

36 한국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3)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①	②	③	④
(4)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37 ↩ 재시작 ▫ 오국은 학생이 응생을 나라를 말함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오국에 가서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오국에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오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8 학생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상적일 속에서 **부모님 또는 본인이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39 항으로 이동**

38-1 **누구에게** 차별을 받았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학교의 다른 학생들
② 학교선생님
③ 학원이나 과외선생님
④ 친척들
⑤ 동네 사람들
⑥ 편의점, 식당, PC방 등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⑦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⑧ 기타(직접 쓰 : _____)

38-2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후 **주로** 어떻게 하였나요?

① 그냥 참았다
②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렸다
③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
④ 지역 기관 선생님에게 알렸다
(예 : 다문화관련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⑤ 차별하동이나 무시한 사람에게 직접 따졌다
⑥ 기타(직접 쓰 : _____)

39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응답해주세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항 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	①	②	③	④
(4) 한국사회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40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일상의 공부와(고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있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물질건, 정소 등)을 잘 지원해주신다	①	②	③	④

42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내 친구나 또, 이웃 등이 계곤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보다 바람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정한을 하시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말으로 할 때 귀에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병원에 데리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43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함께 하였나요?

항 목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2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1)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여가활동(스포츠, 취미, 오락 등 여유시간에 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저녁식사	①	②	③	④	⑤

44 ↩ 이전시 ▫ 어머니 혼인상의가 사별 이면, (1) 아버지 해당 없음 만 응답 가능

학생은 부모님과 **하루에** 얼마나 함께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냈나요?
※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대화를 하거나 놀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등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항 목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45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 정도나 되나요?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46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참여 경험이 없더라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청소년 체험활동 : 자신의 특기나 적성 계발 또는 취미·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항 목	지난 1년간 참여 횟수			(참여한 적 있는 경우) 만족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과학/정보 관련 활동(장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모험/개척 관련 활동(청사·등반, 야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자원봉사활동(양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건강/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자기인성개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숲 체험, 환경 실천기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7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숙, 담배, 마약, 옷, 화장 등을 규제하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2)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할들을 살며, 담배, 마약, 옷, 화장 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4) 법의 도움 필요 싶다	①	②	③	④
(5) 부모와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6) 집에 들어가기 싫다	①	②	③	④

항 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7) 내 친구 중 자퇴를 한 친구가 있다	①	②
(8) 내 친구 중 학교가지 않고 놀지고 하는 친구가 있다	①	②

48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특별한 이유없이 종종 결석을 한다	①	②
(2)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담배를 한다	①	②
(3)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술을 마신다	①	②
(4)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5)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경찰서에 불려간 적이 있다	①	②
(6)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가출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49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 번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가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학교를 무단으로 빠져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든(협 협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폭력 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때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온라인상에서 돈내기 게임이나 도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Q0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 번
(1) 누군가에게 욕이나 협박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누군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격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Q1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특별지원 :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을 말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Q2** 항으로 이동

Q1-1 특별지원을 일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②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 해주어도 상관없다

Q2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길 원합니까?
원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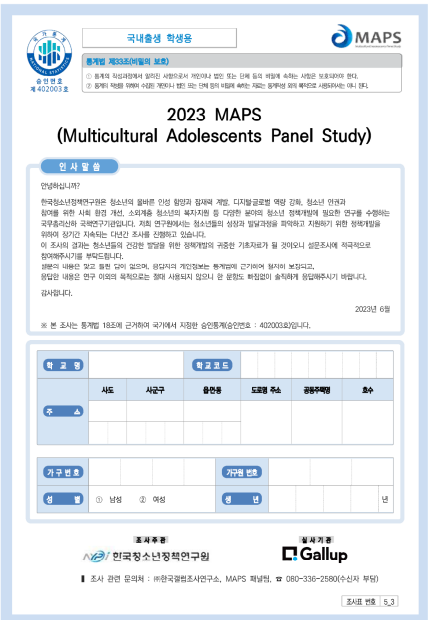
① 현금 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② 학습 지원(교과목 지도 등)
③ 진로관련 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④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⑤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⑥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⑦ 기타(적을 것 :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_____) - (_____) - (_____)
	키, 몸무게	① 키 : _____cm ② 몸무게 : _____kg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_____)
	조사 일시	2023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조사 진행 시, 방해 요인이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기타 사항	* 가구 외의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3. 2기 패널 설문지(국내출생 청소년용)



국내출생 학생용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해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 된다.

승인번호 제 40200호 ★

2023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참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안전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내용은 잘고 들린 같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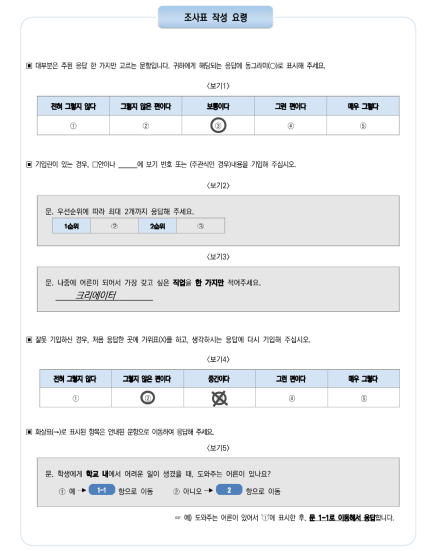
학 교 명		학교코드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명	호수
가구번호		가구원 번호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생 년				년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기관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바른국갈림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5_3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⑦	2순위	⑤

〈보기3〉

문.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크리에이터

▣ 질문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⑦	⊠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보기5〉

문.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예) 도와주는 어른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학생의 부모님 중 어느 분이 **외국출신**이신가요?
※ 부모님의 **출생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두 분 모두 외국인
④ 두 분 모두 한국인

2 ☞ G-TAPI :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2 항 skip)
○ 어머니 출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1) 아버지 skip

학생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1 ☞ G-TAPI : ○ 1 항 1. 아버지 또는 3. 두 분 모두 외국인 인 경우만 질문
○ 어머니 출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skip

학생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한국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어와 아버지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	아버지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	아버지 나라 말만 사용한다	기타 (적을 것 : ____)
①	②	③	④	⑤	⑥

3-2 ☞ G-TAPI : ○ 1 항 2. 어머니 또는 3. 두 분 모두 외국인 인 경우만 질문

학생은 **어머니와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한국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	어머니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	어머니 나라 말만 사용한다	기타 (적을 것 : ____)
①	②	③	④	⑤	⑥

4 ☞ G-TAPI :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4 항 skip)
○ 1 항에서 ① 아버지 이고, 어머니 출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skip

학생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①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②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③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④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나에게 직접 가르치신다
⑤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2023 MAPS | 3



5 ☞ G-TAPI :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 단,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작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

학생은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의 말**을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구분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아버지 나라의 말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나라의 말	①	②	③	④	⑤

6 ☞ G-TAPI : ○ 1 항의 응답에 따라 학생 선택, 3. 두 분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해당은 '부모님'
○ 1 항에서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작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 나라 기준

학생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한국사람
② (어머니/아버지/부모님) 나라 사람
③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어머니/아버지/부모님) 나라 사람이기도 하다
④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7 ☞ G-TAPI : ○ 1 항의 응답에 따라 학생 선택, 3. 두 분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해당은 '부모님'
○ 1 항에서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작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 나라 기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부모님(어머니/아버지/부모님)의 나라에 가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8 항으로 이동

7-1 ☞ G-TAPI : ○ 1 항의 응답에 따라 학생 선택, 3. 두 분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해당은 '부모님'
○ 1 항에서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작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 나라 기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부모님(어머니/아버지/부모님)의 나라에 몇 번 가보았습니까?

_____번

8 학생은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나요?
※ 친한 친구란 **한국에 있는 친구 중** 함께 자주 놀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_____명

9 학생의 **친구들**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하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11 학생의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
② 학교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점
③ 학교 규칙을 지키는 일
④ 선생님과의 관계
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12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② 나의 말솜이나 성격에 흠 잡으려 하는 것
③ 친한 친구가 없는 것
④ 나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
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13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세 가지** 이내로 답해주세요.
※ 어려운 점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인 경우, 1순위 혹은 2순위까지만 응답하셔도 됩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② 내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이 어렵다
③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④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⑤ 책(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⑥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⑦ 공부에 흥미가 없다
⑧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⑨ 기타(적을 것 : _____)

14 학생의 **지난 학기(2023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15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16 학생의 **담임선생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른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난 학기(2023년 1학기) 동안** 다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항 목	한 번도 없었다	한 달에 1~2번 있었다	한 주에 1~2번 있었다	거의 매일 있었다
(1)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2)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집적거림이나 놀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학생들이 나를 그이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밀로 치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5) 나에 대해 거짓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6)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심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18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이른**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19** **항으로 이동**

18-1 (학교 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이른**은 누구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담임선생님
② 교과 선생님
③ 한국어 학급 선생님
④ 다문화 언어 선생님
⑤ 보건 선생님
⑥ 상담 혹은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
⑦ 다문화 담당 선생님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이른이란?
-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개인이 손도끼나 속상하다고 느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따돌시나 말거을 빼앗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
-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욕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등

19 학생에게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 가족이나 학교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이른**이 있나요?
(동거가족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 **20** **항으로 이동**

19-1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이른**은 누구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② 지역 기관 선생님
(예 : 다문화관련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③ 이웃 어른들
④ 멘토
⑤ 종교단체에서 만나는 사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멘토 : 고등학생, 대학생, 지역의 어른 등 정기적으로 만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대화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나요?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 **21** **항으로 이동**

20-1 학생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나요?

① 한국 ② 외국 ▸ **21** **항으로 이동**

20-2 학생이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나요?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21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22 ↩ 지난 1 항에서 4, 5 번 보 모두 한국이라 경우,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는 적은 것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 나라 기준

학생은 나중에 커서 학교를 다 마친 후에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나요?

① 한국
②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③ 제3국(한국도 아니고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④ 아직 잘 모르겠다

23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하고 싶은 일은 꼭 가져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아직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일이든 직업과 하는 활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5) 주위 사람이나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6) 흥미 혹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①	②	③	④
(7)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8) 나중에 비전지 모르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9)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10) 어른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24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구준히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가 꿈꾸던 직업을 발견하면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진로 계획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목표 달성의 어려움 및 계획을 실행에 장애 요인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최선하는 진로에 도전해본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직업세계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희망하는 진로를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5 다음은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학생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고유사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는 고나의 활동(자원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독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는 고등학 진학을 위해 아사를 하거나 전학을 갈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 [C-1A1]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이면, (1) 아버지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19-1 '해당' 그 학생 경제 적상 및 자기 변화(예: 경제 적상 및 자기 변화)에 '예' 답변 한 경우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또는 주로 걸을 하고 싶은지, 이런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등)
다음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 하나요?

항 목	전혀 그런 적이 없는다	별로 그런 적이 없는다	가끔 그래한다	자주 그래한다	해당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4) 친척·친지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선생님 (담임, 교과 선생님)	①	②	③	④	-
(6) 상담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7)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8) 친구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센터,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27 학생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8 학생의 평소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9 학생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가치있는 사람 : 참으있고 중요한 사람
* 성품 : 사람의 성질이나 품격적

30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①	②	③	④
(2) 별 것 아닌 일로 짜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3)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4)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면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관철하게 밀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6)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7) 기분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9)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11) 모든 일이 힘겹다	①	②	③	④

31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하상 그렇다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고립 :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31-1 ((4)번 문항에서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는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32 ↩ [C-1A1]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이면, (1) 아버지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 (1)을 제외, '해당' 그 학생 경제 적상 및 자기 변화(예: 경제 적상 및 자기 변화)에 '예' 답변 한 경우 응답 가능

학생이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매우 걱정한다	해당 없음
(1) 공부, 성적 문제	①	②	③	④	-
(2) 학교 생활 문제	①	②	③	④	-
(3) 장래, 진로 문제*	①	②	③	④	-
(4) 가정의 경제적 형편	①	②	③	④	-
(5) 부모님 사이의 불화(부부싸움 등)	①	②	③	④	⑤
(6) 아버지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어머니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8) 형제자매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이성친구와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와의 문제	①	②	③	④	-
(11) 나의 성격 문제	①	②	③	④	-
(12) 나의 외모 문제	①	②	③	④	-
(13) 나의 건강 문제(신체적, 정신적)	①	②	③	④	-
(14) 미래에 대한 불안감	①	②	③	④	-
(15) 비행/폭력 문제	①	②	③	④	⑤

* 진학, 진로 문제 : 앞으로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일을 할지 등과 관련된 문제
* 갈등 :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툼

33 한국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한국을 창한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3)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①	②	③	④
(4)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쁜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34 ↩ [조사종] :: 1 '학생'에서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5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35 ↩ [스크리닝] ☆ 1 청예서 4, 5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 3 로 스킵

학생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36 항으로 이동**

35-1 누구에게 차별을 받았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학교의 다른 학생들
② 학교선생님
③ 학원이나 과외선생님
④ 친척들
⑤ 동네 사람들
⑥ 편의점, 식당, PC방 등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⑦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⑧ 기타(적을 것 : _____)

35-2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후 **주로** 어떻게 하였나요?

① 그냥 참았다
②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렸다
③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
④ 지역 기관 선생님에게 알렸다
(예 : 다문화관련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⑤ 차별했던이나 무시한 사람에게 직접 따졌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36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응답해주세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항 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	①	②	③	④
(4) 한국사회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37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일상의 공부하고 각별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많이 써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물건, 정소 등)을 잘 처리해주신다	①	②	③	④

39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①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보다 비밀번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게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정작을 하시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40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함께 하였나요?

항 목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1)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여가활동(스포츠, 취미, 오락 등 여유시간에 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저녁식사	①	②	③	④	⑤

41 ↩ [스크리닝]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이면, (1) 아버지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학생은 부모님과 **하루에** 얼마나 함께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냅니까?
※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대화를 하거나 놀거나 해올 일거나 운동을 하는 등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항 목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42 **명절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 정도나 되나요?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43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참여 경험이 없거나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청소년 체험활동 : 자신의 흥미나 적성 계발 또는 취미·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항 목	지난 1년간 참여 횟수				(참여한 적 있는 경우) 만족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과학/정보 관련 활동 (코딩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자원봉사활동 (청소 돕기, 자연 구호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4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숙, 단복, 머리, 모, 화장 등등을 규제하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2)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행동(숙, 단복, 머리, 모, 화장 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4) 빨리 돈을 벌고 싶다	①	②	③	④
(5) 부모와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6) 집에 들어가기 싫다	①	②	③	④

항 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7) 내 친구 중 자퇴를 한 친구가 있다	①	②
(8) 내 친구 중 학교가지 않고 놀지고 하는 친구가 있다	①	②

45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특별한 이유없이 종종 결석을 한다	①	②
(2)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담배를 핀다	①	②
(3)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술을 마신다	①	②
(4)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5)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경찰서에 불려간 적이 있다	①	②
(6)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가출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46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 번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가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학교를 무단으로 빠져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사람을 심하게 폭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강탈 등)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욕설 싸움(상대에 가담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온라인상에서 돈내기 게임이나 도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7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 번
(1) 누군가에게 욕하나 원한 맺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누군가에 대한 욕하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작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총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8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특별지원 :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을 말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49 항으로 이동**

48-1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②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 해주어도 상관없다

49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길 원합니까?
원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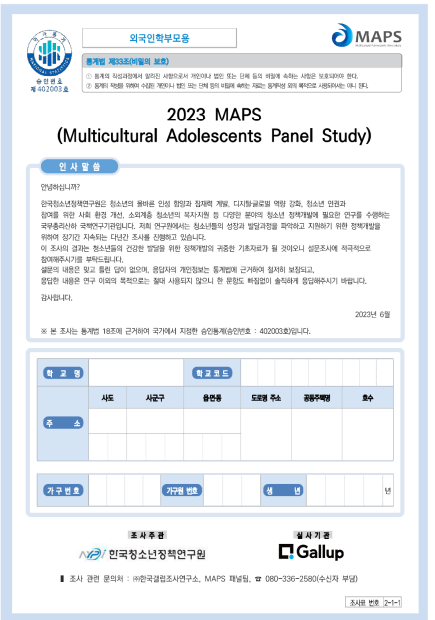
① 현금 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② 학습 지원(교과목 지도 등)
③ 진로관련 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잡로 캠프 등)
④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⑤ 심리지원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⑥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⑦ 기타(자율 것 :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_____) ② 핸드폰 (_____) ③ 직장 (_____)
	키, 몸무게	① 키 : _____cm ② 몸무게 : _____kg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_____)
	조사 일시	2023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조사 진행 시, 방해 요인이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4. 2기 패널 설문지(외국인학부모용)



외국인학부모용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 된다.

승인번호 제 402003호

2023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성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알고 들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학교명		학교코드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명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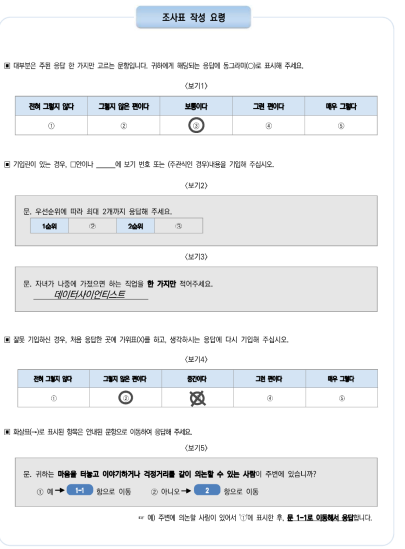
가구번호		가구원 번호		생년		년

조사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기관 :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2-1-1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관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⑤

〈보기3〉

문.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데이터사이언티스트_____

▣ 질문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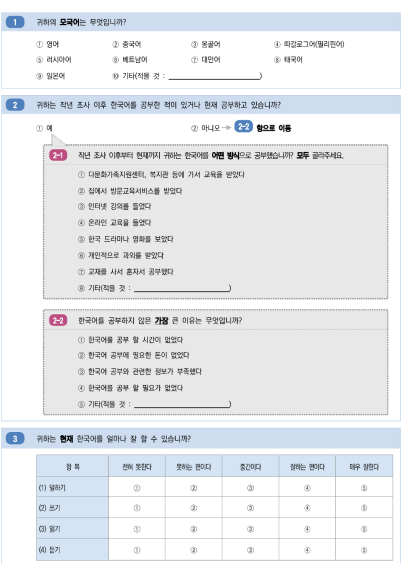
〈보기5〉

문.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예)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귀하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① 영어 ② 중국어 ③ 몽골어 ④ 따갈로그어(필리핀어)
⑤ 러시아어 ⑥ 베트남어 ⑦ 태국어 ⑧ 태국어
⑨ 일본어 ⑩ 기타(적을 것 : _____)

2 귀하는 직년 조사 이후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거나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2 항으로 이동

2-1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는 한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② 집에서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았다
③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④ 온라인 교육을 들었다
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다
⑥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았다
⑦ 교재를 사서 혼자서 공부했다
⑧ 기타(적을 것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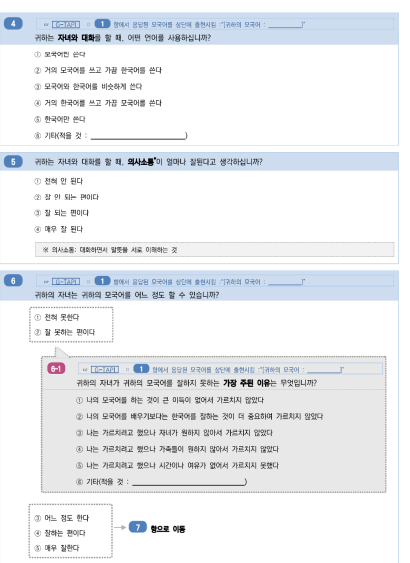
2-2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어를 공부 할 시간이 없었다
② 한국어 공부에 필요한 돈이 없었다
③ 한국어 공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했다
④ 한국어를 공부 할 필요가 없었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3 귀하는 **현재**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질 문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2) 쓰기	①	②	③	④	⑤
(3) 읽기	①	②	③	④	⑤
(4) 듣기	①	②	③	④	⑤

2023 MAPS | 3



4 ☞ 예) 1 항에서 응답한 모국어를 상단에 출력시킴 "귀하의 모국어 : _____"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① 모국어만 쓴다
② 거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
③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
④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모국어를 쓴다
⑤ 한국어만 쓴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5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안 된다
② 잘 안 되는 편이다
③ 잘 되는 편이다
④ 매우 잘 된다

※ 의사소통: 대화하면서 말뜻을 서로 이해하는 것

6 ☞ 예) 1 항에서 응답한 모국어를 상단에 출력시킴 "귀하의 모국어 : _____"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모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못한다
② 잘 못하는 편이다

6-1 ☞ 예) 1 항에서 응답한 모국어를 상단에 출력시킴 "귀하의 모국어 : _____"

귀하가 자녀가 귀하의 모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나의 모국어를 하는 것이 큰 이득이 없어서 가르치지 않았다
② 나의 모국어를 배우기보다는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③ 나는 가르치려고 했으나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았다
④ 나는 가르치려고 했으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았다
⑤ 나는 가르치려고 했으나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가르치지 못했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③ 어느 정도 한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 7 항으로 이동

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귀하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기타(적을 것 : _____)

8 귀하는 귀하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④ 많은 도움을 준다

9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자녀의 전문센터나 기관 ⑧ 기타(적을 것 : _____)

10 귀하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조사자] : 1-3번과 4-7번의 척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응답자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 "귀하부터 척도가 다르게 적용되어서, 척도를 다시 한 번 읽어드린 후 귀하에게 적당한 보기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별로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하였다	자주 하였다	매우 자주 하였다
(1)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학원에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과외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행이 있으면 형소보다 더 공부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7)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친다*	①	②	③	④	⑤

* 예)을 친다 : 꾸짖다, 무찌다

11 귀하는 **지난 1년간**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담임교사 면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 설명회 참석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 교육 참석	①	②	③	④	⑤
(4) 그 외 학교행사 참석 (자율대회, 졸업회, 학교축제 등)	①	②	③	④	⑤

* 담임교사 면담 :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담임교사를 만나는 것
* 학교교육 설명회 : 학교 교육과정이나 계획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
* 학부모 교육 :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교육(학교교사, 외부강사, 전문기관 등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이 모두 포함됨)

1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활동이 조사에 참여하는 자녀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참여 또는 경험여부		(참여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관련 적성검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모국 또는 외국 출신 직부모로 구성된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한국 학부모 주도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① 학교
② 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③ 지역의 다문화 관련 센터(예: 다문화 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 전문 센터)
④ 학원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4 귀하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 **15 항으로 이동** ② 들어는 보았지만 잘 모른다 ③ 들어보았고, 어떤 제도인지 안다

14-1 귀하의 자녀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였습니까?
① 예 → _____학년 _____학기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15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 **16 항으로 이동**

15-1 귀하는 자녀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한국 ② 외국 → **16 항으로 이동**

15-2 귀하의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기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6 ※ [조사자] : 조사 대상 자녀의 현재 국적이 외국 또는"국적 없음"인 경우만 질문

귀하의 **자녀**를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6-2 항으로 이동** ③ 아직 잘 모르겠다 → **17 항으로 이동**

16-1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거주하게 할 생각입니까?
①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예정이다(귀화, 입양 등)
② 한국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다
③ 한국국적이나 한국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게 할 예정이다
④ 아직 모르겠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6-2 (문 **16**에서 ② 아니오인 경우만)**언제까지** 한국에서 살게 할 예정입니까?
① 조만간 돌아갈 예정이다
②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 예정이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 예정이다
④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 예정이다
⑤ 아직 모르겠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17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18 귀하의 자녀는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의 자녀가 받았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 : 학교나 다른 기관(청소년단체, 종교단체)으로부터 무료 또는 소액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 목	18-1 지원받은 적		18-2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도움 정도				
	있다	없다	전혀 도움 안 된다	별로 도움 안 된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1) 자녀 한국어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이중언어교육(한국어+부모 모국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과목 학습지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링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무료 방과학습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특기적성 교육(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적정보교육(법, 한국역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견학 및 체험활동(놀이공원,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캠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한글시험(정학급, 유학급, 학원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치료프로그램(주로상담, 치료레크활동, 치료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멘토링 프로그램 : 고등학생, 대학생, 지역의 어른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대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 캠프 : 단체로 1박 이상의 이동활동을 하는 것(ex. 진로 캠프는 경주 1박2일 다녀 스터디에 참여
* 집단 : 같은 어렵게 공부했지, 어른 심을 잘 것인지 심에 대한 것

19 다음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인지 자기에게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의 교내외 활동(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독서활동 등) 참여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는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
② 일반 한국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방식
③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되, 일정시간만 별도의 반에서 공부하는 방식
④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력 인정을 해주는 방식
⑤ 기타(적을 것 : _____)

21 귀하의 자녀는 **자난 1년** 동안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교육비로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정도를 아래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21-1 참여 여부		21-2 월 평균 비용	21-3 비용 부담 정도			
	예	아니오	만원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부담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된다
(1)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사교육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①	②	만원	①	②	③	④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관련 사교육*	①	②	만원	①	②	③	④

* 사교육 :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교육

22 귀하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
②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주지 못하는 것
③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④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⑤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⑥ 학교 선생님과의 소통이 어려운 것
⑦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
⑧ 자녀가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 치료가 어려운 것
⑨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⑩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
⑪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것
⑫ 기타(적을 것 : _____)
⑬ 어려운 점이 없다

23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필요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도덜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유능한 :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

24 귀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5 항으로 이동**

24-1 귀 댁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②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지원해도 상관없다

25 귀하는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면접원 : '이주민'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 설명]

① 예 ② 아니오 → **26 항으로 이동**

25-1 귀하가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떠어 가 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는지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심한 차별을 받았다	약간 차별을 받았다	별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해당 없음
(1) 직장(학교)동주* 또는 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⑤
(2) 동네 사람	①	②	③	④	
(3)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①	②	③	④	
(4) 복지시설 종사자	①	②	③	④	⑤
(5) 일반 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6) 의료인(약사, 간호사 등)	①	②	③	④	
(7)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①	②	③	④	
(8) 다른 한국인 가족	①	②	③	④	⑤
(9)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③	④	⑤

* 고용주 : 일정한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예, 사장 등)
* 일반 공무원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 정부서 일하는 사람)

25-2 귀하는 차별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거제자시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②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③ 인터넷, SNS 등에 글을 올렸다
④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5-2-1 귀하가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검찰, 경찰 ③ 정화대 ④ 기타(적을 것 _____)

⑤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25-2-2 귀하가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또는 전문가)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시민사회단체 ② 언론기관 ③ 법률가 ④ 기타(적을 것 _____)

⑥ 이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25-2-3 귀하가 이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②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③ 신고절차가 복잡하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④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⑥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⑦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몰라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시정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사회시책단체 : 사회복지 주장하나 요구를 제안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체, 민권연대, 참복연대,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아시안인권문화연대 등)

25-3 귀하기 차별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외국 출신이라서
② 한국어가 미숙하여서
③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④ 기타(적을 것 : _____)

26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7 항으로 이동**

26-1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_____) 명

27 귀하께서 평소 자주 어울리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가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모국 출신 사람들	모국을 제외한 외국 출신 사람들	한국 사람들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 0으로 써주세요.

28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모국의 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는 편이다
③ 어느 정도 있다
④ 약간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29 다음은 한국에서 귀하가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립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외국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최가 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 때문에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외롭 : 자신만이 많고 기댈 곳이 못하는 상태
* 사회적 지위: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이 직업, 직업, 출신,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30 다음은 귀하의 **한국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하며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한국사람들과 모국사람을 모두 나를 귀중히 여긴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국사람이든 모국사람이든 누구와 함께 있어도 편우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국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한국사람들보다 모국사람들이 나를 더 동정*)하게 대해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한국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모국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한국인이나 모국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적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게도 한국사람이나 모국사람이나 모두 나를 편이줄이시 않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종종 한국사람들이나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동정 : 처럼하지 않고 측값이 대우하는 것

31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해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대체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치있는 사람 : 성모있고 중요한 사람

32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33 ↩ 다가시 ☆ 가구원부에서 응답한 준안상태가 그대로 보도, 수정 불가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동거*)

→ **34 항으로 이동**

33-1 **배우자(사실혼 포함)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별거 : 부부나 한쪽만 식구가 피운 떨어져 사는 상태
* 사별 : 배우자가 죽어서 더불은 상태
* 동거 :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손처럼 가치와 한집에서 사는 상태

34 귀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만원

35 ↩ 다가시 ☆ 준안상태가'사별'인 경우, ① 남편 응답 불가

귀 댁의 **주요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남편 ② 나
③ 시부모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주요 소득원 : 주로 돈을 버는 사람

36 현재 귀 댁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산다

A **연중**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기중(6월~7월) ② 여름방학(8월)
③ 2학기중(9월~11월)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⑤ 특별히 없다

B **주중(월~금)**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C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D ↩ 다가시 ☆ 가구원부에서 응답한 준안상태가'사별'이혼/별거'인 경우, (1) 남편 나오지 않음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지체가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구분	연락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성함	관계	연락처
(1) 남편	①	②	_____	남편	(___)-___-____
(2) 조사대상 자녀	①	②	_____	조사대상 자녀	(___)-___-____
(3) 조사대상 자녀를 제외한 다른 자녀	①	②	_____	(___)번째 자녀	(___)-___-____
(4) 남편과 자녀 외 다른 가구원	①	②	_____	(_____)	(___)-___-____
↩ 다가시 ☆ 다섯 항목이 모두 '불가능'인 경우만 응답					
(5) 가구원 외(친구, 동료, 지인 등)	①	②	_____	(_____)	(___)-___-____

E 귀하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 ID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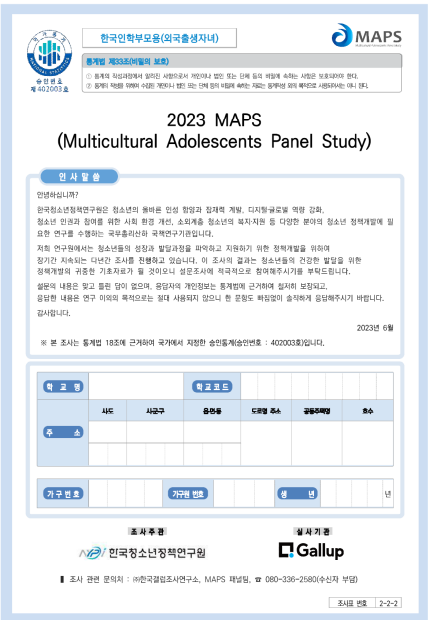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1) 이메일 주소	□ _____@_____	□
(2) 카카오톡(Kakaotalk)	□ ID(_____)	□
(3) 라인(LINE)	□ ID(_____)	□
(4) 기타(적을 것 : _____)	□ ID(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_____) - (_____) - (_____)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_____)
	조사 일시	2023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조사 진행 시, 방해 요인이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답례품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이사 계획 여부	① 있음(계획 시기 : _____년 _____월) ② 없음
	향후 패널 참여 의사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적을 것 : _____)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5. 2기 패널 설문지(외국출생자녀 한국인학부모용)



승인번호 제 402003호

한국인학부모용(외국출생자녀)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 작성을 위해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는 아니 된다.

2023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기간 지속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와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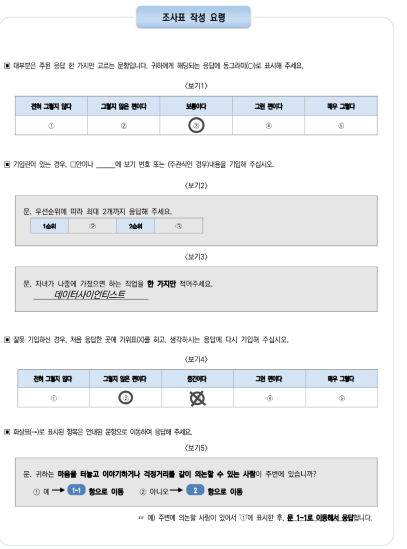
학 교 명		학 교 코 드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명	호수	
가 구 번 호		가구원 번호		생 년		년	

조 사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 사 기 관 :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2-2-2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⑤

〈보기3〉

문.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 같은 기입란인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기억표(○)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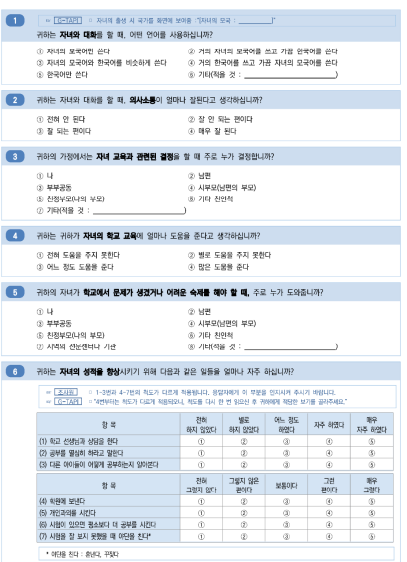
〈보기5〉

문.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예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 1-1~1-2부터 : 자녀의 출생 시 국가를 확인해 보아용 "2차시의 모국 : _____"

귀하는 **자녀와 대화**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① 자녀의 모국어만 쓴다 ② 거의 자녀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
③ 자녀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 ④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자녀의 모국어를 쓴다
⑤ 한국어만 쓴다 ⑥ 기타(작용 것 : _____)

2 귀하는 자녀와 대화을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안 된다 ② 잘 안 되는 편이다
③ 잘 되는 편이다 ④ 매우 잘 된다

3 귀하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기타(작용 것 : _____)

4 귀하는 귀하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④ 많은 도움을 준다

5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사적의 선생님나나 기관 ⑧ 기타(작용 것 : _____)

6 귀하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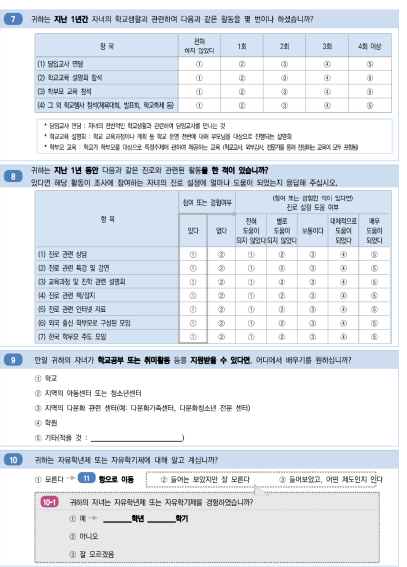
☞ 1-3부터 : 1~3번의 척도가 다르게 작용됩니다. 응답자에게 이 부분을 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1-5~1-6부터 : "4번부터는 척도가 다르게 작용되오니, 척도를 다시 한 번 읽으신 후 귀하에게 적합한 보기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별로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하였다	자주 하였다	매우 자주 하였다
(1)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학원에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과외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람이 많아야 좋소리다 더 공부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7) 사람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어디를 찾다	①	②	③	④	⑤

* 예)을 친다 : 휴대폰, 구입다

2023 MAPS | 3



7 귀하는 **자난 1년간**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담임교사 면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 설명회 참석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 교육 참석	①	②	③	④	⑤
(4) 그 외 학교행사 참석(체육대회, 발표회, 학교축제 등)	①	②	③	④	⑤

* 담임교사 면담 :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담임교사를 만나는 것
* 학교교육 설명회 : 학교 교육과정이나 계획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적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
* 학부모 교육 :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정주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교육 (학교교사, 외부강사, 선문가를 초대 진행하는 교육이 모두 포함됨)

8 귀하는 **자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활동이 조사에 참여하는 자녀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참여 또는 경험여부		(참여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관련 탁/캠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외국 출신 작부모로 구성된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한국 학부모 주도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① 학교
② 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③ 지역의 다문화 관련 센터(예: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 전문 센터)
④ 학원
⑤ 기타(작용 것 : _____)

10 귀하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 11 **항으로 이동** ② 들어는 보았지만 잘 모른다 ③ 들어보았고, 어떤 제도인지 안다

10-1 귀하의 자녀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였습니까?

① 예 → _____학년 _____학기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11-1 귀하는 자녀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한국 ② 외국

11-2 귀하의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2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13 귀하의 자녀는 첫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의 자녀가 받았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 : 학교나 다른 기관(청소년단체, 초/고단체)으로부터 무료 또는 소액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 목	13-1 지원 받은 적 있다	13-1 지원 받은 적 없다	13-2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1) 재 한국어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이중언어교육(한국어·부모 모국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과목 학습지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링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무료 방문학습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특기적성 교육(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체험(문화시설, 한국역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진학관련정보(주거지, 연극, 장학, 유학원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간식 및 체험활동(놀이공원, 짚물원, 아쿠아리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캠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학습지원(청학급, 숙학급, 학원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멀쳐 지원책, 학업을 등 물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진로*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캠프등 프로그램 :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의 어른이 자녀를 참가자로 두는 공개를 기준하거나 리더와 관련된 대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 멘토 : 진학을 1박 이상의 야외활동을 하는 것 이외 진로 상담과 강부 수석학력 중심
* 장로 : 일으로 생활에 공부됩니, 어린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

14 다음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기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기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기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의 고교의 활동(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특서활동 등) 참여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는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동갑은 방식
② 일반 한국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방식
③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되, 일정시간만 별도의 반에서 공부하는 방식
④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력 인정을 해주는 방식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6 귀하의 자녀는 **지난 1년** 동안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교육비로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정도를 아래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16-1 참여 여부 예	16-1 참여 여부 아니오	16-2 월 평균 비용	16-3 비용 부담 정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6-3 비용 부담 정도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16-3 비용 부담 정도 부담되는 편이다	16-3 비용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1)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 사교육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①	②	_____만원	①	②	③	④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관련 사교육	①	②	_____만원	①	②	③	④

* 사교육 :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교육

17 귀하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
②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③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④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⑤ 내가 바르기나 아동 폭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
⑦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⑧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
⑨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것
⑩ 기타(적을 것 : _____)
⑪ 어려운 점이 없다

18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생활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옳는한 부모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한 점을 깨닫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0** 항으로 이동

19-1 귀 댁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받으면 좋겠다
②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지원해도 상관없다

20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1** 항으로 이동

20-1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_____) 명

21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
② 이혼
③ 별거* → **24** 항으로 이동
④ 사별*
⑤ 동거*

23-1 **배우자(사실혼 포함)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별거 : 부부나 한집이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사는 상태
* 사별 : 배우자가 죽어서 이별한 상태
* 동거 : 부부가 혼인 성리기 위무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사는 상태

24 귀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만원

25 (2-1)로 이동 =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① 남편 응답 불가

귀 댁의 **주요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남편 ② 나
③ 시부모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주요 소득원 : 주로 도움 주는 사람

26 현재 귀 댁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산다

A **연중**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기중(3월~7월) ② 여름방학(8월)
③ 2학기중(9월~11월)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⑤ 특별히 없다

B **주중(월~금)**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C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D ☞ 다음 문항에서 응답한 응답대상자(자녀)/귀하(보호자)인 경우, (1) 남은 나오지 않음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자녀가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구분	연락 가능	연락 불가능	성함	관계	연락처
(1) 남편	①	②		남편	(__)-(____)-(____)
(2) 조사대상 자녀	①	②		조사대상 자녀	(__)-(____)-(____)
(3) 조사대상 자녀를 제외한 다른 자녀	①	②		(__)번째 자녀	(__)-(____)-(____)
(4) 남편과 자녀 외 다른 가구원	①	②		(_____)	(__)-(____)-(____)
☞ 다음 문항에서 모든 응답자인 경우에만 물어봄 (5) 가구원 외(친구, 동료, 지인 등)	①	②		(_____)	(__)-(____)-(____)

E 귀하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 ID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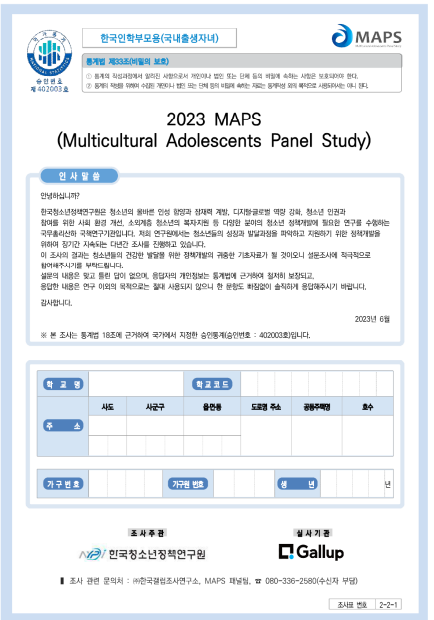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1) 이메일 주소	□ _____@_____	□
(2) 카카오톡(Kakaotalk)	□ ID(_____)	□
(3) 라인(LINE)	□ ID(_____)	□
(4) 기타(적을 것 : _____)	□ ID(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 ) - ( ) - ( )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조사 일시	2023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조사 진행 시, 상황 요인이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답례품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이사 계획 여부	① 있음(계획 시기 : _____년 _____월) ② 없음
	향후 패널 참여 의사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적을 것 : _____)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5. 2기 패널 설문지(국내출생자녀 한국인학부모용)



한국인학부모용(국내출생자녀)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 작성을 위해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승인번호 제 402003호

2023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정책적 개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기간 지속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학 교 명		학교코드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명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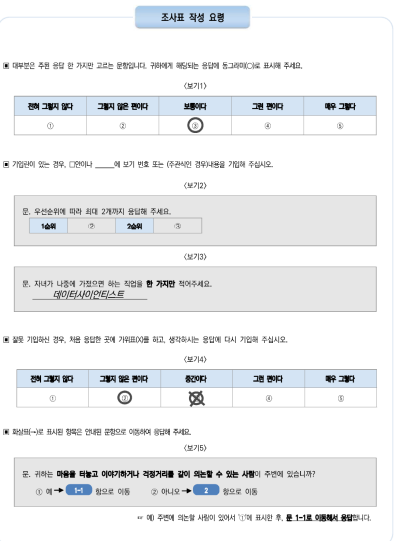
가구번호		가구원 번호		생 년		년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기관 Gallup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2-2-1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⑦	2순위	⑤

〈보기3〉

문.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 질문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⑦	⊠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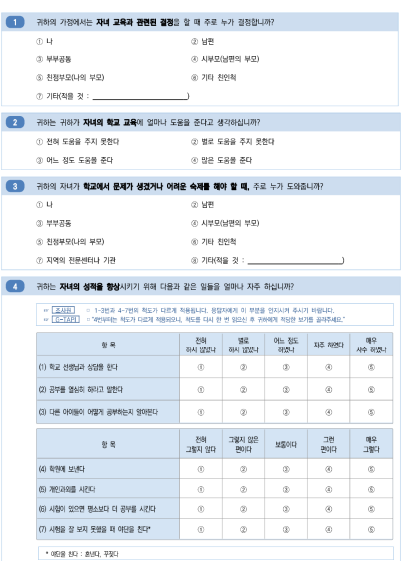
〈보기5〉

문.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예)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귀하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기타(적을 것 : _____)

2 귀하는 귀하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④ 많은 도움을 준다

3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지역의 전문센터나 기관 ⑧ 기타(적을 것 : _____)

4 귀하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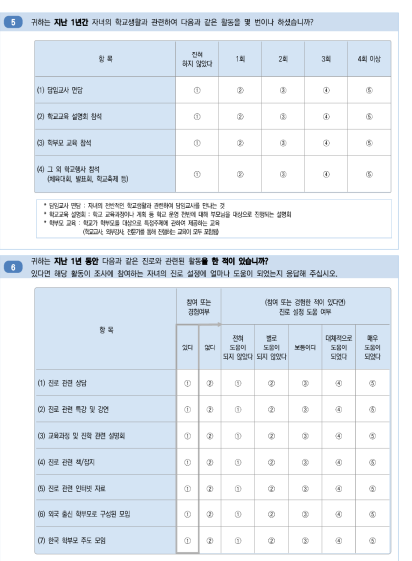
☞ [조사원] ⇨ 1-2번과 4-7번의 척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응답자에게 이 부분을 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귀하부터는 척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척도를 다시 한 번 읽으신 후 귀하에게 적당한 보기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나	별로 하지 않았나	어느 정도 하였나	자주 하였다	매우 사주 하였나
(1)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학원에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과외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시험이 있으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7)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친다*	①	②	③	④	⑤

* 예단을 친다 : 혼내다, 꾸짖다

2023 MAPS | 3



5 귀하는 **지난 1년간**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담임교사 면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 설명회 참석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 교육 참석	①	②	③	④	⑤
(4) 그 외 학교행사 참석 (체육대회, 발표회, 학교축제 등)	①	②	③	④	⑤

* 담임교사 면담 :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담임교사를 만나는 것
* 학교교육 설명회 : 학교 교육과정이나 제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
* 학부모 교육 :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수주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교육
(직업교육, 양육태도, 진로지원 등의 전문적인 교육이 모두 포함됨)

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활동이 조사에 참여하는 자녀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참여 또는 경험여부		(참여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확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 및 진로 관련 설명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관련 체험활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직업 관련 학부모 구성원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해외 출신 학부모 주도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① 학교
② 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③ 지역의 다문화 관련 센터(예: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 전문 센터)
④ 학원
⑤ 기타(적을 것 : _____)

8 귀하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 **9** **항으로 이동** ② 들어보았지만 잘 모른다 ③ 들어보았고, 어떤 제도인지 안다

8-1 귀하의 자녀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였습니까?

① 예 → _____**학년** _____**학기**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9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 **10** **항으로 이동**

9-1 귀하는 자녀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한국 ② 외국 → **10** **항으로 이동**

9-2 귀하의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0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11 귀하의 자녀는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의 자녀가 받았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 : 학교나 다른 기관(청소년단체, 종교단체)으로부터 무료 또는 소액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 목	11-1 지원받은 적 있다	11-1 지원받은 적 없다	11-2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 됐다	별로 도움 안 됐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 됐다	매우 도움 됐다
(1) 자녀 한국어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이중언어교육(한국어+부모 모국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과목 학습지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링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무료 방문학습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특기적성 교육(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정체성함양교육(예절, 한국역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견학 및 체험활동(놀이공원,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캠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현금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용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물품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진로*프로그램(군부대,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멘토링 프로그램 : 고등학생, 대학생, 자격이 어른이 자녀를 장기적으로 만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진로와 관련한 다양 한의 활동을 하는 것
* 캠프 : 1박일 1박 이상의 여러활동을 하는 것(ex 진로 캠프인 경우 1박2박을 뜻함)
* 진로 : 장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

12 다음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우월집받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의 교내외 활동(취업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도서활동 등) 참여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
② 일반 한국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방식
③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되, 일정시간만 별도의 반에서 공부하는 방식
④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상담하여 학력 인정을 해주는 방식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4 귀하의 자녀는 **지난 1년** 동안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교육비로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정도를 아래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14-1 참여 여부 예	14-1 참여 여부 아니요	14-2 월 평균 비용	14-3 비용 부담 정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4-3 비용 부담 정도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14-3 비용 부담 정도 부담되는 편이다	14-3 비용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1) 교과(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 사교육(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①	②	_____만원	①	②	③	④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관련 사교육	①	②	_____만원	①	②	③	④

* 사교육 :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교육

15 귀하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
②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③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④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⑤ 내가 비번개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송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
⑦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⑧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
⑨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것
⑩ 기타(적을 것 : _____)
⑪ 어려운 점이 없다

16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앞들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8** **항으로 이동**

17-1 귀 댁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받으면 좋겠다
②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지원해도 상관없다

18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9** **항으로 이동**

18-1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_____) 명

19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대체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1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
② 이혼 → **22** 항으로 이동
③ 별거 → **22** 항으로 이동
④ 사별 → **22** 항으로 이동
⑤ 동거

21-1 **배우자(사실혼 포함)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별거 : 부부나 한쪽은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사는 상태
* 사별 : 배우자가 죽어서 이별한 상태
* 동거 :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사는 상태

22 귀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만원

23 ☞ Q-TAPI = 응답상대가 '사별'인 경우, ① 남편 응답 불가

귀 댁의 **주요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남편
② 나
③ 시부모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주요 소득원 : 주로 돈을 버는 사람

24 현재 귀 댁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산다

A **연중**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기중(6월~7월)
② 여름방학(8월)
③ 2학기중(9월 ~ 11월)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⑤ 특별히 없다

B **주중(월~금)**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C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D ☞ Q-TAPI = 가구원부에서 응답한 응답상대가 '사별/이혼/별거'인 경우, (1) 남편 나오지 않음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제3자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구분	연락 가능	연락 불가능	성함	관계	연락처
(1) 남편	①	②	_____	남편	(___)-(___)-(___)
(2) 조사대상 자녀	①	②	_____	조사대상 자녀	(___)-(___)-(___)
(3) 조사대상 자녀를 제외한 다른 자녀	①	②	_____	(_____)번째 자녀	(___)-(___)-(___)
(4) 남편과 자녀 외 다른 가구원	①	②	_____	(_____)	(___)-(___)-(___)
☞ Q-TAPI : (1)~(4) 중에서 연락 불가능인 경우만 응답					
(5) 가구원 외(친구, 동료, 지인 등)	①	②	_____	(_____)	(___)-(___)-(___)

E 귀하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 ID를 알려해 주십시오.
*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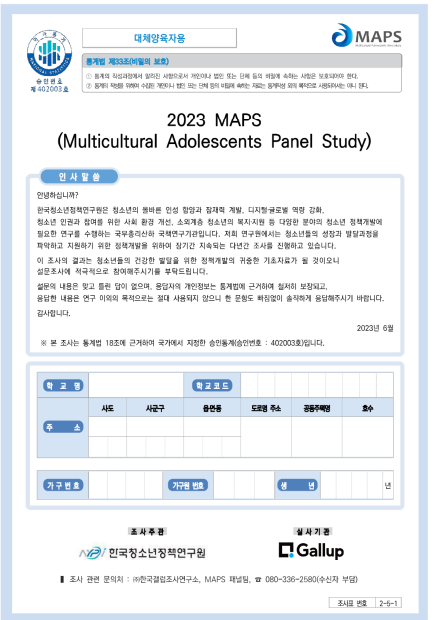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1) 이메일 주소	□ _____@_____	□
(2) 카카오톡(Kakaotalk)	□ ID(_____)	□
(3) 라인(LINE)	□ ID(_____)	□
(4) 기타(적을 것 : _____)	□ ID(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_____) - (_____) - (_____)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_____)
	조사 일시	2023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답례품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이사 계획 여부	① 있음(계획 시기 : _____년 _____월) ② 없음
	향후 패널 참여 의사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적을 것 : _____)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6. 2기 패널 설문지(대체양육자용)



대체양육자용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 작성을 위해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는 아니 된다.

승인번호 제 402003호

MAPS

2023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와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학 교 명		학 교 코 드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명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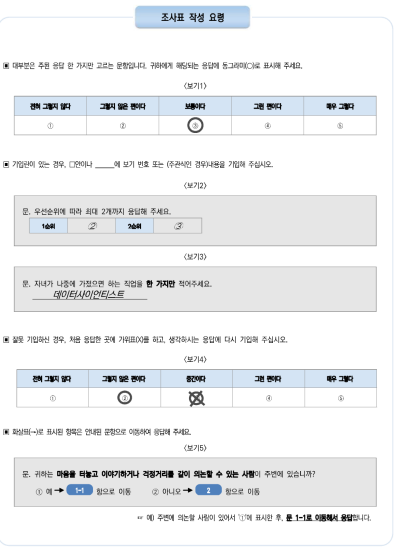
가 구 번 호		가구원 번호		생 년		년

조 사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 사 기 관 :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2-5-1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③

〈보기3〉

문. 지내가 나중에 가장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 질문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기워표(X)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보기5〉

문.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예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 복수응답 ※ **조사대상 청소년이 응answer답한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① 조사대상 청소년의 모국어만 쓴다
② 거의 조사대상 청소년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
③ 조사대상 청소년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
④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조사대상 청소년의 모국어를 쓴다
⑤ 한국어만 쓴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2 ☞ 단수응답 ※ **조사대상 청소년이 응answer답한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과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안 된다
② 잘 안 되는 편이다
③ 잘 되는 편이다
④ 매우 잘 된다

3 귀하의 가정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① (조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
② (조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
③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공동
④ (조사대상 청소년의) 친조부모
⑤ (조사대상 청소년의) 외조부모
⑥ (조사대상 청소년의) 기타 친인척
⑦ 기타(적을 것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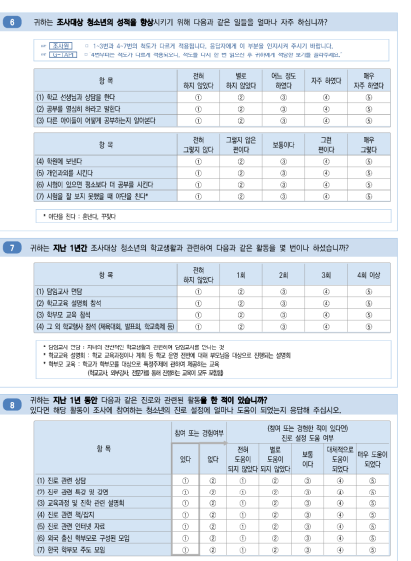
4 귀하는 귀하가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④ 많은 도움을 준다

5 조사대상 청소년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① (조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
② (조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
③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공동
④ (조사대상 청소년의) 친조부모
⑤ (조사대상 청소년의) 외조부모
⑥ (조사대상 청소년의) 기타 친인척
⑦ 지역의 전문센터나 기관
⑧ 기타(적을 것 : _____)

2023 MAPS | 3



6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복수응답 ※ 1-3번과 4-7번의 척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응답자에게 이 부분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5번~7번은 역도가 '4번과 역방향으로, 역도를 다시 한 번 읽으면 주 귀하에게 역방향 보기를 응answer답합니다.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별로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하였다	자주 하였다	항상 자주 하였다
(1)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함께해 하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어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학원에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과외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람이 있으면 청소보다 더 공부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7) 사람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어디를 친다*	①	②	③	④	⑤

* 어디를 친다 : 손바닥 꾸짖다

7 귀하는 **지난 1년간**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담임교사 면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 설명회 참석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 교육 참석	①	②	③	④	⑤
(4) 그 외 학교행사 참석 (예체제, 발표회, 학교축제 등)	①	②	③	④	⑤

* 담임교사 면담 : 학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담임교사를 만나는 것
* 학교교육 설명회 : 학교 교육과정이나 계획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
* 학부모 교육 :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정주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교육
(학교나 지역단위 전문기관 등에 진행하는 교육이 모두 포함됨)

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활동이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참여 또는 경험여부		(참여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직무 관련 특강 및 강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관련 동아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외국 출신 학부모로 구성된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원국 학부모 주도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 만일 조사대상 청소년이 **학교공부 또는 야외활동** 등을 **자원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① 학교
② 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③ 지역의 다문화 관련 센터(예: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 전문 센터)
④ 학원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0 귀하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 **11 항으로 이동** ② 들어본 보았지만 잘 모른다 ③ 들어보았고, 어떤 제도인지 안다

10-1 귀하의 자녀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였습니까?

① 예 → _____학년 _____학기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11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11-1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이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한국 ② 외국 → **12 항으로 이동**

11-2 조사대상 청소년이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2 조사대상 청소년이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13 조사대상 청소년은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조사대상 청소년이 받았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 : 학교나 다른 기관(청소년단체, 종교단체)으로부터 무료 또는 소액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 목	13-1 지원받은 적 있다	13-1 지원받은 적 없다	13-2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 된다	별로 도움 안 된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1) 한국어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이중언어교육(한국어+부모 모국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복 하নন지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링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무료 방문학습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특기적성 교육(음악, 미술, 체육, 수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체험(문화체험, 한국역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문화공연관람(공직필,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견학 및 체험활동(놀이공원, 놀동원, 이주다리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캠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통합 지원(복, 학용품 등 물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진로·취업교육(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관련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멘토링 프로그램 : 고등학생, 대학생, 지역의 어른이 자기를 청기적으로 만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대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 캠프 : 1박로 1박 이상의 야외활동을 하는 것 (수 주로 열리는 경우 (1주)박째 묵음)
* 진로 : 앞으로 직업과 관련있는 여러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

14 다음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가기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 (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비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의 교육의 활동(자원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특색활동 등) 참여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
② 일반 한국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방식
③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되, 일정시간만 별도의 반제처 공부하는 방식
④ 나보통가족 사녀들이 나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력 인정을 해주는 방식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6 조사대상 청소년은 **지난 1년** 동안 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교육에도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정도를 아래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16-1 참여 여부: 예	16-1 참여 여부: 아니오	16-2 월 평균 비용	16-3 비용 부담 정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는 편이다	부담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된다
(1) 교과학(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 시교육(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①	②	_____만원	①	②	③	④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관련 시교육*	①	②	_____만원	①	②	③	④

* 시교육 :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이서 하는 교육

17 귀하가 조사대상 청소년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조사대상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
②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③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④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⑤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조사대상 청소년을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
⑦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⑧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
⑨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것
⑩ 기타(적을 것 : _____)
⑪ 어려운 점이 없다

18 다음은 귀하가 조사대상 청소년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유능한 양육자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양육자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한 점을 깨닫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양육자의 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양육자 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0 항으로 이동**

19-1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받으면 좋겠다
②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지원해도 상관없다

20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1 항으로 이동**

20-1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_____명

21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3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동거*

* 별거 : 부부나 한쪽은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사는 상태
* 사별 : 배우자가 죽어서 이별한 상태
* 동거 :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함께에서 사는 상태

24 조사대상 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만원

25 조사대상 청소년 가정의 **주요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조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
② (조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
③ (조사대상 청소년의) 친조부모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주요 소득원 : 주로 돈을 버는 사람

26 조사대상 청소년 가정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산다

A **연중** 조사대상 청소년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기중(9월~7월)
② 여름방학(8월)
③ 2학기중(8월~11월)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⑤ 특별히 없다

B **주중(월~금)**에 조사대상 청소년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C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에 조사대상 청소년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D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자녀가 조사대상 청소년,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구분	연락 가능 여부		성함	관계	연락처
	가능	불가능			
(1) 조사대상 청소년	①	②		조사대상 청소년	(___)-(____)-(____)
(2) 조사대상 청소년의 형제, 자매	①	②		조사대상 청소년의 (_____)	(___)-(____)-(____)
(3) 그 외 다른 가구원	①	②		(_____)	(___)-(____)-(____)
※ 참고사항 ○ (1)~(3) 중에서 모두 '불가능'인 경우는 없음					
(4) 가구원 외(친구, 동료, 지인 등)	①	②		(_____)	(___)-(____)-(____)

E 귀하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 ID를 알려해 주십시오.
*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있음	없음
(1) 이메일 주소	□ _____@_____	□
(2) 카카오톡(Kakaotalk)	□ ID(_____)	□
(3) 라인(LINE)	□ ID(_____)	□
(4) 기타(적을 것 : _____)	□ ID(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_____) - (_____) - (_____)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조사 일시	2023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조사 진행 시, 상황 묘사의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질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답례품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이사 계획 여부	① 있음(계획 시기 : _____년 _____월) ② 없음
	향후 패널 참여 의사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적을 것 : _____)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활용논문 리스트[21)]

1) 학위논문

(1) 박사학위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강유선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과 발달산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강해순	2023	잠재 혼합된 다문화 특성 유형에 따른 초국적 이주자 자녀의 진로 요소 차이와 가지 경로 분석	경상국립대학교
고경란	2023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명대학원대학교
곽은정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에 따른 잠재집단분류: 영향요인 탐색 및 집단에 따른 진로결정성 차이	성결대학교
김관숙	2022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 사회적 위축과 다문화수용성 매개효과 및 생활환경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김서정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적응특성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김수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김영성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칼빈대학교
김정랑	2021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 장벽이 진로준비성과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김평화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김효선	2020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박경미	2019	Child well-being in Korea	KDI 대학원
박동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 우울의 종단적 분석: 성장혼합모형과 인과적 전이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순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박지수	2020	Challenges and adjustment of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성균관대학교

21) 패널 활용 보고서 리스트는 이전 보고서(양계민 외, 2022 등)에서 2023년 결과물을 업데이트 한 것임.

이름	연도	제목	학교
박혜경	2022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진로 지지가 자녀의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 활동과 진로 준비 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명지대학교
서은경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손한결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오동균	2022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제주국제대학교
오세비	2019	어머니의 문화통합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오혜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책개선 연구	총신대학교
우안순	2020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유경숙	2023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적응 영향 요인 분석	충북대학교
유혜영	2023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한세대학교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공동운명모형(CFM)을 적용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이덕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대한신학대학교
이은정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연세대학교
이현주	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한양대학교
장미영	2023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광주대학교
장선아	2021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장은애	2021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발달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계명대학교
장은지	2020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동아대학교
장지현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부산대학교
전종순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정두수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정인숙	2022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지지가 진로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	신한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차한솔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및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호운운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및 언어적응 영향요인 연구	충북대학교
홍성원	202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황희봉	2023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및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성취동기 사이의 종단적 관계	경기대학교

(2) 석사학위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강다영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을 통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강연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학교진로교육참여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사이버대학교
구자민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문화적응 요인의 영향 차이: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김령	2022	다문화어머니의 동화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연구	중앙대학교
김민수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중다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김병욱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소희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숭실대학교
김슬기	2020	(The) Effect of Family Soci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서울대학교
김예은	2022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언어능력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김유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김정란	2022	다문화여성의 문화적응과 진로지지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건강과 부모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가야대학교
김주의	202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김현진	2021	Understanding the key factors associated with well-being and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 South Korea	이화여자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김혜령	2021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녀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김효경	2023	'다문화' 시대의 정체성 형성: 이주배경청소년의 문화수용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김효원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 수준에 따른 심리정서 발달 및 학교성적의 차이	전북대학교
남상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문유진	202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민예지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경미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적 변인과 비다문화적 변인 분석	한남대학교
박다은	2022	청소년의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갤버그-앤더슨 모델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유강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박지원	2023	다문화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박진현	2023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배가령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번효범	202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개인, 부모,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보금로	2022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송현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신연주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신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왕예비	2020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라대학교
우영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서요인, 부모진로지지, 자아존중감, 진로장벽과 진로태도결정성과의 구조적관계	가야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유가환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자본 잠재프로파일유형과 진로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유승현	2022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육주홍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경험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윤빛나	2019	또래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윤수민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윤예린	2020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대한 다문화멘토링 사업 효과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이기수	202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역량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공주교육대학교
이마무 마이얼하바	2023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이미화	2020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신체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동신대학교
이민지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학습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이선민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이아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이은화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이지혜	2021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심리적 변인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이현녕	2022	다문화 가정 모(母)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울산대학교
이현정	2020	다문화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이혜니	2022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종단적 매개효과 분석	중앙대학교
임미정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임정소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임준	2022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 매개효과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임지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정주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부산대학교
제렌람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조강현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조명훈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동국대학교
조수빈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숭실대학교
조연	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조은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집단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충북대학교
최은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학업적응 차이	연세대학교
최은지	2021	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최점순	2022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최지예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외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남대학교
최지원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허은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정서요인, 성취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구조적 관계	가야대학교
허차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Cui, Lina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GANBAATAR SANSARTUYA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친구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신대학원 대학교
Ghafary, Abdullatif	2022	Impact of parent's country on wellbe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Using Korea National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HAY MAN HNIN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관련요인 연구	경희대학교
Kang, Lei	2021	Effect of 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on Adolescent's School Score	경희대학교
Li, Ling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OTGON NARANGEREL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신대학원 대학교
SOR, SREY NICH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2) 학술논문

(1) 국내 학술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강다영, 강현아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을 통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4(4)
강민구, 박상희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주 사용언어에 미치는 다문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30(1)
강민구, 박상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요인 분석	인문사회21, 12(6)
강하라	2021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 양육행동을 매개로 초기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강하라, 노충래	2021	중학생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외모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강해순, 김현옥, 김소형	2022	다문화적 특성의 혼합분포군집 유형에 따른 초국적 이주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요소 분류예측 - 혼합분포군집분석과 CARET 중심 -	한국사회복지학, 74(1)
강희경	2019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 진로 지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2)
경예나, 박선영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녀진로태도 간의 관계: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2(2)
고은선, 김성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2
고은선, 전한성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종단관계 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학부모연구, 8(1)
고한나, 호효정, 박용한	2023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교우관계 간의 종단적 상호 인과관계	교육심리연구, 37(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곽은정, 이수경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에 따른 잠재집단분류 및 계층별 영향요인과 집단별 진로결정성 차이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곽지영	2020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5
구자민, 윤희선, 이상록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구 빈곤이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구하라, 모경환, 성상환	2020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도 및 참여유형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6(5)
권민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체육특기적성활동 참가와 교우관계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권성연, 김윤겸	202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국제사회, 7(4)
권성연, 신소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인,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평생교육 · HRD 연구, 18(3)
권성연, 천지은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응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0(8)
권혁준, 서종한	2022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1)
김경선, 오유경	2023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다문화학생의 교사 –학생 관계 인식 영향요인 탐색	교육과학연구, 25(1)
김기영, 고은선	2018	다문화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식과 요인 분석	교육혁신연구, 28(1)
김도원, 문인수	2022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영향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8(3)
김동순, 박봉선, 이의빈, 손가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4
김동욱, 장근호, 조민효	202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인식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3(3)
김미리, 김유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장벽 인식: 부모지지와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0)
김미진, 김경은	2021	중등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군집유형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1)
김민선	2019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 변화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8(4)
김민선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변화와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7(1)
김민수	2023	다문화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다중가산조절효과	현대사회와 다문화, 13(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민수, 하수경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중다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11(1)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김상용	202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자녀의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사회과학리뷰, 7(1)
김서정	2021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다문화청소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화와 영향요인	교육학연구, 59(1)
김선미	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지역정책연구 33(1)
김성수, 안도희	2023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3)
김소영, 홍세희	2019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이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조사연구, 20(3)
김수미, 김현옥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2016년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 이용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3)
김영미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육아정책연구, 14(2)
김영미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 가족 소득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김영미, 현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49
김영배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한국어 사용 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6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김원영, 김경식	2020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김원영, 정나은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김원영, 정나은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탐색	교육연구논총, 41(4)
김유미, 황예린	2021	다문화 학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 다문화 학부모의 진로지지와 자녀의 진로장벽 인식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0(4)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윤이	202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진로 태도 성숙, 진로 장벽 인식 예측모형 탐색	진로교육연구, 35(4)
김윤정, 이진향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다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종단적 교우관계 발달	청소년학연구, 27(9)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족지지 및 한국어 능력과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경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김은경, 조대연, 정윤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다집단분석	교육문화연구, 28(4)
김은혜, Cui, Lina, 노충래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다집단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8
김은혜, 최려나, 노충래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한국아동복지학, 70(3)
김자경, 오혜정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진로결정성, 진로장벽 인식의 관계: 이주여성 어머니의 진로 관련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3(1)
김재남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10)
김정은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김준범, 박성훈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1
김중곤	2020	집단 괴롭힘 피해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차별적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8(2)
김중곤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피해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 ·심리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4)
김중곤	2022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발달의 성 차이	한국범죄학, 16(2)
김지형	2022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상태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61)
김지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김진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요인과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3)
김진영	2022	학업중단위험요인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진영, 이유진	202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김철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
김철희, 문선혜, 송진영	2023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1)
김철희, 송진영, 문선혜, 정선화	2023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방임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김춘경, 조민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김태균	2021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3)
김태은, 함승환	2021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변용 전략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종단분석	다문화와 평화,15(3)
김평화, 윤혜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김해인, 최은영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주류사회의 영향 :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34(1)
김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관련 변인의 군집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과 신체 및 삶의 만족도 차이	현대사회와 다문화, 10(4)
김형희, 김용섭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5)
김형희, 전종순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4)
김혜경, 어윤경	2021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진로장벽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진로활동, 성별, 지역의 개인차 효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김혜금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김혜금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 만족도와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종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9)
김혜미, 권태연	202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2)
김혜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다문화수용성이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12(1)
김효경, 서찬석	2022	집단괴롭힘 경험이 다문화 배경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희찬	2023	다문화청소년 무단결석과 비행경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30(3)
김희찬, 전구훈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무단결석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정서 차이: 자아존중감, 우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6)
김희찬, 최성헌	2023	다문화청소년의 무단결석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30(2)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외모만족도와 한국어능력의 종단적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노보람, 최나야	2020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31(4)
노필순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부모관심,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8)
딩징야, 진미정	2019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 내 교육참여, 공적 교육 지원, 사교육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류도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 성취동기,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성의 구조 분석	재활심리연구, 28(4)
류도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9(3)
맹미숙, 천미정, 정영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4)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4
목소리, 서보림, 정재경, 강민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문유진, 박승곤, 문성호	202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0(5)
문희정, 김은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학교적응, 진로장벽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4(4)
민예지, 강현아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2)
민장배, 송진영	2023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방임적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2)
박경미	2019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1(4)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융합정보 논문지, 9(9)
박동진, 김송미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 연구, 21(3)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보건과 복지, 23(1)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9(2)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1(8)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8)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	교육과학연구, 23(3)
박동진, 김송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우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7(3)
박동진, 김송미	2023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4(1)
박동진, 김송미, 박경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5)
박동진, 김송미, 이지연,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박동진, 신택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그리고 우울로 이어지는 인과적 전이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9(7)
박동진, 이수진, 김송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인문사회21, 13(4)
박동진, 이지연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청소년 학회지, 16(3)
박명희	2017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 연구, 10(4)
박미현, 김희숙, 김린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초기 자아 탄력성과 연도별 친구관계 지지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3)
박민아, 한명희, 서지영	202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2(2)
박봉환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4(1)
박선숙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79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선숙	2022	다문화 청소년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관련 변인 연구	미래사회, 13(1)
박선우, 정제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8(1)
박송주, 이보라	2021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군집과 고교진학 유형 차이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2(3)
박순진, 백진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5)
박여주	2022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 생활 적응도가 자녀들의 비행과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탐구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2)
박여주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종단 연구: 부모/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1)
박여주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 피해와 다각적 요인 연구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7(1)
박영준, 박진현	202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4)
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박유강, 권선주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7(1)
박일태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2)
박정심, 박수원, 이아람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성취동기 및 진로결정성의 종단적 상호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19(1)
박정윤, 박현지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박정윤, 채지은, 조몽적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2)
박준호, 성용은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변용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18(3)
박지나	2023	다문화가정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6(1)
박지나	2023	아시아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부모효능감 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활동의 구조관계연구	아시아여성연구, 62(2)
박지수, 김하영, 한윤선	2021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유형별 예측요인: 긴장이론, 사회유대이론 및 사회학습이론의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23(1)
박현주, 양영자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혜숙	202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지각된 한국어 수준(한국어 효능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1)
박혜숙, 양상희	2017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양상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박혜숙, 전명남	2022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9(6)
박희서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6(12)
박희서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6(11)
배선희, 손은령	2022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영향요인 분석	교육학연구, 60(6)
백성은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방임적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4(3)
백성은, 조상현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문화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2)
백승희, 박소영, 정혜원	2018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정	교육학연구, 56(1)
백예은, 정혜원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주요 설명 변인 탐색: 랜덤포레스트와 SHAP을 적용하여	교육학연구, 61(5)
백종규, 염동문	2018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보금로, 장영은	202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9)
봉초운, 정윤화, 홍세희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3)
서봉언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비행 참여요인 탐색	현대사회와 다문화, 9(2)
서현석, 김태균	2020	가족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효학연구, 31
성윤희, 장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손선옥, 민원홍	2022	다문화 가정 부모의 가정 기반과 학교 기반 교육 관여 행동이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경로: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11)
손신영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3)
손은영, 서호찬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4)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손한결, 김은혜,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성취동기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8(4)
손한결, 신나나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 영향	청소년학연구, 27(12)
송원일	202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적 역할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6(3)
송은, 임동선	2020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에 따른 군집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신소영, 권성연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구조관계분석	평생학습사회, 18(1)
신소영, 권성연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 적응 간 구조관계 분석	인문사회 21, 14(3)
신연주, 이경순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5(3)
신예지, 전성은, 강영신	2023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의 발달궤적: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6(2)
신택수, 강윤아	2023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한 다문화 청소년 우울의 종단적 변화유형 탐색: MplusTrees 기법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20(2)
심령	2020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들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안혜우, 엄명용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융합적 대응방안 모색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11(6)
안혜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양계민	2016	종단연구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3)
양영미, 이선영	2020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4)
양영미, 조성심, 이선영	202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 및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관계: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1)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잠재집단별 자녀의 진로, 심리, 학업 특성 차이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연은모,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9)
연은모, 최효식	2020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탐색: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연은모, 최효식	2020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 추정 및 예측요인 탐색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연은모,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잠재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3)
연은모, 최효식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 변화에 대한 개인, 부모, 학교 변인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연은모, 최효식	2022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0)
염동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양상과 변화양상별 영향요인	복지상담교육연구, 8(2)
염동문, 임채영, 김한솔	2019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잠재프로파일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 35(3)
오동균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중등교육연구, 67(3)
오서진	2021	가족,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8차)를 중심으로	여가복지경영연구(여가복지), 2(1)
오성배, 이유정	2023	지역규모별 다문화학생의 학교진로교육경험이 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 탐색	역량개발학습연구, 18(2)
오세현, 민예지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외모만족도와 우울감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오정아, 이영주, 김평화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모형 탐색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6)
오혜경, 고미숙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 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3)
오혜정, 손병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학교생활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우안순, 백진아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우인경, 이창배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5)
유두호, 최정윤	2022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지역규모별 분석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4(1)
유수정, 송현주, 박다윤, 황연재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3(2)
유승현, 조성희	2022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6(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유승희	2020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1)
유승희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14(1)
유승희	2020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5)
유승희, 최충	2020	중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궤적과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3)
유지애	2020	자녀 학교생활 중개인(broker)으로서의 다문화가정 어머니 역할에 대한 검토-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학교생활 참여가 자녀 학습활동, 어머니 한국어 능력, 어머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2)
유지후, 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1(10)
유지희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양육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3
유창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유형	다문화사회연구, 13(3)
유혜영, 백진아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20(10)
유혜영, 백진아	202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3)
유효은, 이원기,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피해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1)
윤미리, 장유나, 홍세희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직렬 다중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윤예린, 오범호	2020	다문화멘토링 사업 참여가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31(4)
윤은영	201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2)
윤지영, 허은정	2017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윤현희, 김나영	2021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변화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다문화교육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6)
윤형덕, 임준, 김태균,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가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효학연구, 3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윤홍주	2023	다문화청소년의 최초 비행요인에 대한 비연속시간 생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4)
윤홍주, 최효식	201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른 방임 및 자녀의 학업성취 차이: 성장혼합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2)
윤홍주,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2)
윤홍주, 최효식	2021	다문화 가정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변화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장벽 차이	한국산학기술논문지, 22(11)
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0(2)
이강훈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아동교육, 28(4)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공동운명모형(CFM)을 적용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68(1)
이경원	2021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한국가족복지학, 26(2)
이기수, 원성준	2023	다문화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9(3)
이나라, 조영일	2023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사회과학연구, 49(1)
이동욱	2022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진로 장벽의 영향요인: Smart PLS-SEM 접근을 이용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9)
이래혁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감독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1
이래혁	202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스트레스硏究, 30(2)
이래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진로교육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어머니의 진로지지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4(3)
이래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60)
이래혁, 이재경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동기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습태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을 통한 친구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7(3)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6
이래혁, 장혜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교우관계와 사회적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래혁, 장혜림	2021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이래혁, 채황석, 오채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성취동기의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9
이래혁, 최홍일	2020	다문화가정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2)
이미화, 최진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신체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11
이민솔, 문국경	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의 관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이민솔, 박성철	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을 조절변수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이보영	2021	어머니의 진로 관련 지지 행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진로 교육 및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태도를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8(6)
이상무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의도 영향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9(10)
이상미	2022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Self-Perception and Relational Aspects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이상은, 최나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경험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9(1)
이상진, 장인실	2023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다문화와 평화, 17(2)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이수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 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예측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이수경	202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영향요인 탐색및 집단에 따른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차이	인문사회 21, 13(6)
이수민, 문찬주	2022	다문화 학부모의 문화적응 유형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8(4)
이승현, 황성현	2021	다문화청소년 비행에 대한 범죄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2), 187-210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5)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4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과 선정요인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3(1)
이원석	2019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4
이유리, 김춘경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와 친구지지의 병렬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5)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3(1)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3(1)
이윤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2)
이윤정	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이은경, 이선희	2019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에 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6)
이은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예측요인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4가지 언어 사용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중심으로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5(2)
이응택, 이은경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4(4)
이응택, 장여옥	2023	초기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20(2)
이종훈, 김주섭	2022	다문화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장벽, 다문화 청소년의진로태도 준비성 간 구조관계	인문사회 21, 13(4)
이주실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보, 4(2)
이주실	2022	균형적 이중언어구사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커밍스(J. Cummins)의 이중언어이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2)
이지선, 김정민	2021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및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이지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 국가정체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학교사회복지, 48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지우, 노길희	2023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 및 사회적 위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4(3)
이지택, 유승현	2023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심리적 건강인식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0(5)
이진경, 김혜미	2019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비교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1(2)
이진경, 이혜정	2019	이중언어요인과 이중문화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이진석, 장대연, 최선아	2020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6
이진선, 강영숙, 오종철	2021	다문화정책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다문화정책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41(4)
이창현, 최나연	202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심리적 건강에 대한 종단연구	문화와 융합, 45(3)
이창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2(2)
이현,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분류 예측요인 탐색 연구 – 잠재프로파일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이현주, 차윤경	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이주배경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1)
이형하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4)
이형하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진로 · 양육지원과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5)
이형하	2021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와 사회관계의 다중매개효과 및 성별 다집단분석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이형하	2021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간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적용	디지털융복합연구, 19(6)
이형하	202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성취동기 간 종단적 상호효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1)
이형하	2023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형과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8(3)
이혜니, 조강원	2023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9)
이혜미, 김유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 성취동기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희정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한국사회학, 52(1)
인효연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임동선, 김선영, 김성진, 김소은, 양윤희	2021	다문화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언어 능력 종단분석: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6(1)
임동선, 김지애, 오수진, 조수정, 박원정	2021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 사용이 학생 및 부모요인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30(1)
임동선, 백수정, 김송이, 한지윤	2020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 및 사회적지지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임미정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상담연구, 6(1)
임선아	2018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학교적응 : 자아탄력성과 도움을 주는 어른의 보호역할 검증	아동과 권리, 22(2)
임숙희, 이진경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	인문사회21, 12(5)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3)
임양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8(6)
임양미	2020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및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 상호 영향 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임양미	2021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장벽인식에 미치는 영향: 진로지원행동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임유진	2022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4(1)
임은의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10(11)
임은의, 박미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태도와 교육관여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4)
임은의, 박미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관계: 자존감의 조절효과	다문화와 평화, 15(2)
임정수	2021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4(3)
임준, 김태균	2022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8(2)
임효진, 황매향, 최희철	202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아동 · 청소년기 자기존중감의 다중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장매림, 송하나	2023	다문화 청소년의 또래 지지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저소득 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30(6)
장선아, 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적 지지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
장유나, 오현정, 안소영, 홍세희	2020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6(4)
장유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	글로벌교육연구, 11(4)
장은실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대한 종단분석 : 우울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장은애, 정현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발달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9(2)
장은애, 정현희	2022	다문화가정 초기 청소년의 문화정체성 잠재프로파일과 예측요인	청소년 문화포럼, -(72)
장은지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장은지	2021	이주배경청소년 학업성취 관련 요인의 지역 간 구조적 모형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
장혜림, 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
장혜림, 이래혁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가족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0(1)
전대성	2021	이민의 역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전영화, 정민자	202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0)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6(10)
전혜숙, 전종설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및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전혜원, 차유정, 장현석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 발달궤적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17(2)
정경림, 김선미, 윤상용	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	GRI 연구논총, 24(4)
정나은, 김원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위축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정나은, 김원영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정두수, 백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집단따돌림 및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 논문지, 10(10)
정두수, 백진아	2023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21(6)
정상수, 김정미	2022	청소년의 휴대폰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정은아, 이소자	2021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학업적응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4)
정재훈, 황성현, 박희균	2021	다문화청소년 비행 및 범죄와 범죄친구와의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3)
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정향미, 박공주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	사회융합연구, 7(1)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2(3)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3)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역사회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8(2)
조성희, 박소영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정책지원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조수빈, 진재찬, 유서구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2(2)
조승연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6
조연, 손은령	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9)
조영미, 조강원, 임영식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방임이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4)
조영선, 조영일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집단에 대한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성	인문사회21, 10(5)
조영선, 조영일, 박수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3)
조옥선, 방해순	2018	융복합 시대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정보 논문지, 8(4)
조옥선, 석말숙	2021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사회・환경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융합연구, 19(6)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조윤영	2023	다문화 청소년 국가정체성과 자아존중감 종단적 변화양상 및 영향요인 :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2)
조윤영, 정현희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따른 잠재계층 전이 양상 및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8(1)
조은정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2(2)
조정은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분석을 통한 음악교육의 방향	음악교육공학, -(51)
조헌하, 강정미, 정유진	2022	다문화 어머니의 자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 스트레스 모형 적용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3(1)
조현지, 김춘경	202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
조혜영, 오민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관계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주선영	2023	부모양육행동이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체성의 매개효과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인문사회 21, 14(2)
주소희, 오인근, 안세진	2021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구: 사회적위축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지영섭	2022	다문화청소년의 최초 비행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학교사회복지, -(60)
차한솔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스트레스, 사회적위축,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28(10)
천지은, 박지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사회적질연구, 5(2)
최가희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효능감에 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최려나, 노충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직렬다중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3(4)
최미선, 김연옥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21세기 사회복지연구, 17(1)
최선엽	2021	Factors influencing positive subjective health awarenes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7(4)
최소연	2021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인문사회과학연구, 64(4)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최원미, 김우진	2022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한국어능력 발달에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12(2)
최정석, 최석규	2020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5)
최정윤, 유두호	2021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가정체성 형성: 주변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8(2)
최지예, Ui Jeong Moon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외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2)
최지원, 한윤선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승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탐구	청소년복지연구, 23(3)
최태진	2019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연령 변화에 따른 사회적지지 요인의 변화 분석 및 사회적지지 잠재집단 유형과 심리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31(6)
최태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에 관한 연구 : 어머니 자신의 적응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8)
최효식	202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 요인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최효식, 연은모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에 대한 부모감독,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래관계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최희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업 적응을 매개로	다문화교육연구 15(1)
캉리, 최나야, 강소연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소수언어 구사수준: 이중문화 수용태도, 부모의 교육적 지원, 부모-자녀 간 소수언어 사용도의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4)
하여진	2021	다문화 청소년 지지유형 분류 및 인지·정서발달 차이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효과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4(3)
하여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 잠재계층 유형분류 및 자녀 특성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6)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3(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하여진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 인식수준에 따른 잠재집단분류 및 진로태도 차이분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3)
하영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21, 10(6)
하영진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37(2)
한광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8(1)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스트레스 과정 모델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7(1)
한광현, 강상경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1)
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 탐색	교육문화연구, 26(3)
한지은, 최윤철	2022	이주 배경 아동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인문사회 21, 13(2)
한지혜, 김경희	2020	부모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64(1)
함현진	2022	다문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융합연구, 6(5)
허나영, 김두섭	2021	Am I "Korean"?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n National Identity and Dual Identity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한국인구학, 44(1)
허무녕, 김춘경	2022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검증	다문화교육연구, 15(2)
호효정, 박용한, 고한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초등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2)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 연구, 8(2)
홍민주, 이주연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교육혁신연구, 33(2)
홍성초, 조제성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발달궤적의 차이 검증	한국치안행정논집, 17(4)
홍성초, 조제성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유형별 범죄이론 영향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홍진승, 이영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직렬이중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7(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홍현정, 안도희	2021	다문화 가정의 배경 특성과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 교우관계, 학교 적응 및 삶의 만족도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황희봉, 주은선	202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지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2)
황희봉, 주은선	2023	부모지지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 국가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5(1)
Choi, So-Yun	2021	Effects of Parental Support, Bicultural Acceptance, and Self-Esteem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9(4)
Jung, Hoyong	2020	An Examination of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Identity of Parents and Children: Evidenc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OMNES, 10(2)
Kim Jae-Nam	2022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e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11)
Kim, Eun Hye, Nho, Choong Rai	2020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4(3)
Lee, Hyoung-Ha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4(11)
Park, Jisu	2022	Acculturation trajectories of South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immigrant mothers and its association with adolescent adjustment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6(1)
WU YILE, 안도희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 사회적 유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2) 해외 학술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Bae, Sung M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ling.	Stress and Health, 36(1)
Bae, Sung M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74
Cha, Hyo Sung, Kwon, Mi Young	2022	Changes in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Iran J Public Health, 51(11)
Cho, Yoon-Hee, Lee, Joohyun	2023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School-Aged Children with Vietnamese Immigrant Mothers in Korea	Healthcare, 11(17)
Choe, Chung, Yu, Seunghee	2022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n ecological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2(1)
Choe, Chung, Yu, Seunghee	2022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n ecological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2(1)
Choe, Danbi	2021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st child neglect,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dropout risk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112
Choi, Jaeyong, Kruis,Nathan, Lee,Julak	2021	Target Congruence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Risk of Bullying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y Youth in South Korea	Crime & Delinquency
Choi, Sunyeob	2023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statu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analysis of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hild Health Nurs Res, 29(1)
Jang, Sou Hyun, Kim, Juyeon	2023	Stress or Buffer: The Impact of Social Transnational Ties on Depressive Mood and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25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Jeon, HyeSook	2022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career barri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 among South Korea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2(2)
Jeon, HyeSook	2022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career barri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 among South Korea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2(2)
Joung, Kyoung Hwa, Chung, SungSuk	2022	Factors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38(2)
Joung, Kyoung Hwa, Chung, SungSuk	2022	Factors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Nurses, 38(2)
Jung, Hoyong	2020	I am a Real Korea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Multicultural Youth's National Identity	Asian Studies Review, 44(4)
Kang, Minkyung, Min, Ari, Min, Haeyoung	2022	Predict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in South Korea: Role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5
Kang, Minkyung, Min, Ari, Min, Haeyoung	2022	Predict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in South Korea: Role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5
Kim, Eunjoo, Song, Min Kyung	2022	Profiles of Social Capital and the Association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A Latent Profile Analysi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Kim, Eunjoo, Song, Min Kyung	2022	Profiles of Social Capital and the Association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A Latent Profile Analysi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Kim, Hyemee, Han, Kwanghyun, Won, Seojin	2023	Perceived Discrimination as a Critical Factor Affecti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Physical Appearance and Depression of Racial/Ethnic Minority Adolescents in Korea	Behavioral Sciences, 13(4)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Kim, Soo Mi, Kim, Hyeon Ok	2022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equent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 Using the 2016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3)
Lee, Eun Jee, Jeong,Sookyung	2021	Analyzing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7)
Lee, Hyeyeon, Lee, Hyeonkyeong, Kim, Youlim, Lee, Mikyung, Park, Chang Gi	2022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 random 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el for 3-wave panel dat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7
Lee, Hyeyeon, Lee, Hyeonkyeong, Kim, Youlim, Lee, Mikyung, Park, Chang Gi,	2022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 random 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el for 3-wave panel dat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7(4)
Lim, Yangmi	2023	School and Bicultural Factors as Mediators between Immigrant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and Adolescents' Depression in Korea	Children 10(6)
No, Boram, Kang, Sujeong, Lee,NamKyung, Choi, Naya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rajectories of Ego-resilience, Neglectful Parenting, Bilingual Competenc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Sustainability, 12(5)
Oh, Hyejeong, Kim,Jinho	2021	Affective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The cas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29
Park, HyunJee, Park, Gum-Ryeong, Kim, Jinho	2023	A longitudinal study of immigrant mothers' destination-language proficiency and their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and mechanisms from a study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337
Park, Jisu, Han, Yoonsun	202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Korean and heritage language proficienci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maladjustment among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94(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Park, Si-On, Bae, Sung-Man	2021	The verification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Current Psychology
Seo, Ji Yeong, Park, Min Ah, Han, Myeung Hee	2022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Change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Using a Linear Mixed Model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33(3)
Song, Min Kyung, Yoon, Ju Young Kim, Eunjoo	2020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Longitudinal Analysi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1)
Yoo, Changmin	2021	Acculturation strategies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in South Korea: Marginalization, separatio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1

3) 학술대회

(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MAPS 학술대회)」

이름	제목
김기영, 고은선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내용·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김남희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김민주, 윤기봉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김양희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김우진, 심태은, 정지아, 이송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김원영, 김경식	사회적 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김준범, 박성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이름	제목
박명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박애스더, 김두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2011-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박용한, 이신동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박혜숙, 양상희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백승희, 박소영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백종규, 염동문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봉초운, 정윤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서봉언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오정아, 한애경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유봉애, 옥경희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화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
윤지영, 허은정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
이소연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이응택, 이은경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이희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효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임선아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장주리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정민아, 김은혜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정호용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옥선, 방해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현주, 하영진	다문화청소년의 심라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이름	제목
한애경, 김평화, 오정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홍나미, 박현정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2) 외부학술대회

이름	연도	제목	학술대회
김미희, 최가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집단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8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2018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두예슬	2022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통계청 논문 공모전
신형진	2017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사회화 유형: 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분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이은지, 정수경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 영향요인 비교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이현정	2022	다문화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8)
이형하, 김지선, 김지원, 송현경, 최은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위축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이형하, 라연희, 송현주, 용정이, 윤정희	2019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6
장은애, 정현희	2020	다문화가정 초기청소년의 문화정체성 잠재프로파일과 영향요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장혜연, 송하나	2022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또래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11)
조정래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가시적 소수자 특성은 학교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 다문화 청소년의 외모적 차이와 그 영향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12
한광현	2019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

이름	연도	제목	학술대회
한도현, 안명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
Eunjoo, Kim, Min Kyung, Song	2021	Social Capital and Depressive Symptom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 A Latent Profile Analysis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21(10)
Minah, Park, Myeunghee, Han, Jiyeong, Seo	2021	A longitudinal study on affecting factors self-esteem of multicultural adolescent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21(10)

4) 기타 연구보고서

이름	연도	제목	보고서명
김경근	2019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9
정은별, 김지은, 김지현, 박수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21
조승연	2020. 08.14.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결정 요인 분석.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의용 논문 W50

Abstract

국문초록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현상은 점차 사회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다문화인구는 꾸준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확대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은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변화의 폭이 더욱 크다. 이와 같은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종단조사를 시작하였고, 2019년 새롭게 2기패널을 구축하여 종단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종단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자료구축과 자료분석의 두 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우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1기 패널 유지조사, 2기 패널 5차년도 추적조사)함으로써 근거기반 정책수립 및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기와 2기 패널로 구성해 운영하는 종단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구축한 자료의 관리 및 공개를 진행하였다. 또한, 데이터 설명회와 청소년정책 포럼 등을 개최하여 자료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다음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여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선행연구, 종단조사와 면접조사, 정책자료 등을 분석함으로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어를 비롯한 학업 및 진로,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다. 학교공부의 어려움은 초-중 전환기에 가속화되며, 학교성적의 급락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인 정체성과 진로발달 간 연관이 있었으며, 한국사회 포용성 인식과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연관성이 드러났다. 더구나, 어머니의 학교 참여도 이전보다 낮아지는 특징이 있어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초-중 전환기 가족과 친구 관계, 학업, 진로 탐색 및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증대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법과 공공정책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 및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법령에 따라 적용범위가 상이하여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법령은 어려움을 지원의 근거로 설정하고 있어 사후적 지원에 집중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제적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고려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원활한 초-중 전환기 이행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4가지 원칙(① 선제적 지원, ② 다차원적 지원, ③ 차별없는 지원, ④ 지속가능한 지원)을 설정하고 총 5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세부과제는 기존 정책의 개선 차원과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의 활용 차원으로 구분된다. 기존 정책의 개선으로 제안한 과제는 징검다리 과정 개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개선,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제도 개선이며, 신규 도입이 예정된 정책의 활용 차원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과 진로연계학기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Korean society, multiculturalism is gradually taking root across various sector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multicultural population has steadily increased, and diversity has expanded. Multicultural youth, in particular, undergo even greater changes alongside shifts in demographic structures.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and societal demands,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NYPI) initiated a longitudinal survey target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starting with the first panel of four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2011 and extending to the second panel established in 2019. NYPI has also conducted research to address these societal changes.

This research is an extension of such studies, progressing along two axes of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regarding multicultural youth.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establish foundational data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multicultural youth (maintaining the first panel and conducting the fifth-year follow-up survey for the second panel). The goal was to provide a basis for evidence-based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To achieve this goal, longitudinal surveys were conducted with the first and second panels, and efforts were made in managing and publicizing the existing data. Additionally, activities such as data explanation sessions and youth policy forums were organized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e data.

Furthermore, the study aims to outline policy directions to alleviate the challenges faced by multicultural youth during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forms of data. By conducting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z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we strive to understand their challenges and difficulties. The results reveal that multicultural youth encounter difficulti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academic performance, career developmen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and social relationships during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in Korea. These challenges are often closely linked to language (Korean) proficiency. Additionally, a noteworthy decrease in mothers' involvement in school activities was observed, suggesting an increased risk of challenges for multicultural youth during the transition, particularly in term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academic pursuit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their future careers.

In conclusion, the study envision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the smooth transition of multicultural youth during the childhood to adolescence period, grounded in four principles: ① Proactive Support, ② Multidimensional Support, ③ Non-discriminatory Support, ④ Sustainable Support. Additionally, the study proposes a total of five specific tasks, categorized into improvements to existing policies and the utilization of newly introduced policies.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헌·장근영·신인철·임성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시민권과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헌·장근영·신인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헌·김나영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헌·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헌·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헌·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23.9.12.)

〈 워 크 숍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 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 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인 쇄 2023년 12월 23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18-0 94330
979-11-5654-417-3 (세트)

연구보고 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94330
9 791156 544180
ISBN 979-11-5654-418-0
ISBN 979-11-5654-417-3(세트)